

CONTENTS

I . 면접의 이해와 준비	1
1. 면접의 이해	1
2. 면접의 준비	8
II . 2020학년도 대학별 면접 사례	17
- part 1. 일반대학 면접 사례	17
- part 2. 지역 의대 / 교육대학 / 특수대 면접 사례	105
- part 3. 서류 기반 면접 사례 -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선발전형)	157
- part 4. 서류 기반 면접 사례 - 서울대학교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	221
- part 5. 제시문 기반 면접 사례	265
■ 찾아보기(학과별)	297

part 1. 일반대학 면접 사례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page
가천대학교	자연	의용생체공학과	학생부종합 (바람개비1)	17
가천대학교	자연	의용생체공학과	학생부종합 (바람개비1)	20
가천대학교	자연	전기공학과	학생부종합 (바람개비1)	22
건국대학교	자연	축산식품공학과	학생부종합 (KU자기추천)	23
건국대학교	자연	기계항공공학부	학생부종합 (KU자기추천)	24
건국대학교	자연	전기전자공학과	학생부종합 (KU자기추천)	25
경기대학교	인문	관광이벤트학과	학생부종합 (KGU학생부종합)	27
경기대학교	인문	경찰행정학과	학생부종합 (KGU학생부종합)	28
경희대학교	자연	물리학과	학생부종합 (네오르네상스)	30
광운대학교	자연	화학공학과	학생부종합 (광운참빛인재)	31
고려대학교	인문	행정학과	학생부교과 (학교추천1)	34
고려대학교	자연	바이오의공학부	학생부종합 (학교추천2)	35
고려대학교	인문	경제학과	학생부종합 (학교추천2)	39
고려대학교	자연	건축사회환경공학과	학생부종합 (학교추천2)	41
고려대학교	자연	기계공학과	학생부종합 (학교추천2)	42
고려대학교	자연	전기전자공학부	학생부종합 (일반전형)	43
고려대학교	자연	건축학과	학생부종합 (일반전형)	45
고려대학교	인문	사학과	학생부종합 (일반전형)	46
동국대학교	자연	전자전기공학부	학생부종합 (Do Dream)	48
동국대학교	인문	경찰행정학부	학생부종합 (Do Dream)	49
서울시립대학교	인문	경제학부	학생부종합 (학생부종합)	50
성신여자대학교	자연	바이오식품공학과	학생부종합 (학교생활우수자)	52
성신여자대학교	인문	경영학과	학생부종합 (자기주도인재전형)	53
송실대학교	자연	전기공학부	학생부종합 (SSU미래인재전형)	55
송실대학교	자연	화학공학과	학생부종합 (SSU미래인재전형)	56
연세대학교	자연	생명공학과	학생부종합 (황동우수형)	59
연세대학교	자연	생명과학기술학부	학생부종합 (교과면접전형)	62
이화여자대학교	인문	역사교육과	학생부교과 (고교추천전형)	63
인하대학교	자연	기계공학과	학생부종합 (인하 미래인재)	64

대 학 명	계 열	모 집 단 위(학과)	전 형(세 부 전 형)	page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문	인도어과	학생부종합 (학생부종합)	65
전남대학교	자연	간호학과	학생부종합 (지역인재)	69
전남대학교	자연	간호학과	학생부종합 (고교생활우수자전형)	71
전남대학교	자연	식품영양과학부	학생부종합 (지역인재)	72
전남대학교	자연	원예생명공학과	후계농업경영인전형	73
전남대학교	자연	전기공학과	학생부종합 (지역인재전형)	74
전남대학교	자연	화학공학부	학생부종합 (지역인재)	75
전남대학교	인문	역사교육과	학생부종합 (지역인재)	76
전남대학교	자연	지구과학교육과	학생부교과 (농어촌 교과)	78
전남대학교	자연	화학교육과	학생부교과 (농어촌 교과)	79
조선대학교	자연	간호학과	학생부종합 (일반 전형)	80
목포대학교	자연	간호학과	학생부종합 (지역인재)	81
목포대학교	자연	융합소프트웨어학과	학생부종합 (지역인재)	84
목포대학교	자연	건축공학과	학생부종합 (일반 전형)	85
목포대학교	자연	화학과	학생부종합 (일반 전형)	86
목포대학교	자연	미래사회공학부	학생부종합 (지역인재)	87
순천대학교	인문	일반사회교육과	학생부교과 (일반사회교육과)	88
순천대학교	자연	간호학과	학생부종합 (SCNU 지역인재)	89
전북대학교	자연	환경공학과	학생부종합 (큰사람 전형)	90
군산대학교	자연	소프트웨어융합공학과	학생부종합 (새만금인재)	92
군산대학교	자연	환경공학과	학생부종합 (새만금인재)	93
원광대학교	자연	간호학과	학생부종합 (광주전남 지역인재)	94
전주대학교	인문	행정학과	학생부종합 (일반학생)	95
전주대학교	인문	예술심리치료학과	학생부종합 (일반학생종합)	96
공주대학교	인문	일반사회교육과	학생부교과 (일반전형)	97
공주대학교	인문	국어교육과	학생부교과 (일반전형)	98
공주대학교	인문	영어교육과	학생부종합 (일반전형)	99
공주대학교	자연	간호학과	학생부종합 (기회균형)	101
인천대학교	자연	전기공학과	학생부종합 (자기추천)	103
차의과학대학교	자연	바이오공학과	학생부종합 (농어촌전형)	104

part 2. 지역 의대 / 교육대학 / 특수대 면접 사례

대 학 명	계 열	모 집 단 위(학과)	전 형(세부전형)	page
전남대학교	자연	의예과	학생부종합 (지역인재)	105
제주대학교	자연	의예과	학생부교과 (일반학생)	108
조선대학교	자연	의예과	학생부교과 (일반전형)	110
원광대학교	자연	의예과	학생부종합 (종합전형)	112
원광대학교	자연	한의예과	학생부종합 (지역인재)	115
경인교육대학교	인문/자연	초등교육과	학생부종합 (교직적성)	116
경인교육대학교	인문/자연	초등교육과	학생부종합 (저소득학생)	119
경인교육대학교	인문/자연	초등교육과	학생부종합 (농어촌학생)	120
공주교육대학교	인문/자연	초등교육과	학생부교과 (성적우수자)	122
광주교육대학교	인문/자연	초등교육과	학생부종합 (전남인재)	124
광주교육대학교	인문/자연	초등교육과	학생부종합 (전남인재)	127
광주교육대학교	인문/자연	초등교육과	학생부종합 (전남학교장)	130
광주교육대학교	인문/자연	초등교육과	학생부종합 (전남학교장)	132
전주교육대학교	인문/자연	초등교육과	학생부교과 (성적우수자)	134
전주교육대학교	인문/자연	초등교육과	학생부교과 (농어촌학생)	136
춘천교육대학교	인문/자연	초등교육과	학생부종합 (교직적인성)	138
춘천교육대학교	인문/자연	초등교육과	학생부종합 (교직적인성)	141
국군간호사관학교	인문/자연	-	학생부종합 (일반전형)	145
광주과학기술원	자연	기초교육과학부	학생부종합 (학교장추천)	148
울산과학기술원	자연	이공계열	학생부종합 (일반전형)	152
경찰대학	인문/자연	법학과	일반전형	154
해군사관학교	인문/자연	-	일반전형	156

part 3. 서류 기반 면접사례 -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선발전형)

대 학 명	계 열	모 집 단 위(학과)	전 형(세부전형)	page
서울대학교	자연	건설환경공학부	학생부종합 (지역균형)	157
서울대학교	인문	경영대학	학생부종합 (지역균형)	159
서울대학교	인문	경제학부	학생부종합 (지역균형)	162
서울대학교	자연	기계항공공학부	학생부종합 (지역균형)	165
서울대학교	인문	농경제사회학부	학생부종합 (지역균형)	167
서울대학교	예체능	디자인학부	학생부종합 (지역균형)	170
서울대학교	자연	물리천문학부 물리학전공	학생부종합 (지역균형)	174
서울대학교	사범	사회교육과	학생부종합 (지역균형)	175
서울대학교	인문	사회학과	학생부종합 (지역균형)	178
서울대학교	자연	생명과학부	학생부종합 (지역균형)	180
서울대학교	자연	식물생산과학부	학생부종합 (지역균형)	181
서울대학교	자연	식품영양학과	학생부종합 (지역균형)	183
서울대학교	인문	심리학과	학생부종합 (지역균형)	185
서울대학교	사범	역사교육과	학생부종합 (지역균형)	187
서울대학교	사범	영어교육과	학생부종합 (지역균형)	190
서울대학교	자연	응용생물화학부	학생부종합 (지역균형)	192
서울대학교	자연	의예과	학생부종합 (지역균형)	195
서울대학교	인문	인류학과	학생부종합 (지역균형)	200
서울대학교	인문	인문계열	학생부종합 (지역균형)	202
서울대학교	-	자유전공학부	학생부종합 (지역균형)	205
서울대학교	인문	정치외교학부	학생부종합 (지역균형)	206
서울대학교	자연	조선해양공학과	학생부종합 (지역균형)	210
서울대학교	인문	지리교육과	학생부종합 (지역균형)	212
서울대학교	예체능	체육교육과	학생부종합 (지역균형)	214
서울대학교	자연	치의학과	학생부종합 (지역균형)	216
서울대학교	자연	컴퓨터공학부	학생부종합 (지역균형)	217
서울대학교	자연	화학생물공학부	학생부종합 (지역균형)	219

part 4. 서류 기반 면접 사례 - 서울대학교 (기회균형선발특전형 I)

대 학 명	계 열	모 집 단 위(학과)	전 형(세부전형)	page
서울대학교	자연	간호대학	학생부종합 (기회균형)	221
서울대학교	자연	건축학과	학생부종합 (기회균형)	224
서울대학교	자연	기계항공공학부	학생부종합 (기회균형)	226
서울대학교	인문	농경제사회학부	학생부종합 (기회균형)	228
서울대학교	자연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학생부종합 (기회균형)	231
서울대학교	자연	산림과학부	학생부종합 (기회균형)	234
서울대학교	자연	생명과학부	학생부종합 (기회균형)	237
서울대학교	자연	생물교육과	학생부종합 (기회균형)	239
서울대학교	자연	수학교육과	학생부종합 (기회균형)	241
서울대학교	자연	식물생산과학부	학생부종합 (기회균형)	243
서울대학교	인문	역사교육과	학생부종합 (기회균형)	246
서울대학교	자연	우주항공공학부	학생부종합 (기회균형)	248
서울대학교	자연	응용생물화학부	학생부종합 (기회균형)	249
서울대학교	인문	인문계열	학생부종합 (기회균형)	252
서울대학교	-	자유전공학부	학생부종합 (기회균형)	254
서울대학교	자연	전기·정보공학부	학생부종합 (기회균형)	255
서울대학교	인문	정치외교학부	학생부종합 (기회균형)	257
서울대학교	자연	조선해양공학과	학생부종합 (기회균형)	261
서울대학교	자연	통계학과	학생부종합 (기회균형)	262
서울대학교	자연	화학생물공학부	학생부종합 (기회균형)	264

part 5. 제시문 기반 면접 사례

[illegible]

1. 면접의 이해

가. 면접의 정의

1) 면접이란?

- 면접은 서류에 드러나지 않는 지원자의 가치관, 태도, 지원동기, 지식수준, 품성, 전공적합성, 논리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다.
- 면접평가는 크게 두 가지 형식으로 제시문 기반 면접과 서류(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 기반 면접으로 구분된다.
 - 제시문 기반 면접은 주어진 제시문(도표, 그래프 포함 가능)을 이해하고, 이에 기반을 두어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논리적으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지원자의 논리적 사고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 서류 기반 면접은 학교 활동을 바탕으로 추출한 다양한 질문을 통해 전공 적합성 또는 인성, 창의적 사고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면접이다.
- 면접고사에 지원하는 학생은 자신의 지원 전공에 대한 탐색을 바탕으로 가치관, 인생관, 진로 목표를 명확히 가져야 어떤 면접 질문에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 면접고사 준비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지원자가 평소에 학교나 가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환경과 기회를 자주 갖고, 교사, 친구,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피드백을 받으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 면접고사 관련 용어

- 서류확인면접: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 내용을 확인하는 면접
- 학업역량면접: 지원자의 학업능력과 수준 등을 평가하는 면접
- 출제문항면접: 대학이 사전에 출제한 문항을 통해 지원자를 평가하는 면접
- 구술면접: 특정 문제를 출제하여 그에 대한 답변을 말로 확인하는 면접 유형
- 인·적성면접: 지원자의 인성, 품성, 가치관, 전공적합성 등을 평가하는 면접으로
교직 인·적성면접, 의대 인·적성면접이 대표적임.
- 심층면접: 지원자의 자질과 역량을 보다 세밀하고 심층적으로 살피는 면접. 인성
뿐만 아니라 수학능력, 창의력, 전공 적합성, 자질, 기본상식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

2) 면접 출제 방식

- 일반 면접은 단순 질문형 면접으로 학생에게 단답식의 질문을 던지고 이것에 대한
직접적이고 즉시적인 응답을 요구하는 유형이다. “우리 대학의 지원동기는?”,
“자신의 꿈이 뭐가?”,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경험이 무엇인가?” 등이다.
- 제시문 기반 면접은 심층 면접으로 미리 제시문이나 문제 자료와 학교에 따라
메모지와 준비할 시간을 준다. 어떤 학교는 4~5줄의 짧은 글을 여러 개 제시하고
그것에 따른 문제가 따로 출제된다. 한 마디로 축소된 논술 유형이라 볼 수 있다. 이
유형은 학생들의 텍스트 이해능력과 논리적 사고력, 가치관,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확인하는 데 용이하다. 따라서 평소 글로 쓰는 논술 문제를 말로 풀어
답하는 방식도 심층면접을 준비하는 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3) 면접 질문 영역

가) 공통영역

(1) 기본 소양 문제

대학 및 학과 지원 동기, 대학 생활 계획(학업 계획, 학업이외 계획), 자기소개, 세부전공 계획, 대학 진학에 대한 열의, 대학 졸업 후 진로 및 장래 희망, 지원 학과의 적성 부합 정도, 고교 생활에 대한 평가, 학생부의 비교과 영역 기록 내용(자격증,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수상, 출결), 기본 질문(생활신조, 좌우명, 취미, 특기, 귀교의 특성이나 자랑거리 현재 살고 있는 곳이나 고향의 특성, 제출서류 내용질문)

(2) 시사성 문제

시사성 문제를 가지고 인성, 가치관,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등을 측정한다.

나) 전공영역

전공영역 질문은 수험생에게는 부담이 되는 질문으로 꽤 깊이가 있다. 주로 서류 기반 면접에서 학과, 전공 관련 활동, 교과 세특 등과 관련해 깊이 있는 답을 요구하는 꼬리 물기 질문을 하는 경우와 제시문 기반 면접에서 전공영역을 평가하기 위한 구술 면접을 실시한다. 따라서 전공 관련 분야에 대해 꾸준한 관심과 준비가 있어야 한다. 전공과 관련있는 고등학교 교과 내용을 반드시 깊이 있게 정리하고, 추가적으로 전공 관련 개론서를 1~2권 이상 읽어두면 좋다.

(1) 전공 기초 지식 및 전공 소양 문제

(가) 전공 기초 지식

고등학교에서 배운 전공 관련 기초 지식을 얼마나 갖추었는지를 간단한 질문을 통하여 측정한다. 추가 질문 없이 문제를 제시하고 간단히 답하는 형태이다. 인문계는 시사·영어·사회·국어 쪽의 단순한 문제가 출제되고, 자연계는 수학·과학 쪽의 간단하고 단순한 문제가 출제된다. 대학 전공 지식의 깊이 있는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는다.

(나) 전공 소양 문제

전공 소양 문제란 대학에서 배우는 전공지식을 물어보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깊이 있는 전공지식이 아니라 전공의 내용이나 전공에 대한 이해 정도를 측정하는 문제이다.

(2) 전공 심화 지식 문제

(가) 인문계

주로 영어, 사회, 국어 쪽의 문제가 많다. 특히 영어 지문을 읽고 해석한 뒤 요점 파악과 지문 내용을 가지고 연속적인 추가 질문을 계속하는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다. 시사와 결합된 문제도 많이 출제된다.

(나) 자연계

주로 수학, 과학 쪽의 문제가 많다. 일부 대학에서는 영어 문제까지 출제된다. 특히, 수학과 과학 문제를 설명하면서 풀고, 중간 중간 면접관이 추가질문을 연속적으로 하는 형태를 취하는 대학도 있다.

(3) 시사 + 전공 소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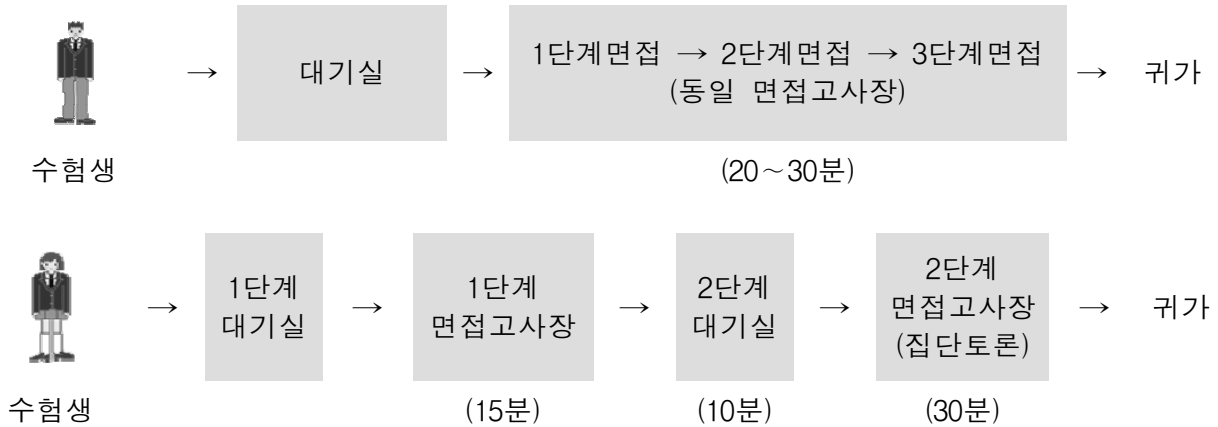
전공 관련 시사 문제에 대해 문제 해결 능력을 질문하거나 어떤 시사 문제에 대해 전공 측면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많이 질문한다. 특히 인문계열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다.

4) 최근 대입 면접고사 트렌드

- 2020학년도 많은 대학은 면접고사를 제시문 기반 면접이 아닌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학생부 확인 면접, 인성면접으로 치르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수험생의 학생부를 보고 ‘초등학생 멘토링 봉사활동을 꾸준히 수행하였다. 초등학생들에게 멘토링을 봉사활동으로 제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해당 초등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은 무엇이었나?’와 같이 제출 서류의 내용을 토대로 질문을 한 것이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사전에 본인의 제출 서류를 토대로 예상 질문을 만들어 보고 이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것으로 면접 대비를 할 수 있다.
- 대학에 따라서는 제시문 기반의 심층 구술 면접이 치러지기도 한다. 매년 3월 말 각 대학은 ‘선행학습 영향평가보고서’를 발표한다. 대학은 논술과 면접 등의 대학별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를 평가하여, 공교육 정상화의 취지에 역행하지 않고자 노력한다. 이 보고서는 기출문제, 출제의도 및 근거, 참고 문헌, 문항 해설, 채점 기준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 대학별 고사를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2020학년도의 인문계열 면접고사의 키워드는 ‘불평등’, ‘정의’, ‘인간’, ‘사회’, ‘공감’이었다. 이러한 키워드와 관련된 연관 개념은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과목에 주로 등장한다, 그러므로 인문계열 면접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면접을 준비하면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과목의 기초 개념을 다질 필요가 있다, 또 이런 키워드는 시사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출제되기도 하니 수험생들은 틈틈이 뉴스를 살피며 시사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지는 것이 좋다.
- 융합형 인재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대학의 학생 선발에 있어서도 드러난다. 인문계열 학생도 자연과학 기술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자연계 학생 역시 인문학, 윤리학적 사고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대학별 고사에 있어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나. 면접의 방법과 유형

1) 면접의 진행 절차



면접의 일반적 절차는 대기, 호출, 입실, 면접, 퇴실의 순서로 진행한다. 면접 시 면접자가 점수를 부여할 때 후광 효과를 배제하기 위하여 학생은 접수번호와 별개의 면접 번호를 부여받고 면접 대기실에서 대기한다. 면접 번호는 수험 번호와 관계가 없으며, 면접자가 수험 번호와 연결시키지 못하도록 입학시험 관리자가 관리한다. 면접 대기실에서 대기하다 조교가 면접 번호에 따라 호명하면, 면접실로 들어간다. 이어 정해진 면접 내용과 면접 절차에 따라 면접을 실시하게 된다. 면접이 끝나면 퇴실과 함께 모든 면접이 끝나게 된다. 면접 내용의 누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면접을 실시한 학생과 면접을 실시하게 될 학생들은 서로 만나지 않게 한다.

면접의 질문을 통해 나타난 지원자의 인성, 가치관, 태도, 지식력, 정보력, 잠재능력을 평가한다. 수시면접은 확인면접과 역량평가면접, 심층면접이 있다. 확인면접은 기본소양면접과 일반면접을 포함하고 있으며, 역량평가면접은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심층면접은 구술면접을 통해 학업적성 과정을 중시하여 평가하며 면접 방법에 따라 개별면접과 집단면접, 발표면접, 토론면접, 영어면접 등으로 세분화된다.

2) 면접방식

- 개별면접: 보통 면접관 2~3인이 학생 한 명을 평가하는 면접으로서 가장 흔한 일반적인 형태의 면접방식이다. 면접시간은 대체로 10~15분이 소요된다. (서류평가 확인 및 개인역량 살핌)
- 다대일면접: 지원자 1명에 면접관 2~3명 정도
- 다대다면접: 면접관 3명 정도, 지원자 2명 정도 면접 참여
- 발표, 집단면접, 영어면접(영어특기자 전형 실시대학)

3) 확인 면접(기본소양, 일반면접)

- 지원자가 제출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일부 대학 요구) 등의 기록물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지원자의 가치관과 의사소통능력, 학업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예1) 서류에 ‘과학탐구 논문 소개가 있고, 지베렐린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지베렐린 성장호르몬에 대한 이해와 연구 탐구과정”을 자세하게 질문할 수 있음

예2)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등의 사실여부 확인과 참여과정, 깨달은 점 등을 질문함

예3)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 연세대 면접형, 이화여대 고교추천전형 등

4) 역량평가 면접

- 지식 영역에 대한 역량 평가
 - 지식영역에 대한 평가는 단순히 교과 성적만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가 지원한 모집 단위에 얼마나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피는 것이다.
- 인성 영역에 대한 역량평가
 - 인성 영역에 대한 평가로는 자기소개서에 적힌 사실을 바탕으로 가치관 및 인성을 점검하며, 공동체의식, 자아존중감, 진실성 등 인성과 관련된 항목들을 주로 평가한다.
 - 가상 상황에 따른 지원자의 가치관 태도

♣ 서울대 의대: A, B, C 3명의 팀원이 함께 제한된 시간 내에 과학 실험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험은 3명 전부 참석해야 진행할 수 있으며, 특히 A의 대학 입시에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실험 당일 팀원 B가 연락도 없이 늦게 도착했다. 본인이 C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 창의성 및 문제해결력에 대한 역량평가

- 역량평가 면접에서 가장 난이도가 있는 방법으로 주로 지원자의 탐구 의지와 과정을 살피고, 문제 해결력을 요구하는 것이다. 면접 방법 중 깊이가 있어 면접 대비에 부담이 다소 큰 편이다.

5) 구술 심층면접

- 면접고사의 비중이 높은 대학에서는 서류 평가를 보완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실시한다. 심층면접은 수험생의 지적인 수준과 학습 능력, 인성 및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학에서 학습할 수 있는 능력 정도를 파악하려는 시험이다. 면접 방식은 기본적으로 미리 문제를 주고 일정시간 답변을 준비한 다음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인문계 심층면접은 제시문을 읽고 주어진 질문에 답하는 형태가 많으며, 자연계는 수학 또는 과학 문제 풀이 설명을 요구하는 측면이 강하다.

예) 서울대 일반전형, 연세대 활동우수형, 고려대 학업우수형&계열적합형 등

- 최근 심층면접은 단순히 정답을 말하는 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꼬리 질문을 통해 해당 문제의 쟁점을 발전시켜 가는 형태로 출제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심층면접의 면접관은 정답을 요구하기 보다는 각자의 경험과 가치 판단에 따라 다양한 문제해결안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주로 논리적 사고력과 전공분야에 대한 기초개념을 위주로 평가하므로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 또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 대학 입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심층면접은 합격공헌도의 측면에서 학생부의 변별력을 1로 보았을 때 인문계의 경우 수학능력시험 성적이 0.95, 논술은 1.88, 면접은 2.51로 나타나고 있어 면접고사가 합격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2. 면접의 준비

가. 바람직한 태도와 기본자세

1) 면접 태도

면접은 면접 내용에 대한 응답만을 평가하지 않는다. 면접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자세와 태도, 용모, 예의 등이 면접 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면접을 하게 될 때 진지한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 면접실에 들어갈 때 차분한 걸음으로 들어가서 간단한 목례를 한다.
- 면접관이 지시하는 자리에 바른 자세로 앉는다.
- 손은 무릎에 얹고 눈은 질문하는 면접관의 얼굴을 부드럽게 쳐다본다.
- 질문을 받았을 때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침착한 자세로 자연스럽게 평소처럼 답변한다.
-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일 경우 다른 문제를 부여받을 수 있으면 다른 면접 문항을 요청 한다. 이때도 정중히 말씀드린다. 다른 면접 문항을 부여받지 못한다면, 잠시 생각하고 정리한 후 최선을 다하여 성의있게 답변한다.
- 준비하여 암기한 내용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면접에 응답하지 않는다.
- 속어, 은어, 유행어를 사용하지 말고 표준어를 사용한다.
- 자신 있게 또박또박 대답하고 말끝을 흐리지 않고, 올바른 경어를 사용한다.
- 면접 도중 감정의 변화를 자제한다. 예를 들어 예상했던 질문이나 불쾌한 질문을 받았다고 하여 얼굴에 반감거나 기분 나쁜 표현을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황당한 질문이 부여되었다 하여도 당황하지 말고 냉정히 면접에 임하여야 한다.
- 면접 도중에 면접 위원이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어 갑자기 질문을 하였을 때, 당황하지 말고 순발력을 발휘하여 답변한다.
- 면접 도중 손을 비빈다든지, 다리를 떠다든지 등의 불필요한 행동을 삼간다.
- 집단 면접의 경우 본인의 면접이 끝났다고 해이해지지 말고 다른 학생의 면접도 경청한다.
- 면접이 끝났다는 말이 있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른 자세로 나온다.

이상은 면접실에 들어가는 과정에서부터 면접이 끝나고 나오는 과정까지에서 지켜야 할 태도를 예시하였으나 학생은 학생들이 스스로 면접 위원에게 좋은 느낌을 줄 수 있는 태도를 행할 수 있다. 그러나 높은 면접 점수를 얻기 위한 의도적인 태도가 오히려 면접 위원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음도 알아야 한다.

나. 면접에 대한 이해와 기본 전략

1) 면접관들의 주요 질문 사항

- 우리 대학을 지원한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 전공을 선택한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 본인이 선택한 전공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말해보시오.
- 우리 대학에 대하여 아는 것을 말해 보시오.
- 만일 합격한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학생활을 하겠는지 말해보시오.
- 전공을 선택하기 위해 주로 누구와 상의 했는가?
- 당신의 생활신조는 무엇인가?
- 본인의 장점 3가지를 말해 보세요.
- 본인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 제일 좋아하는 과목과 싫어하는 과목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인가? 그 이유는?
- 친하게 지내는 친구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 가훈은 무엇입니까?
- 한 달에 용돈은 얼마나 씁니까?
- 돈, 명예, 일 가운데 어떤 것을 가장 중시합니까? 그 이유를 간단히 말해 보세요.

2) 좋은 점수를 얻는 자기 표현법

- 첫인상이 승부를 정한다.
- 결론을 먼저 말하여 이야기의 강도를 높인다.
- 일반론이 아닌 자신의 의견을 말하라.

- 상대방을 똑바로 바라보자.
- 추상적인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하라.
- 독창성을 앞세우자.
- 절정을 만든다.
- 때로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본다.
- 깊이 있는 대답을 한다.

3) 면접 시 궁지에서 벗어나는 6가지 방법

- 모르는 것을 질문 받았을 때
 - ‘모르겠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대답한다. 어차피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더 공부하겠습니다’라는 정직한 태도가 중요하다.
- 대답을 틀리게 했을 때
 - 대답이 틀림없이 틀렸거나, 자신의 의사와 다른 말을 해버렸을 때는 즉시 정정한다.
- 난처한 질문을 받았을 때
 - 냉정을 잃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가다듬는 것이 중요하다. 심술궂은 질문은 단순히 응시자를 난처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응시자의 유연한 대응력이나 태도를 관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 질문의 핵심을 잘 알 수 없을 때
 - ‘죄송하지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또는 ‘...라는 것입니까’ 라고 다시 물어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고 나서, 그에 맞는 답변을 하도록 한다.
- 얼어버렸을 때
 - 너무 긴장하여 얼어붙어서, 생각을 정리할 수 없다고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다. ‘잠깐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부탁한 다음, 심호흡 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힌 후 시작한다.
- 미처 할 말을 다 하지 못했을 때
 - 면접이 끝나갈 즈음 ‘질문이 있습니까’ 또는 ‘더 얘기할 게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으면 그때가 기회다.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라고 운을 떼는 것도 좋으나, 자칫 실점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을 기한다.

4) 면접 시 감점 태도

- 면접의 불참은 불합격 처리한다.
- 면접시간에 늦은 경우 감점 처리한다.
- 상의의 단추와 지퍼는 반드시 잠가라.
- 요란한 패션이나 글자가 쓰인 헐렁한 셔츠는 입지 마라.
- 대기실에서 떠들거나 경망스러운 짓을 하지 마라.
- 다리를 벌리고 앉지 말라.
- 손은 무릎 위에 놓고 팔짱을 끼지 마라.
- 모르는 질문을 받았을 때 혀를 내밀거나 머리를 만지지 마라.
- 대답할 때 말을 얼버무리지 말고 끝까지 똑똑하게 발음해라.
- 가급적 사투리를 피하고 표준어를 쓰도록 해라.
- 시험관의 이야기 도중 절대로 말을 가로막지 마라.
- 면접 장소에서 나올 때 물건을 두고 나오지 않도록 유의해라.
- 문을 여닫을 때 ‘깡’하는 소리가 나지 않게 조용히 닫아라.

5) 면접 전, 마지막 체크 포인트 10가지

- 학생부에 나타난 자신의 기록을 살펴보고, 적절한 면접 대응능력을 준비한다.
 - 창체활동, 교과별 세부능력 및 특기, 동아리활동, 수상경력, 탐구활동 등을 살펴 질문 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충분히 살펴야 한다.
- 학과 지원동기, 준비과정, 학업계획과 진로계획 등은 구체적이고 조리 있게 말하는 훈련을 해본다.
 - 면접관이 가장 묻고 싶은 것 중 하나가 지원동기이며, 이를 준비해 온 지난 3년 동안 과정을 알고 싶어 한다. 아울러 대학에서의 학업계획과 졸업이후 진로계획은 필수적으로 설계하여 준비해야 한다.
- 면접 시 질문의 요지를 빠르게 파악하고, 가급적 결론부터 이야기하는 습관을 기른다.
 - 구구절절하게 설명하면 지루한 인상을 주기 마련이다. 보다 핵심적이고 중요한 결론을 두괄식 형태로 먼저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질문 사항에 대해 간결하고 명쾌하게 확실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이다.

- 평소에 말끝을 흐리지 않고 분명하게 말하고, 불필요하게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핵심을 간추려서 말하는 습관을 길들인다.
 - 답변을 하면서 장황하게 말하거나 말끝이 흐리면 부정적인 인상을 주게 된다.
- 난처한 질문도 성의껏 대비하는 연습을 한다.
 - 면접 상황은 지원자에게 항상 우호적인 것은 아니고 일부로 곤란한 질문도 물어보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때 절대 당황하지 말고 성의껏 답하고 때로는 임기응변으로 답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 자신감 있는 태도로 준비해야 한다.
 - 면접을 한다고 해서 아주 전문성을 요구하는 문제를 질문하는 것은 아니기에 자신감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 다만, 자신감은 충분한 준비에서 나온다.
- 지원하는 대학의 기출문제를 꼼꼼하게 살펴서 대응능력을 높인다.
 - 관심 있는 대학의 홈페이지나 기타 면접정보를 미리 파악해야 한다.
- 최근 우리사회에 화두가 되는 주요 시사 이슈는 반드시 살펴본다.
 - 사회 이슈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흐름과 변화, 때로는 병리적 현상을 살필 수 있기에 항상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
- 면접의 기본 정석은 교과서이니 지원학과와 관련된 교과를 잘 살펴 이에 대비한다.
 - 대입 간소화방안에 따라 교과서 활용이 강조되고 있어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된 교과서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 반드시 실전 대비 훈련을 통해 자신감을 키우도록 노력한다.
 - 이론적으로 면접 요령을 아는 것도 매우 좋지만 문제는 실전 대비 훈련을 해야 한다. 그래야 긴장감 조절도 가능하고 자신감을 키울 수도 있다. 학교 선생님, 부모, 친지, 친구들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가상의 실전 면접 훈련을 반복적으로 해야 한다.

6) 면접 전날의 정리 사항

- 통학 방법: 지원 대학까지 통학 방법 및 소요 시간 등을 대략 알아 둘 것
- 면접에 대한 기본 예절: 복장 점검, 면접 동선을 고려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면접관의 눈에 거슬릴 만한 행동이 없는지 체크할 것
- 대학 공지사항 숙지 및 준비물 점검: 수험표, 신분증, 필기구, 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 제출한 서류 내용 확인: 면접 준비 기간 동안 정리해둔 대학, 학과에 대한 정보, 지원 학과 관련 시사 이유, 교과 관련 지식, 자기소개 및 학업 계획 내용,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학업 활동 관련 히스토리, 기타 소소한 개인 정보(생활신조, 좌우명, 특기, 관심 분야) 등의 자료를 다시 꼼꼼히 살펴보고 기억이 잘 나지 않은 부분은 면접 당일 가볍게 볼 수 있도록 메모할 것
- 최근의 사회적 이슈: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됐던 문제들은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보고, 다양한 견해들을 분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정리할 것(이슈와 관련 있는 교과지식과 구체적인 사례를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논거로 활용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음.)
- 모의면접 연습: 타인 앞에서 면접을 ‘리허설’ 해보고 평가를 받아 부족한 점을 보완할 것
- 자신감 갖기: ‘나는 합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면접에 임할 것
 - 교육이념, 건학정신, 교육방침, 교풍, 지망 대학 출신 각계 저명인사, 지원 동기

다. 학생부종합전형 서류기반 면접 준비

학생부종합전형 서류기반 면접고사는 지원자가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복수의 면접 평가위원이 지원자의 서류 내용 중 확인이 필요한 사항의 진위를 확인하고, 전공적합성과 지원자의 인성,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학업역량, 가치관, 면접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학생들이 고등학교 생활 동안 경험했던 내용을 확인하고 기본적인 학업소양을 평가하기 위한 면접이므로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의미를 진솔하게 논리적으로 대답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부나 자기소개서에 기록된 활동 경험을 성찰하고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생각하면서 면접 예상 질문을 정리하여 답변 연습을 해본다면 면접 당일에 심리적 부담과 긴장감을 줄일 수 있다.

1) 서류기반 면접 Tip

- 서류내용과 답변은 일치하게

서류기반 면접은 서류 내용에 담긴 지원자의 역량을 재확인하는 질문이므로 서류에 제시된 다양한 활동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서류와 일치하는 답변을 한다.

■ 지원자의 Style을 보여주기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때 외향적인 지원자는 밝고 힘찬 말투와 표정으로 진취적인 인상을, 내성적인 지원자는 차분함으로 사려 깊고 진중한 면을 드러낸다.

■ Story는 Keyword 중심으로 정리하기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외워서 면접 답변을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 면접할 때 갑자기 긴장되어 외운 내용이 생각나지 않아 당황하고 만족스러운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외우기보다는 Keyword를 중심으로 할 이야기를 정리하면 실제 면접을 할 때 자연스러운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명확하게 답변하기

면접에서 답변 시간은 길지 않다. 1분 이내로 명확하게 핵심을 말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네, 아니오’식의 단답형 대답도 좋지 않지만, 장황한 답변도 면접위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어렵다. 면접위원이 묻는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1분 이내로 명확하게 답변하는 훈련을 충분히 해야 한다.

■ 좋은 태도로 좋은 인상 남기기

면접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의사소통능력과 함께 면접에 임하는 태도 및 자세까지 포함하여 평가한다. 학업 수행에 대한 열의, 자신감 있는 말투와 최선을 다하는 자세, 공손한 태도와 밝은 표정은 면접위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다.

2) 서류기반 면접 질문 유형 예

- ~,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셨나요?
- ~, 본인이 깨달은 바는 무엇이었나요?
- ~,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 ~,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까?
- ~, 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세요.
- ~를 발휘한 경험에 대해 말하시오.

3) 서류기반 면접 예시 질문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수업, 학습경험, 동아리, 봉사, 탐구, 독서활동 등 본인의 활동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으로 진행된 면접 예시 질문이다.

【성장과정】

- 성장하면서 자신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친 사람은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받았습니까?
- 자신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는 언제였으며, 이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중·고등학교 후배가 있다면 어떠한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까?

【봉사활동】

- ○○에서 봉사하였다고 했는데, 그러한 봉사를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봉사를 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봉사활동을 하면서 자신에게 가장 달라진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동아리활동】

- 고등학교 때 ○○동아리 활동을 하였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동아리의 성격과 활동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 동아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고등학교 때 동아리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학에서 전공공부 이외에 해보고 싶은 동아리나 기타 활동이 있습니까?

【독서활동】

- (구체적인 책이나 방송 프로그램을 언급한 경우) ○○ 책 (프로그램)을 읽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왜 그 책(프로그램)이 자신에게 인상적이었는지 설명해주세요.
- 꾸준히 전공 관련 독서(신문기사 스크랩, 방송 시청 등)를 했다고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책(기사, 프로그램 등)은 무엇이며, 왜 그렇습니까?

【리더십활동】

- 임원으로 일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으며 이를 어떻게 해결하였습니까?
- 임원으로 활동하기 전과 후의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였을 때 임원활동을 하면서 무엇이 가장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래희망】

- 앞으로 ○○분야에서 일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으며 그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습니까?
- 장래희망이 ○○라고 했는데, ○○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학생이 되면 그러한 자질을 갖추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까?
- 앞으로 ○○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부족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욱 실력 있는 ○○가 되기 위해 대학생활을 어떻게 보낼 계획입니까?

【교과관리】

- 고등학교 재학 중 좋은 성적을 유지한 자신만의 공부 방법은 무엇입니까?
- 대학에 입학하면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입니까?
- 성적이 많이 향상 되었다고 하였는데, 그 계기는 무엇이며 성적 향상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습니까? 특별한 전략이나 방법이 있었습니까?
- (총학생회장, 동아리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좋은 성적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시간 관리를 했습니까?

Ⅱ

2020학년도 대학별 면접 사례

【 Part 1. 】

일반대학 면접 사례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가천대학교	자연	의용생체공학과	학생부종합 (바람개비1)	2.5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 유형: 일반면접 ○ 시간: 10분 내외 ○ 내용: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질문과 기타 질문 ○ 평가: 전체 답변 내용을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적 정성평가			
면접 내용				
Q1. 자기소개 해보세요.				
A. 안녕하십니까. 미래에 의공학자가 되어 산타클로스를 꿈꾸는 예비 20학번입니다. 저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다니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만나 뵈며, 의생명공학자라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타인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함으로써 소통할 수 있는 능력과 목표의식이 뚜렷하다는 저만의 강점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의생명공학자가 되어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줄 수 있는 산타클로스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귀교의 본 학과에서 의생명공학자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서고 싶습니다.				
Q2. 가천대에 지원한 이유는?				
A. 제가 가천대의 의용생체공학과에 지원한 이유는 가천대가 뇌 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시절 선생님의 추천으로 외부 강연을 들으러 간적이 있는데 그 강연에서 인간의 사랑이라는 감정이 발생하였을 때 뇌에서 발생하는 흥분의 정도를 나타낸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할 수 있다면 인간의 감정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의료기기를 사용 했을때 느끼는 불편함을 거짓 없이 알 수 있을 것 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사용하여 더 나은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싶어 가천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3. 학업계획은 무엇인가요?				
A. 네, 저는 타인의 고통을 해결해줄 수 있는 의료기기를 만드는 것이 저의 학업계획이자 진로 목표입니다. 적록 색맹에 대해 배우면서 신호등이 그분들 배려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학급 친구들과 토의를 진행하면서 소수가 아닌 다수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물건과 건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료기기만큼은 소수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대에 진학하여 노인의료보조 기기에 이해에 대한 수업을 들으며, 의생명공학자로서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소수의 외침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의료기기를 만들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스스로 원하는 미래를 개척하고, 형성해 나가는 의생명공학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Q4. 미래의 필요한 의공학 기술이 무엇이 있을지 이야기 해보세요.

A. 네, 저는 미래에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의공학 기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기계식 인공심장의 문제점인 마찰로 인한 손상을 막아주기위해 자기부상 공법을 이용한 인공심장이 개발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공심장처럼 현재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그 부분을 해결해 나가면서 의료기기나 인공장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을 배려하며 해결해 나가는 의공학 기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Q5. 수학이랑 과학은 잘했는데 영어 성적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네요. 혹시 영어 싫어해요?

A. 네, 싫어한다기보다 단순 암기를 잘못하다보니 단어 암기가 미흡하여 어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노력했습니다. 3년간 지속적으로 영어 에세이를 작성하기도 하고 2학년 때 저의 진로와 관련하여 영어 발표를 해보기도 하며 영어를 언어적 측면에서 활용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Q6. 본인은 인공장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학교에는 이와 관련한 수업이 많이 없어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A. 그러한 부분은 학교를 지원하기위해 많은 것을 알아보면서 조사를 한부분이기에 가천대의 커리큘럼이 저와 맞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가천대의 DREAM 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학교 이외의 수업 또한 들어볼 수 있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제가 더 배우고 싶은 부분을 채워 갈 것입니다.

Q7.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알고 그 분야에 뛰어난 사람과 어느 분야든 잘하는 사람 그러나 뛰어나게는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본인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A. 저는 후자에 속하는 삶인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시절 사람을 살리는 직업을 하고 싶다는 목표 아래 여러 활동을 하며 제가 잘하고 원하는 분야를 찾기 위해 노력해왔기에 저는 후자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두 사람 모두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자의 경우는 두 학문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여러 분야와 융합시킬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는 두 사람 모두 중요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면접 내용

Q8.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A. 저는 귀교가 원하는 봉사정신과 문제의식(문제점을 찾아서 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태도)의 역량을 가진 학생입니다. 지금까지 의공학자가 되고자 하는 역량으로 복지원 봉사와 인공장기를 사용하시는 분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타인의 불편함을 알아가고, 적록 색맹에 대해 배우며 신호등이 그분들을 배려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생명공학자가 되어 이분들의 불편함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의료 기기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장애이해 교육을 통해 신체적 장애뿐만 아니라 정신적 장애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의료기기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탐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타인에게 귀 기울이며 그들의 불편함을 해결해줄 수 있는 의공학자가 되고자 가천대에서 더욱 더 매진하겠습니다.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가천대학교	자연	의용생체공학과	학생부종합 (바람개비1)	3.2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 유형: 일반면접 ○ 시간: 10분 내외 ○ 내용: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질문과 기타 질문 ○ 평가: 전체 답변 내용을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적 정성평가			
면접 내용				
<p>Q1. 자기소개해보세요.</p> <p>A. 주변 친구들은 저를 열정맨이라고 부릅니다. 평소 저는 어떤 것에도 대충하지 않고 제 최선을 다해서 임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것일수록 도전하고 부딪혀보고 새로운 것을 배워가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저를 열정맨이라고 부릅니다.</p> <p>Q2. 여러 학교가 있고 여러 학과가 있는데 왜 하필 우리학교 이 학과인가요?</p> <p>A. 어릴적 저는 안젤리나 졸리라는 여배우의 암예방사례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의공학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가천대에 의용생체 공학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천대에는 길병원, 뇌과학연구소, 이길여 암 당뇨 연구소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연구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가천대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p> <p>Q3. 적분에 대해 설명해주세요.</p> <p>A. 적분은 잘게 쪼개진 것들을 모아 대략적인 커다란 덩어리로 계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p> <p>Q4. (컴퓨터 스크롤을 내리며) 보면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프로그래밍 했다했는데 직접 처음부터 한 것인가요? 아니면 있는 소스를 이용한건가요?</p> <p>A. 저희 학교에 전남대 교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그때 교수님이 소스를 주시고 처음엔 그걸 보고 한 다음에 이를 활용해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프로그래밍을 하였습니다.</p> <p>Q5. 학과 홈페이지 봐보셨나요? 홈페이지에 가면 분야가 나뉘져 있는데 어떤분야와 거기서 어떤 과목을 가장 배우고 싶나요?</p> <p>A. 분야가 5가지로 나뉘져 있는데 저는 소프트웨어 분야와 바이오 분야 두 개에 가장 관심이 있습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해부학,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싶습니다.</p>				

면접 내용

Q6. 그럼 프로그래밍을 아주 능숙하게 하는 수준인가요? 아님 여기서 심화적으로 배우고 싶은 건가요?

A. 능숙하게 하진 않고 학교에서 정보시간을 활용하고 무한상상실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프로그래밍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 때부터 흥미를 가졌고 이곳에서 좀더 심화적으로 배우고 싶습니다.

Q7. (컴퓨터로 생기부를 보며) 보면 통계 쪽에도 흥미가 많은데요. 그럼 영재 학급? 거기서 했던 t검정에 대해 설명 해주세요.

A. 독립t검정은 2개의 자료의 유사성, 관련성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Q8. 그럼 t검정의 t의 뜻을 아세요?

A. 음... t...test?

(교수님들끼리 웃음) 아... 잘 모르겠습니다.

Q9. 마지막 하고 싶은 말하세요.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가천대학교	자연	전기공학과	학생부종합 (바람개비1)	2.8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 유형: 일반면접 ○ 시간: 10분 내외 ○ 내용: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질문과 기타 질문 ○ 평가: 전체 답변 내용을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적 정성평가			
면접 내용				
Q. 자기소개와 지원동기				
Q. 책을 많이 읽지 않았는데 그 중에서도 인상 깊게 읽은 책이 있나요?				
Q. 생기부를 보면 기사를 평소에 많이 보는 걸로 보이는데 최근에 본 기사는 무엇인가요?				
Q. 전공과 관련된 활동 중 가장 열심히 참여했던 활동				
Q. 봉사활동을 2학년 때 꾸준히 하였는데 계기와 변화된 점이나 느낀 점?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대학명	계열	모집 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건국대학교	자연	축산식품공학과	학생부종합 (KU자기추천)	2.8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 유형: 개별면접 ○ 시간: 10분 내외			
면접 내용				
Q1. (자소서4번) 식은 치킨은 후각수용체를 무용지물화 시킨다는 것이 무슨 의미?				
Q2. 앞으로 학업계획은?				
Q3. (자소서2번) 그람염색 실험이 뭔지? +꼬리질문. 식품에서 많이 발견되는 균은 그람 양성균인가 그람 음성균인가?				
Q4. (자소서4번) 살균 막걸리가 무엇인지? +꼬리질문. K-FOOD LAB에서 유용미생물이 모두 살아있는 막걸리를 제조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우리 대학교 입학 목표인가?				
Q5. 김치나 젓갈 등 발효 음식 중 아무 음식이나 과학적 원리 설명 +꼬리질문. 염지를 통해 배추의 숨을 죽이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음. 다른 것은?				
Q6.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건국대학교	자연	기계항공공학부	학생부종합 (KU자기추천)	2.1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 유형: 개별면접 ○ 시간: 10분 내외			
면접 내용				
<p>면접관 ㉠, ㉡</p> <p>㉡Q1. 아두이노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파이썬 활동을 하게 된 계기</p> <p>A. 아두이노 활동 소개하고 파이썬 활동을 아두이노 활동 하면서 알게 되었고 선배의 조언으로 하게 됨.</p> <p>㉡Q2. 아두이노랑 파이썬의 차이점은?</p> <p>A. 아두이노는 센서나 장치 움직임에 이용되고 파이썬은 소프트웨어 제작에 활용</p> <p>㉠Q3. 수상경력에서 올림피아드, 발명품 제작 했던 거 물어보심</p> <p>㉠Q4. 2학년 동아리 활동에서 페르마의 점 있는데 설명</p> <p>A. 페르마의 점은 삼각형의 세 개의 각 꼭짓점까지 최단 거리인 한점을 뜻함.</p> <p>㉠Q5. 그러면 다각형은 어떨나?</p> <p>A. 활동으로 탐구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난다. 삼각형으로 쪼개서 했던 거 같다고 함.</p> <p>㉠Q6. 3D 프린터 제작을 진짜로 했는지 물어보심.</p> <p>㉡Q7. 학생회장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어려운 일은 어떻게 해결 하였는지</p> <p>A. 축제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갈등 발생 시 두 의견을 최대한 하나로 모아 실시했다고 설명함.</p> <p>㉠Q8. 2학년 물리2 수업에서 수강자가 7명 뿐인데 왜 그런가?</p> <p>A. 2학년 물리2 수업은 정규 수업이 아니라 온라인 강의 수업이라 저희 지역 학생들 중 희망하는 학생만 들었기 때문에 7명밖에 없었음을 설명함.</p>				

대 학 명	계 열	모 집 단 위 (학 과)	전 형 (세 부 전 형)	등 급
건국대학교	자연	전기전자공학	학생부종합 (KU자기추천)	2.21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 유형: 개별면접 ○ 시간: 10분 내외			
면접 내용				
Q1. 맥스웰 방정식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 어... 제가 맥스웰 방정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우지 않고, 자기장과 전기장의 관계를 찾아보기 위해서 비오사바르법칙과 암페어 법칙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장과 다른 공식에는 R의 제곱과 관계된 공식이 들어있지만 자기장에는 R분의 1과 관련이 있는 것에 대해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이를 해결해준 법칙이 비오사바르 법칙과 암페어 법칙인데요. 비오사바르 법칙은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에 대한 법칙으로, 도선 밖의 한 점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회로 안의 미소 자기장의 벡터 합이라는 것입니다. 미소 자기장을 적분한 값이므로 R분의 1과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더 쉽게 자유주제 탐구대회에서 설명하기 위해 암페어 법칙을 이용하여, 폐곡선에서 선적분을 하는 것으로 매우 쉽게 공식을 유도해 낼 수 있었습니다.				
Q2. 그럼 직접 그 공식을 유도해 봤다고?				
A. 음... 제가 물리2를 학습하지 않고 바로 고급물리로 들어가서 매우 공식이 어려웠습니다. 입실론즈0나 파이를 이용하여 공식을 나타낸 것으로만 기억합니다. 유도 과정이 매우 어려워서, 어떤 과정인지만 살펴보았습니다.				
Q3. Geogebra를 써 봤다는데 어떤 것을 써 보았지?				
A. 학교에서 방과후로 Geogebra를 이용한 수학적 도구 이용하기에 대한 강의를 개설해주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기하와 벡터 과목을 배우면서 3차원 공간을 2차원적인 방향으로 바라보면서 문제를 해결하기는 처음에 어려움이 컸습니다. 예를 들어 모의고사 29번 같은 전형적인 기하와 벡터 문제를 Geogebra를 이용하여 직접 작도해보면서 어떤 방식을 이용해 바라보며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Q4. 기하와 벡터 과목을 배웠다는데, 그럼 그 관계에 대해 설명해봐.				
A. 음... 기하와 벡터의 관계는 기하로 벡터를 만들어 낼 수 있고, 벡터로 기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Q5.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봐.

A. 예를 들어 같은 시점 내에서 벡터의 차이나 내적을 이용하여 2차원 공간을 그릴 수 있고, 벡터의 외적을 이용하여 3차원 공간의 도형을 그려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6. 아니, 더 구체적으로

A. 아... 예를 들어 (상당히 버벅했음) 쌍곡선이라든지 아니면 타원이라든지 원점 안에서 같은 크기로 벡터를 이용하여 그릴 수 있지 않을까요?

Q7. 열역학 1,2,3법칙에 대해 설명해봐.

A. 제가 열역학 3법칙에 대해서는 물리 2를 학습하지 않아 모르겠습니다. 대신 열역학 0,1,2에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0법칙은 열평형을 이용하여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결국 똑같은 온도로 향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1법칙은 $Q=E-W$ 를 의미하고, 일을 한만큼 열이 빠져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2법칙은 엔트로피 법칙으로 항상 무질서한 정도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법칙입니다.

Q8. 골드버그 장치 설명해봐.

A. 제가 중학교 때 교외로 골드버그 장치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어서 스팀수업에서 골드버그 장치를 학우들과 만들어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할까요?

Q9. 시간이 별로 없는데.. 간단히 소개만 해주세요.

A. 네, 저희는 그 안에서 모듈에서 모듈까지 가는데 어떤 물리적 요소를 사용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물리적 요소를 많이 들어가는 놀이공원을 테마로 잡아 열기구를 열을 줘서 띄우며 공을 운반하고 롤러코스터 모듈을 이용하여 가속도를 주며 전체적인 골드버그 장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Q10. 마지막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해주세요.

A. 저의 꿈은 스마트그리드의 일부분인 HVDC사업의 일원이 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만의 트랙연계모듈수업을 이용하면 상당히 제 진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트랙연계모듈수업 G부분에서 전력시스템 및 경제에 보면 제가 꿈에 다가가기 위해 꼭 들어야 하는 과목들을 구체적으로 명렬하여 배울 수 있도록 짜여져 있었습니다. 이런 수업을 배우면서 HVDC사업의 일원이 되는 꿈을 펼쳐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명	계열	모집 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	인문	관광이벤트학과	학생부종합 (KGU학생부종합전형)	3.68
면접 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 유형: 2(면접관):1(지원자) 블라인드 면접 ○ 내용: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질문			
면접 내용				
<p>Q1. 학과 지원 동기</p> <p>A. 호텔과 컨벤션에 대한 전반적 지식을 터득하여 이론을 겸비한 실무를 경험해 볼 수 있는 학교 시스템에 관심을 두게 되어 1학년 때부터 지원하기 위해 열심히 했다.</p> <p>Q2. 자소서 - MICE산업에 관심이 많다 → 언제 어떻게 접하게 되었느냐?</p> <p>A. 학교 근처에 컨벤션 센터가 있다 → 컨벤션이 ~한 뜻을 가진 행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정부주도로 한국에 MICE 산업 개최수를 점점 늘리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p> <p>Q2-1. 그렇다면 실제로 경험해본 전시회나 포럼이 있느냐?</p> <p>A. 실제로 가본 전시회는 없지만 근처 컨벤션 센터에서 무슨 전시회가 열리나 관심을 가지고 찾아본 적은 있다.</p> <p>Q3. 생기부 - 의사소통 스킬 도서 → 읽게 된 특별한 이유, 읽은 것 중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책</p> <p>A. 2학년 부반장일 때 ~한 사건이 있었다. → 세계 최고 리더들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다가가는가? 라는 책을 읽어 나의 단점을 보완하고 친구들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진행하려고 했다.</p> <p>Q4. 생기부 - 자신의 진로가 호텔컨벤션기획자 → 관광이벤트학과 말고도 자신의 진로를 이루기 위해서는 또 어떤 학과가 어울릴 것 같나?</p> <p>A. 특정과를 꿈긴 어렵지만, 어문학 계열이 도움이 될 것 같다. →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운다면 그 나라의 민족의식, 특별한 문화를 배울 수 있어 나중에 외국인들을 대치할 때에 용이할 것 같다.</p>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경기대학교	인문	경찰행정학과	학생부종합 (KGU학생부종합전형)	1.67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 유형: 2(면접관):1(지원자) 블라인드 면접 ○ 내용: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질문			
면접 내용				
<p>면접 당일 목포에서 수원까지 기차 또는 이외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경우에 체력과 정신력이 충분한 학생이면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와 아침에 잠이 많은 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면접 전날 미리 출발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학교 정문에서 면접실까지 걸어서 이동하는 경우는 수월하나 차로 이동하는 경우는 조금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면접실 건물 밖에서 대기하는 동안 학생 대부분은 제출서류를 검토하면서 연습을 하지만, 저는 긴장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걸으면서 긴장을 풀었습니다.</p> <p>(대기실 입실 ► 수험생 유의사항 공지 ► 휴대전화 수거)</p> <p>대기실에서는 샌드위치, 물, 손난로 등을 받습니다. 저는 추위를 잘 타지 않는 편이지만 면접 당일 날씨가 추웠을 때, 손난로를 이용해 언 손을 녹이면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됩니다. 휴대전화를 제외한 허용 가능한 면접 준비물인 제출서류나 책을 검토하면서 면접을 준비합니다. 면접의 원활한 진행을 도와주시는 감독관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긴장을 풀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주로 지방에서 온 학생들을 물어보시고 위 같은 경우에는 전날 미리 오는 것이 좋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부분 학생이 지방에서 왔다고 손들어서 조금 놀랐습니다. 대기시간이 꽤 길니다. 하지만, 긴장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자신의 차례 몇 분 전에 미리 대기실 밖 복도에 서서 면접의 진행을 도와주시는 감독관 분들이 면접실 문을 두드리면 자신의 짐을 모두 챙겨 나와 면접실 앞 책상에 앉아서 대기합니다. 복도에서 면접의 진행을 도와주시는 감독관분들은 경기대 재학생분들로 매우 친절하시고 면접실에 입장하기 전에 화이팅 등의 기운을 북돋아 주십니다.</p> <p>(면접실 입실 ► 제출서류 확인 면접)</p> <p>본격적으로 면접을 시작하기 전에 긴장을 풀어주기 위하여 떨리냐고 물어보셨습니다.</p> <p>Q1. 자기소개 및 지원 동기</p> <p>Q2. 졸업 후 진로</p>				

면접 내용

Q3. 생명과학과 관련한 학과가 아닌 왜 경찰행정학과를 지원하였는지

(참고로 저는 자연계열 학생이었으며 진로가 경찰 과학수사요원이었기 때문에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Q4. 기억에 남는 봉사 활동

Q5. 과학수사와 관련하여 기억에 남는 동아리 활동

Q6. 인상 깊었던 진로와 관련한 도서

Q7. 경찰 과학수사요원이 일반 경찰과는 달리 가져야 할 자질

Q8. 성적 하락 이유

(부끄럽게도 저는 2학년 2학기부터 전체적으로 성적이 하락세였기 때문에 물어보셨지만, 면접 후에 다른 사례를 보니 학생 본인이 성적을 꾸준히 관리하였거나 상승세일 경우에는 자신만의 공부법을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Q9.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이 밖의 TMI)

1. 면접실 건물 밖에서 대기 할 때, 생각 이상으로 다들 진지하여서 긴장이 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차분하여야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하며 신중하여야 합니다. 대기실에 들어갔을 때 나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소수의 몇을 제외한 모두가 긴장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2. 면접실의 크기는 일반 교실 크기이며 면접관분들은 음악실의 책상에 앉아 계십니다. 면접관분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로 진행합니다. 저는 생각 이외의 상황인 면접관 분들이 각각 노트북을 이용하고 계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유는 모르겠지만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모의 면접을 할 때와는 다르게 처음 뵈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선 처리에 오류가 조금 날 수도 있습니다. 학교 이외에 외부에서 진행하는 모의 면접에도 참여하여 미리 연습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3. 전체적인 면접 대기실을 대충 확인하였을 때 남녀 성비가 1.1이었었습니다.
4. 면접 의상은 대부분 상의는 블라우스와 니트 조끼를 착용하였으며 하의는 슬랙스를 착용하였습니다.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경희대학교	자연	물리학과	학생부종합 (네오르네상스)	1.67
면접유형	면접 방식			
제시문 기반 면접 서류기반 면접	○ 유형: 2(면접관):1(지원자) 블라인드 면접 ○ 시간: 10분 내외 ○ 내용: 제시문 관련 질문,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질문과 기타 질문			
면접 내용				
Tip. 면접 대기 및 준비 - 대기실에서 면접 준비하다가 이름이 불린 3명이 조를 이루어 면접실 앞으로 이동함. 명찰처럼 부착한 수험표 위에 면접 가번호 스티커를 붙이고, 이후 8분 동안 제시문을 읽고 답변을 준비함. 이공계열의 경우, 과학·기술 관련 이슈 중에서 찬반 의견이 둘 다 나올 수 있는 제시문이 출제됨. 제시문을 읽는 동안 종이와 펜을 사용해 필기하면 안 되고 오직 머릿속으로만 답변을 준비할 수 있음. - 8분의 제시문 숙지 시간이 끝나고 이전 면접자가 면접실에서 나올 때까지 대기함.				
Tip. 면접 진행 - 면접실에 들어가면 면접관 두 분이 앉아 계시고, 마주보는 책상에 아까 봤던 제시문이 똑같이 붙어있음. 제시문을 보면서 답변할 수 있음. 제시문 관련 질문과 제출서류 기반 질문의 비율은 6:4 또는 5:5 정도임.				
Q1. 제시문에 대한 자신의 의견-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A. ‘~(문제상황)에 대해 저는 (긍정적/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식으로 먼저 의견을 이야기하고 난 뒤 관련한 근거를 기술적, 사회적 등 다양한 측면에서 3가지 정도 씩. 여기에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전의 과학적 사례들을 제시함.				
Q&A. [꼬리]-제시문과 관련한 추가 질문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는 본인이 선택한 의견과 반대되는 입장에서 제기할 수 있는 반론과 관련된 것임. 면접관이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처음에 자신의 의견을 말하면서 ‘~하지만, 이럴 경우 ~(반론)의 문제에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래 자신의 의견)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긍정적/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식으로 질문을 미리 예상하여 답변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함. 긍정적이라고 의견을 밝힌 본 지원자는 위의 방식으로 이야기해 제시문과 관련한 추가 질문으로 ‘인공지능 기술로 인한 문제점 2가지만 간단하게 이야기 해보세요.’를 받고 제시문과 관련한 면접은 끝남. - 제출 서류 기반 확인 질문에서는 학생부 관련 질문이 주를 이룸.				
Q2. 과학 전공 특강에서 알게 된 점을 기술한 특기사항에 대해 질문함 - ‘물리학과 화학의 차이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하자, 답변에 대한 꼬리 질문을 하심.				
Q3.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보세요.’라고 하심 A. 이에 대해 본 지원자는 학과의 인재상과 지원자만의 강점(? 또는 특성)을 결합해 이야기하고, 학과와 관련된 자신의 꿈(목표)을 말하며 이 꿈을 경희대 물리학과에서 실현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힘.				

대 학 명	계 열	모 집 단 위(학 과)	전 형(세 부 전 형)	등 급
광운대학교	자연	화학공학과	학생부종합 (광운참빛인재)	1.94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 유형: 2(면접관):1(지원자) 블라인드 면접 ○ 내용: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질문			
면접 내용				
Q1. 먼저, 자기소개 해 보실래요?				
A. 저는 광운대학교 화학공학과에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은... 가번호 000입니다. (가번호 가르키면서 말함)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라는 저희 학교 정문에 쓰인 글귀입니다. 매일 등교할 때 마다 보게 되는데, 빛은 저희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이고요! 소금 또한 저희 인체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처럼 저는 광운대학교 화학공학과에서 중요한 존재로 자리 잡고 싶습니다!				
Q2. 왜 화학공학과에 지원하시게 되었나요?				
A. 제가 필리핀으로... (갑자기 ‘사역’이라는 말이 기억 안 났고, 오른쪽 면접관님께서 ‘사역?’ 이렇게 말해주심) 아, 네. 제가 필리핀으로 사역을 간 적이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의 빈민지역으로 사역을 갔는데 그 곳에서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떠올린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태양에너지입니다. 태양에너지는 전 세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원들 중 한 가지라고 생각하여 태양 전지를 이용해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지역에서도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상용화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화학공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3. 어떻게 빈민지역에 태양전지를 보급할 계획인가?				
A. 아, 현재 3세대 태양전지들 중 한 가지인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단가가 낮고 효율이 무려 20%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효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물론 빈민지역에서 사용하기에는 금전적인 문제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화학공학과에 진학하여 빈민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태양전지를 만들고 싶다는 것이 저의 다짐입니다.				
Q4. 자소서 1번 내용을 보니깐 산화환원 실험과 관련된 동전도금실험을 진행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해주세요.				
A. 10원 동전의 겉면은 구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구리보다 산화경향성이 큰 물질을 같이 두게 되면 구리가 환원되고 산화된 물질이 10원 동전에 달라붙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아연가루를 이용해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구리보다 산화경향성이 큰 아연가루를 물에 녹인 뒤 구리 동전을 넣게 되면 아연이 동전에 달라붙어 은색의 동전이 완성되게 되고, 추가로 이를 불에 가까이 두게 되면 아연과 구리가 융해되어 황동합금이 만들어져 금색 동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Q5. 아연이 동전에 어떻게 달라붙게 되는 거죠?

A. 산화경향성이 작은 구리로부터 전자가 빠져나오게 되면서 양이온과 음이온간의 인력으로 달라붙게 되고, 그 상태에서 아연이온이 전자를 받아 아연금속이 되어 동전의 겉면이 은색으로 도금되게 됩니다.

Q6. 철의 부식정도 비교실험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실래요?(자소서 1번)

A. 일단, 철은 산소, 물, 전해질 등에 영향을 받아 반응속도가 달라짐으로 인해 그 부식 정도가 달라집니다. 이 점에 착안하여 산소의 유무, 물의 유무, 전해질의 유무를 조작 변인으로 한 철의 부식정도 비교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Q7. 잠깐, 전해질은 무엇으로 썼는지 알 수 있나요? 그리고 내용 이어서 계속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 단순히, 소금을 사용해도 전해질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소금을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전해질이 있는 것이 철의 부식이 가장 잘 되었으며 물이 있는 것 그리고 산소가 있는 것 순으로 철의 부식의 반응속도가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Q8. 화2 세특을 보니깐 자발성을 가지고 깁스자유에너지 변화 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발표했다고 되어있는데 한 번 설명해보실래요?(생기부)

A. 모든 자발적 변화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변화로, 이때의 엔트로피 변화는 계와 주위의 엔트로피 변화의 총합으로 표현됩니다. 다만 계에서의 엔트로피 변화와 달리 주위의 엔트로피 변화를 알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주위의 엔트로피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계에서의 엔탈피 변화로 바꿔주면 계에서의 엔탈피 변화와 엔트로피 변화를 통합하는 깁스 자유 에너지 변화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Q9. 엔트로피 증가라.... 혹시 열역학 제 2법칙이 뭔지 알아요?(이 때 1법칙이라고 들었어요.)

A. 에너지의 보존입니다.

Q10. 그거는 1법칙이고 열역학 제 2법칙이요?

A. 아. 에너지의 방향성입니다.

Q11. 에너지의 방향성도 맞죠. 그러면 열역학 제 2법칙의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 말해 볼까요?

A. 고립계에서 엔트로피의 방향성은 항상 증가 또는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Q12. 그러면 엔트로피가 일정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A. 평형 상태입니다.

Q13. 그러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때, 엔탈피의 변화는 어떻게 되나요?

A. 음... 엔트로피의 방향성과 상관없이 화학반응식에서 발열반응인지 흡열반응인지를 알게 된다면 엔탈피의 변화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14.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신가요?

A. 저는 ‘화학’이라는 단어를 매우 사랑하는 학생입니다. 제가 화학을 사랑하는 만큼 화학관련 프로젝트 및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였고,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10원 동전 도금 실험이나 환경에 따른 철의부식정도 비교 실험과 같은 실험 또한 진행하였습니다. 심지어, 봉사활동 또한 드라이아이스와 에탄올을 이용한 아이스크림 만들기 활동을 하는 등 전반적인 화학 지식을 이용한 봉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만큼 제가 화학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면접 보면서 분명 실수한 것도 많았을 테지만, 그만큼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면접자의 솔직 후기

1. 면접 보기 전 대기실에서 A4용지에 쓰인 자기소개서 및 생기부, 면접 관련 준비 자료는 볼 수 있으니 꼭 챙겨가세요!
2. 본 면접을 진행하기 전에 면접관들이 “학교 어떤지?”, “언제쯤 왔는지?” 등 긴장풀이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이 뻘세다고 느껴질 수 있다는 점 생각해 두세요! (작성자도 당황함)
3. 면접 대기실은 다양한 학과가 공용해서 사용하고 학과별 한 명씩 면접실로 이동해요!
4. 면접실에 들어가기 전에 수험번호가 아닌 가번호를 주시는데, 이 가번호는 면접 때 말해도 되는 번호예요. 물론 수험번호는 절대 말하면 안돼요!(불이익 있어요!) 또한, 가번호는 스티커로 받는데 왼쪽 가슴 쪽에 다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고려대학교	인문	행정학과	학생부교과 (학교추천1)	1.19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토론면접	◦ 내용: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질문 ◦ 평가: 제시문을 숙독하고 토론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지원자의 논리적 사고력, 의사소통능력 등을 파악하는 면접			
면접 내용				
<p>Q1.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준비했던 대회가 무엇이었고, 준비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웠던 점, 극복했던 방법에 대해 말해보세요.</p> <p>A. 2학년 때 했던 주제연구발표대회를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준비했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은 아무래도 인문계 학생들로만 팀을 이루었기 때문에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저희 팀만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 시사와 관련된 과학적 주제를 찾고자 노력하였고, 뉴스를 통해 폭염으로 인해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는다는 기사를 접했고 최종적으로 ‘식물의 성장에 물의 온도와 산성도가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p> <p>Q2. 그 대회를 통해 성취했던 결과는 무엇인가요?</p> <p>A. 수상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학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인문계열 학생들도 자료 분석, 탐구 등의 수행 능력이 자연계 친구들에 전혀 밀리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p> <p>Q3. 교과 성적이 매우 높기는 하지만, 공부할 때 어려웠던 과목이 있었다면 무슨 과목이 어려웠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였나요?</p> <p>A. 저는 과학 과목을 공부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학년 때 특히나 어려움을 겪고 과학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생겼으나, 앞서 말씀드린 주제연구발표대회에서 우수한 결과를 인정받으면서 자신감을 회복하였고,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p> <p>Q4. 진로 희망이 사회학과 교수에서 정책 연구원으로 바뀌었는데 왜 그런건가요?</p> <p>A. 막연하게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자 사회를 연구하는 사회학과 교수를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신문을 읽고 공부를 하면서 사회를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이 정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러한 정책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p> <p>Q5. 고려대학교 행정학과에 오면 본인의 진로에 필요한 학문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p> <p>A. 제가 고려대학교 전공체험 강의실 행정학과 편을 우연히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앞에 앉아 계신 교수님께서 행정학과는 공공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다각도로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학문을 배우는 종합학문이라고 설명하시는 것을 보고 제 진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많은 지식을 종합적으로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p>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고려대학교	자연	바이오의공학부	학생부종합 (학교추천2)	1.07
면접유형	면접 방식			
제시문 기반 면접 서류기반 면접	○ 유형: 2(면접관):1(지원자) ○ 내용: 제시문 기반면접과 학생부기반면접으로 구성된 통합 면접			
면접 내용				
<p>※ 문제는 기출문제가 되었으니 여러분들께서 이미 보셨을거라 생각되어 답변을 중심으로 내용을 기술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며, 정답이 아니니 꼭 참고만 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옳다고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p> <p>※ 저는 면접장에서 정말 많이 베풀었습니다. 무조건 청산유수처럼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p> <p>※ 유의사항 꼭 정독하세요!</p>				
<div><div>◆ 제시문 내용 요약 및 문제</div><div><p>(가) 제 4차산업혁명시대는 초연결사회로, 다양한 기술의 발달로(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나열) 지능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p><p>(나) 과학기술의 장점만 보는 과학기술지상주의를 비판하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간존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된다고 강조</p><p>(다) 증기자동차가 마차업계의 반발로 영국 정부의 과잉규제를 받고, 기술의 발전 또한 정체되었다는 사례 제시</p><p>(라)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적응할 수 있는 요소들 각 국가의 순위 매겨서(법과 제도, 노동 유연성, 기술 수준, 총 순위 총 4개) 우리나라는 법과제도, 노동유연성은 60등 내외였고 기술 수준, 총 순위는 20등 내외였다.</p></div></div>				
<div><div>◆ 문제</div><div><p>1.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제시문 (가)비판</p><p>2. 제시문 (다)와 같은 상황과 유사한 현실 사례 들고 해결책 제시</p><p>3. (가)~(라) 제시문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방안 제시</p></div></div>				

면접 내용

1번 답.

- (가) 세포막의 인지질 2중층이 세포에 이로운 물질은 투과시키나, 세포에 해로운 물질은 투과시키지 않으니 선택적 투과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답했습니다.
- (나) 지구의 자기장이 지구에 해로운 고에너지 입자는 투과시키지 않고, 생명체에 이로운 빛과 열에너지는 투과시키므로 선택적 투과에 해당한다고 답했습니다.
- (다) 반도체의 정류 작용이 선택적 투과에 해당하며(한 방향으로만 흐르기 때문), 불순물을 섞고 안 섞고의 차이가 투과도의 높고 낮음을 결정하므로 선택적 투과에 해당한다고 답했습니다.(저의 의도는 투과도를 달리하여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쪽이었는데 간단히 말해 투과보다는 '선택'에 더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 (라) 전자기파의 투과도가 큰 X선과 투과도가 작은 마이크로파 중 인간이 효율적으로 선택한다는 의미에서 선택적 투과에 해당한다고 답했습니다.(위의 제시문 (다)와 같은 맥락입니다.)

2번 답.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했습니다.

- 위의 제시문들의 선택적 투과는 능동적, 주체적으로 발생하는 일이나 제시문 (마)의 식물은 수동적으로 탄소를 흡수. 즉 선택이 아닌 무조건적으로 흡수를 진행한다는 내용으로 답했습니다.
 - 위의 제시문들의 선택적 투과는 투과의 여부가 서로 연관되어 있지 않으나, 제시문 (마)의 식물의 탄소 흡수, 파괴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다시 말해 탄소를 흡수하지 않음은 곧 파괴를 의미한다고 답했습니다.
- ※ 2번 답변을 중간쯤 진행하다가 왼쪽 교수님께서 시간이 없다고 하셔서 말이 이때부터 2배속 정도 빨라졌습니다.

3번 답.

세 가지 측면에서 답변했습니다.

- 문화, 정책의 수용(우리나라가 자주 문화를 접하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문화, 정책등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것)
- 토론 활동(상대편의 주장과 근거 중 자신의 주장에 도움이 되는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을 선택적으로 판단하는 것)
- 가짜 뉴스, 루머에 대한 대중의 반응(정보화 사회에서 대중 각각의 지혜, 지성은 거짓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진실된 내용만을 판별하여 받아들이게 하는 도구) - 제시문 (나)의 자기장을 언급하며 답변했습니다.

면접 내용

Q1. 아쉽게도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교과목 중에 바이오의공학부에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일까요?

A. 저는 바이오의공학부가 융합학과라고 생각하기에 물리, 화학, 생명과학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수학, 미적분과 기하와 벡터 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 뒤에 왜 수학이 과학을 설명하는 도구가 되는지 꼭 준비했는데 시간 다 되었다고 교수님이 칼 같이 끝내셨습니다.)

※ 당부의 말

[면접대기실 및 기본]

우선 기본이나 매우 중요한 것은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것입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바로 저만 하더라도 앞날 인문계 지원자 중에 전자기기 반입으로 불합격 처리된 학생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고려대를!). 조교 혹은 안내 분들께서 유의사항 말씀하실 때는 항상 주의 깊게 들으세요.

고려대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시계도 제출합니다. 면접을 대기하며(문제 풀러 가기 이전) 생기부, 자소서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 풀러가는 순서는 랜덤이니 준비는 미리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신분증과 수험표는 면접장 앞에서까지 검사하니 꺼내기 편한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험생 간의 대화는 일절 금지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면접 준비실]

각 조당 1명씩 면접준비실로 가서 문제를 푹니다.(21분)

시간은 앞에 모니터에 나타나니 따로 스톱워치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생각해보니 스톱워치도 반납물품에 해당합니다)

필기구 없어도 앞에 볼펜이 있으니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고 만약 펜이 나오지 않는다면 감독관께 미리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 문제에 관해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그동안의 기출과는 다르게 ‘우선 개념을 제시하고, 제시문을 설명’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간 기출에는 개념을 찾아야 했다면 이번에는 개념을 이미 제시했습니다. 그러니 캠프에서는 정해진 문제의 형식보다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답변을 구성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 내용

[면접장]

예상과는 달리 서류 질문 거의 없이 제시문으로만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시간은 10분이었습니다. 사실 문제지에 4분 안에 답변을 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었는데, 모든 문제에 답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이것저것 준비했다가 제시문 답변에 면접 시간 다 날려먹었습니다. 시간이 아주 빨리 가버렸습니다.

연습지 만들고 시험장까지 가면서 다른 애들이 쓴 것도 눈에 보였는데, 다들 저보다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능력이 부족한 것인가 하고 불안했는데 저조차도 시간이 매우 촉박했으니, 답변할 양보다는 어떻게 말하고 답변을 유기적으로 구성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세요. 저 같은 경우 앞에 “~한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생각이 정리된 느낌을 주어 매우 좋다고 캠프에서 배웠습니다. 이 방식이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당부의 말]

팁을 드리자면, 역시 제시문 면접 경험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답변을 구성하는 노하우는 경험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캠프는 아주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무작정 키워드만 적고 면접장에 입장했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는가 까지 고민할 수 있도록 침착함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면접 후반에 말을 빠르게 했는데도 시간이 아주 부족했습니다. 그만큼 면접에서 서류 질문 시간이 촉박했고, 제시문 답변만 잘하면 면접을 무사히 끝마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기본적인 준비만 열심히 하면 충분히 잘하실 수 있으니 따로 면접 학원을 다니거나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장 분위기에 대해 걱정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저의 경우 매우 편한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답변 중간중간에 오른쪽 분께서는 고개를 정말 많이 끄덕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교수님들의 반응에 힘입어 더욱 자신감 있게 발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면접은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해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학교추천Ⅱ를 지원하셨다는 것은, 3년간의 고교생활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 또한 준비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가지 모두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해온 만큼 준비하여 원하는 성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고려대학교	인문	경제학과	학생부종합 (학교추천2)	1.4
면접유형	면접 방식			
제시문 기반 면접 서류기반 면접	○ 유형: 2(면접관):1(지원자) ○ 내용: 제시문 기반면접과 학생부기반면접으로 구성된 통합 면접			
면접 내용				
<div><p>[제시문 내용 요약 및 문제]</p><p>(가) 제 4차산업혁명시대는 초연결사회로, 다양한 기술의 발달로(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나열) 지능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p><p>(나) 과학기술의 장점만 보는 과학기술지상주의를 비판하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간존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된다고 강조</p><p>(다) 증기자동차가 마차업계의 반발로 영국 정부의 과잉규제를 받고, 기술의 발전 또한 정체되었다는 사례 제시</p><p>(라)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적응할 수 있는 요소들 각 국가의 순위 매겨서(법과 제도, 노동 유연성, 기술 수준, 총 순위 총 4개) 우리나라는 법과제도, 노동유연성은 60등 내외였고 기술 수준, 총 순위는 20등 내외였다.</p><p>[문제]</p><p>1.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제시문 (가)비판</p><p>2. 제시문 (다)와 같은 상황과 유사한 현실 사례 들고 해결책 제시</p><p>3. (가)~(라) 제시문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방안 제시</p></div>				
<div><p>[답변]</p><p>1. 제시문(나)를 근거로 (나) 관점 요약, 제시문(가) 내용 요약, (나) 제시문 근거로 후에 인간의 존엄성 훼손, 인간의 일자리 감소 등 문제점 제시</p><p>2. ‘타다’를 예시로 들. ‘타다’ 기술 설명하고 공유경제가 세계시장 특히 중국에서 매우 성공하였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더 큰 만족을 얻게 되었다는 장점을 설명함. 그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택시업계의 반발로 여론이 형성되지 않고 국회내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는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p></div>				

면접 내용

3. (라)의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여 우리나라는 법과 제도, 노동 유연성 측면에서 낮음을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에 제시된 과학기술 지상주의 비판과 같이 기술 도입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만약 합의되지 않고 시행한다면 인간의 존엄성과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한 새로운 산업과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기는 인간의 일자리 감소에 대해서는 이러한 계층을 대상으로 신기술과 산업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등 재교육을 함.

[서류 기반 면접]

Q1. 경제학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능력 2가지

- A. 첫 번째 ‘수학적 능력’ 수학 시간에 발표한 경제수학 내용 추가 설명 두 번째 ‘공감 능력’을 이야기함.

Q1-1. 둘 중에 자신이 더 뛰어난 능력은?

- A. 두 번째 공감능력

Q1-2. 어떻게 길렀는지?

- A. 봉사활동을 통해 느낀 경제 시스템이 가져오는 사회적 문제 등에 공감하고 매주 신문 스크랩을 작성하며 사회적 문제에 꾸준한 관심을 가짐

Q2.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말

- A. 저는 아직 부족하지만 구체적인 책, 토론 내용, 등을 언급하며 경제 공부를 열심히 해왔으며 뽑힌다면 뛰어난 경제학자가 되겠습니다.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고려대학교	자연	건축사회환경공학과	학생부종합 (학교추천2)	1.6
면접유형	면접 방식			
제시문 기반 면접 서류기반 면접	○ 유형: 2(면접관):1(지원자) ○ 내용: 제시문 기반면접과 학생부기반면접으로 구성된 통합 면접			
면접 내용				
<p>제시문은 선택적 투과라는 개념을 통해 여러 제시문을 설명하도록 함. 전년도와는 달리 개념을 정해주고 이에 맞추어 설명하라고 하여 훨씬 쉬웠음.</p> <p>[제시문에 대한 대답 이후]</p> <p>Q1. 진로 목표를 위해 열심히 참여한 과목과 이유를 말해보세요</p> <p>A. 저는 환경오염에 관심을 가지고 교내 연못의 오염도를 측정하면서 용존산소량을 측정했는데 그 과정이 화학 2 내용이 필요해서 화학 2의 몰농도와 ppm과 같은 개념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p> <p>Q2. 건축사회환경공학과에 오기 위해 열심히 참여한 과목과 이유를 말해보세요.</p> <p>A.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앞의 질문에서처럼 화학 2의 내용을 공부하며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었고,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가지고 물리 2의 전기장과 자기장에 대한 내용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p> <p>Q3. 마지막 질문으로 앞으로 건축사회환경공학부의 전망이 어떻다고 생각하나요?</p> <p>A. 점점 늘어나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건축사회환경공학부에 향하고 있기 때문에(기억이... 잘...) ~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기술과 가치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p> <p>네. 수고하셨습니다.</p> <p>* 제시문 질문에 대답할 때는 제시문의 내용을 정리하여 대답하여 내가 제시문을 정확히 이해했다는 인식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질문 중 제시문과 연관된 개념을 설명할 때도 제시문에서 도출된 개념을 토대로 대답하려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여러 시사문제와 과학개념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는게 중요합니다.</p>				

대 학 명	계 열	모 집 단 위 (학 과)	전 형 (세 부 전 형)	등 급
고려대 학교	자 연	기 계 공 학 과	학 생 부 종 합 (학 교 추 천 2)	1.5 ~ 1.6
면 접 유 형	면 접 방 식			
제 시 문 기 반 면 접 서 류 기 반 면 접	○ 유 형 : 2 (면 접 관) : 1 (지 원 자) ○ 내 용 : 제 시 문 기 반 면 접 과 학 생 부 기 반 면 접 으 로 구 성 된 통 합 면 접			
면 접 내 용				
(제시문을 주어진 시간동안 풀고 답변내용 메모지에 정리하고 답변내용 생각 시간 충분함)				
Q1. 네. 1번부터 답변해보세요.				
A. 제가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연상한 개념은 ‘역할’입니다. 가 제시문에서는 ~에서 역할의 ~에 대해 설명하는 제시문이라고 생각했으며(가~ 나~ 다~ 라~ 마~ 순차대로 설명)				
이어서 2번 설명 드리겠습니다.(그냥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게 시간 아끼고 좋음)				
A.				
이어서 3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A.				
네. 설명 마쳤습니다.				
Q2. 생기부를 보면 진로가 비행기 분야와 많은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학교활동 중에 꿈과 관련하여 활동한 것이 있으면 하나 말해보세요.				
A. 답변 ~ 물리시간에 베르누이 정리랑 받음각을 통해 양력이 발생하는 내용 설명				
Q3. 그렇다면 베르누이는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다는 건가요?				
A. 흐르는 유체 속에서는 성립한다고 설명하고 비행기날개 단면에서 서로 흐르지 않게 보이는 비행기 날개 위, 아래 공기가 처음에는 비행기 앞부분에서 갈라진 점을 설명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힘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고려대학교	자연	전기전자공학부	학생부종합 (일반전형)	1.83
면접유형	면접 방식			
제시문 기반 면접 서류기반 면접	○ 유형: 2(면접관):1(지원자) ○ 내용: 제시문 기반면접과 학생부기반면접으로 구성된 통합 면접			
면접 내용				
<p>[제시문]</p> <p>가. 단백질 합성 과정에서 DNA와 RNA의 역할(전사 번역)</p> <p>나. 경제적 자본의 소유에 따라 자본가와 노동자로 나뉘는 현상</p> <p>다. 원자의 에너지 준위(E껍질), 양자화</p> <p>라. 아날로그의 디지털화(이진법)</p> <p>마. 소리의 밀한 부분과 소한 부분에 따른 파장의 결정 정상파(소리의 전달과정)</p> <p>Q1. 제시문 1번 질문(제시문의 공통으로 적용되는 개념) 해보세요.</p> <p>A. 저는 이 5가지 개념이 ‘구별되어 기능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의 경우에선 단백질의 합성 과정에 따라 DNA와 RNA가 서로 구별되어 다른 기능을 하고 있고, (나)에선 자본의 유무에 따라 자본가와 노동자가 구별되어 기능하고 있습니다. (다)에선 원자의 각 에너지 껍질이 구별되어서 상호작용하며 E 방출과 E 흡수라는 기능을 한다고 생각했고, (라)는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가 구별되어서 다른 기능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에서는 소리가 밀한부분과 소한 부분으로 나뉘어서 상호 작용을 통해 소리가 전달된다는 기능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p> <p>Q2. 네, 질문 2번((가)지문이 다른 지문들과 구별되는 점)이요?</p> <p>A. 저는 차이점이 양방향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지문에서 자본가가 노동자가 될 수 있고 노동자가 자본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했고, (다)에서는 E흡수와 E방출에서 양방향성 이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라)에선 아날로그와 디지털 신호가 서로 변환될 수 있다는 점, (마)에서는 소리의 밀한 부분과 소한 부분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에서는 RNA가 DNA가 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양방향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p>				

Q3. 공학도로서 필요한 3가지 역량이 뭐라고 생각해요?

A. 네. 저는 먼저 응용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응용력은 고대 면접 기출에 나옴)
이미 개발되어있는 자연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공학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이 공학도로서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탐구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연 과학도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하지만 공학도 역시 탐구심을 가지고 끝없이 정진해야 공학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윤리적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윤리적 책임감을 저버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Q4. 우리 학교(전기전자공학부)에 와서 뭘 배우고 싶어요?

A. 전자공학과에 진학하여 회로설계에 대해 배우고 싶습니다.

Q5. 좀 더 구체적으로?

A. 회로설계를 중심으로 미래의 자동화 식품 공장을 설계해보고 싶습니다!

Q6. 제시문 3번(제시문 1번 답변의 예시) 안했죠? 해봐요.

A. 저는 원자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자핵은 원자의 물리적 성질을 나타내고, 전자는 원자의 화학적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구별과 기능한다고 생각합니다.

대 학 명	계 열	모 집 단 위 (학 과)	전 형 (세 부 전 형)	등 급
고려대 학교	자 연	건 축 학 과	학 생 부 종 합 (일 반 전 형)	2.8
면 접 유 형	면 접 방 식			
제 시 문 기 반 면 접 서 류 기 반 면 접	○ 유 형: 2(면 접 관):1(지 원 자) ○ 내 용: 제 시 문 기 반 면 접 과 학 생 부 기 반 면 접 으 로 구 성 된 통 합 면 접			
면 접 내 용				
<p>신분증으로 본인확인 하고 큰 강당에서 대기. 1명씩 면접실로 감</p> <p>[제시문 문제풀이]</p> <p>먼저 14분 동안 제시문 문제를 푼다.</p> <p>가, 나, 다, 라 총 4개 문단이 주어지고 이 제시문들의 공통점을 찾으라는 문제가 주어지고 나는 ‘확산’이라는 성질을 찾았다.</p> <p>다음 문제로 ‘가, 나’와 ‘다, 라’가 다른 점을 찾아야 했고 나는 ‘방향성’이라는 성질에서 둘이 서로 구분된다는 것을 찾았다.</p> <p>[면접]</p> <p>이제 면접관이 있는 방으로 들어간다. 2명의 면접관이 있고 그 앞에 내가 앉아서 10분 정도 면접을 진행한다.</p> <p>먼저 제시문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 문제를 풀이한 대로 답변을 하고 추가질문이 하나 들어왔다. ‘가, 나’와 비슷한 성질 즉, 확산과 방향성의 성질을 가진 현상을 한가지 말해보라 했다. 나는 침착하게 이 두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빛’을 설명했다.</p> <p>다음으로 학생부기반 면접을 진행한다.</p> <p>생기부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지 않았다.(읽어보지 않은 것 같은 느낌)</p> <p>Q1. ‘가장 인상 깊었던 건축물은?’</p> <p>A. 르코르뷔지에의 빌라사보아</p> <p>Q2. 그 이유는?</p> <p>A. 넓은 창, 필로티, 옥상정원 등이 새로웠고 멋있었다.</p> <p>Q3. 우리나라의 필로티와 빌라사보아의 필로티가 다른점은?</p> <p>A. 빌라사보아의 필로티는 주변에 자연이 있다. 횡설수설함</p>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고려대학교	인문	사학과	학생부종합 (일반전형)	2.49
면접유형	면접 방식			
제시문 기반 면접 서류기반 면접	○ 유형: 2(면접관):1(지원자) ○ 내용: 제시문 기반면접과 학생부기반면접으로 구성된 통합 면접			
면접 내용				
<p>면접대기실에서 조별로 앉습니다. 각 조마다 정원은 대략 30명 정도인데 실제로는 최저 기준 때문인지 17~21명 정도 왔던 것 같습니다. 전자기기는 물론, 유선이어폰, 아날로그시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랜덤으로 정해진 면접순서를 부여 받고 제시문 독해를 위해 면접 준비실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14분 정도 시간을 주는데, 연습지에 면접장에서 자신이 말할 내용을 적을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비해 독해시간이 약 10분정도 줄어든 탓인지 지문도 (가), (나) 두 지문 밖에 없었고 문제도 2문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문항들은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으므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이후 시간이 다 되면 펜을 놓고 면접장 앞에서 대기합니다. 그때 자신이 연습장에 적은 내용을 연습할 수 있지만, 별도의 수정행위는 불가합니다.</p> <p>먼저 들어간 앞사람이 나오고, 면접장안으로 들어갑니다. 한 분은 중년 여성분이셨고, 다른 한분은 중년 남성분이셨습니다. 들어가서, 자리에 앉고, 먼저 제시문 면접을 먼저 진행했습니다. 적힌 글을 읽는 것이기 때문에 잠깐의 아이콘택을 여러 번 하며, 말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 읽은 후, 당황스러웠습니다. 여성 면접관분께서 제시문에 관해 별도의 질문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시간이 좀 남았네요. 더하고 싶은 말 있나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내 답이 맞으니깐 질문을 하지 않는거다. 그리고 더하고 싶은 말도 없으니깐 넘어가자’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니오. 이상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p> <p>제시문 면접이 끝나고 이번엔 옆에 계신 남성 면접관께서 생기부 기반 면접을 진행하셨습니다.</p> <p>관련된 질문은</p> <p>Q1. 사학과 관련해서 관심있게 된 계기?</p> <p>Q2. 보고서 작성, 대회</p> <p>이렇게 3가지를 물어 보셨습니다.</p>				

면접 내용

여기서 또 당황했습니다. 모든 질문에 ‘사학과 관련해서’라는 문구를 포함해서 질문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우리 학교가 이과 중심의 대회가 많고, 문과는 해봤자, 글쓰기 대회가 다수였기 때문에 몇몇 질문은 답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해 답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관심있게 된 계기에 관해서는 지난 3년 동안 일관성 있게 ‘시사이슈토론부’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학년 때 여러 국제적 분쟁사례들을 조사하다. 이러한 분쟁들의 대부분이 역사적 갈등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역사를 공부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후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3학년때, 저는 동아리에서 일본과 우리나라’사이의 갈등으로 그 범위를 좁혀, ‘역사광장’이라는 토의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친구들 앞에서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역사의식’이 중요함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최근 ‘기레기’라고 비난 받는 ‘기자’가 아닌 대중들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자가 되고 싶고, 이를 위해선 비판적인 사고를 가능케하는 사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크게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작성에 대한 질문은 자소서에서도 언급한 ‘역사강의’에 관해서 풀어나갔습니다. 대부분 자소서의 내용을 따라 풀어나갔기에, 쉽게 답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도 이 부분이 다른 지원자와 큰 차이가 나는 대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답변 내용은 역사강의를 주최하게된 계기 및 진행 과정, 내가 청중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고, 내가 깨달은 바는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회 관련된 내용에서 진짜 엄청 당황해서, 잠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내에서 역사관련 대회가 있었나? 라는 물음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 생기부 중 수상 관련된 내용을 급히 떠올리던 도중 ‘역사논술글쓰기’ 대회에서 수상을 한 경험이 불현 듯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역사논술 대회에서 저만의 글쓰기 톨인 What, Why, Not, But, So를 이용해 논리적인 글을 써나갔고 수상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이후에는 앞선 글쓰기 톨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자 교수님께서 다시 질문하셨습니다. “네, 뭐 혹시 그 과정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 가능한가요?”

그래서 잠깐 당황했지만 순간적으로, ‘아, 이거 무조건 독서랑 연관지어야 겠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보통 그 역사논술 주제를 보면 어느 한쪽이 정답이 아닌 대립되는 가치관들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접하기 위해, 저는 자연스럽게 역사관련 도서들 쪽으로 관심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중 ‘그리스 로마 영웅열전’이라는 책을 접한게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 책을 통해 여러 역사적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알게 되었고, 나라면 어떻게 알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역시, 이는 제가 어떤 주제를 접하는 경우에도 비판적으로 사고하게 해주었습니다.” 답변을 마치고 면접 역시 끝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유튜브에서 고려대 사학과 홍보영상을 찾아본 결과 남성분은 실제 동양사를 전공하신 사학과 교수님이셨습니다. 혹시 면접보러 가실 분이면 한번 해당 대학 학과 홍보영상 찾아서 교수님들과, 해당 커리큘럼 찾아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동국대학교	자연	전자전기공학부	학생부종합 (Do Dream)	3.23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 유형: 2(면접관):1(지원자) ○ 시간: 10분 내외 ○ 내용: 공통질문을 지양하고, 개인 서류 기반으로 한 질문 ○ 평가: Do Dream, 주도적인 고교생활			
면접 내용				
<p>Q1.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보니 봉사활동을 많이 했네요. 이유가 무엇인가요?</p> <p>A. 수학을 가르쳐주는 봉사활동을 통해 논리적으로 말하는 방법을 깨우치고자 하였습니다.</p> <p>Q2. 이렇게 봉사활동을 많이 하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나요?</p> <p>A.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많은 1학년 때 집중적으로 해서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p> <p>Q3. 베르나르 베르베르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책과 이유에 대해 알려주세요.</p> <p>A. 신에 관한 책을 읽었고 견문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p> <p>Q4. 학생이 우리 학과에 들어와서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하고 싶은지 알려주세요.</p> <p>A.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분산전력체계에 대해 공부하고 싶습니다.</p> <p>Q5. 전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지 말해주세요.</p> <p>A. 소비자와 공급자가 실시간으로 상호적인 보완을 하며 전기를 사용하도록 하면 됩니다.</p> <p>Q6.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p> <p>A. 동국대의 학생으로서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p>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동국대학교	인문	경찰행정학부	학생부종합 (Do Dream)	1.7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 유형: 2(면접관):1(지원자) ○ 시간: 10분 내외 ○ 내용: 공통질문을 지양하고, 개인 서류 기반으로 한 질문 ○ 평가: Do Dream, 주도적인 고교생활			
면접 내용				
<p>대기실에서 경찰행정 학부 이외의 다른 학과 학생들과 함께 면접을 기다립니다. 물 또는 간식은 지급되지 않고 볼펜, 사인펜, 수정테이프가 담긴 동국대 필통이 지급됩니다. 자신의 차례가 되기 직전에 면접의 진행을 도와주시는 감독관님이 복도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p> <p>[면접 질문]</p> <p>Q1. 지방에서 올라오셨죠?</p> <p>Q2. 3학년 때 중국 시 낭송 대회(3위)에서 발표하였던 시 낭송하기 (장염 걸렸을 때 발표한 대회여서 기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당황하여서 대신 중국어로 자기소개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중국어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하였습니다.)</p> <p>Q3. 2학년 때 English Presentation(4위)는 무슨 대회였는지</p> <p>Q4. 위 대회에서 발표하였던 대본 간단히 해 보기</p> <p>Q5.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자기 생각</p> <p>Q6. 책 ‘타살의 흔적(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법의관, 강신몽)’에서 흥미로웠던 부분</p> <p>Q7. 자신의 단점</p> <p>Q8.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p> <p>[이 밖의 TMI]</p> <p>1. 제가 면접을 보았던 시간에 경찰행정학과 남녀 비율은 남자가 한 명이었고 이 밖은 모두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3분의 2가 면접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p> <p>2. 감독관님이 2명인데 목포여고 음악실 책상처럼 같이 앉아 계시지 않고 따로 앉아 계십니다.</p> <p>3. 면접실의 크기는 목포여고 평균 교실 크기보다 조금 더 컸습니다.</p> <p>4. 면접관분들이 다른 학교에 비교해 잘 웃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면서 감정을 추스르는 법을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p> <p>5. 제가 학교생활기록부 독서 활동 상황에 약 130권을 올렸는데 이 중에서 인상 깊었던 도서에 관해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정말로 읽었는지 확인하시기 위해 도서를 골라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공과 관련된 도서를 질문하셨던 것 같습니다.</p> <p>6. 위 학교의 면접을 보기 전에 다른 학교의 면접에 지원하였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덜 떨렸지만, 질문들이 생각 이상으로 더욱 섬세하고 빠르게 진행된다고 느껴졌습니다.</p>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서울시립대학교	인문	경제 학부	학생부종합전형	2.13
면접 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 내용: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질문과 기타 질문			
면접 내용				
<p>Q1. 국제무역의 장/단점을 말해보시오.</p> <p>A. 국제무역의 장점은 국내시장의 초과수요를 무역을 통해 보충함으로써 소비자 잉여를 증가시키고, 단점으로는 국제무역을 통해 국내생산시장에서 생산자의 잉여가 감소하는 점입니다.</p> <p>Q2. 1, 2 학년 때까지 진로희망이 법률가였는데 경제사회학자로 바뀐 이유?</p> <p>A. ‘EBS 다큐프라임 민주주의’라는 책을 읽고 경제학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경제학에 대한 이미지는 주식, 회사 경영 등이었지만 이 책을 읽고 경제학이 자원 배분을 해결한다는 것을 알게 돼서 경제사회학자로 바뀌었습니다.</p> <p>Q3. 2학년 때 경제를 선택하지 않았는데 왜 3학년에는 국제경제를 선택했는가?</p> <p>A. 질문 2번과 비슷하게 대답함.</p> <p>Q4. 학생부를 보니까 수학 성적이 좋고 자소서 1번 내용도 수학 관련해서 적은 걸 보면 수학을 좋아하는 거 같은데 왜 수학과를 가지 않았는가?</p> <p>A. 제가 수학에 관심이 있고 또 좋아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가진 수학적 능력과 같은 저의 능력을 통해 사회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보탬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이과를 가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p> <p>Q5. 자소서 1번 내용 중 ‘페르마의 작은 정리’ 설명 좀 해봐라.</p> <p>A. 설명했는데 교수님들 이해 못했음.</p> <p>Q6. 1학년 성적 안 좋다가 2학년 때 잘 올라갔는데 왜 3학년 성적이 내려갔는가?</p> <p>A. 2학년 때 경제를 선택하지 않고 3학년 때 국제경제를 선택해서 2학년 겨울방학 단 2달 안에 끝내야 했고 그러다가 내신이 조금 하락한 것 같습니다.</p>				

Q7. 경제학의 개념을 말해봐라.

A. 경제학의 일반적인 개념은 최소의 자원으로 최대의 만족을 이끌어내는 효율성에 더 중점을 두지만 제가 나아가고자 하는 학문은 형평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경제학입니다.

Q8. 3학년 때 후생경제학 공부를 했다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공부했나?

A. 대학교재로는 공부하진 않았고 인터넷에서 경제 블로그 같은 곳에서 지식을 습득해서 친구들과 같이 공부했습니다.

Q9. 서류를 보니까 학생은 부동산경제학하고 후생경제학에 관심이 있는 거 같은데 둘의 공통점은?

A. 이걸 뭐라 했는지 기억이 안 남

Q10. 독서활동 중에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를 읽었는데 선생님한테 배운 거하고는 다르지 않았나?

A. 이것도 기억이 안 남

Q11.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제가 비록 경제학에 관심이 생긴 지 길어봐야 1년 반 밖에 안 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경제학에 대한 열망은 여기 있는 누구보다 뒤쳐지지 않는다는 점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성신여자대학교	자연	바이오식품공학과	학생부종합 (학교생활우수자전형)	2.8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 유형: 2(면접관):1(지원자) ○ 내용: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질문과 기타 질문 ○ 평가: 인성, 전공적합성 학업역량, 발전가능성을 평가자가 종합적, 정성적으로 평가			
면접 내용				
Q1. 지원동기는?				
Q2. 진로변경의 결정적 계기는?				
Q3. 인상 깊은 책은? +꼬리. 식품첨가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Q4. (자율동아리) 그람염색 실험 동기는? +꼬리. 대장균이랑 포도상구균으로 실험을 진행했는데 세균과 바이러스 차이점 알고 있나?				
Q5. (수상관련) 발명품대회 2번 참가했는데 인상 깊은 발명품은?				
Q6. (동아리) 식품알레르기 캠페인 진행했는데 식품알레르기가 뭔가? +꼬리. 식품알레르기가 왜 위험한가? 위험하게 하는 물질은?				

대 학 명	계 열	모 집 단 위 (학 과)	전 형 (세 부 전 형)	등 급
성신여자대학교	인문	경영학과	학생부종합 (자기주도인재전형)	3.5
면접 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 유형: 2(면접관):1(지원자) ○ 내용: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질문과 기타 질문 ○ 평가: 인성, 전공적합성 학업역량, 발전가능성을 평가자가 종합적, 정성적으로 평가			
면접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명당 10분씩 면접관 두분이 진행하심• 면접 질문에 나의 생기부 내용과 자소서 내용을 연관시키며 대답하는것을 추천• 편안한 분위기였음, 답변에 시간 제한 없으며 답변 끝까지 들어주심• 블라인드 면접이라 가번호 배정• 면접 전 주의할 점 공지하며 수시 pdf파일에도 공지되어 있음				
[면접 질문]				
Q1.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 활동은 무엇인가요?				
A. 중학생과 멘토멘티 봉사를 언급하며 진로희망사항이었던 경영학과 교수와 연관지으며 대학에 진학하여 전문적인 경영지식을 배우고 다양한 방식으로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다고 답변하여 희망사유하고도 연결지음.				
Q2. 봉사기록에 노인복지센터에서 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가서 무슨 활동하였나요?				
A. 말벗되어주기, 청소, 문화의 날 기획 등을 말하며 그곳에 계신 할아버지와 대화를 통해 노인들이 느끼는 무인판매기의 사용의 힘듦을 깨닫고, 실제로 터미널에서 도와줬던 경험을 언급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경영자는 발전하는 기술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연성과 대처능력이 있어야 함을 느꼈다고 한 후 이를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경영학과 교수가 될 것이라고 답변, 또한 사용매뉴얼을 탑재할 것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 / 4차 산업 혁명을 주제로 했던 경영학과 교수 강의에서 느꼈던 점을 바탕으로 쓴 자소서 내용과 연관시킴, 주기적으로 간 것 강조함				
Q3. 수상 경력 중 본인에게 가장 유의미한 수상과 그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나요?				
A. 독서달력 제작, 장기간 동안 노력하여 유의미하고 경영학과 책 접하게 된 과정				

Q4. 아까 언급한 교육 봉사에서 힘들었던 점과 극복한 과정

A. 자소서 3번 내용과 연관하여 말함

Q5. 동아리 활동에서 교육 외의 경영과 관련된 활동 질문

A. 교육자는 다양한 분야를 섭렵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다양한 분야지식을 얻기 위해 들어간 동아리에서 경영학과 커리큘럼을 찾아보고 소비자 모델 변화 조사했던 내용언급, 경영학과 교수가 되어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위해 수업 방식 조사 / 동아리 활동란 내용 바탕

Q6. 가장 학습에 중점을 두었던, 열심히 했던 과목이 무엇이며 그 과목이 지원한 전공과 어떠한 관련 있나요?

A. 영어라고 대답, 글로벌 시대에서 경영에서 소통을 하기 위해 영어 회화 능력 중요하다고 느껴 이를 키우기 위해 영어 공부 열심히 했으며 자소서 1번 문항답변과 연관지음

Q7. 학교 활동 중 경영과 관련된 진로활동은 무엇인가요?

A. 대학탐방에서 경영학과 교수 강의 수강, 경영학과 관심갖게 되어 강의에서 내가 질문한 내용 언급하며 경영학과를 희망학과로 정하게 되었던 큰 계기라고 밝힘, 진학후 계획도 밝힘(자소서 4번 내용하고 연관지음)

Q8. 독서한 것 중 경영과 관련된 책은 무엇인가요?

A. 독서 활동 기록중 경영 책 언급하며 줄거리 소개 및 반장을 하며느꼈던 점을 언급하며 줄거리인 경영자의 리더십에 대한 생각 답변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송실대학교	자연	전기공학부	학생부종합 (SSU미래인재전형)	1.8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 유형: 2(면접관):1(지원자) 블라인드 면접 ○ 시간: 10분 내외			
면접 내용				
<p>Q1. 벡터에서 내적의 정의란?</p> <p>A. 내적은 무언가를 쌓아 올린다고만 알고 있고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p> <p>Q2. 110V와 220V의 차이?</p> <p>A. 220V는 전력손실이 적으며 위험하다.</p> <p>Q3. 표준정규분포의 정의?</p> <p>A. 평균이 0이며 좌우대칭인 종모양의 그래프이다</p> <p>Q4. 벡터의 내적이 실생활에 쓰이는 경우?</p> <p>A. 잘 모르겠습니다.</p> <p>Q5. 싸인함수와 코싸인 함수의 합성?</p> <p>A. 잘 모르겠습니다.</p> <p>Q6. JOULE THIEF회로란?</p> <p>A. 낮은 전압을 사용가능한 전압으로 승압해주어서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회로가 될 것 같다.</p> <p>Q7. 10초안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10초 안에 간단히 해주세요.</p> <p>A. 제가 만약 송실대에 입학한다면 열심히 다니겠습니다.</p>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송실대학교	자연	화학공학과	학생부종합 (SSU미래인재전형)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 유형: 2(면접관):1(지원자) 블라인드 면접 ○ 시간: 10분 내외			
면접 내용				
<p>Q1. 자소서에서도 쓰여져 있는데, 우리 송실대학교에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화학과가 아닌 화학공학과에 지원을 하게 되었는지? 또한, 화학공학과에 진학 후,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자소서 4번 내용)</p> <p>A. 대학입학포털을 찾아보던 중, 송실대학교의 비전 중 한 가지가 환경보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환경보호에 큰 관심이 있었기에 이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사역으로 필리핀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이 때, 갑자기 오른쪽 교수님이 쳐다봄) 필리핀의 빈민지역으로 사역을 갔었는데, 집 내부에서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토대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태양전지를 보급하여 전기를 쓸 수 있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화학공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화학공학과는 화학과와 다르게 어떤 문제를 인식하게 되면 그 문제를 화학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산물을 만들어 해결하는 곳으로 알고 있었기에, 화학과보다는 화학공학과에 지원했습니다. 또한, 향후에 태양전지를 연구하는 연구원으로 인류의 공영에 영향을 끼치고 싶습니다.</p>				
<p>Q2. 아까 대답을 보면 태양전지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태양전지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단점도 조금 알려주실 수 있나요?</p> <p>A. 제가 알기로 태양전지가 3세대까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1세대 태양전지인 실리콘계 태양전지는 실리콘이 14족이라 반도체로서 적합하고, 매장량이 많지만, 단가가 높아 많이 쓰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2세대 태양전지인 염료감응형 태양전지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는 단가가 낮아 많이 쓰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효율이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아, 많이 쓰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세대 태양전지에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등 여러가지 태양전지가 존재하는데요. 그 중, 제가 가장 관심이 많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단가가 낮으며, 효율도 현재 20%에 육박할 정도로 좋은 태양전지인데요. 여기서 페로브스카이트는 반도체, 부도체, 도체 등 여러 가지 특성을 뿜 수 있으며, 구조가 나노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전류 수송에 용이합니다.</p>				

면접 내용

하지만 이런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또한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물과 같은 습기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6월달 정도에 뉴스에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내에 수산화납으로 이루어진 보호막을 씌어 물속에서도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를 더 연장시켜보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화학공학과에 지원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Q3. 자소서 내용을 보다보면 다양한 실험을 했는데 산화환원 실험 같은 거도 했고, 철의 부식정도 실험도 했네? 그런데 철의 부식정도 실험을 하면서 철의 부식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알게 된 일거양득의 시간이라 적혀져 있는데, 철의 부식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자소서 1번)

A. 아, 먼저 물과 접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철보다 산화경향성이 더 큰 물질을 함께 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Q4. 그러면 그것에 대한 예시에는 무엇이 있을까?

A. 음... 철로 만들어진 배 아랫부분에 물로 접촉하기 때문에 아연판과 같은 것을 붙여 놓으면 철이 산화되어 부식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5. 또 다른 예시는?

A. 땅속 지하에 철로 된 산소탱크를 묻어두는 곳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연판 또는 마그네슘 판과 같은 것을 연결해 두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6. 자신이 생각하기에 본인의 장점에 대해 말해주세요.

A. 제가 생각하기에 저의 장점은 '끈기'와 '포기하지 않는 자세'인 것 같습니다. 동아리 활동 중에서 미세먼지 흡착 패드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팩 메이커 아, 마스크 팩 아시죠? 팩 메이커를 이용해 미세먼지 흡착성을 가지는 키토산 파우더를 겔 형태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 5~6번의 제작을 하였는데, 겔 형태가 아닌 물과 같이 계속 흘러내리는 것이 만들어 졌습니다. 계속 이 현상이 반복되자, 한명씩 실험이 너무 어렵다고 다른 실험을 하면 어떻겠냐고 하였지만, 저는 계속 인터넷 조사를 하여 여러가지로 시도하였고, 그 결과 겔 형태의 미세먼지 흡착 패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끈기와 포기하지 않는 자세를 가졌다는 것에 대한 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자소서 2번 내용을 조금 엮어서 말함)

Q7. 겔 형태로 만들어지지 않은 원인은 무엇이었나?

A. 아, 겔 형태의 마스크 팩을 만들기 위해서 물과 키토산 파우더를 원심분리기를 이용해 섞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으로 실험하다 보니, 몇대 몇으로 섞어야 하는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물과 키토산 파우더를 3대 1의 비율로 섞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오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면접 내용

Q8. 혹시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는 모르는가?

A. 음.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향후 집에서 알아볼 의향은 있습니다.

Q9.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마지막으로 이 말 못하면 나는 집에서 잠을 못 잘 것 같다 하는 것 있으신가요?

A. 저는 ‘화학’이라는 단어를 매우 사랑하는 학생입니다. 제가 화학을 사랑하는 만큼 화학 관련 프로젝트 및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였고,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10원 동전 도금 실험이나 환경에 따른 철의부식정도 비교 실험과 같은 실험 또한 진행하였습니다. 심지어, 봉사활동 또한 드라이아이스와 에탄올을 이용한 아이스크림 만들기 활동을 하는 등 전반적인 화학지식을 이용한 봉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만큼 제가 화학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면접 보면서 분명 실수한 것도 많았을테지만, 그만큼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접자의 솔직 후기]

1. 면접 보기 전 대기실에서 A4용지에 쓰인 자기소개서 및 생기부, 면접 관련 준비 자료는 볼 수 있으니 꼭 챙겨가세요!
2. 본 면접을 진행하기 전에 면접관들이 “학교 어떤지?”, “언제쯤 왔는지?” 등을 물어 보시면서 긴장 풀어드리니깐! 긴장 많이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3. 화학공학 같은 경우에는 면접실이 2개였고, 대기실에 앞 번호는 첫 번째 방으로 뒷 번호는 두 번째 방으로 들어가서 면접을 봤어요!
4. 면접실에 들어가기 전에 수험번호가 아닌 가번호를 주시는데, 이 가번호는 면접 때 말해도 되는 번호예요. 물론 수험번호는 절대 말하면 안돼요!(불이익 있어요) 또한, 가번호는 명찰로 받는데 면접 끝나면 꼭 제출하시고 가세요!
5. 저는 예비번호 23번을 받았는데, 거의 불합격? 이에요. 그 이유를 혼자 생각해봤는데, 아마 제가 1-1 질문에서 많이 외운 것 같은 티를 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외운 것 같은 티를 내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본인의 지식이 아니라, 대학 들어오려고 외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6. 저 같은 경우는 1, 2학년 때 교사를 지망하다가 3학년 때 화학공학을 지망하게 되어서 생기부에서 질문할 내용이 많이 없었기에 자기소개서에서 거의 모든 질문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깐 후배님들은 생기부도 많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대 학 명	계 열	모 집 단 위 (학 과)	전 형 (세 부 전 형)	등 급
연 세 대 학 교	자 연	생 명 공 학 과	학 생 부 종 합 (하 동 우 수 형)	1.07
면 접 유 형	면 접 방 식			
제 시 문 기 반 면 접	○ 유 형: 2(면접관):1(지원자) ○ 시 간: 8분 내 외 ○ 순 서: 면접 대기실 대기 → 순서가 되면 조교를 따라 면접 준비실로 이동 → 면접 준비실에서 감독관 말씀에 따라 제시문을 연습지에 품 → 제시문을 풀고 나면 연습지를 가지고 조교를 따라 면접장으로 이동 → 앞 지원자가 끝날 때까지 기다림 → 면접장에 들어가면 문제지가 놓여있음 → 면접 → 면접이 끝나면 개별적으로 퇴실(단, 오전의 경우 문제 유출 방지를 위해 1시에 일괄 퇴실)			
면 접 내 용				
※ 문제에 대한 답을 중심으로 기술했으니 문제를 아직 보지 않았다면 보고 나서 읽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문제는 기출문제가 되었으니 여러분들께서 이미 보셨을 거라 생각되어 답변을 중심으로 내용을 기술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며, 정답이 아니니 꼭 참고만 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옳다고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저는 면접장에서 정말 많이 버벅거렸습니다. 무조건 청산유수처럼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의사항 꼭 정독하세요!				
Q1. 오느라 많이 힘들었죠?(긴장 풀기용 질문)				
A. 네!(힘차게 웃으면서 대답)				
[1번 답]				
(가)의 내용은 동물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쪽의 반대 입장, (나)의 내용은 잉여란 폐기물, 쓰레기에 해당하므로 잉여란 불필요한 것임을 나타내는 내용임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의 A가 불필요한 강아지를 계속 키우려 하고 있으며 정을 주는 것을 비판할 점으로 답변했습니다.				
[2-1번 답]				
분석은 우선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했습니다. - 소형견, 중형견에 비해 대형견의 가격이 높음. - 잡종에 비해 순종의 가격이 높음. 이때 가격이 높다는 것은 가치가 높다, 즉 수요가 많음을 의미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면접 내용

[2-2번 답]

사회 현상 문제점을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했습니다.

- 가격이 낮은 잡종, 소형견, 중형견은 상대적으로 권리가 낮아 무시를 당할 것이며 이들의 생명윤리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내용을 답했습니다.
 - 특정 동물들의 권리가 폄하되는 현상은 즉 인간 여성들의 권리를 폄하하는 현상으로 이어져 성평등에 어긋나는 사회를 조장할 문제가 있다고 답했습니다.(제시문 (가)내용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이상입니다.

[꼬리질문 시간]

Q2.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볼래요?

- A. 예. 우선 제시문 (가)는 동물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터무니없으며, 이를 근거로 인간 여성의 권리까지 무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제시문 (나)는 잉여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즉 불필요한 것에 해당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Q3. 아까 답변에서 B를 비판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가)와 (나)를 바탕으로 B도 비판해 보실래요?

- A. 우선 제시문 (가)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B는 동물들의 권리를 아동의 권리보다 낮게 보고 있습니다. 이는 비판할 만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제시문 (나)의 경우 B는 잉여에 해당하는 강아지를 A에게 버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굳이 버리지 않아도 되는 잉여의 개념으로 보았을 때 무조건적으로 버리라고 강요하는 모습이 비판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Q4. 음, 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보세요.

- A. 네. 연세대 생명공학과는 3D 미니뇌 제작이나 의약품 생체 반응기기 제작 등을 연구하는 교수님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합격한다면 꼭 그 교수님께로부터 연구에 관한 이야기를 꼭 듣고 싶습니다.

※ 당부의 말

[면접대기실 및 기본]

우선 기본이나 매우 중요한 것은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것입니다. 조교 혹은 안내 분들께서 유의사항 말씀하실 때는 항상 주의 깊게 들으세요.

면접을 대기하며(문제 풀러 가기 이전) 생기부, 자소서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 풀러 가는 순서는 랜덤이니 준비는 미리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신분증과 수험표는 면접장 앞에서까지 검사하니 꺼내기 편한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 내용

[면접 준비실]

각 조당 1명씩 면접준비실로 가서 문제를 풀니다.(8분) 문제 풀 때 3분 전, 1분 전 이렇게 시간 알려주는데 확실히 8분은 짧습니다. 물론 그만큼 어려운 내용을 주진 않으니 겁먹지 마세요. 필기구 없어도 앞에 볼펜이 있으니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면접 문제에 관해 말씀을 드리자면, 그간 기출보다 살짝 어려워진 감이 있었습니다. 자료 해석뿐만 아니라 제시문도 추가되어 당황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제시문이 있는 면접에 익숙해질 수 있게끔 연습을 착실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면접장]

역시 서류 질문 거의 없이 제시문으로만 면접을 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서류 질문은 2-3가지 정도만 준비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지원동기, 진학 후 학업계획, 자랑하고 싶은 점 등) 위에 보시다시피 저 같은 경우 완벽하게 답변을 구성하진 못했지만 부족할 부분을 교수님께서 꼬리질문을 통해 채워주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꼬리질문=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기준에 작년에는 준비시간이 10분이었다고 들었는데 면접시간이 8분인 것을 확인하고 놀랐었습니다. 캠프에서 연습을 착실히 한다면 모든 문제에 답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답변할 양보다는 어떻게 말하고 답변을 유기적으로 구성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세요. 저 같은 경우 앞에 “~한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생각이 정리된 느낌을 주어 매우 좋다고 캠프에서 배웠습니다. 이 방식이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면접 후 대기실]

오전 면접의 경우 면접이 끝나도 일괄퇴실 때문에 면접 후 대기실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책을 볼 수도 있고, 큰 소리만 내지 않는다면 수험생 간의 대화도 가능합니다. 사탕 등을 준비하신다면 말동무를 만들기 쉬우실 겁니다.

[당부의 말]

팁을 드리자면, 역시 제시문 면접 경험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답변을 구성하는 노하우는 경험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무작정 키워드만 적고 면접장에 입장했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는가까지 고민할 수 있도록 침착함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면접장 분위기에 대해 걱정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저의 경우 교수님들이 2분 모두 여성 분이셨는데, 말투나 행동면에서 편하게 대해 주시려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면접장에서 자신감을 갖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면접은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해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활동우수형 1차에 붙으셨다는 것은 그만큼 3년간의 고교생활을 열심히 보낸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잘 해온 만큼 준비하여 원하는 성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연세대학교	자연	생명과학기술학부	학생부종합 (교과면접전형)	3
면접유형	면접 방식			
제시문 기반 면접	○ 시간: 제시문을 30분 동안 숙지 후, 15동안 면접 진행			
면접 내용				
<p>제시문 내용은 보호지역으로 등록된 산에 케이블카 찬반에 대한 글이었습니다.</p> <p>제시문(가) 내용은 지역개발에 있어 각자가 주장하는 입장에 대해 무조건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고 제시문(나)는 케이블카 찬성에 대한 내용으로 그 지역의 학생들과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문화체험의 기회제공과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고 보호종인 산양은 먹이큐브를 주어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시문(다)는 (나)제시문에 나온 먹이 큐브를 산양에게 주는 것은 건강과 야생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케이블카 설치에 있어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산양의 번식과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p> <p>면접 문제 1-1은 (가)를 바탕으로 (나), (다)제시문의 논제를 설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p> <p>저는 여기서 (나)는 개발을 중시하는 것이고 (다)는 환경을 중시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근거로는 제시문에 나온 문장을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p> <p>1-2는 케이블카 설치 찬반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p> <p>저는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했습니다. 근거로는 최근 목포에 케이블카가 설치되었는데 케이블카 이외에는 딱히 관광할 만한 것이 없었다는 관광객의 발언을 들어 환경을 파괴하며 설치한 케이블카로 일시적인 관광객 증가가 있을 수 있지만 지역 특색을 살린 다른 관광지가 없다면 결국 관광객의 일시적인 증가에 그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면접관님이 그럼 ○○군 사람들이 어떻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고 추가 질문을 하셔서 케이블카 설치가 아닌 생태 체험 등 깨끗한 자연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관광객 증가와 지역이미지 개선 등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답변하였습니다.</p> <p>2-1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 사건 A는 두 눈의 합이 짝수인 사건, 사건 B는 두 눈의 곱이 짝수인 사건일 때 P(A)와 P(B)를 구하는 문제였고 2-2는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8번 던질 때, 두 눈의 수의 곱이 짝수인 시행 횟수를 확률변수 X라고 했을 때, Y=2X-2의 평균과 분산, P(X=3), P(X=2)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p> <p>독립시행과 이항분포를 이용한 풀이과정을 말씀드렸고 본인의 풀이과정에서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냐는 추가질문을 하시고 없는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p> <p>제시문에 대한 모든 답변이 끝난 후에는 꼭 하고 싶은 말 또는 계획 등을 질문하셨고 꼭 합격하고 싶다고 답변하였습니다.</p>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이화여자대학교	인문	역사교육과	학생부교과 (고교추천전형)	1.3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 유형: 3(면접관):1(지원자) 블라인드 면접 ○ 시간: 10분 내외			
면접 내용				
<p>Q1. 성적이 굉장히 좋네요. 추천은 학교에서 다섯 명 이내의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데 본인이 추천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성적 빼고 말해보세요.</p> <p>A. 성실함 덕분에 받을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음. 그리고 내가 성실하다는 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례를 말하고 선행상, 봉사상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것도 이야기함. (성적이 좋다고 해서 공부법 같은 걸 물어볼 줄 알고 준비한 거 말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추천받을 수 있었던 이유 물어봐서 솔직히 조금 당황했다. 그래서 그냥 급하게 떠오르는 좋은 단어 말했는데 그게 성실함.)</p>				
<p>Q2. 굉장히 소규모 학교인데 그렇다면 학생들끼리 교우관계는 다 좋겠네요?</p> <p>A. 여학생들, 남학생들 간 관계 좋다고 이야기한 후에 학교폭력 없는 학교라고 말함 (이것도 완전 당황했음 TTT 소규모 학교니까 안 뵈으려고 질문했다는 생각도 들었고 전교 부회장 활동하면서 했던 마니또 이야기를 못해서 면접 끝나고 생각나서 제일 후회되는 부분)</p>				
<p>Q3. 여기 세계사 세특 보면 ‘세계사와 관련한 영상을 이용한 수업을 경험하고 나중에 교사가 되었을 때 사용할 교수법에 대해 고민해 보았다’고 하는데 자세히 말해볼래요?</p> <p>A. 2차 세계대전 영상을 봤는데 줄글로는 솔직히 전쟁이 와닿지 않았는데 영상을 보니깐 생생하게 느꼈다. 나중에 교사가 된다면 영상과 내가 직접 만든 자료들을 활용해서 현장감 있는 수업을 하고 싶다(정확히 기억 안남 근데 이런 맥락에 더 자세하게 말했음) (이 질문도 솔직히 당황했다. 세계사 세특 보면 다른 물어볼 소재들이 많아서 그것들은 준비하고 이걸 그냥 있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이걸 물어보셔서 그냥 급하게 만들어냈음)</p>				
<p>Q4. 초등교사를 희망하는 학생인데 왜 사범대를 지원했는지?</p> <p>A. 내 진로 희망은 초등교사-초등교사-초등교사(역사교육) 이렇게 되어 있음. 그래서 초등교사를 희망했던 이유와 꿈이 바뀌게 된 이유를 역사와 관련해서 설명했음(이건 준비해간 질문이라서 그냥 외운 거 대답)</p>				
<p>Q5. 동아리 활동 중에서 역사교육과와 가장 관련 있는 활동이 있다면 말해볼래요?</p> <p>A. 페스티벌로치 멘토멘티 동아리를 통해 친구들 학습도우미를 해줬고, 역사를 알려줬던 사례 말했음</p>				
[후기]				
<p>마지막 답변하는 도중에 시간이 다 되었다는 알람이 울렸어요. 근데 면접 후기들에서 당황하지 말고 계속 끝까지 말해도 된다는 글을 많이 봐서 면접관님들한테 계속 말해도 될까요? 물어보고 계속 답변했음. 질문에 대한 답변 끝나고는 이대로 나오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입학하고 싶다는 의지를 담은 말을 했음. 나중에 후기들 찾아보니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못하고 나와서 아쉬웠다는 친구들이나 거절당했다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면접 분위기가 좋아서 그냥 나는 하고 싶은 말까지 하고 나왔답니다. 교수님들이 웃으면서 귀엽다는 식으로 고개 끄덕끄덕 해주셨어요.</p>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인하대학교	자연	기계공학과	학생부종합 (인하 미래인재)	2.1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 유형: 2~3(면접관):1(지원자) 블라인드 면접 ○ 내용: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질문			
면접 내용				
[면접관 ㉠, ㉡]				
㉠Q1. 많이 긴장되시죠? 비가 갑자기 오느라 차 막히지 않았나요?(그냥 긴장 풀어주시는 말씀) 지원동기 말씀해 주세요.				
A. 준비한 내용 말함				
㉡Q2. 에너지 하베스팅 활동을 하셨으니 전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거 같네요. 혹시 전기엔지의 정의 말씀해 보실래요?				
A. (어찌어찌 말했는데 준비하지 않아서 대답을 잘 못함)				
㉡Q3. 그럼 전류와 전압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단위 말씀해주세요.(차근차근 하나씩 물어보고 답변)				
A. (대답함)				
㉡Q4. 그럼 그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나는 처음 전기 에너지에 대한 답변인지 모르고 전류에 대한 설명 다시 하라는 줄 알아서 당황하고 모른다고 함)				
㉡Q5. 기계 공학이니까 화학이랑 물리 관련 개념 하나씩 말씀해 주세요.				
A. (답변함)				
㉡Q6. 힘의 3원칙 설명해 보세요.				
A. 각 원칙의 정의를 설명함(매년마다 나오는 질문이라 준비 필요!)				
㉠Q7. 이과 학생인데 리더십 활동을 많이 하셨네요. 왜죠?				
A. (아이가 없어서 문 이과랑 리더십 활동이랑 관련 없다며 말하며 그냥 말함) 그 후 리더십 활동 뭐했는지 물어보시고 답하고 끝!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문	인도어과	학생부종합전형	3.12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 유형: 2(면접관):1(지원자) 블라인드 면접 ○ 내용: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질문			
면접 내용				
<p>안녕하세요.(면접장으로 들어가면서)</p> <p>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수험번호 5938번 맞으시죠?</p> <p>네, 맞습니다.</p> <p>그럼 면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p> <p>Q1. 생활기록부 진로희망사항에 2학년 때는 외교관, 그리고 3학년에 와서 인도전문가라 바뀌게 되었는데 그 계기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p> <p>A. 2학년 때 외교관이라는 직업을 꿈꾸면서 더욱 더 세부적으로 인도전문가라는 직업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인도전문가라는 직업이 있다는 것을 1학년 때 새로 생긴 직업을 알아보며 알게 되었고 관심 있던 분야인 인도와 연관된 미래의 국제사회에 중요한 직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p> <p>Q2. 그럼 대학 진학 이후에 인도전문가가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인도전문가가 되고 싶은지 말씀해주세요.</p> <p>A. 저는 만약 미래에 인도전문가가 된다면 새롭게 신흥경제대국으로 떠오르고 IT강국 등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인도라는 나라를 우리나라에 알리고 싶고 또한 우리나라의 문화를 인도에도 알리고 싶습니다. 인도는 우리나라와 가까운 중국, 일본, 미국처럼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산업의 긍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연결을 하는 데에 있어 제가 인도전문가로서 두 국가를 연결짓는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p> <p>Q3.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보다보니 2학년 1학기 성적, 그리고 3학년에 올라와서 성적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무슨 일 있었나요?</p> <p>A. 2학년에 올라와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오면서 방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에 매진하지 못하고 대신 제가 좋아하는 영화, 인도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공부에 소홀하게 된 것 같습니다.</p>				

Q4. 그렇다면 학생은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저에게 있어 이 학생부종합전형이라는 전형은 굉장히 좋은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저는 성적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하고자 하는 꿈이 있었고 그러기에 인도라는 나라를 알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언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생인 저에게 인도어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유일한 길이 바로 한국외국 어대 인도어과에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성적은 좋지 않지만 이 전형 덕분에 이렇게 면접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꿈에 한 발짝 더 내딛을 수 있었구요.

Q5. 학생은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만 보더라도 인도에 대해 정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동아리 활동에서 인도의 화폐개혁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여 결과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었나요?

A. 우선 인도의 화폐개혁은 2016년에 시행된 정책으로 실제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정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작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과 관련하여 토론을 진행하고 싶었고 실제 결과는 알려주지 않고 화폐개혁에 대한 동아리 부원들의 의견을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화폐개혁, 효과가 클까? 피해가 클까? 라는 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토론의 결과는 화폐개혁의 피해가 크다는 결론이 나왔고 실제 결과를 알려준 후 다시 부원들과 의견을 정리하여 결론을 수정했습니다. 국가의 정책이 물론 경제적, 사회적으로 효과가 있다면 시행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Q6. 인도의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인도하면 가장 생각나는 것은 무엇인가요?

A. 저는 인도의 춤과 노래가 떠오릅니다. 이를 ‘마살라’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인도영화에 이 마살라가 꼭 같이 나오면서 인도의 독특한 문화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Q7. 고등학교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A. 저는 동아리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1학년 때는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아닌 동아리에 가입하게 되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학년에 올라와서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신규 동아리를 상설하게 되었고 자신의 진로에 맞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역시 인도와 관련된 주제로 토론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영화에서만 봤던 인도 외에 인도에 대해 조사해보면서 역사, 경제, 사회 등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Q8. 그렇다면 학생은 인도를 제외하고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A. 저는 국제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국제사회의 이슈들을 조사하고 다른 나라의 역사를 배우는 것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인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Q9. 많은 독서활동을 하셨는데 친구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책이 있다면 어떤 책인가요?

A. 아무래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읽었던 책이 친구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관심 있는 인도와 관련된 책을 한번 소개해주고 싶은데요. 저는 ‘생각으로 인도하는 질문 여행’이라는 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인도의 다양한 도시를 여행하는 기행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도여행을 떠나는 이유가 힐링하고 삶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 라고 하는데요, 그에 대한 설명과 문구들, 황금사원 등 인도의 건축물 등 많은 문화를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서 마치 여행을 하는 것처럼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네,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접 후기]

- 면접 보기 전

우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는 대학 면접이어서 기다리는데 엄청 긴장을 했습니다. 면접자가 총 18명이었고 그 중 제가 10번 정도여서 약 1시간을 기다리다 보니 긴장이 많이 풀렸던 것 같습니다. 이 때 저는 면접 대기를 하면서 주변아이들이 자신이 가져온 면접 준비 자료들을 보며 대기하는 것을 봤는데, 저는 자료를 하나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면접 준비물에 수험표랑 신분증만 있고 그 외에는 가져오지 말라 길래 안가지고 갔죠. 그래서 처음에는 엄청 열심히 준비하는 애들을 보면서 아. 가져 올걸 하고 후회 했습니다. 그런데 한 5분정도 지나고 나니 그동안 집과 학교에서 준비했던 면접을 제 머릿속에서만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진짜 시뮬레이션 한다 생각하고 혼자 중얼중얼 거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시간동안 대기하면서 자료의 도움 없이 제 뇌로만 정리하니까 긴장도 덜하고 대답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면접장 들어가기 전에 혼자 마음속으로 다짐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 면접 보는 중

면접장 문을 여니 면접관 두 분이 노트북을 앞에 두고 앉아계셨고 들어가니까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면접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굉장히 편하게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면접 중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면접관 분들도 계속 미소를 띠우셔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막상 생각지 못했던 질문이 굉장히 많아서 즉흥적으로 한 대답이 대부분이었고 최대한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면접 내용

- 면접 본 후

우선 면접을 보고 나니까 후회는 남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면접은 보고난 후 ‘합격할거 같은데?’라고 생각되는 것 보다 ‘합격하든, 불합격하든 진짜 후회 없이 다 보여줬다’라고 생각되는 면접이 진짜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학생부와 자소서 기반 면접이어서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 물어보는 질문이 나와서 정말 깜짝 놀랐지만 진짜 솔직하게 대답했고 면접에 있어서 정직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하는 내내 내 열정을 보여주고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보여주는 것은 대답뿐 아니라 표정에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이 대학을 합격할 수 있던 것은 분명한 저의 관심분야와 진로선정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적이 정말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내가 정말 미래에 하고자 하는 것을 밀고 나가는 것이 진짜 중요하고 그것을 계속 생기부에 등장시키고 자소서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 학 명	계 열	모 집 단 위(학 과)	전 형(세 부 전 형)	등 급
전 남 대 학 교	자 연	간 호 학 과	학 생 부 종 합 (지 연 인 재 전 형)	2.69
면 접 유 형	면 접 방 식			
서 류 기 반 면 접	○ 유 형: 3(면 접 관):1(지 원 자) 블 라 인 드 면 접 ○ 시 간: 15분 내 외 ○ 내 용: 학 교 생 활 기 록 부 와 기 타 질 문			
면 접 내 용				
<p>간호학과 건물에 정해진 시간까지 가서 모인 뒤 면접 대기실로 이동합니다. 수험번호가 책상에 부착되어 있으니 자신의 수험번호가 붙여진 책상에 착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앉아 있는 자리 순서대로 면접을 봅니다. 조교 선생님이 이름을 부르면 면접실 바로 앞에서 대기하다가 앞 사람 면접이 끝나면 들어가시면 됩니다.</p> <p>Q1. 지원동기가 무엇인가?</p> <p>A. 저는 심장에 작은 구멍이 나있는 병인 심실 중격 결손증이라는 병을 가지고 태어 났습니다. 증상은 없었지만 폐동맥 고혈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낮인지 밤인지 구분도 안가는 중환자실에서 홀로 불안함에 떨며 누워있었을 때 한 간호사 선생님께서 제게 따뜻한 인사말을 해주셨습니다. 그 인사말은 제게 굉장히 큰 힘이 되었고 그 때부터 간호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간호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의학다큐멘터리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 ‘명의’라는 다큐멘터리에서 기계에 다리를 끼 생사를 오가는 50대 남성을 의사 보다 더 분주하게 움직여 최선을 다해 환자를 치료해 내는 간호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생명을 구하는 의미있는 직업인 간호사의 매력 빠지게 되었고 저 또한 그들과 함께 환자분들을 위해 헌신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간호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p>				
<p>Q2. 봉사란 무엇이라고 생각 하는가?</p> <p>A.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p>				
<p>Q3. 간호학과 재학생과 인터뷰를 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p> <p>A. 간호학과 재학생에게 간호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인터뷰였습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주사를 놓는 연습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수업시간에 마네킹에 주사 바늘을 놓는데 이미 주사바늘 구멍이 다 나 있고 실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연습이 부족하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확실한 연습을 위해 학우들과 서로에게 주사를 놓기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다소 충격적이었지만 그 만큼 좋은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이 정도의 고통은 감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마음가짐을 다시 바로 잡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p>				

면접 내용

Q4. 항상성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 A. (완전 까먹어서 얼버무림) 자세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면역체계와 관련해서 최대한 답변해 보겠습니다. 저희 몸 속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이를 퇴치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입니다.(진짜 망함)

Q5. 동아리 시간에 고혈압 약 안에 발암 물질이 들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앙케이트를 했나요?

- A. 시민들을 대상으로 많은 고혈압 약 안에 발암물질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이제야 발견된 잘못이 이 약을 만든 회사에 있는가 아니면 이제까지 제대로 검사하지 않은 정부의 잘못인가에 대해 물어보고 이에 대한 심각성을 말씀드렸습니다.

Q6. 그렇게 심각성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말을 하면 이 약을 만든 회사에 불이익이 올 수 있는데 윤리적으로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가?

- A. 물론 회사의 동의없이 약이 잘못 되었다고 말을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고혈압 환자 수가 600만명이 넘는데 고혈압 약에 발암 물질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것이 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Q7. 세포자살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 A. 세포자살이란 세포의 수명이 다하거나 손상 되었을 때 스스로 조절해 죽는 현상입니다. 세포자살의 대표적인 예시는 올챙이에서 개구리가 되면서 올챙이의 꼬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포자살이 제 때 일어나지 않으면 암세포로 변질 될 가능성이 있어서 세포자살을 아주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Q8. 왜 꼭 간호사가 되고 싶은가?

- A.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전남대병원 안과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오면서 간호사 선생님들을 보게 되면서 간호사가 의미있는 직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고 사람을 살리는 의미있는 직업인 간호사가 저의 40년 동안 함께 할 직업이라고 생각해 꼭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생기부를 많이 보시고 항상성 같은 기본적인 생물학적 지식도 물어 보세요. 아주 어려운 건 안 물어 보시는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면접 보러 가기 전에 생명과학1 학습서 한번 보세요. 다른 대에서는 면접 대기실에 물이 있는데 여기엔 없더라고요. 긴장하면 목 타니까 따뜻한 물 가져가세요. 립밤도 꼭 가져가세요! 입이 엄청 바싹 마를 거예요. 겨울인데 히터를 세게 안틀어 주셔서 저는 좀 춥더라고요 따뜻하게 입고 가세요. 룽패딩이나 양털 같은 거 입고 가도 면접장에는 벗고 들어가면 되니까 걱정말고 따뜻하게 입고 가세요. 그리고 여기는 면접 대가하면서 미리 준비한 답변이나 생기부를 전혀 못 보게 해요. 면접 대기실 들어가기 전에 확실하게 준비해야 해요. 면접장 분위기는 꽤 좋았어요. 다들 눈 마주 칠 때마다 웃어주시고 정말 제 이야기를 모두 경청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다들 열심히 준비해서 면접 잘 보세요! 생기부나 성적이 남들보다 안 좋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생기부 관리 하나도 안 해서 정말 최악이었고 성적도 높은 편도 아니어서 1차도 합격 못할 줄 알았는데 희망을 걸어 불만한 예비 번호를 받았어요. 제 면접 후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파이팅!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전남대학교	자연	간호학과	학생부종합 (고교생활우수자 전형)	2.87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 유형: 3(면접관):1(지원자) 블라인드 면접 ○ 시간: 15분 내외 ○ 내용: 학교생활기록부와 기타 질문			
면접 내용				
Q1. 지원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				
Q2. 장래희망이 가정전문 간호사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Q3. 가정전문 간호사에 대해 아는 대로 설명해주세요.				
Q4. ‘텔로미어’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Q5. 오줌량과 혈액량과의 관계를 설명해주세요.				
Q6.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해주세요.				
Q7.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전남대학교	자연	식품영양과학부	학생부종합 (지역인재전형)	2.8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 유형: 3(면접관):1(지원자) 블라인드 면접 ○ 시간: 15분 내외 ○ 내용: 학교생활기록부와 기타 질문			
면접 내용				
Q1. (진로희망사유) 레토르트 식품에 흥미를 느꼈다고 적혀있는데 레토르트식품이 무엇인가? +꼬리. 레토르트 식품의 저장법 알고 있는거 있나?				
Q2. (봉사) 월드클래스 학급 매니저로서 무슨 일을 했는지?				
Q3. (봉사) 봉사 시간이 많은 편인데 많은 이유?				
Q4. (동아리)식품알레르기 설문조사 했다고 적혀있는데 내용과 결과는?				
Q5. (1학년 영어세특) 하브루타 수업 어떤식으로 진행한건지? +요즘 대학교에서 추진중인 수업방식이라 궁금해서 질문했다고 말해주심.				
Q6. (자율활동)1학년 대의원 활동 중 리더쉽 발휘한 일				
Q7. (도서) 인간이 만든 위대한 식품첨가물2 책 내용은?				

대 학 명	계 열	모 집 단 위(학 과)	전 형(세 부 전 형)	등 급
전 남 대 학 교	자 연	원 예 생 명 공 학 과	교과/종합 (후계농업경영인 전형)	5.82
면접 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 유형: 3(면접관):1(지원자) 블라인드 면접 ○ 시간: 15분 내외 ○ 내용: 학교생활기록부와 기타 질문			
면접 내용				
Q1. 후계농업경영인 전형으로 지원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혹시 성적이 열려 있어서 신청했나요?)				
Q2. 물리학과 지구과학과, 원예학과를 지원하였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이 학교를 오기 위해서 결정한 것인가요?)				
Q3. 꿈·끼 발표대회, 리그전(수상경력을 보시고) 몸으로 하는 활동을 많이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Q4. 책 인공지능과 딥 러닝, 물 전쟁(독서활동에 기록된 도서명) 읽게 된 동기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Q5. 동아리활동 중 ‘EM 미생물 흙 공 만들기 실험’에서 흙을 공 모양으로 제작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모둠활동에서 생각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어디에서 본 의견인가요?				
Q6. 학교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과, 어려움을 극복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세요.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전남대학교	자연	전기공학과	학생부종합 (지역인재전형)	1.88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 유형: 3(면접관):1(지원자) 블라인드 면접 ○ 시간: 15분 내외 ○ 내용: 학교생활기록부와 기타 질문			
면접 내용				
<p>Q1. 전기공학과에 지원한 이유?</p> <p>A. 지구과학 시간에 환경오염을 막으려면 전기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고 했고 이점을 알아 보던 중 전기에너지는 다른 에너지로 쉽게 변환되며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다는 것에 매력을 느꼈다.</p> <p>Q2. 수상경력이 많은데 그 이유는?</p> <p>A. 공부도 중요하지만 경험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시간을 쪼개서라도 모든 대회에 열심히 참여했고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p> <p>Q3. 봉사활동이 신재생에너지박물관이 많은데 거기서 무엇을 했나?</p> <p>A. 주로 아이들 체험에 보조 활동을 했으며 벽에 붙은 게시물들을 설명하기도 했음</p> <p>Q4. 전자기장 부분에서 기억나는 것은?</p> <p>A. 렌츠의 법칙이다. 렌츠의 법칙은 전자기 유도현상에서 자기선속을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르는 것인데 이것을 직접 실험하기도 했다.</p> <p>Q5. 영암에서 유명한 신재생에너지?</p> <p>A. 개인적으로 풍력발전과 태양광 발전인 것 같다.</p> <p>Q6. 직선도선에서의 전류의 방향?</p> <p>A. ... (최대한 대답하려고 했으나 내용에 오류가 있었음)</p> <p>Q7.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p> <p>A. 제가 물리를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만 전남대에 입학하면 배우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전기자동차가 대중화되지 못한 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는 충전소가 부족하다는 것과 배터리의 문제인 것 같다. 그래서 입학해서 전기자동차에 무선충전을 개발하고 싶습니다.</p> <p>Q8. 왜 하필 무선충전인가?</p> <p>A. 무선충전이 가능하다면 충전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으며 전기자동차에 대중화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p>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전남대학교	자연	화학공학부	학생부종합 (지역인재전형)	1.89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 유형: 3(면접관):1(지원자) 블라인드 면접 ○ 시간: 15분 내외 ○ 내용: 학교생활기록부와 기타 질문			
면접 내용				
<p>면접실 들어가서 목례 및 인사 후 착석</p> <p>Q1. 내신이 좋다. 근데 1학년 2학기 때 성적 좋다가 2학년 1학기 때 떨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p> <p>A. 2학년부턴 과학1 모든 과목을 배우다 보니까 공부하는 방법을 잘 깨우치지 못했던 것 같다.</p> <p>Q2. 진로가 일관되게 생명공학 분야로 짜여있는데 화학공학부에 지원한 특별한 이유는?</p> <p>A. 화공에서도 생명과학, 공학을 공부하므로 약간 방대하게 배운 후 생명 쪽으로 심화하여 배운다는 식으로 설명</p> <p>Q2-1. 애초에 생명공학 분야의 학과를 지원하면 되지 않나?</p> <p>A. (대답 잘 못하자 괜찮으니까 면접관이 현실적인 차원의 대답을 하라고 함)화공에서도 생명 분야를 배우는 것 이외에 1순위로 화공의 취업 현황을 고려해서 지원했다고 함</p> <p>Q3. 가장 기억에 남는 수상</p> <p>A. 3학년 1학기 때 자율동아리 부원들끼리 책을 읽고 전염병 모델을 탐구한 후 자연과학 연구보고대회에서 발표하여 금상을 수상해서 기억에 남았다고 설명했다.</p> <p>Q4. 화법과 작문 과목에서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을 읽었다. 정말로 읽은 것인가?</p> <p>A.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이론을 알기 위해 프로이트가 꿈에 대해 어떻게 접근했는지만에 대해 발췌독 하였다.</p> <p>Q4-1. 그럼 내용은 기억 안나고?</p> <p>A. 기억 안난다.</p> <p>Q5. 종합의견에 좋은 말만 써져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학생이네.</p> <p>A. 감사합니다.</p> <p>(인사 후 면접 끝)</p>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전남대학교	자연	역사교육과	학생부종합 (지역인재전형)	2.2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 유형: 3(면접관):1(지원자) 블라인드 면접 ○ 시간: 15분 내외 ○ 내용: 학교생활기록부와 기타 질문			
면접 내용				
<p>Q1. 지금까지 역사를 배우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내용에 대해서 말해보세요</p> <p>A. 저는 중국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중국사를 배우기 전부터 삼국지라는 책을 좋아했는데 그 이야기의 배경이 중국이라서 가장 흥미가 갔던 것 같습니다.</p> <p>Q2. 삼국지가 어느 시대 이야기인가요?</p> <p>A. 위촉오 시대로 알고있습니다.</p> <p>Q3. 위촉오 시대에 뭘 배웠는지 기억나나요?</p> <p>A. 위촉오 시대는 수업시간에 비중을 두고 수업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p> <p>Q4. 세계사에서 배운 내용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말해보세요.</p> <p>A. 음..., 저는 로마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p> <p>Q5. 그럼 로마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떻게 멸망했는지 말해보세요.</p> <p>A. 음~, 그런 부분은 현재 기억이 나지 않고 로마의 포에니 전쟁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라 외울 점이 많아서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p> <p>Q6. 그럼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설명 해줄 수 있나요?</p> <p>A. 음~,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바스티유 감옥이 함락되고 루이 16세가 처형당했다는 것은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p> <p>Q7. 그럼 학생이 생활기록부에서 일제강점기의 수탈에 대해서 발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발표했나요?</p> <p>A. 저는 국가총동원법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처음에는 쌀만 가져가다가 이제는 밥그릇까지 가져가고 마지막으로 인적자원까지 가져갔던 것이 인상 깊어서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발표했습니다.</p> <p>Q8.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p> <p>A.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켰던걸로 알고 있고 전봉준 장군님이 매우 활약했다고 알고 있습니다.</p>				

Q9. 학생은 역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 같고 다른 과목도 많은데 왜 역사교육과를 지원했나요?

A. 역사라는 과목에서 매력을 느꼈습니다. 역사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꾸준히 베이스가 되어서 쌓여온 학문이고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경계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사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Q10. 학생회장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인가요?

A. 저는 선생님들과 학생의 가운데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던 거 같습니다. 학생들은 나한테 이래라 선생님들은 저래라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되었던 경험이 많았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학생들이 체육대회에서 세발자전거로 계주를 하는 종목을 도입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께 요청드렸지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예산이 없다고 설명해주고 즐기기 위한 체육대회이기에 따로 돈을 걷기는 안될 것 같다고 설득하였고 다른 종목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Q11. 봉사활동 기억나는 것 있어요?

A. 음~, 여러 봉사활동을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건 지역아동센터로 교육봉사를 나간 것입니다. 제가 직접 인근초등학교에서 수업참관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의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학생들이 실제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이용하고 직접 만져볼 수 있는 교구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저도 지역아동센터로 봉사활동을 하러 갈 때에 틀린그림찾기와 숨은그림 찾기를 찾아서 가져갔습니다.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저는 교구 사용의 중요도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Q12. 마지막으로 못한 말 있나요?

A. 저는 교사에게 필요한 자질이 첫 번째로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통해서 학생들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제가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의견도 수용하고 학생들의 피드백도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꼭 뽑아주세요!

대 학 명	계 열	모 집 단 위 (학 과)	전 형 (세 부 전 형)	등 급
전 남 대 학 교	자 연	지 구 과 학 교 육 과	학 생 부 교 과 (농 어 촌 전 형)	4.8
면 접 유 형	면 접 방 식			
서 류 기 반 면 접	○ 유 형: 3(면접관):1(지원자) 블라인드 면접 ○ 시 간: 15분 내 외 ○ 내 용: 학교생활기록부와 기타 질문			
면 접 내 용				
진행과정과 답변내용을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Q1. 왜 이 학과에 지원하게 되었나요?				
A. (3학년 과정을 공부하면서 지구과학에 관심을 가지게 됨 + 기타 내용)				
Q2. 자신이 생각하는 교육상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상은 무엇인가요?				
A. (저는 학생들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Q3. 진로희망과 이 학과가 다른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A. (1번과 비슷한 얘기에 1학년 교육동아리와 교육봉사까지 더해 말함)				
Q4. 학교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무엇인가요?				
A. (1학년 교육봉사 얘기)				
Q5.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 있나요?				
A. (아이들과의 관계에 대해 말함)				
Q6. 학교 내신이 낮는데 괜찮나?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A. (내신보다 정시 중심으로 공부했다고 말함 +++++ “실제로 정시성적까지 물어봄”)				
Q7. 지구과학에는 어떤 내용(학)이 있나요? 예를 들어 천문학, 지질학				
A. (고민하다 천문학, 지질학 등이 있다고 이런 식으로 조금 말함)				
Q8.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A. (성적이 낮지만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나옴)				

대학명	계열	모집 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전남대학교	자연	화학교육과	학생부교과 (농어촌전형)	5.08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 유형: 3(면접관):1(지원자) 블라인드 면접 ○ 시간: 15분 내외 ○ 내용: 학교생활기록부와 기타 질문			
면접 내용				
Q1. 저희 면접은 생활기록부 기반으로 하겠습니다. A. 네.				
Q2. 진로희망에 수학교사라 되어 있는데 왜 화학교육과를 지원했나요? A. 수학과 화학은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Q3. 학교생활 중 화학이나 교육과 관련된 책 중 인상 깊은 책은 무엇이었나요? A.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 다른가’였습니다. 책에 대한 답변				
Q4. 가장 기억에 남는 실험은 무엇이었나요? A. 염산을 이용한 실험				
Q5. 본인이 교사가 된다면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가요? A. 학생들과 친근감을 형성하는 교사				
Q6. 이제 교과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화학2를 배웠나요? A. 2단원까지 배웠습니다.				
Q7. 퍼센트 농도, 몰랄농도, 몰농도의 차이를 아나요? A. 농도에 대한 답변				
Q8. 수소 결합하면 생각나는게 무엇인가요? A. F, O, N과 H 사이의 결합				
Q9. 예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A. 물이 얼면서 육각형으로 되는 이유입니다.				
Q10. 또 다른 것이 생각나는 게 있나요? A. 결합이 강해서 끓는점이 높게 나타납니다.				

대 학 명	계 열	모 집 단 위(학 과)	전 형(세 부 전 형)	등 급
조 선 대 학 교	자 연	간 호 학 과	학 생 부 종 합 (일 반 전 형)	3.2
면 접 유 형	면 접 방 식			
서 류 기 반 면 접	○ 내 용: 학 교 생 활 기 록 부 와 기 타 질 문 ○ 평 가: 인 성 및 가 치 관, 전 공 및 적 성 영 역 에 대 한 학 업 열 의 등			
면 접 내 용				
Tip. 학생부에서 거의 질문 하신것 같음 Tip.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사람에 따라 10분~20분정도 한다고 면접도와주시는 분께 들음 Tip. 질문 4개정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엄청 많이 하셨고 한번에 여러 개를 동시에 질문하심 Tip. 면접관 2인이 번갈아 가며 질문(한 분이 질문하시면 나머지 분은 컴퓨터에 기록)				
Q1. 자신의 장점을 자신을 뽑아야 하는 이유와 관련지어 말해보시오.				
A. 봉사상 3년 받은 것 언급, 대단한 일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사소한 ‘~’하는 것을 친구들이 보고 뽑아주었다고 함. 조선대 간호학과에 진학하면 전문지식을 더 쌓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조선대에서 실시하는 몽골 의료봉사에 참여하고 하고 고등학교를 다니며 다양한 간호 관련 활동을 하며 노력해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진로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 있다고 자부할 수 있고 더 노력할 것이라 답함.				
Q2. 헌혈 봉사 기록이 많은데 하게 된 동기? 아픈 적은 없었나?				
A. 처음 헌혈을 접했던 건 오빠의 영향. 처음 접하는 경험에서 신기?하기도 하여 부작용 등을 알아봄. 다행히 부작용도 없고 건강에 이로울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과 동시에 헌혈은 사랑이라는 문구를 봄. 그 문구를 보며 헌혈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되새기고 그 후로 진지하게 임하였으며 헌혈 후에 아픈적은 없었음.				
Q3. 간호란 무엇이라 생각하나?				
Q4. 간호사의 자질은?				
A. 봉사정신이라고 답했더니				
Q4-1. 꼬리. 봉사정신도 있고~ (약간 전문지식을 유도하는 느낌의 말) 또 뭐라고 생각?				
A. 전문지식~				
Q4-2. 꼬리. (전문지식이라고 하니까) 그럼 생기부에 치매 할머니를 요양원에서 전문적으로 돌봐야하나 가정에서 사랑으로 돌봐야하나 토론 했다고 적혀 있는데 요양원에서 돌봐야한다고 생각하시겠네요?				
Q5. 뇌사관련 토론 했다고 적혀있는데 내용과 주장과 사회적인식과(여러개 묶어서 질문)				
Q6. 정○○님 재가복지봉사 했는데 무슨일 했나?				
Q7. 자기방 잘 치우나?				

대 학 명	계 열	모 집 단 위 (학 과)	전 형 (세 부 전 형)	등 급
목포대학교	자연	간호학과	학생부종합 (지역인재전형)	2.69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 유형: 3(면접관):1(지원자) 블라인드 면접 ○ 시간: 15분 내외 ○ 내용: 학교생활기록부와 기타 질문 ○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평가, 수학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면접평가 일정 기준 미달자는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및 1단계 전형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함			
면접 내용				
<p>대강당에서 면접 볼 사람들이 모두 모인 후 인원체크되면 간호학과 건물로 갑니다. 면접 대기실에서 대기하다가 3명씩 부르면 면접장 바로 앞에 놓여진 의자에 3명이 앉아서 기다리다가 조교 선생님 지시 하에 면접장으로 들어갑니다. 3.1면접이고 10분 타이머 맞추고 시작합니다.</p> <p>Q1. 남들과 다르게 특별한 자신의 장점은?</p> <p>A. 저의 장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9살 때 저희 집 보일러에서 불이 난적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모두 당황했을 때 저는 학교에서 배운 불이 났을 때 대처법을 생각해 내 부모님께 119를 부르고 기다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19대원의 지시 하에 안전하게 불을 진화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어릴 때부터 남들이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침착하게 판단을 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장점으로 환자가 생사를 오가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하여 치료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p> <p>Q2. 그렇다면 단점은 무엇인가?</p> <p>A. 제 단점은 제 자신에게 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좋은 성적을 받은 과목보다 낮은 성적을 받은 과목 때문에 제 자신을 원망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제 자신에게 칭찬을 거의 해주지 않았고 자존감 또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진 것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만의 일기를 썼습니다. 그 일기에는 저의 고쳐야할 점이 더 많이 쓰여 지긴 했지만 의무적으로 하루 한 개씩은 저에게 칭찬 할 점을 썼습니다. 나중에 그 일기를 읽게 되었을 때 제가 생각보다 괜찮은 애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자존감 또한 회복시킬 수 있었습니다.</p> <p>Q3. 공부 외에 자신의 한계에 부딪힌 경험</p> <p>A. 비교과 활동을 거의 안 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그냥 수학공부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함. 하지만 면접관님이 왜 비교과 활동을 별로 안하셨냐고 물어봄. 1학년 때부터 간호학과를 희망했는데 1학년 성적이 간호학과에 가기에 부족해서 비교과 활동보다는 학업 증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고 답함(망함)</p>				

면접 내용

Q4-1. 간호사가 되면 어떤 역할을 하고 싶나?

A. 안과에서 간호사로써 일을 하고 싶습니다.

Q4-2.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A. 어린아이들에게 병원이 무서운 곳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안과에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으러 갔었는데 그 때 안약을 넣거나 검사를 할 때 간호사 선생님께서 옆에서 안심시켜주신 덕분에 무서워하지 않고 병원을 다녔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경험으로 저 또한 간호사가 된다면 어린 아이들에게 병원이 무서운 곳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 주고 싶습니다.

Q5. 또래집단과 문제를 해결해 낸 경험은 무엇인가?

A. 2학년 책소개 발표 수행평가를 준비하면서 갈등이 발생했었습니다. 저희 조원은 총 5명이었고 시험기간과 겹쳤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신이 읽은 책을 소개하고 싶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서로 조급한 마음에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고 저는 조장으로써 이를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도서관에서 같은 책이 5권있는 책을 택하고 전체적인 줄거리는 인터넷으로 파악한 후 자신이 발표해야 할 부분은 정독하는 것이 어떠냐고 조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저희 조원들은 모두 이를 수용해 주었고 이러한 방법으로 시간을 절약함으로써 성공적으로 발표를 마쳤습니다.

Q6. 간호사가 되기위해 어떤 노력을 할것인가?

A. 저는 간호학과 재학생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간호학과의 학업양이 굉장히 많다는 것과 간호학과에서 배우는 과목 중 중요하지 않은 과목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모든 과목에 중점을 두어 제가 고등학생 때 공부를 하면서 성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었던 일주일 계획 세우기를 실천하며 성실하게 공부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목포대 간호학과에 대해서 찾아보면서 앤젤 인 널스라는 봉사활동 동아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 가입하여 졸업을 할 때까지 지역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습니다.

Q7. 남들과 다르게 한 특별한 활동?

A. 제가 고등학교 3년동안 가장 의미있게 했던 활동은 간호학과 재학생과의 인터뷰를 했던 활동입니다. 간호학과 재학생에게 간호학과에서 배우는 과목과 힘든 점 등에 대해 인터뷰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주사를 놓는 연습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수업시간에 마네킹에 주사 바늘을 놓는데 이미 주사바늘 구멍이 다 나 있고 실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연습이 부족하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확실한 연습을 위해 학우들과 서로에게 주사를 놓기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다소 충격적이었지만 그 만큼 좋은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이 정도의 고통은 감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마음가짐을 다시 바로 잡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Q8. 마지막 할 말?

A. 목포대 인재상과 관련해서 말함. 기억이 안남)

면접 내용

[후배들에게 따로 해주고 싶은 말!]

생기부는 거의 안보셨어요.(아마 제 생기부가 부실해서 물어 볼 게 없어서 안 물어 보신거 같아요. 하하.) 자신이 간호사가 될 충분한 각오와 자신이 있는가, 간호사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 어떤 간호사가 될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를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교수님들은 모두 무표정하시고 좀 무서웠어요. ㅠㅠ 그래도 쫓지말고 열정적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긴장이 되서 그런지 목이 타고 입이 바싹 마르더라고요. 대기실에 물이 준비되어 있지만 따로 따뜻한 물을 싸오시는 걸 추천 드려요! 립밤도 챙기세요! 대기하면서 태블릿이나 핸드폰같은 전자기기는 모두 걷어가기 때문에 답변 준비하신거 있으면 종이에 인쇄해서 가져오세요. 그리고 본인 사진이 포함된 수험표도 꼭 뽑아오세요. 저는 신분증만 있으면 될 줄 알고 안 뽑아가서 조교 선생님(?)이 수험표 안 가져 온 사람들 확인해서 뽑아 주셨어요. 긴장한 상황에서 이러면 번거로우니까 미리 뽑아 가져야 돼요. 제 면접후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ㅎㅎ 종합으로는 희망도 없을 줄 알았던 저도 합격했으니 여러분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파이팅!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목포대학교	자연	융합소프트웨어학과	학생부종합 (지역인재전형)	5.27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 유형: 3(면접관):1(지원자) 블라인드 면접 ○ 시간: 15분 내외 ○ 내용: 학교생활기록부와 기타 질문 ○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평가, 수학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면접평가 일정 기준 미달자는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및 1단계 전형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함			
면접 내용				
※ 면접 시간은 10분정도 인거 같은데 넉넉하게 진행했어요. ※ 긴장되는 건 없었고 아주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Q1. 이 학과에 지원한 이유 <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목포대학교	자연	건축공학과	학생부종합 (일반전형)	4.16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 유형: 3(면접관):1(지원자) 블라인드 면접 ○ 시간: 15분 내외 ○ 내용: 학교생활기록부와 기타 질문 ○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평가, 수학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면접평가 일정 기준 미달자는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및 1단계 전형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함			
면접 내용				
<p>Q1.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p> <p>A. 학교를 한 번도 빠지지 않을 만큼 모든 일에 있어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점에서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p> <p>Q2. 지원 동기</p> <p>A. 저는 디자인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해외 여행을 다녀와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보고 건축 디자인에 대한 진로를 구체화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물리와 수학을 배우고 적용된 심화 사례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건축물의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 여겨 건축공학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p> <p>Q3. 지속적으로 한 봉사</p> <p>Tip. 지속적으로 한 봉사 말고 가장 인상 깊은 봉사를 이야기해도 된다고 해서 가장 인상 깊은 봉사에 대해서 말함</p> <p>A. 저는 전남도립도서관에서 봉사한 점이 가장 기억이 남습니다. 그 이유는 책을 정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책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뿌듯함을 느낀 점에서도 좋았지만 더 의미 있었던 것은 도립도서관의 건축물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옥의 전통미가 곳곳에 숨겨져 있고 또 친환경 자재인 편백 나무를 사용해 어린아이를 포함한 사용자의 건강까지 고려한 세심함에 감동 받아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p> <p>Q4. 마지막으로 할말</p> <p>A. 저는 미래차세대 4차산업혁명에 기여하고 싶은 학생입니다. 저는 학교 출석을 하루도 빠지지 않을 만큼 몸이 건강하고 날카로움과 끈기를 가지고 있어 모든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합니다. 뽑아 주신다면 학업을 게을리 하지 않고 진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p> <p>Q5. 대학 졸업후 진로</p> <p>A. 저는 대학을 졸업하면 대학원에 들어가 친환경 건축에 대해 좀더 깊이 공부할 것입니다.</p>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목포대학교	자연	화학과	학생부종합 (일반전형)	5.41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 유형: 3(면접관):1(지원자) 블라인드 면접 ○ 시간: 15분 내외 ○ 내용: 학교생활기록부와 기타 질문 ○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평가, 수학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면접평가 일정 기준 미달자는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및 1단계 전형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함			
면접 내용				
Q1. 학생부에는 화학에 관련된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교과활동과 비교과활동을 각각 언급하며 ‘~’해서 화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Q2. 뉴스보나요? ‘조국’에 관한 뉴스에 대해 아시나요? 본인의 생각과, 최근 문대통령이 정시 확대 발표한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A. 조국에 관한 뉴스에 대한 생각을 말하고, 정시확대에 대한 생각과 이유를 말했습니다.				
Q3. 화학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을 질문하고 면접 종료				

대학명	계열	모집 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목포대학교	자연	미래사회공학부	학생부종합 (지역인재전형)	5.41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 유형: 3(면접관):1(지원자) 블라인드 면접 ○ 시간: 15분 내외 ○ 내용: 학교생활기록부와 기타 질문 ○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평가, 수학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면접평가 일정 기준 미달자는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및 1단계 전형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함			
면접 내용				
<p>Tip. 긴장을 풀어주시려고 교수님들께서 점심을 먹었는지 물어보시며 편안하게 시작함</p> <p>Q1. 본인이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p> <p>A. 해양생물 피해 기사를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관련되어 ‘~’한 연구를 하고 싶다는 것으로 답변함</p> <p>Q2. 그럼 미래사회공학부를 지원하게 된 이유는?</p> <p>A. 전공학과 공부를 제대로 익히기 전에 기초 분야 및 필요역량을 골고루 갖추고 싶은 것과 관련하여 답변함</p> <p>Q3. ‘동아리 활동을 보니까 영산강 활동이 있는데, 대학 들어와서도 이런 봉사활동을 많이 하면 학과에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입학해서도 많이 하도록 하세요.’라는 말씀으로 면접 종료</p>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순천대학교	인문	일반사회교육과	학생부교과 (성적우수자전형)	2.36
면접유형	면접 방식			
일반 및 인성 면접	○ 내용: 지원동기, 학업 계획과 의욕, 전공 적성과 진로, 교직 인·적성, 기타 ○ 평가: 이해력과 표현력, 가치관과 미래관, 소통능력, 인성과 사고력, 예절과 태도			
면접 내용				
TIP. 면접 고사장에 들어가면 면접관 세 분이 좀 멀리 떨어져 계심. 인사하고 자리에 앉아 질문하시는 거에 대답하면 됨				
Q1. 자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총선 전에 북미 정상 회담을 열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에 대한 학생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A. 정상 회담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정상 회담을 하지 말아 달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 총선과 회담은 전혀 관련 없는 별개의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미국에게 우리나라 총선이 있으니 회담을 미루어 달라고 말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본다고 답함				
Q2. 학생이 평소 관심이 있어 하던 사회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A.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학교 폭력에 관심이 있었음. 학교에서 시사 문제 발표할 때도 사이버불링에 대한 사례를 찾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발표함. 사이버상에서도 학생들이 예절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함				
Q3. 고등학교에서 사회 교과목 중 어떤 것들을 배웠습니까?				
A. 한국지리, 생활과 윤리, 법과 정치, 사회 문화를 배웠다고 답함				
Q4. 어떤 과목이 가장 흥미 있었습니까?				
A. 문제 푸는 것으로는 법과 정치가 재미있었지만, 개념을 암기하고 친구들과 의견을 공유하는 면에서는 사회·문화에 흥미를 더 많이 가지고 있었음. 사회 문화를 배우면서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도 배워볼 수 있었고, 특정한 사건을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해 보는 활동을 통해 사회 문화 과목을 우리 일상에 접목시켜 보니 더 흥미를 가질 수 있었다고 답함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순천대학교	자연	간호학과	학생부종합 (SCNU 지역인재전형)	3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 유형: 3(면접관):1(지원자) ○ 내용: 학교생활기록부와 기타 질문			
면접 내용				
Q1. 간호학과 지원동기를 말해보세요.				
Q2. 간호사가 갖춰야 할 자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Q3. 3학년때 영어 성적이 월등한데 공부를 어떻게 했나요?				
Q4.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전북대학교	자연	환경공학과	학생부종합 (큰사람전형)	3.14
면접유형	면접 방식			
제시문 기반 면접 서류기반 면접	○ 유형: 3(면접관):1(지원자) 블라인드 면접 ○ 시간: 15분 내외 ○ 내용: 2개의 평가영역별 출제문항(각 2문제 중 1문제 선택)과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 1단계 평가자료 확인 질문			
면접 내용				
<p>Tip. 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수험번호를 부르면 대기실 밖의 책상에 앉음. 책상 위에 제시문이 놓여 있고 5분 정도 A4용지에 답을 쓸 시간을 줌(다른 과는 5분이 지나면 제시문종이를 가져갔다고 하는데 환경공학과는 앞 사람의 면접이 끝나기 전까지 계속 쓸 수 있게 해줬음) 제시문은 인성 및 가치관 2문제와 잠재능력 및 발전가능성 2문제로 되어 있어 1문제씩 골라서 답변해야 했음(면접 오전반과 오후반의 질문이 다름) 답을 썼던 A4는 면접실에 들고 갈 수 있고 면접이 끝나면 제출해야 함. 면접관분들은 모두 학과 교수님들이셨음</p> <p>[인성 및 가치관]</p> <p>Q1. 온라인에서 의사표현의 자유와 개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충돌하는 경우, 둘 중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인지 자신의 의견을 말하시오.</p> <p>A. 개인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악성댓글로 인해 목숨을 잃는 연예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사례를 들어서 개인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말함. 현재 법의 개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더니</p> <p>Q1-1. 꼬리. “현재 사회가 법에 근거한 정의로운 사회인 거 같아요?”라고 반문하셔서</p> <p>A. 그런 거 같습니다. 라고 얼버무렸더니 - ‘사회에 관심이 별로 없나보네.’ 라고 하심</p> <p>Q2. 최근 “82년생 김지영”이 영화로 개봉되면서 양성평등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한국 사회가 양성 간 갈등을 해소하고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말하시오.</p> <p>[잠재능력 및 발전가능성] (인문/자연계열 질문이 다름)</p> <p>Q3. 현재 세계 각국은 친환경 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로 수소 에너지에 주목하고 있다. 수소에너지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하시오.</p> <p>A. 수소에너지의 장점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적습니다.(뒤에 환경에 좋은 점 덧붙여 설명한 기억이 있음) 단점은 폭발의 위험이 있다는 것인데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바나듐배터리가 있습니다. 3학년 지구과학2 시간에 광물에 대해 배우며 바나듐 배터리를 알게 되었습니다.(바나듐배터리에 대해 추가 설명함)</p>				

Q4.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은 여러 종류의 원소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원소들을 주기율표에 배열하는 규칙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추가 질문] - (면접 끝나고 막 적어서 순서가 뒤죽박죽이에요.)

▶ 자소서

Q1. WHO, KISTI 약자

Q2. 바이오플라스틱 설명 부탁

Q3. 과불화탄소의 종류

A. 종류가 기억이 안 나서 과불화탄소의 정의 말함

Q4.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차이

▶ 생기부

Q1. 선크림이 백화현상 일으킨다는데 선크림 속의 어떤 화학물질이?

Q2. EM 비누 만드는 과정

- 실제로 만들었는지 확인하려는 질문을 하심
EM 비누 만들 때 가스레인지 안 쓰는데 “가스레인지도 사용하고?”
- 아니요, 가스레인지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그렇지, 가스레인지 안 써도 부글부글 거리지.”

Q3. 3학년 세특이 가득찬데 인상깊은 거 말해봐요.

Q4. 3학년 진로사항의 특정 단어를 언급하시면서 종류 말해보라고 하심

Q5. 과학전공특강에서 화학 전지 언급하심

Q6. 석유 에너지를 어디서 가져오는지?

- 해외에서 가져오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 했더니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로 말을 바꿔 다시 물어보심

대 학 명	계 열	모 집 단 위(학과)	전 형(세부전형)	등 급
군산대학교	자연	소프트웨어융합공학과	학생부종합 (새만금인재전형)	4.48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 유형: 3(면접관):1(지원자) 블라인드 면접 ○ 시간: 15분 내외 ○ 내용: 공통문항과 개별문항(서류관련)으로 구별하여 진행			
면접 내용				
Tip. 대기실에서 문항지를 미리 배부하고 약 10분 정도 준비 시간을 준 뒤 면접실 이동 - 잠재능력 및 발전가능성 4문항, 인성적 자질 4문항 총 8문항이 적힘 Tip. 면접 시작 전, 상황 설명을 해줌 - 평가 영역별(①, ②)로 각 2문항씩 질문한 후, 시간이 남을 경우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서 질문하겠다고 함				
[인성적 자질 영역]				
Q1. 요즘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본인에 생각은?				
A. 본인은 이것이 지향해야 할 것도 아니고 지양해야 할 것도 아니라고 대답. 시대가 변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식으로 답했습니다.				
Q2.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과 갈등이 있었던 적을 소개, 극복 사례?				
A. 어렸적부터 저한테 관심을 많이 가지던 부모님이 고등학생 때부터 관심이 갑자기 적어져서 갈등을 겪었다고 함. 대화를 통해 부모님의 상황도 이해하게 되고 서로의 속마음을 알게 되어 지금은 잘 지내고 있다고 답함				
[잠재능력 및 발전가능성 영역] Q3.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질문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Q4. 3학년 때 봉사상을 어떤 계기로 받게 되었는지?				
A. 지역청소년센터에서 봉사를 많이 하여 지역 발전에 힘을 썼으므로 학급 친구들이 많이 투표한 것 같다고 대답함				
Q5. 수학 성적에 비해 영어 성적이 낮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A. 수학에 비해 영어 과목에 흥미가 적기도 했고 노력한 것에 비해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함. 극복하기 위해 하루에 단어를 열 몇 개씩 암기하여 영어 실력 증진에 힘을 썼고 앞으로도 힘을 쓸 것이라고 답함				
Q6. 이공계열 동아리 활동과 관련 질문으로 역할, 총 동아리원 수, 활동 내용 간략히?				
A. 동아리원 수는 총 7명이고 본인의 역할은 준비물 안내, 프로그램 활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도와주는 코치역을 주로 담당하였다고 답함. 그리고 파이썬 다루기, 스마트폰과 폴더폰 분해, QR 코드의 원리 탐구 활동을 했다고 답함				
Q7. 본인이 이 학과에 입학하게 된다면 어떤 코딩 프로그램에 가장 자신이 있는지?				
A. 경험을 해 보았기 때문에 파이썬에 가장 자신이 있다고 답함				
Q8.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저는 이 학교에 꼭 오고 싶다는 점을 어필하여 마무리함				

대학명	계열	모집 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군산대학교	자연	환경공학과	학생부종합 (새만금인재전형)	5.39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 유형: 3(면접관):1(지원자) 블라인드 면접 ○ 시간: 15분 내외 ○ 내용: 공통문항과 개별문항(서류관련)으로 구별하여 진행			
면접 내용				
<p>Tip. 대기실에서 문항지를 미리 배부하고 약 10분 정도 준비 시간을 준 뒤 면접실 이동</p> <p>- 인성 4문제와 잠재능력 및 발전가능성 4문제 중 각각 2문제씩 골라 답하는 내용</p> <p>Tip. 순서가 뒤에서 3번째라 분위기는 긴장되는 분위기는 아니었음</p> <p>[질문]</p> <p>▶ 인성적 자질 영역</p> <p>Q1. 오래 기다렸지? 대기실에서 본 종이랑 똑같은 종으로 면접을 볼 거야. 인성 4문제에서 너가 하고 싶은 거 골라서 하자 몇 번 하고 싶니?</p> <p>A. 1번이요!</p> <p>- 어떤 대회를 위해서는 a라는 팀원이 꼭 필요하지만 a라는 친구는 갑자기 빠지겠다고 하며 연락이 안되는 상황 속에서 본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p> <p>A. a라는 친구에게 먼저 연락을 해서 이유를 들어볼 것입니다. 만약 도움을 줄 수 있는 문제라면 ‘~’할 것이고 도움을 주지 못할 문제라면 ‘~’할 것입니다. 와 비슷하게 답변(오래되어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p> <p>Q2. 그 다음 질문도 대답해보렴.</p> <p>A. 3번이요!</p> <p>- 친구와 만나자는 약속을 했지만 친구가 시간을 지키지 않아 넘어갔지만 다음번에도 지키지 않은 상황 속에서 본인은 그 친구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p> <p>A. 친구에게 시간을 지키지 못한 이유를 듣고 타당한 이유라면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이유라면 ‘~’ 하면서 ‘~’한 태도를 보일 것 같습니다. 와 같이 답변</p> <p>▶ 잠재능력 및 발전가능성 영역</p> <p>- 잠재력문제도 위와 같은 인성문제와 같이 제가 선택한 문항에 대한 답변을 함</p> <p>- ‘대학에 들어와서도 열심히 봉사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등 교수님 말씀으로 약 10분간의 면접이 끝남</p>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원광대학교	자연	간호학과	학생부종합 (광주전남지역인재전형)	3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 유형: 2(면접관):1(지원자) 블라인드 면접 ○ 내용: 학교생활기록부와 기타 질문			
면접 내용				
<p>Q1. 간호학과 지원동기 말해보세요.</p> <p>Q2. 출결에 병결이 꽤 있는데 간호사가 되어서 잘 이겨낼 수 있을지?</p> <p>Q3. 동아리 활동 중 ‘패치 아담스’ 영화를 봤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장면을 예로 들어 어떤 이야기의 영화인지 말해보세요.</p> <p>Q4. 간호사의 자질과 그 자질중 어떤 것을 본인이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지?</p>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전주대학교	인문	행정학과	학생부종합 (일반학생전형)	5.74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 유형: 2(면접관):3(지원자) 블라인드 면접 ○ 평가: 지원자성명, 출신고교, 부모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적 지위 등을 암시하는 내용을 답변에 포함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면접 내용				
<p>대기실에 도착하여 30분정도 지각을 하여 지각사유서와 블라인드 면접 확인서를 작성하고 본인확인하여 가번호 스티커를 부여하고 옷에 부착하였다. 차례가 돌아오기 전 이름을 부르고 다음 순서라고 미리 이야기하고, 차례가 되었을 때 진행위원을 따라가 대기실 앞에서 준비한다. 면접실에는 면접관 2분이 계셨고, 학생 3명이 들어가 다대다 면접으로 20분간 진행하였다.</p> <p>Q1. 공통질문으로는 지원동기와 학업계획</p> <p>Q2. 학생부를 기반으로 봉사상 받은 이유와 서기 역할을 하면서 힘든 점</p> <p>Q3. 독서량이 많은데 총 몇 권정도 되는지와 그 이유,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책</p> <p>Q4. 중국어 관련 상이 많은 이유를 물어보셨다.</p> <p>Q5.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p> <p>A. 지원자에 한해서 받는다고 하셔서 준비해간 중국어 자기소개를 하고 마무리하였다. (결과. 지각하였지만 최초합격)</p>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전주대학교	인문	예술심리치료학과	학생부종합 (일반학생전형)	5.74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 유형: 2(면접관):3(지원자) 블라인드 면접 ○ 평가: 지원자성명, 출신고교, 부모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적 지위 등을 암시하는 내용을 답변에 포함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면접 내용				
Q1. 공통질문으로는 지원동기와 학업계획을 물어보셨고,				
Q2.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 때				
Q3. 생활기록부에 동아리 콩깍두부 활동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그 활동을 함으로써 내가 느낀 것들?				
Q4. 졸업 후 계획				
Q5.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공주대학교	인문	일반사회교육과	학생부교과 (일반전형)	1.93
면접유형	면접 방식			
교직 인 · 적성 면접	○ 유형: 3(면접관):3(지원자) 블라인드 면접 ○ 순서: 3명의 수험생은 평가영역별 문항번호를 하나씩 선택 → 면접 위원은 3명의 수험생이 선택한 3개의 문항번호에 해당하는 출제 문항을 차례대로 질문 → 한 문항에 대하여 3명의 수험생이 차례대로 답변하여 수험생 3명은 3개 모든 문항에 대해 답변 ○ 기타: 면접위원은 필요한 경우 문항 외의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음, 수험생은 면접 문항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 질문을 할 수 있음			
면접 내용				
<p>TIP. 면접 고사장에 들어가면 수험번호 순서대로 세 명이 각자 지정된 자리에 앉음. 자기 앞에 놓인 질문 번호를 뽑고 대답할 준비를 함. 특정한 사람이 먼저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뽑은 질문에 대한 답은 자기가 가장 먼저 하는 방식으로 실시됨.</p> <p>Q1. 축제와 시험이 겹쳤을 경우, 반 친구들이 전부 시험에 몰두 중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p> <p>A. 친구들에게 축제에도 신경 써달라고 무작정 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 따라서 내가 먼저 앞장서 축제를 진행하되 모든 아이들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을 부담 되지 않을 정도로 나누어 말도록 한다고 답함</p> <p>Q2. 요즘은 창의력이 중요시되고 있다. 당신이 교사라면 학생의 창의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p> <p>A. 창의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 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 따라서 평소 수업 시간에 한 사회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해 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걸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하고 싶다고 답함</p>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공주대학교	인문	국어교육과	학생부교과 (일반전형)	1.9
면접유형	면접 방식			
교직 인·적성 면접	○ 유형: 3(면접관):3(지원자) 블라인드 면접 ○ 순서: 3명의 수험생은 평가영역별 문항번호를 하나씩 선택 → 면접 위원은 3명의 수험생이 선택한 3개의 문항번호에 해당하는 출제 문항을 차례대로 질문 → 한 문항에 대하여 3명의 수험생이 차례대로 답변하여 수험생 3명은 3개 모든 문항에 대해 답변 ○ 기타: 면접위원은 필요한 경우 문항 외의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음, 수험생은 면접 문항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 질문을 할 수 있음			
면접 내용				
Tip. 1번이 뽑은 문항은 1-2-3, 2번이 뽑은 문항은 2-3-1, 3번이 뽑은 문항은 3-1-2의 순서대로 수험생 모두 같은 질문 3개에 대해 답변)				
Q1. 요즘 학생들이 유튜브 등의 영상매체를 통해서 필요한 지식을 편리하게 얻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서 공교육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A. 학생들이 영상매체 등을 통해 더 편하게 지식을 습득하고 있지만 이는 결국은 일방적인 정보 전달에 불과하다고 생각함. 그렇기 때문에 공교육에서는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 하여 학생들이 습득한 지식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야 함				
Q2. 친한 친구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A. 우선 그 친구에게 내가 너의 부정행위를 목격한 것 같다고 말한 뒤에 정말 부정행위를 했는지 사실여부를 먼저 확인함.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친구가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행동할 수 있도록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사실이라고 한다면 교칙에 따라 즉시 선생님께 알림. 학생들에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은 무엇보다도 더 공정해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께 알리는 것이 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함				
Q3. 요즘 인문학 교육이 중요시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A. 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평균 수명이 연장되었기 때문임. 평균 수명이 연장된 만큼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고, 그렇기에 인간의 삶 전반에 걸친 학문인 인문학이 주목받는 것이라고 생각함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공주대학교	인문	영어교육과	학생부종합 (일반전형)	2.49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 유형: 3(면접관):1(지원자) 블라인드 면접 ○ 시간: 15분 내외 ○ 내용: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기타 질문(일부 모집단위에서는 출제된 문항을 기반으로 질문을 할 수 있음) ○ 평가: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인성			
면접 내용				
<p>[면접관 3명과 학생 한명인 3:1면접]</p> <p>Q1. 많이 추웠죠? 기다리느라 수고했어요.</p> <p>A. 아니에요! 괜찮습니다!</p> <p>Q2.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어교육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p> <p>A. 저는 어릴 적부터 영어에 소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법을 통해 성적을 올리려 노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가 나중에 가르칠 학생들은 영어공부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영어교육과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p> <p>Q2-1. 그러면 지금도 영어를 못하나요?</p> <p>A. 아니요! 지금은 잘합니다!</p> <p>Q3. 허허, 알겠습니다. 학생부에 독서활동상황을 보면 위대한 개츠비를 읽었다고 하는데 읽고 나서 무슨생각이 들었나요?</p> <p>A. 어... 내용이 가정의 불화가 많아서 막장 드라마라고 느꼈습니다.</p> <p>면접관 1, 2, 3. (모두 웃으며) 아, 그래요, 맞죠, 막장드라마</p> <p>Q3-1. 그러면 이 책은 어떤 점을 시사하는 것 같나요?</p> <p>A. 서로 가정을 무너뜨리지 말고 가정을 잘 지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p> <p>Q4.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학생기록부에 ‘the Chimney Sweeper’를 암송했다고 했는데 왜 이러한 활동을 하였나요?</p> <p>A. 영어수업시간에 간단하게 영어를 한번 읽어보자 라는 취지로 하게 되었습니다.</p> <p>Q4-1. 그러면 이 시의 내용을 알고있나요?</p> <p>A. 그 당시에 빠르게 읽기 위한 연습차 이 시를 읽었기 때문에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p>				

면접 내용

Q4-2. 그러면 이 시를 읽고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A. 슬프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Q5. 그렇죠. 이 시는 슬프죠. 지금 학생을 보니 학생은 분석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연구원 관련이 좋았을 텐데 굳이 영어교사를 택한 이유가 있나요?

A.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겪은 어려움을 학생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었습니다. 또한 중학교 때부터 가르치는 것에 흥미가 있었기 때문에 교사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Q6.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저는 시간이 남으면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대학 진학 후 미래의 계획은 어떻게 세웠나요?

A. 대학 진학 후 공주대에 있는 자기 지도력 향상을 위한 또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참여하고 싶습니다. 또한 견문을 넓히기 위해 해외를 다녀오고 싶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임용고시를 치러 학생을 생각하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Q6. 좋아요. 학생! 우리 대 붙으면 꼭 올꺼죠?

A. 반드시! 오겠습니다!

Q6-1. 그래요. 수고했어요. ^^

대 학 명	계 열	모 집 단 위(학 과)	전 형(세 부 전 형)	등 급
공 주 대 학 교	자 연	간 호 학 과	학 생 부 종 합 (기 회 균 형 전 형)	3.03
면 접 유 형	면 접 방 식			
서 류 기 반 면 접	○ 유 형: 3(면 접 관):1(지 원 자) 블 라 인 드 면 접 ○ 시 간: 15분 내 외 ○ 내 용: 학 교 생 활 기 록 부 와 자 기 소 개 서, 기 타 질 문(일부 모 집 단 위 에 서 는 출 제 된 문 항 을 기 반 으 로 질 문 을 할 수 있 음) ○ 평 가: 전 공 적 합 성, 발 전 가 능 성, 인 성			
면 접 내 용				
※ 면접 분위기가 매우 좋았습니다. 다들 환하게 웃어주셨으며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공감해주셔서 긴장이 다 풀렸습니다.				
Q1. 특별히 공주대에 지원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A. 제가 공주대에 지원하게 된 이유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KNU 임상시뮬레이션 센터이고 둘째는 봉사동아리 ‘볼런티어닷컴’입니다. 저는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라는 긴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간호사로써 첫 시작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KNU 임상시뮬레이션 센터에서 교수님들의 지도를 받아 전문성을 길러 순탄한, 원만한 시작을 하고 싶기에 공주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 ‘볼런티어닷컴’이라는 동아리에 가입하여 봉사정신과 평소 관심이 있는 노인간호에 대해 배우며 전공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싶기에 공주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2. 자기소개서 1번에 암기력이 안 좋다고 하셨는데 암기력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해주세요.				
A. 저는 저의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영어단어를 메모지에 적어 아침과 저녁으로 보는 등 최대한 자주 보는 식으로 습관을 바꾸어 암기 내용에 대해 쉽게 익숙해지도록 하였습니다.				
Q3. 특별히 호스피스에 관심을 두게 된 이유가 있나요?				
A. 저는 어렸을 때 가족사를 경험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기에 저에게 호스피스와 존엄사의 의미는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호스피스 서비스가 환자와 보호자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잘 알게 되었고 그렇기에 저는 많은 사람들이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하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국의 호스피스는 많은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한국의 호스피스 서비스를 발전 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하며 더욱 관심이 생겼습니다.				

면접 내용

Q4. 봉사활동을 하며 가장 인상 깊었던 점에 대해 말해주세요.

A. 저는 3학년 때 했던 요양원에서의 말벗 활동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처음 말벗 활동을 하며 어색한 나머지 어르신들의 기분, 드신 것, 오늘의 날씨에 대해서만 여쭙고 어르신들의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기만 하였습니다. 저는 요양원으로 봉사활동을 온 만큼 어르신들께 행복한 기운을 드리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도움을 베풀고자 하였습니다. 이 고민을 간호사분께 말씀드리자 어르신들의 추억을 되살리는 소재로 말벗활동을 해보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이에 저는 어르신들의 경험담을 듣고 고무줄놀이와 강강술래의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 저는 저의 주도적으로 도움으로 변화를 이끌어 낸 것이 뿌듯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경험에 관심을 갖고 어르신들과 공감대가 형성된 뒤로 더욱 친밀한 의사소통이 되었다는 점에서 공감을 해 주는 것이 친밀한 의사소통을 돕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Q5. 자신이 진로에 대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말해주세요.

A. 저는 체계적으로 진로 분야를 좁혀나갔습니다. 1학년 때 의학에 관심이 많아 막연히 보건 의료인을 꿈꿨습니다. 1학년 때 자율동아리에서 보건계열을 꿈꾸는 많은 친구들과 소통하며 저는 ‘사랑의 돌봄은 기적을 만든다’라는 책을 추천 받았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며 간호에 흥미가 생겼고 자츄 간호사로 또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로 진로 방향을 좁혀 나갔습니다.

Q6. 그 책에서 어떤 부분이 인상깊었는지 말해주세요.

A. 저는 안암 말기의 시어머니를 열렬히 간호한 김수지 간호사의 이야기가 가장 인상깊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호가 참 위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간호라는 것에 흥미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Q7. 호스피스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한국 호스피스의 문제점은 환자 수에 비해 병상 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 호스피스 완화의료 교육을 받은 의료진이 적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8.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말해주세요.

A. 저는 경험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탐구정신을 가지고 여러 생명과학, 의학과 관련된 주제로 연구를 해 적이 있습니다. 또 꾸준한 봉사활동으로 봉사정신을 길러 친구들이 꺼려하는 휴대폰부장을 자발적으로 담당하고 친구를 부축해 학교에 데려다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저는 진리탐구를 교육이념으로 하는 공주대에 부합하며 ‘전 인류에게 건강을’이라는 비전을 잘 시행할 봉사정신을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 뵈었을 때는 훌륭한 교수님들의 제자로 만나 뵙고 싶습니다.

대 학 명	계 열	모 집 단 위(학과)	전 형(세부전형)	등 급
인천대학교	자연	전기공학과	학생부종합 (자기추천전형)	3.0
면접 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 유형: 2(면접관):1(지원자) 블라인드 면접 ○ 시간: 10분 내외 ○ 내용: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질문			
면접 내용				
Q1. 성적 향상비결이 무엇인가?				
Q2.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무엇인가?				
Q3. 본인은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인가?				
Q4. 전기공학에서 흥미를 갖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				
Q5. 광전 효과란 무엇인가?				
Q6. 본인의 장점은 무엇인가?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차의과학대학교	자연	바이오공학과	학생부종합 (농어촌전형)	4.87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 내용: 학교생활기록부와 기타 질문			
면접 내용				
Q1. 신약개발연구원이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자질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Q2. 최근 개발된 신약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말해 보세요.				
Q3. 학교 생활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봉사 경험에 대해 말해 보세요.				
Q4. 자신이 존경하는 인물과 그 이유에 대해 말해 보세요.				
Q5.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Q6. 자신이 가진 성격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 말하고 단점이 있다면 그 보완책에 대해 말해 보세요.				

【 Part 2. 】

지역 의대 / 교육대학 / 특수대 면접 사례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전남대학교	자연	의예과	학생부종합 (지역인재)	1.09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생활기록부 내에서 면접관이 번갈아 가면서 질문	전공준비도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진로에 대한 구체성 진로탐색 활동과 경험 전공 분야 학업성취 및 추이	
		학업수행 역량	학습태도 자기주도적 학습경험 지적 호기심 해결방식 전반적인 학업성취 및 추이	
		학업외 소양	교내활동 참여의 다양성 교내활동 참여의 적극성 학교생활의 자기주도성 및 성실성 도전적인 목표 설정 및 성취 경험	
		인성역량	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관심 의사소통능력을 바탕으로 한 공감능력 리더십 발휘 경험 봉사활동의 진정성 나눔과 배려 경험	
면접 내용				
<p>Q1. 의예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p> <p>A. (좀 개인적인 내용...)</p> <p>Q2. 파킨슨병에 관심이 많은 학생 같은데 관심을 갖게 된 계기?(생기부-자율, 파킨슨병주제로 탐구 보고서 작성함)</p> <p>A. 노숙인재활센터 봉사에서 봉사자로 참여한 원예치료프로그램에서 옆에 짝궁인 생활인 분과 이야기를 하는데 파킨슨병을 앓고 계셨고 다음에 뵙게 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그와 관련된 여러 논문 자료를 읽다보니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나름 이부분은 정말로 좀 찾아본 부분이라 어떤 논문 찾아봤고 아는 것 읊어보라는 질문을 유도했으나 실패함. 이것 때문에 의예과 동기 말할 때 일부는 과는 정확히 말 안하고 의예과라고만 언급함. 근데 생기부에 신경과 전문의 라고 이미 써놔서 그렇지 안 물어보시데요.)</p>				

면접 내용

Q3. 봉사활동 장소도 많을 텐데 굳이 노숙인재활센터로 봉사활동 간 이유?(예산이 안된 질문이라 좀 당황함)

A. 그곳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라고 답 한 뒤 고추 꼭지 따기, 비닐하우스 정비, 김장 담그기 등의 사례를 나열했습니다.

Q4. 3학년 화법과 작문시간에 청소년의 성형수술을 반대했다고 했는데 그 근거는?(생기부-세특)

A. 첫째로는 청소년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에게 행 했을 때와는 달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청소년의 미적가치관의 왜곡의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라고 답함 (막 이 답변에서 외모지상주의 뭐 어쩌구 저쩌구하는 내용을 좀 더 덧붙여서 말하기는 했는데 기억이 안나서...)

Q5. 1 학년 때 조력자살에 대해 찬반토론 했다고 했는데 본인의 입장과 그렇게 생각한 근거?(생기부-자율)

A. 안락사는 찬성하지만, 조력자살은 반대 조력자살은 안락사와 달리 불치병이나 말기암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허용 된다는 점에서 그 사람이 정말로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것인지 그 근거를 판단하기 더 애매함. 또 우리나라에서 안락사와 달리 조력자살은 더 논의가 되지 않아 조력자살 합법화는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시기상조의 일이라 생각합니다.

Q6. 1세대, 2세대 유전자 가위의 차이점을 아는지?(생기부-세특(생2))

A. 1, 2세대 유전자 가위는 자르는 부분과 인식하는 부위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르는 부위는 foki효소와 같지만 인식하는 부위가 1세대는 징크 프로틴으로 3개의 염기쌍식 인식하는 반면 2세대는 식물 병원균으로부터 유래한 Rvds를 사용합니다. 2세대는 하나의 염기 결합장치가 하나의 염기를 인식하기 때문에 1세대에 비해 타겟 DNA를 선정하는데 더 자유롭습니다.

Q7. 그러면 파킨슨병 치료에 유전자 가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생기부-자율에서 파킨슨병관련 글쓸 때 유전자 치료법도 찾아봤다고 써서 나온 듯)(나름 이쪽은 공부 잘해놔서 이런 질문 나오길 내심 바랬는데 나와서 좋아음)

A. 파킨슨병은 흑질에서 선조체로 가는 도파민뉴런의 감소가 원인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라디칼 분자에 의한 손상이나 노화가 도파민 뉴런 감소의 원인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필요없는데 내가 안다는걸 어필하고 싶어서... OR 당황해서? 말한 듯) 뉴런토픽 요소인 BDNF, GDNF의 발현양을 증가시켜서 치료에 도움이 되게 하거나 초기에 걸리는 파킨슨병은 PARK2유전자를 편집해서 치료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현재 파킨슨병을 앓는 실험모델은 인간이 파킨슨병을 앓는 과정과 일치하지 않는데 유전자 가위로 편집해 더욱 인간과 유사한 과정을 거치는 파킨슨병을 앓는 쥐를 만든다면 모든 파킨슨병 연구에 박차를 가할 수 있습니다.

Q8. 당지수랑 과식에 대해 발표했는데 어떤 관계인지?(2학년 자율 때 한 발표)

A. 스트레스를 과식으로 푸는 친구들을 보고 관련 정보를 찾아가며 진행한 발표인데요. (지금 봐서 이상한데 질문에 맞지 않게 동기 말한 것 같네요.) 당지수가 낮은 음식은 대부분의 에너지가 체지방으로 축적되기보다는 에너지로 소비되므로 살이 당지수가 높은 음식에 비해 덜 찹니다. 과식은 몸에 안 좋은데 당지수가 높은 음식으로 과식 한다면 특히 더 살이 찌게 될 수 있습니다. 게토레이 같은 이온 음료도 당지수가 71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많은 안 먹는 게 좋습니다.

Q9. 3학년 때 카페인 영향 측정 실험 이건 뭔 실험인지?(생기부 상설동아리 3학년)

A. 우선 카페인 섭취 전에 수도쿠를 풀게해서 기본 지적능력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카페인 섭취 후 다시 결과를 측정해 봅니다.(이 실험은 제가 3학년때 한 실험이라 2학년이 거의 주도했고 저는 거의 참여 한해서 약간 당황했지만 애써 의연하게 답해봤습니다.)

Q10. 그 실험에서 유의미한 결과는 얻었나요?

A. 물론 저희가 완벽하게 변인통제를 한 것은 아니라서 완전 정확한 실험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30%정도 향상된 결과를 얻어서 어느 정도 의미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른 실험이랑 결과 헛갈린 것 같은데 그냥 기분 탓이었으면 좋겠네요.)

Q11. 만든 실험주제가 있는데 왜 그 실험을 했나요?

A. 저희 학교의 기숙사는 48명의 학생이 한방에서 생활하는 특이한 구조인데 아무래도 고등학생이다 보니 내신기간 마다 에너지 드링크나 카페인음료를 마시는 친구들을 보고 얼마나 효과가 있길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험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제주대학교	자연	의예과	학생부교과 (일반학생)	1.09
면접유형	면접 방식			
제시문기반 면접	이미 준비된 3가지 면접문항을 읽게 한 뒤 지원자의 편의대로 원하는 것 먼저 답하는 방식인데 중간 중간에 면접관님이 추가 질문하시기도 함		의사관	
			교양 및 예절	
			표현력	
			언어표현	
면접 내용				
<p>Q1-1. 동물용 구충제인 ‘벤펜다졸’이 말기 암 환자에게 효과가 있었다는 이유로 벤펜다졸을 말기 암 환자에게 투여 가능하게 해달라는 청원이 들어오자 식약처에서는 임상 실험을 통해 그 효과와 부작용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했는데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말하시오?(의사관)</p> <p>A. 저는 두 가지 이유로 벤펜다졸을 말기 암환자에게 투여 가능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식약처와 비슷한 근거입니다. 약물의 효능과 부작용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는데 투여하는 것은 환자의 건강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에 허락하게 된다면 후에 이 사례는 악용될 수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았지만 효과가 있다는 사례와 국민의 요구에 의해 약물이 허용되게 된다면 이 사례는 후에 다른 약물들이 쉽게 허용되게 되는 안 좋은 사례를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뭔가 좀 정확하지는 않았는데 대충 이런 내용)</p> <p>나중에 다른 질문 답하고 나서 시간남아서 여기에 대해 이야기를 더했는데….</p> <p>다시 생각해보니 정말로 가망 없는 말기 암 환자에게서는 투약이 가능하게 하는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훨씬 옳은 일인 것 같습니다,</p> <p>Q1-2. 흠 어차피 투약할거면 임상실험에 참여하도록 해서 치료하는게 더 좋지 않을까요?</p> <p>A. 제가 임상실험을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면접관 당연히 니가 임상실험을 안해봤지 하는 뭔가 공감의 제스처?) 환자에게 치료목적으로 약을 투여하는 것은 임상실험과 달리 조금 더 환자의 치료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더 옳은 일인 것 같습니다.</p>				

면접 내용

Q2. 친구의 부모님과 식사한 자리에서 친구의 부모님께 젓가질을 잘하지 못한다고 예절이 없다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인터넷상에 유아용 젓가락을 낀 채로 인터넷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자의 생각을 예절의 의미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더해 말해보시오.(교양 및 예절)

(여기서 좀 황설수설하며 답하긴 했는데) (기억 안남)

Q3. 의대 안 갔으면 미래에 어떤 일을 하고 있을 것 같나요?(질문이 영어였고 답변도 영어로 해야함)

A. (되게 버벅되면서 이야기함) I would be a police officer,(면접관: 뭔가 생명과학이나 화학 관련된 거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경찰되면서 뭔가 신기해하는 느낌의 리액션)
because I interested in addiction problem for example nicotine, ethanol, opioid etc. to solve the problem two policy is needed. one is curing the addicted person. this is why I want to enter the medical school. the another is preventing drug coming into our country. so I think I will be a police officer.(실제로는 이 정도로 못하고 단어도 막 생각 안 나서 지금 써놓은 것보다 더 못하게 답변함)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조선대학교	자연	의예과	학생부교과 (일반전형)	1.78
면접유형	면접 방식			
제시문기반 면접	전공적합성	목표의식, 지적호기심, 지원분야에 대한 열정과 의지, 학업능력		
	발전가능성	학교활동에서의 자기주도성, 논리적 창의적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인성	공동체의식, 나눔 배려, 소통능력		
면접 내용				
<p>[인성면접(10분)]</p> <p>Q1. 최근 악플로 인해 자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p> <p>(악플문제의 심각성 설명 후) ... 이 같은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이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다.</p> <p>어떻게 해야하는가?</p> <p>A.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지양해야 하고, 처벌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해야 한다.</p> <p>Q2. 처벌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처벌을 위해 당사자를 찾아내기 위한 방법이 있는가? 그리고 그 방법 또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것인가?</p> <p>A. 피해자 본인 혹은 국가기관이 직접 신원을 밝힐 수 있게 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막기 위해 이들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게 하고 시민의식을 높이는 캠페인 등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적발해 내고 제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네티즌 수사대 언급)</p> <p>Q3. 자신이 의사라고 해보자,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한 환자가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며 자신을 먼저 진찰해 달라고 요구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p> <p>A. 먼저 환자에게 이상이 없는지, 병원 시설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재고한 후에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우선적으로 진찰해야할 환자가 있음을 충분히 설득한다.</p>				

[적성면접(10분)]

(말기암환자들이 강아지 구충제 복용하는 상황과 강아지 구충제의 위험성 제시)

Q4. 자신이 환자라면, 강아지 구충제를 복용할 것인가?

A. 아무런 희망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복용하게 될 것 같다.

Q5. 자신이 의사라면, 복용하려는 환자에게 뭐라고 할 것인가?

A. 강아지 구충제 복용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는 의사라면 환자를 끝까지 설득해서 치료를 받도록 할 것이다.

Q6. 말기암환자가 계속해서 구충제를 복용하고자 한다면?

A.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효과 또한 불확실한 구충제보다는 차라리 이론적 배경이 확실하고 효과 또한 기대해 볼 수 있는, 임상실험 단계에 있는 치료법을 마지막 수단으로 제시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치료법들은 환자입장에서는 알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 책자 등을 병원에 비치해둔다면 구충제 같은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 학 명	계 열	모 집 단 위(학 과)	전 형(세 부 전 형)	등 급
원 광 대 학 교	의 약 학	의 예 과	학 생 부 종 합 (학 생 부 종 합)	3 합 6
면 접 유 형	면 접 방 식			
서 류 기 반 면 접	○ 2인 1조로 구성된 면접위원이 평가 자료에 기재된 내용에 기초하여 질문하고 수험생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 의 · 치 · 한의예과의 경우 2인 1조로 구성된 두 개의 면접실 운영 ※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는 면접이므로 별도의 제시형 문제와 기출 문제 없음			
면 접 내 용				
<div>[1번째 방]</div> <div>Q1. 유전자 편집 기술의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div> <div>A. 유전자 편집 기술로 인해 유전병이나 외모 등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형질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용으로 인해 개선된 형질이 부유한 계층에 편향되어 사회적 양극화 상황이 심화되어 사회적으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div> <div>Q2. 해외원정 장기이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div> <div>A. 현재 우리나라는 장기이식을 받으려는 사람에 비해 장기이식을 하려는 사람이 훨씬 적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가족을 살리려 하거나 자기 자신에게 장기를 기증할 사람을 찾으려는 사람들을 위해 해외원정 장기이식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div> <div>Q3. 중국이나 동남아의 경우를 보면 납치나 인신매매를 통해 장기이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걸 보면 인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div> <div>A. 물론 그러한 경우에는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국제기관에서 단속을 하고 중국, 동남아와 같이 인권이 침해되는 나라에서 장기이식을 받지 못하도록 규제한다면 인권이 침해되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국제기관에서 공식 인증을 한 장기들로만 장기이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안전한 장기이식이 이루어 질 것이라 생각합니다.</div> <div>Q4. 인공장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div> <div>A. 인공장기는 정기적으로 교체해주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장기기증을 하려는 사람들이 적은 상황에서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div>				

Q5. 어떤 장기가 인공장기로 대체되었을 때 가장 효과적일까요?

A. 저는 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기관들의 경우 효소와 같은 복잡한 물질을 이용하여 소화를 돕는 것과 같이 복잡한 일을 하는데 심장은 단순히 근육의 박동을 통해 피를 온몸으로 순환시켜주기 때문에 이는 기계로도 쉽게 대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Q6.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A. 긴장해서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뽑아만 주신다면 원광대학교의 인재상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번째 방]

Q7. 외과 의사가 되고 싶다는 동기를 가진 이유가 뭐예요?

A. 유전자 편집 기술이 의학에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처음으로 의사에 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도중, 부모님의 지인께서 성공적으로 손가락 접합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절단된 손가락의 근육, 신경 기능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외과 의사에 대한 관심을 가졌고 외과 의사에 대해 조사해본 결과 환자를 위해 희생하는 외과 의사의 모습에 매료되었습니다.

Q8. 그런데 모든 의사는 환자들을 위해 희생하는데?

A. 그렇긴 하지만 저의 경우 외과적 수술을 통해 의사에 대한 관심을 넓혔기 때문에 특히 더 외과 의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Q9. 자소서 에 에어컨에서 레지오넬라균을 추출했다 했는데 어디서 균을 얻은거죠?

A. 에어컨 필터에 보면 먼지가 많이 쌓여있었습니다. 그 먼지에서 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Q10. 레지오넬라균은 습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물에서 사는데 먼지에서는 볼 수 없었을텐데?

A. 맞습니다. 그런데(끊음)

Q11. 직접 확인한거야?

A. 네. 레지오넬라균이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관찰한 결과 인터넷에서 본 형태의 균과 비슷한 균을 볼 수 있었습니다.

Q12. 현미경으로 관찰했어요?

A. 네.

면접 내용

Q13. 누구랑 같이 했어요? 생명과학 시간 아니면 동아리?

A. 동아리는 아니고 관심이 있는 친구들과 함께 생명과학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 진행했습니다.

Q14. 만약에 진짜로 외과의사가 된다면 하고싶은 일이 뭐예요?

A. 현재 외과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의사들이 그렇듯이 환자를 위해 희생하지만 특히 외과의 경우 일이 힘들어 의대생들도 외과의사가 되는 것을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에서 다른 과들과 마찬가지로 외과 역시 꼭 필요한 분야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외과의사가 된다면 홍보활동을 통해 모두가 외과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외과가 의대생들에게 기피되지 않는 과가 되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Q15. 현역이야, 재수야?

A. 현역입니다.

Q16. 수능은 잘 봤어?

A. 괜찮게 본 것 같습니다.

Q17.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A. 너무 긴장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뽑아만 주신다면 원광대학교와 함께 빛날 수 있는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원광대학교	의약학	한의학과	학생부종합 (지역인재)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3대1 면접 ○1차 학과관련 / 2차 인성-학생부 관련			
면접 내용				
<p>[1차 - 질문]</p> <p>Q1. 한의학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말하시오.</p> <p>Q2. 그 과정 속 한의사가 해야 할 역할을 말하시오.</p> <p>+꼬리질문. 양방과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지 말하시오.</p> <p>+꼬리질문. 협력을 이끌어낸 임원활동을 말해보시오.</p> <p>[2차 - 질문]</p> <p>Q1. 지원동기</p> <p>Q2. 고등학교 수학과목에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취약한 부분과 그 이유</p> <p>Q3. 생기부 팩트체크 질문</p> <p>- 최인훈의 ‘광장’에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시오.(국어세특)</p> <p>- 영화 ‘동주’에서 감독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말하시오.(국어세특)</p>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경인교육대학교	사범	초등교육과	학생부종합 (교직적성)	1.36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제시문기반 면접	○개인면접: 학교생활기록부 및 자기소개서 기재내용확인(10분 내외) ○집단면접: 대학 자체 개발 면접문항을 활용하여 다수의 수험생이 상호의사 소통을 통해 토의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가는 토의(조별 35분 내외)			
면접 내용				
[개별면접]				
▶ 면접 시작 전				
강당에서 기다려야합니다. 보통 한 조에 28~30명 정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조는 마지막 조였고, 면접 결시 자는 한 6~7명저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조별로 이동을 하고, 조의 인원 모두가 동시에 면접을 진행합니다.				
▶ 면접 시작				
들어가서 문을 면접 도우미께서 문을 두드리지 말라고 하셔서, 간단히 목레만 한 후 자리에 자리에 앉기 전에는 제대로 인사를 했습니다. 면접고사장에는 교수님들이 2분이 계셨습니다. 2분께서 돌아가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저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처음에는 간단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Q1. 왼쪽 분(편의상 A지칭): “학생은 수학, 국어, 영어, 체육 등 예체능도 열심히 한 노력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학생이 가장 흥미있었던 과목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실래요?”				
A. 나(편의상 S지칭): 수학이 흥미있었습니다.				
Q2. 아무래도 그랬으니까, 학생 본인이 수학 자율동아리를 했겠지요. 그래서 그런데 이 수학자율동아리 mac가 실생활과 관련한 내용들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실생활과 관련한 수학을 어떠한 방식과 내용들로 진행해나갔나요?				
A. 미적분에서 시어스핀의 무한히 반복되는 삼각형을 보고는, 무한히 반복되는 등비급수와 관련한 실생활의 예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해 프렉탈이라는 것을 발견했고 조원들과 함께 이러한 예들을 찾아보고 함께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답변할 당시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음)				

Q3. 그러한 예들은 학생과 같이 수학을 어느정도 공부를 한 수험생들이나 학생들이 아는 실생활과 관련한 예들이 아닐까요? 이러한 예가 아니라 일반인과 같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예들을 말씀해주실래요?

A. 프렉탈과 관련한 예시들 말고도 저는 빅 데이터를 이용한 통계 자료 만들기 활동에서 도서와 관련한 통계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부원들과 함께 통계청의 2018년 kois 성별 고등학생의 도서선호분야 라는 통계자료를 활용해 이 자료들과 관련한 그래프를 엑셀 그래프를 활용해 그려봤습니다.(꼬리질문을 처음 받는 상황이라 굉장히 당황했지만 티를 잘 안내려고 애썼음)

Q4. 통계청의 자료들을 활용했다는 말씀이시죠?

A. 네, 맞습니다.(아마 이 질문은 실제 통계를 확인을 하기 위해 한 것으로 보임)

Q5. 오른쪽 분(편의상 B지칭): 다양한 토의활동을 교과수업뿐만 아니라 비교과 시간에도 하셨습니다. 1학년 국어 시간의 토의시간에 선거연령 하향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셨는데, 수험생 본인의 입장은 무엇이었고, 토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A. 저는 우선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했습니다. 비록 청소년의 정신연령이 성인과 비슷하다는 연구결과들이 많지만, 무엇보다 청소년은 성인보다 책임의식이 적으며 정신적으로 미숙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기에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선거연령을 하향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한편 토의결과는 반대 팀이 승리했습니다. 하향 찬성 팀이 제시한 근거가 청소년 선거연령에 찬성하는 학생들이 많은 카페에서 인용한 발표였기 때문에, 자료의 근거의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찬성측이 감점을 받아 반대 측이 승리한 것 같습니다.(기억이 잘 나지 않았던 활동이어서 즉석에서 생각해야만 했음.)

이렇게 저의 생각을 다 말씀드리고 난 후, 마무리 인사를 하고 개별 면접실을 나왔습니다.

[집단면접]

▶ 면접 시작 전

개별면접이 끝난 후, 다시 강당으로 돌아가 집단토론 조를 지정해줬습니다. 저는 당시 5조였고, 총 5명이었는데 저 빼고 모두가 여자였습니다. 이후 강당에서 3분정도 대기한 후 지정된 집단 면접실에 들어갔습니다.

면접 내용

▶ 면접 시작

면접실에는 2분의 면접관이 있었고, 조원들과 함께 면접 실에 들어가 모두가 인사 했습니다. 본격적인 시작 전에 면접관님들께서 면접 시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해주셨고, 토의 형식은 수험생본인들이 재량껏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후, 집단 면접이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저를 포함한 조원 모두는 제시문을 받았습니다. 그 때, 한 조원친구가 우리 이 제시문을 받았는데, 일단 3분정도 읽어보고 각자 생각을 정리해보는 게 어때요 라고 말했고, 나머지 조원모두 좋다고 반응하고 3분 동안 생각했습니다.(당시 제시문의 내용이 노인 기준 연령 상향에 대한 예상되는 효과 3가지, 문제점 3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3가지였음. 나는 집단토론 준비를 안했기에 각각 1가지 씩 밖에 생각하지 못했음) 이후 그 친구가, 3분이 지나자 각자 돌아가면서 말하자고 했고, 당시 저가 받은 조원 번호가 4번이었기에 저는 저의 순서가 올 때마다 예상되는 효과(노인 연령이 상향되면서 정년 연령도 늘어날 수 있을 것임), 문제점(자칫하면 노인들이 일자리에 지속적으로 있는 것이기에, 안 그래도 심각한 청년 실업을 더욱더 심화시킬 수 있음), 해결방안(기업에서 인재를 뽑을 때, 청년과 노인을 따로 나눠서 인재를 선발하는 등 서로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들을 소신껏 말했습니다. 또한 조원의 발언에 대해 보충발언을 한 개 정도 했습니다.(구체적 내용이 기억나지 않음.) <28분정도 걸렸음> 이후, 의견정리가 서로 끝난 후, 남은 7분 동안 논의했던 점들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고, 예상효과 2명, 문제점 2명(나는 문제점 3개중에서 1개 발표함- 발표내용이 기억나지 않음), 해결방안 1명으로 나눠서 정리했던 내용들에 대해 각자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 후, 교수님께서 발표내용들에 대해 2개정도 질문하셨고(질문내용 기억나지 않음), 질문이 끝난 이후에는 다 함께 인사하고 퇴실했습니다. <7분정도>

[기타]

1. 개인, 집단 모두 블라인드 면접입니다.
2. 집단 토론에서 저 혼자 남자여서, 상대적으로 말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제가 꼭 해야 할 말을 하고, 보충발언 한 두 개만 하자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저는 상대적으로 제가 했던 말일 적었기에, 나머지 조원들의 의견들을 들을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원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거리고 말하는 부원을 쳐다보면서 조원의 의견을 정리하는 등 집단토론을 함에 있어 매우 열심히 경청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3. 집단 토론의 교수님들은 처음에 유의사항을 알려주시고, 마지막에 질문하는 것 이외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조원들 모두가 협력해서 주어진 시간 내에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나가야만 합니다.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경인교육대학교	사범	초등교육과	학생부종합 (저소득층학생)	2.2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제시문기반 면접	○개인면접: 학교생활기록부 및 자기소개서 기재내용확인(10분 내외) ○집단면접: 대학 자체 개발 면접문항을 활용하여 다수의 수험생이 상호의사 소통을 통해 토의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가는 토의(조별 35분 내외)			
면접 내용				
<p>Q1. 학생은 독서를 하는 것과 봉사활동을 하는 것 중 어느 것을 더 선호하나요?</p> <p>A. 저는 개인적으로 독서를 더 선호하는 거 같습니다. 봉사활동을 가기 위해서는 며칠 전부터 계획을 짜야 하지만 독서는 쉬는 시간이라도 틈틈이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유시간이 많지 않았던 고3때는 독서에 기반을 두고 진행했던 거 같습니다.</p> <p>Q2. 그럼 인상 깊게 읽은 책 있나요?</p> <p>A. 저는 교육의 차이라는 책을 가장 재미있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교육의 차이라는 책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여러 선진국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특히 핀란드의 교육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 핀란드는 차별과 역차별을 모두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었고 그 점이 우리나라 교육이 본받아가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핀란드는 경쟁에서 뒤처지는 학교에 더욱 많은 예산을 제공해주고 우리나라는 경쟁을 잘하는 학교에 더욱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p> <p>Q3. 그럼 왜 핀란드가 그런 교육정책을 시행하게 됐다고 생각하시나요?</p> <p>A. 음... 저는 핀란드나 우리나라나 모두 그 전의 사회현상 때문에 그러한 교육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핀란드는 전쟁을 겪고 남은 자원이 인적자원밖에 없어서 한 명이라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어... 근대 우리나라도 인적자원밖에 없는데 음... 그게 우리나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왜그럴까요?</p> <p>Q4. 학생은 3년동안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인가요?</p> <p>A. 음... 굳이 꼽자면 지금 이 시기인 것 같습니다.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계속 열심히 공부하였고 결과가 나오는 날에는 긴장이 되어서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면접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도 매우 긴장되고 있습니다.</p> <p>Q5. 그럼 학생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있나요?</p> <p>A. 저는 제 자신이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야구경기를 직관하면서 소리 지르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곤 하였습니다.</p> <p>Q6.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하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p> <p>A. 저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느 한 부분을 집어서 가르치는 게 아닌 학생들이 꾸준히 공부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느 한가지를 짚어서 가르쳐줄 수도 있지만 빠르게 변해가는 미래사회 속에서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맞지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학생들에게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경인교육대학교	사범	초등교육과	학생부종합 (농어촌학생)	1.3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제시문기반 면접	○개인면접: 학교생활기록부 및 자기소개서 기재내용확인(10분 내외) ○집단면접: 대학 자체 개발 면접문항을 활용하여 다수의 수험생이 상호의사 소통을 통해 토의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가는 토의(조별 35분 내외)			
면접 내용				
<p>Q1. (자소서 관련 질문) 장애 인식 개선 글짓기 대회에서 상을 받았는데 무슨 내용을 썼어요?</p> <p>A. 글짓기를 하게 된 계기로 교육을 받았던 것을 이야기.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말함</p> <p>Q2. ‘그린나래’라는 동아리에서 토론을 했는데 본인은 어떤 주제를 선정했는지</p> <p>A. ‘중고생의 화장을 규제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토론을 했고 나는 반대 측 입장에서 토론을 진행했음. 화장을 규제해서는 안 되는 이유와 나중에 교사가 되었을 때 아이들에게 어떻게 화장 교육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한 것을 언급</p> <p>Q3. (자소서 1번에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명칭 이야기가 있음) 역사를 좋아하고 관심이 있어 보이는데…. 일본군 ‘위안부’ 명칭을 바꾼다면 어떻게 바꾸고 싶어요?</p> <p>A. (당황했다.) 어, 지금 말씀드리면 될까요? ㅎㅎ</p> <p>Q4. 네, 생각하고 이야기해주세요.(면접관님들이 다 웃으셨음)</p> <p>A. 일본군 성 피해자로 바꾸고 싶다고 이야기. 그 이유도 덧붙임!(위안부, 성노예와 같은 단어들은 거리감이 생길 수도 있고 피해자 할머니들께도 예의가 아닐 수도 있기에 일본군에 의해 성적 피해를 받으셨기 때문에 일본군 성 피해자로 바꾸고 싶음)</p> <p>Q5. BEAT라는 동아리를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어요?</p> <p>A. 인근 초등학교에 참관 수업을 간 것이 가장 인상 깊었음. 가게 된 계기와 가서 느낀 점을 이야기함. ‘수업의 주인이 학생이 되도록 수업을 하고 싶다.’라고 말함(자소서에 썼던 내용을 기반으로 이야기 했음)</p>				

Q6. (추가 질문) 그럼 몇 번 정도 갔어요?

A. 한 번 갔다고 대답(면접관님이 웃으셨기에 한 번밖에 갈 수 없었던 이유를 말했음)

Q7. 친구들의 언행을 바로 잡아주었다고 하는데 거기서 갈등은 없었나요?

A. (저 내용은 생기부 맨 뒷장에 한 줄 적혀있는 내용이라 준비를 안 해서 당황) 욕을 사용하면 벌금을 내는 교칙을 만들었는데 벌금제가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해서 벌금제 대신 학급 회의를 통해 교실에서 사용하지 않을 단어를 정했고 오히려 좋은 효과를 가져왔던 경험을 이야기함

Q8. 가장 좋았던 수업과 가장 아쉬웠던 수업 한 가지씩 말해볼래요?

A. 가장 좋았던 수업으로 QR코드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 했고,(QR코드 수업은 자소서에도 있음) 아쉬웠던 수업으로는 과정을 중요시하지 않고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수업이 아쉬웠다고 대답함

[후기]

경인교대가 다른 교대들에 비해서 분위기도 딱딱하고 독서 질문을 어렵게 물어보는 학교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긴장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분위기가 좋았고 독서 질문도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른 후기들 보면 독서 질문 많이 나오니까 준비해가세요. 경인교대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제 자료를 사전에 꼼꼼하게 읽어본 느낌이 많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 질문 받았던 글짓기 내용이나 일본군 '위안부' 질문, 또 마지막 행동 특성에 적혀있는 언행 질문!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개별 면접 끝나면 집단 면접 기다리면서 자료도 못 보고 옆 친구들이랑 이야기도 못 하기 때문에 자료를 챙겨가지 않아도 됩니다.

[집단 면접 팁을 말하자면]

1. 말할 때 종이를 보는 게 아니라 조원들 쳐다보면서 이야기하기
2. 다른 친구가 말할 때는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친구를 잘 쳐다보기
3. 친구와 동시에 말했다면 한 번 양보하는 것도 좋아요. ^^
4. 발표지를 작성할 때 말은 일이 없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도 챙겨서 같이 합시다.
5. 집단 면접할 때도 웃으세요. ㅎㅎㅎㅎㅎㅎㅎㅎ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공주교육대학교	사범	초등교육과	학생부교과 (고교성적우수자)	1.36
면접유형	면접 방식			
제시문기반 면접	1. 1인당 약 3~4분내외 2. 교직 1문항 (제시문), 교양 1문항 (즉석질문)	교직원 및 교양	초등교사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교직에 대한 이해, 열의, 사명의식, 신념, 인간관, 아동관, 가치관, 기본적 교양 등을 평가	
		표현력	답변의 명료성, 객관성, 논리성, 적절성 등을 평가	
		태도	대화태도, 자신감, 예의, 자세, 복장, 정서적 안정성 등을 평가	
면접 내용				
진행과정과 답변내용을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면접 시작 전 1]				
총 몇 고사장이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저는 5고사장이었고 원래는 대략 30명정도 있어야 하는데 결시자가 대략 12명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제가 본 고사장은 타 교대들과 달리 유일하게 남자들만 모아 면접 대기실을 따로 만든 것 같았습니다. 또한 저는 거의 마지막으로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 시작 전 2]				
1. 면접순서가 되면 바로 면접실로 입실하는 것이 아니라 면접 대기실의 맨 앞에 있는 책상에 가방과 모든 짐을 챙겨 앉아 대기합니다.				
2. 자리에 착석하면, 면접 도우미 분께서 교양과 관련한 제시문 3개중 하나를 무작위로 뽑을 수 있도록 제시문이 담긴 봉투를 주십니다.				
3. 내용은 볼 수 없고, 무작위로 3개중 1개를 뽑습니다.				
4. 저는 제시문으로 ‘프랜차이즈 기업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나 개인 상점사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가 규제를 해야 할지, 아니면 시장의 흐름에 맡겨야 할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말하십시오.’ 이었습니다.				
5. 3분 20~30초 정도의 생각시간을 준 후, 면접실에 입실합니다.(타이머는 따로 없고, 시간이 되면 면접도우미께서 시간완료를 알려주십니다. 또한 기록은 불가하며 단순히 머리로 나름 정리하셔야 합니다.)				

[면접시작]

들어가서 문을 두드리고 간단히 들어가서 문을 두드리고 간단히 목례를 한 후, 자리에 앉기 전에는 제대로 인사를 했습니다. 면접고사장에는 교수님들이 2분이 계셨습니다. 이후 교수님께서 문제에 대해 “뽐은 제시문(1번)맞죠?, 이에 대해 한번 말씀해보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교양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두면 프랜차이즈는 자칫하면 시장 독과점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예 필요 없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으로는 우선 프랜차이즈 점의 개수제한과 근로시간 제한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프랜차이즈점을 규제하게 된다면, 반발히 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저는 그들에게는 카드 세 할인과 같이 세금과 관련한 측면에서 그들에게 감세혜택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교수님들께서 저의 말을 듣고, 이후 교직질문을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SNS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많이 사용되는 시기에 선생님들도 SNS를 활용할 것인데, 만약 선생님들도 SNS를 활용한다면 어떤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들이 있는지에 대해 학생 본인의 생각을 말해볼래요?”

▶ 교직

○장점: 선생님들이 수업 후 잘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을 찍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sns는 수업과 관련해 보충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sns를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숙제자료들도 공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점: sns는 익명이 보장되는 공간이기에 만약 sns에서 학생들이 익명을 보장받는다면, 선생님께 무례한 언어를 사용하는 등 비도덕적인 행동들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의 생각을 다 말씀드리고 난 후, 마무리 인사를 하고 면접장을 나왔습니다.

[기타]

1. 면접관 2분이 있었는데, 두 분 모두 저의 응답에 잘 반응해주셨습니다.
2. 제가 면접을 볼 때는 면접 대기실에서 다른 면접과 관련한 자료들을 보지 못했고 핸드폰과 같은 전자기기들도 소지하지 못했습니다.
3. 블라인드 면접입니다.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광주교육대학교	사범	초등교육과	학생부종합 (전남인재)	2.0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1단계 합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 면접평가위원 3명이 수험생 1명을 10분 내외의 개별 심층면접 진행	인 · 적성	인성 및 교직 적성의 정도 올바른 가치관 및 도덕성 사회성 및 적극성, 열정 학교생활의 성실도 및 생활태도	
		태도 및 서류 확인	품행 및 면접참여의 적극성 학교생활기록부 활동 확인 및 검증 지원자의 각종 참여 활동 확인	
		문제해결 능력	예비교사로서의 기본소양 및 관심정도 발표력 및 논리성의 정도 문제해결능력 및 상황대처능력	
면접 내용				
<p>인사는 최대한 씩씩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춘천교대 면접에서는 얼른 앉으라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엉거주춤 앉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런 태도가 엄청 소심해 보였을 것 같아요.</p> <p>면접관: 아이고~ 학생, 우리 학교에 지원해줘서 고마워요. ^^</p> <p>나: 네, 저도 감사합니다!</p> <p>Q1. 수상실적이 엄청 많네요. 양성평등 글짓기 대회에서도 상을 받았는데 성평등에 대해 관심이 많나 봐요. 우리 사회에 성차별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나요?</p> <p>A. 네, 성평등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고 있는 만큼 겉으로 보이는 성차별은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차별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양성평등 글짓기 대회에서 ‘82년생 김지영’ 책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그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는 학급 내에서 일어나는 괴롭힘 문제입니다. 한 남학생이 장난이라면서 주인공 김지영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힙니다. 담임선생님께서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시면서도 “원래 남자아이들은 좋아하는 친구에게 못되게 구는 법”이라며 아무런 조치 없이 상황을 모면해버립니다. 저는 이런 선생님의 작은 태도로 인해 남자아이가 잘못된 성가치관을 학습하고 훗날 사회생활을 하며 이성에게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상 생활 속 교육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면접 내용

당황스러운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살짝 질문에서 벗어나는 답변을 구구절절 했어요. 답변이 길어지면서 면접관 분들도 지루해하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Q2. 봉사활동을 다른 학생들에 비해 많이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했나요?

- A. 미래 학급에는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공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학급에서 학생들이 서로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먼저 개방된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를 기르기 위해 다운증후군 학생, 청각장애인 학생, 다문화가정의 학생 등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해하고 소통하는 법을 키우려고 노력하며 그들과 진정한 친구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점점 가까워지게 되었고 자주 방문하면서 자연스럽게 봉사활동 실적이 많이 쌓인 것 같습니다.
- 다운증후군 학생, 청각장애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봉사활동은 흔하지 않은 거라고개를 들고 관심 있게 들으셨어요.

Q3. 학급반장을 하면서 어떤 점을 배웠나요?

- A. 저의 장점이자 단점은 굉장히 수용적이라는 것입니다. 학급반장을 하며 학급회의를 이끌어 나갈 때 소수의 의견도 항상 경청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의견을 전부 수용하려고 하다 보니 회의가 지연되기도 했고 학급 내 불화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소수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반장으로서 어떠한 의견을 설득시킬 필요도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면접관: 정말 중요한 걸 배웠네요!

Q4. 영어세특에 학습장애에 대한 이야기가 있네요. 학습장애를 가진 학생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A. 학습장애를 가진 학생은 학습능력이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개념을 배울 때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오히려 다른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장애를 가진 학생을 대할 때는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공부했을 때 쉽게 이해하는지 관찰하여 수업방식을 개선하고, 상담을 통해 그들의 강점을 함께 발견해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말을 하다가 ‘학습장애’라는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살짝 어버버 했는데 큰 신경은 쓰지 않으셨습니다.

Q5. 자기소개서에 학생을 눈높이에 맞춰 대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봉사활동을 꾸준히 했다고 적혀있는데, 눈높이를 맞추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면접 내용

A.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란, 항상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대화를 나눌 때에도 ‘지금 학생은 어떤 기분일까?’,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이 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입장을 바꿔 생각해야 하고 항상 그들을 공감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Q6. 사회문화 시간에 유튜버 교사에 대해 조사했네요. 학생은 유튜버 교사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A. 네, 저는 유튜버 교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유튜버를 통해 수익창출을 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만한 활동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주의하며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유튜버 활동을 하는 것은 교육 발전의 좋은 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7. 그럼 학생은 유튜버 교사를 할 생각이 있는 건가요?(활짝 웃으심)

A. 네,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활짝 웃음)

Q8. 유튜버 교사를 하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싶나요?

A. 네, 저는 유튜버 교사가 되면 총 2가지 활동을 해보고 싶습니다(가지치기를 하려고 일부러 2가지 활동이 있다고 먼저 큰 틀을 잡아 말했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아이쿠, 얘기해 보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약간 저를 당돌하게 본 느낌?) 첫 번째로, 교과서 속 개념을 학생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제시해주고 싶습니다. [10분 종료 타이머가 울렸는데 계속 말해보라고 하셨어요.] 예를 들면, ‘강’에 대해 설명할 때(손으로 물결 제스처를 함) 근처 강에 직접 가서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을 영상에 담아 보여준다면 학생들도 훨씬 친근하고 흥미롭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학교흡연예방과 같은 교육을 할 때 학생들이 직접 공익광고를 만들어보도록 기회를 제공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영상을 기획하고 촬영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좀 더 깊이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접관: 네, 수고했어요.

유튜버 교사와 관련된 답변을 인상 깊게 들으신 것 같았어요. 면접이 다 끝난 후에도 제가 나갈 때까지 면접관들끼리 유튜버 교사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전남인재 전형을 썼던 4명 중 저만 9고사장이었고 나머지는 10고사장이었어요. 저는 면접 분위기가 굉장히 따뜻하고 친절했는데 10고사장은 약간 냉랭한 분위기였다고 해요. 고사장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것 같고 수험번호가 뒷번호일수록 면접관 분들이 지쳐서 차가워지십니다. 그리고 분위기 화목하기로 유명한 춘천교대와 광주교대 9고사장에도 무표정 면접관은 한 명씩 꼭 앉아계세요. 제 이야기를 안 들어주시고 무표정으로 짜려보시는 게 은근 큰 압박감으로 다가오는데 사전에 연습을 많이 하지 않고 간다면 불합격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광주교육대학교	사범	초등교육과	학생부종합 (전남인재)	2.49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1단계 합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 면접평가위원 3명이 수험생 1명을 10분 내외의 개별 심층면접 진행	인 · 적성	인성 및 교직 적성의 정도 올바른 가치관 및 도덕성 사회성 및 적극성, 열정 학교생활의 성실도 및 생활태도	
		태도 및 서류 확인	품행 및 면접참여의 적극성 학교생활기록부 활동 확인 및 검증 지원자의 각종 참여 활동 확인	
		문제해결 능력	예비교사로서의 기본소양 및 관심정도 발표력 및 논리성의 정도 문제해결능력 및 상황대처능력	
	면접 내용			
<p>Tip. 광주교대 내 부설초등학교에서 진행되었음</p> <p>Tip. 면접 교실 옆에 있는 대기 교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부여되는 가번호 순서대로 진행위원이 호명하면 복도에서 1분~2분 정도 대기하다 면접장 입실</p> <p>Tip. 진행위원이 00번(본인 가번호)입니다. 라고 교수님들께 전달한 후 면접자가 입실하기 때문에 본인 같은 경우 인사는 입실 후 걸어가서 허리 숙여 ‘안녕하십니까’만 했음.</p> <p>Tip. 다음은 면접 상황(편의상 세 분의 교수님들을 남1, 남2, 여1로 지칭)</p> <p>여1. 오래 기다렸죠? 면접 끝나면 뭐하고 싶어요?</p> <p>A. 공복으로 5시간 동안 있었기 때문에 빨리 고기를 먹으러 가고 싶습니다. (실제로 끝에서 5번째여서 약 5시간 동안의 대기 때문에 배고픈 상태였고, 고기 먹으러 갈 계획은 없었지만 분위기를 조금 풀어보고자? 고기 먹으러 가고 싶다고 말함) (면접관님들 모두 호탕하게 웃으심)</p> <p>남2. 지금 보면 자소서 2번에 소논문 관련 내용이 적혀있는데, 이건 기재 금지 사항이니까 질문 안해도 되나요, 제가?</p> <p>A. 네?(당황스러웠지만 티내지 않고 최대한 침착하게 대함. 자소서 2번은 교내 소논문 대회 발표 관련 내용이었고, 그게 수상 실적에도 있는데 무슨 말씀이시지? 위기 대처 능력을 테스트해보시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음)</p>				

면접 내용

남2. 이게 무슨 대학이나 학회지랑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니죠?

A. 아, 네. 절대 아닙니다. 교내 대회로 이루어졌던 행사였습니다.(아~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였구나, 싶었고 이후 침착하게 대답 이어나감.)

남2. 아, 교내 대회로? 그럼 내용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볼래요?

A. 제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파악하고 다른 소논문을 찾아보면서 그로 인한 영향과 해결방안을 모색한 후 소논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여1. 생기부에 보면 영화 ‘굿 윌 헌팅’을 보고 두 교수의 교수법을 비교한 후 자신의 교육관을 되돌아보았다고 써져있는데, 굿 윌 헌팅이 어떤 내용 인가요?

A. 영화에는 수학 쪽으로 천재적이지만 반항적인 성향을 지닌 학생이 나오는데,

여1. 그 주인공이 누구죠?

남2. 맷데이먼

A. 네, 맷데이먼입니다. 그 수학 천재인 학생에 대해서 한 교수는 수학적인 측면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그 부분을 발전시켜주려 합니다. 하지만 다른 교수는 그 학생의 반항적인 성향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학생이 진정으로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하고 싶어질 때까지 기다려주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런 부분을 통해 두 교수의 모습을 비교해볼 수 있었습니다.

여1. 이게 몇 학년 때 활동이죠?

A. 1학년 때입니다.

여1. 이게... 교수라고 보기에 살짝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두 교수라고 써놓았길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나 확인해보려고 질문한 거예요.

남2. 교수예요. 교수는 맞아요. 나중에 퇴학당해서 그렇지. 그게 MIT던가요,, 하버드던가요, 배경이?(혼잣말 비슷하게 하신 거였지만 내 귀에 들렸으니 그래도 답해야 한다 생각함)

A.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MIT로 기억합니다.

남2. 중고등학교 교사로서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지원자가 생각하기에 ‘초등학교’ 교사로서 이러한 자질만큼은 꼭! 갖춰야 한다 하는 게 무엇일까요?

A. 인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들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어떤 잘못된 행동들을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선생님은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해한 후,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을 때까지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내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남2. 아, 인내심…. 중고등학교 교사도 인내심은 필요할텐데(웃으며) 그래도 초등학생들은 어리니까 잘 참아야한다? 알겠습니다.

A. 네.

남1. 교육학 시간에 인명사전 만들기를 했는데 켄 로빈슨의 전인교육에 대해 작성했네요? 이에 대해 설명하고, 지원자가 생각하는 전인교육이 무엇인지 설명해보세요.

A. 우선, 전인교육이란 지, 덕, 체를 모두 겸비한 학생으로 키워내는 것을 말합니다. 켄 로빈슨은 단순히 지식만 강요하는 것이 아닌 전인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이에 대해 작성했습니다.

남1. 지원자가 생각하는 전인교육은?

A. (생각 정리가 필요해서 일부러 끊어말했었음.) (2초 정도 간격 두고) 저는 전인 교육 중에 ‘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어린 학생들의 도덕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현상을 보았을 때,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개인의 인성 및 자아 정체성을 가지기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덕’을 많이 길러주고 싶습니다.

남1. 법과정치 시간에 교권침해에 대해 발표했는데, 교권침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A. (교권침해는 워낙 예민한 부분이어서 조심스럽기도 했지만, 생각 그대로 말씀드릴) 최근 학생인권이 중시 되면서 상대적으로 교권은 낮아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선,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교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실제로는 조금 버벅거리서 말이 좀 더 길어짐) 그리고 최근에는 학생을 넘어 학부모와도 관계되어 교권침해의 범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학급 자율시간에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 학부모 공청회를 실시하여 학급 및 학생과 관련된 부분은 학부모와 더욱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수님들 모두 음~)

여1. 지금 시간이 다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 있으면 짧게! 하세요.

A. 어…. 준비해온 말이 많았는데 짧게 하라고 하시니까 어렵네요.(웃음)

남2. 앞에 학생들도 다 그랬어요.(웃음)

A. 제가 한국사를 공부하면서 인상 깊었던 부분은 모두 광주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광주학생항일운동이나,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여기 광주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존중이 무엇인지 학생들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대 학 명	계 열	모 집 단 위(학 과)	전 형(세 부 전 형)	등 급
광주교육대학교	사범	초등교육과	학생부종합 (전남도학교장추천)	2.2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1단계 합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 면접평가위원 3명이 수험생 1명을 10분 내외의 개별 심층면접 진행	인 · 적 성	인성 및 교직 적성의 정도 올바른 가치관 및 도덕성 사회성 및 적극성, 열정 학교생활의 성실도 및 생활태도	
		태도 및 서류 확인	품행 및 면접참여의 적극성 학교생활기록부 활동 확인 및 검증 지원자의 각종 참여 활동 확인	
		문제해결 능력	예비교사로서의 기본소양 및 관심정도 발표력 및 논리성의 정도 문제해결능력 및 상황대처능력	
면접 내용				
<p>Q1. 1학년때에 비해서 2학년때에 성적이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p>A. 1학년 때에 순전히 공부에 쏟아부을 수 있는 시간이 많았지만 2학년에 올라와서는 학생회장을 하면서 바른말 고운말쓰기 캠페인이나 사제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사제지간 행사를 학생들 자치적으로 기획하기 위해서 여러 회의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 친구들은 저에게 계속 건의사항을 많이 요청했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순전히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p> <p>Q2. 학생회장으로서 겪은 갈등이 있나요?</p> <p>A. 저는 학생회장을 할 때에 체육대회에서 학생들이 ‘카트라이더’라는 경기를 진행하고 싶어했습니다. 그 종목을 세발자전거를 구입해서 경주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종목은 세발자전거를 구입해야 한다는 예산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무조건 진행하고 싶다는 입장이고 선생님들은 만약 예산을 거기에 사용한다면 나중에 받을 상금이 없어진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의 입장을 전해주었고 학생들이 결국 양보하고 다른 종목을 하나 더 선택하자고 협의가 되었습니다.</p> <p>Q3. 책을 고를때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p> <p>A. 저는 책을 고를 때 우선적으로 제목이 특별한 책을 읽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교육의 차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처음 그 책을 봤을 때 도대체 교육에 어떠한 차이가 있길래 제목부터 교육의 차이라는 내용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여러 선진국의 교육정책이 있었지만 저는 핀란드의 평등교육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p>				

면접 내용

핀란드는 평등과 차별을 동시에 교육의 슬로건으로 삼고 있었고 매우 모순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핀란드는 오히려 공부를 못하는 학생에게 가정교사를 지원해 준다던가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많은 학교에 더욱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점을 알았고 우리나라도 그러한 정책을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Q4. 나라마다 교육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 음~ 저는 그 나라가 처한 역사적 상황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교육이 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Q5. 그러면 학생은 3학년 때에 봉사와 독서 중 어느 것에 더 비중을 두고 활동했습니까?

A. 저는 3학 년때에는 독서에 더욱더 많은 시간을 쏟아 부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봉사 활동을 진행할 때에는 몇 주 전부터 계획을 정해야 하고 그 장소로 이동하기까지의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독서활동은 제가 쉬는 시간마다 틈틈히 진행할 수도 있고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3학년이 되어서 학업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최대한 노력하다 보니 독서활동에 더욱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던 것 같습니다.

Q6.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과학과 관련된 수상이 많은데 왜 초등교사를 희망하게 되었습니까?

A. 저는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페스탈로치라는 동아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 동아리는 친구와 멘토멘티 활동을 진행하는 동아리인데 그 동아리에서 제가 친구에게 수학과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각 과목마다 가르치는 방법이 다르고 학생에 따라서 가르치는 방법이 달라야 하는 게 저에게 너무나 재밌게 다가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교사라는 꿈을 꾸게되었던거 같습니다. 또한 교육대학교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면서 지역아동센터로 봉사활동을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계의 이슈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초등교사를 꿈꾸게 되었던거 같습니다.

Q7. 그때에 진행했던 교육계 이슈 중에 기억에 남는것이 있나요?

A. 음~, 저는 교권추락에 대한 문제가 가장기억에 납니다. 요즘은 교권이 추락해서 학생이 선생님을 고소하기도 하고 학부모가 선생님을 고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학교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지 않고 업무적으로 처리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특히 초등학교는 아이들이 인격을 형성해나가는 중요한 시기인데 주변에서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한 명이 사라진다는 것이 매우 불이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권이 다시 회복되어서 아이들이 교사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많이 형성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Q8. 시간이 다 끝나가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A. 저는 광주교대의 인재상 진리를 탐구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자랑스러운 스승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또한 미래 전남교육을 책임질 저를 꼭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광주교육대학교	사범	초등교육과	학생부종합 (전남학교장추천)	1.3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1단계 합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 면접평가위원 3명이 수험생 1명을 10분 내외의 개별 심층면접 진행	인 · 적성	인성 및 교직 적성의 정도 올바른 가치관 및 도덕성 사회성 및 적극성, 열정 학교생활의 성실도 및 생활태도	
		태도 및 서류 확인	품행 및 면접참여의 적극성 학교생활기록부 활동 확인 및 검증 지원자의 각종 참여 활동 확인	
		문제해결 능력	예비교사로서의 기본소양 및 관심정도 발표력 및 논리성의 정도 문제해결능력 및 상황대처능력	
면접 내용				
<p>Q1. 잠은 잘 잤어요?</p> <p>A. 아, 사실 너무 떨려서 잘 자지 못했는데 그래도 막상 학교에 도착하니 어제보단 덜 떨린 것 같습니다!</p> <p>Q2.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ㅎㅎ 면접은 10분 정도 진행할거고 긴장하지말고 잘 대답해 주면 돼요.</p> <p>A. 네!</p> <p>Q3. (질문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는데 성적 그래프를 말씀하신 것 같았음)</p> <p>A. 아, 혹시 성적이 떨어졌다가 오른 것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p> <p>Q4. (고개 끄덕끄덕 하심)</p> <p>A. 친구 관계에 문제가 있었고 이는 학업 부담으로 이어짐, 친구와의 오해는 대화로 해결했으며 이를 계기로 즐겁게 학습하게 되었음</p> <p>Q5. (추가 질문) 그렇다면 그 사례를 통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나?</p> <p>A. 대화와 소통의 중요성</p> <p>Q6. 죽은 시인의 사회를 읽었다고 하는데 느낀 점과 본인의 교직관을 말해줄래요?</p> <p>A. 인상 깊었던 인물로 키팅 선생님과 닐을 언급. 키팅 선생님의 색다른 수업 방식과 닐의 안타까운 사연을 이유로 들면서 세심한 교사가 되겠다고 말함</p>				

Q7. 학교생활기록부를 보면 성적도 좋지만 다양한 활동들에 굉장히 많이 참여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A. 활발하고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라고 말한 후 다양한 소통을 할 수 있었던 활동들을 사례로 들었음. 또 수상 기록에 과학 관련 분야가 많기 때문에 과학 대회에 참여함으로 얻었던 자신감과 도전의 값짐에 대해서 배웠다고 이야기

Q8. (추가 질문) 그렇다면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갈등 사례는 없었나요?

A. 역사 신문 만들기 활동을 할 때 나의 욕심으로 조원들에게 부담감을 주었고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음. 자기 반성을 한 후에 조원들과 다시 계획을 짜 활동에 임했고 나의 마음가짐이나 결과물 자체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옴

Q9. (질문이 잘 기억 안남) 교사로 학업 이외에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A. 인성교육의 필요성과 어떻게 인성 교육을 할 것인지 이야기함(청소, 인사, 친구와의 약속 등 내가 꼭 필요하게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 말함)

Q10. 1분 정도 남았는데 지원동기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보세요.

A. (준비해 간 말 하면 될 것 같아음) 면접에서 나의 모습을 다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과 교사가 되고 싶어서 중학생 때부터 해왔던 노력, 봉사활동 등 (말하는 도중에 타이머가 울림) 계속 말씀드려도 될까요?

면접관: 입학해서 들으면 될 것 같아요. ㅎㅎ (다른 면접관님들도 고개 끄덕거리면서 다 웃어주셨음) 그래도 괜찮죠?

A. 네! 오늘 면접 봐주셔서 감사합니다!(인사하고 나왔음)

[후기]

대기실이 굉장히 좁습니다. 면접 보러 갔던 학교들 중에서 대기실이 가장 좁았던 학교가 광주교대였고 뒷자리라서 앞자리 친구들에게 미안해 화장실도 못 가고 물도 가지러 못 나갔어요. 왔다갔다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문 쪽에 있는 구비되어 있는 물을 챙겨서 자리에 앉는 걸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대기하면서 면접 자료도 볼 수 있으니 가져가세요! 면접 팁을 말씀드리자면 생글생글 웃는게 최고예요! 가운데 면접관님은 조금 간간하셨는데 처음부터 계속 웃으면서 대답하니 나중에는 웃어주시기도 하시고 분위기가 풀어졌어요. 광주교대가 독서활동을 많이 물어보드라구요. 생기부에 있는 책은 꼭 답변을 준비해가세요.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전주교육대학교	사범	초등교육과	학생부교과 (고교성적우수자)	1.36
면접유형	면접 방식			
제시문기반 면접	○ 1인당 약 3~4분내외 ○ 교직 1문항, 교양 1문항			
면접 내용				
<p>[면접 시작 전]</p> <p>1. 면접순서가 되면 바로 면접실로 입실하는 것이 아니라 면접구상실에 들어갑니다.</p> <p>2. 책상에는 교직과 관련해서는 4장의 초록색으로 된 종이가 있고, 교양과 관련해서는 핑크색으로 된 종이가 있었습니다.</p> <p>3. 그중에서 초록색, 핑크색 2장을 각각 뽑은 후, 그 중에서도 각각 1장씩 최종으로 선택합니다.(두개 중 하나를 고민할 때는 보통 2~3초 시간을 줍니다.)</p> <p>4. 저는 교양으로 반려 동물을 키우는 것의 장단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는 것이었고, 교직으로는 자사고 폐지논란에 대해 찬반의견을 자유롭게 말하는 것이었다.</p> <p>5. 이 문제들을 최종선택한 후, 3분 동안의 생각시간을 주고 시간은 타이머로 직접 재주십니다. 또한, 생각을 하는 데 있어 기록을 불가하며 단순히 머리로 나름 정리해야 합니다.</p> <p>[면접 시작]</p> <p>들어가서 문을 두드리고 간단히 목례를 한 후, 자리에 앉기 전에는 제대로 인사를 했습니다. 면접고사장에는 교수님들이 3분이 계셨습니다. 그 후 교수님들이 배정된 제시문을 저보고 스스로 읽고 나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교양 제시문을 읽고, 이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 교직도 같은 방식으로 제시문을 읽고,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p> <p>▶ 교양(반려동물 사육의 장단점)</p> <p>장점: 1. 반려동물을 사육함으로써 삶의 동반자가 생기는 느낌을 받는다.</p> <p>2. 반려동물을 사육함으로써 그 과정 속에서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심지어 심리적으로 힘든 사람도 반려동물을 통해 삶의 긍정적인 측면들을 발견해낼 수 있다.</p> <p>→ 2번같은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학교 영어 교과시간에 배웠던 지문에 있던 내용과 관련이 있어서, 교수님들께 말씀드릴 때, 해당 내용들이 영어 시간에 배운 지문에서 인용한 것이라고 간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p>				

면접 내용

단점: 반려동물을 기름으로써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하는데, 현재 상황만 보면 갈수록 유기견과 같은 버려지는 동물들이 많아지는 점을 봤을 때 현대인들은 되게 책임의식이 없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한 저 나름의 해결책(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에게 책임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책임의식 증대 교육의 필요)를 말씀드렸습니다.

[교직(자사고 폐지 찬반)]

찬성: 자사고를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사고는 물론 다양한 교육과정과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반드시 존재하지만, 현재의 자사고는 초기 자사고의 설립목적과는 반대로 입시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입시에 있어 자사고의 차별화된 점으로 인해 학교간의 서열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오히려 입시를 위한 수단인 자사고가 아니라, 더욱더 전문성을 갖춘 과학고, 예술고, 영재고 등과 같은 특성화된 학교들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의 생각을 다 말씀드리고 난 후, 마무리 인사를 하고 면접장을 나왔습니다.

[기타]

1. 면접관 3분이 있었는데, 왼쪽 분은 기록물만 보고 계셨고, 가운데 분만 오로지 저의 응답에 반응하시고, 오른쪽 분은 저를 계속 짚어보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교양에서 영어지문을 발췌할 때, 세 분 모두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발표를 함에 있어 교과지식과 관련해 인용해 말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2. 크게 봤을 땐, 제시문 기반면접이 맞습니다. 하지만 보통 수험생들이 생각하는 거창하고 매우 어렵게 느껴지는 장문의 제시문이 전혀 아니고, 대략 2~3문장의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찬반, 개인적인 의견 등)을 묻는 문제입니다. 또한 문제도 결국 교직과 관련한 문제 한문제와 교양(일반시사)와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하면 됩니다. 평소 교직시사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이슈들을 잘 알고 있는 학생이라면 딱히 준비를 하지 않아도 생각하지만, 저도 그랬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내신 준비와 수능공부를 하느라 잘 알지 못할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면접 2주전부터 교직은 교대카페에 들어가 교직시사와 관련한 내용들을 거의 다 보고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교양같은 경우에는 올해 우리나라에서 뜨거웠던 소식들을 거의 모두다 정리했습니다.
3. 교수님과 거리는 거의 식탁에 앉았을 때 서로 얼굴을 대면할 정도 였던 것 같습니다.
4. 제가 면접을 볼 때는 면접 대기실에서 1시간 20분 동안 기다릴 때 다른 면접과 관련한 자료들을 보지 못했고 핸드폰과 같은 전자기기들도 소지하지 못했습니다.
5. 블라인드 면접은 아닌데, 이름은 말하면 안 됩니다.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전주교육대학교	사범	초등교육과	학생부종합 (농어촌학생)	1.3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제시문기반 면접	○ 개별면접(10분 내외): 3인의 면접위원이 서류 및 교직원에 대한 질의응답 ○ 적인성 검사(50분): 주어진 검사지의 질문에 따라 자신의 반응을 제시 / 전형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음 ○ 집단면접(50분 내외): 면접위원 3인이 지원자의 발표 및 토의과정을 관찰하면서 초등 교사로서의 태도와 자질 등 교직 적성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6인 내외로 조편성			
면접 내용				
<p>Q1. 관리번호</p> <p>A. (못 알아들었음. 앉으라고도 안 하셨고 사투리 사용과 빠른 말 속도 때문에...)</p> <p>Q2. 관리번호 말하라고.</p> <p>A. 아아 네! 관리번호 ~번입니다.</p> <p>Q3. 자기소개 한 번 해봐요.</p> <p>A. (... 준비해 갔던 자기소개가 한 문장이라 한 문장 했는데..., 지원동기도 같이 말할 걸 너무 후회됨)</p> <p>네. 저는 ~인 관리번호 ~번입니다.</p> <p>Q3. 그게 다예요?</p> <p>A. 네!</p> <p>Q4. 앞으로 이 면접말고 학생이 취업 면접을 보거나 면접을 보러 갈 때는 관리 번호 같은건 외워야 해요. 이런 게 뭐 큰 영향을 끼치진 않겠지만~.</p> <p>A. 네. 감사합니다!(사실 여기서부터 망했다고 생각했다 관리 번호 안 외웠고, 자기소개도 너무 짧았고...)</p> <p>Q5. 학생 진로희망란을 보면 3년 내내 초등교사인데 3학년 때는 팔호에 역사교육이 들어가 있네요? 이유 말해봐요.</p> <p>A. 저는 2학년 때 일본군 '위안부'와 다양한 역사적 사실을 접하면서 역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사가 되어 아이들에게 역사를 중심으로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에 넣었습니다.</p> <p>Q6. 근데 그게 가능한가? 어떤 과목 하나만 비중있게 가르치는데?(질문은 기억 안 나는데 약간 꼬리 질문 같았음)</p> <p>A. 물론 저의 업무량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을 다 극복(?) 할 수 있을만큼 초등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또, 역사만을 중요하게 가르친다는 것이 아닌 아이들에게 역사의 진정한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알려주고 싶습니다.</p>				

면접 내용

Q7. (이것도 질문 생각 안남) 친구 관계가 좋지 않은 친구에 대해서 물어보셨던 것 같음

A. 언행이 폭력적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와 또래상담을 해서 이유에 대해 들어보고 다른 친구들에게 이 친구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자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식의 답변을 했음

Q8. 학생 독서 활동란을 보면 국가란 무엇인가, 당신이 알아야 할 한국사 등을 읽었네요. 국가란 무엇인가를 읽고 무엇을 느꼈나요? 책에서 국가란 무엇이라고 되어 있던가요?

A. (이 책을 물어볼지 몰랐음. 진짜 당황했는데 계속 웃으면서 질문 들었음) 사실 제가 이 책이 어렵다고 느껴져서 완벽하게 이해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은 훌륭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훌륭한 시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저는 훌륭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 국가 정책에도 관심을 가지고 투표에도 열심히 참여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Q9. 학교생활 중 가장 힘들었거나 어려웠던 점 있나요?

A. 저는 학교를 즐겁게 다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뽑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와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와 저는 사는 곳도 달랐고 중학교도 달라서 생각과 언어습관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해도 생기고 상처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친구와의 관계를 풀고 싶었기 때문에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친구와 이야기를 했고 지금은 친한 친구가 되어 있습니다.

Q10. 특기가 있으면 말해봐요. 장점 같은 거 말고 특별한 기술, 능력 같은 거

A. 저의 생활기록부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을 수 있지만 저는 음악에 소질이 있습니다. 체르니도 40번까지 쳤고 플루트도 7년 동안 배워서 중학생 때까지는 관현악단에서 합주를 했습니다. 저는 음악을 이용해 아이들과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Q11. 그럼 학생은 만약 입학하면 음악교육과를 가겠네?

A.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음악을 좋아하고 잘합니다.

Q12.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A. 저는 세심한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세심하게 관찰해서 아이들의 적성을 개발해주고 모든 아이들이 참여하는 수업을 만들고 싶습니다.

Q13. 지금 1분 정도 남았거든요. 마지막으로 준비해 온 말 있으면 해봐요.

A. 저는 제가 사는 지역만큼이나 진주에 애정이 있는 학생입니다. 어렸을 때 아시는 분이 진주에 사셨기 때문에 자주 왔었는데 아마 저의 마음의 고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성장하면서 자주 오지는 못 했지만 진주는 저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오늘 면접에서 저의 모든 모습을 다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보여드릴 게 많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학생입니다. 꼭 진주교육대학교에 입학해 훌륭한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접관께서 손가락으로 문 가르켜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고 나왔음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춘천교육대학교	사범	초등교육학과	학생부종합 (교직적·인성인재)	1.43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제시문기반 면접	○ 교직적성면접 : 4분 동안 주어진 제시문을 읽고 2문제를 푼 후, 평가위원 앞에서 발표하는 방식 ○ 교직인성면접 : 5분 동안 평가위원 3명이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를 바탕으로 1명의 학생에게 질의 응답하는 방식			
면접 내용				
<p>제시문 면접보는 방과 인적성 면접보는 방이 달랐음. 교수들도 달랐음</p> <p>제시문 면접</p> <p>4분 동안 제시문 보면서 나눠준 a4에 내 생각을 쓸 수 있었음</p> <p>제시문 요약: 요즘 교육청에서 청소용역이 지원되는데,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청소를 시킬 것인지 청소용역을 지원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p> <p>Q1. 아이들에게 청소를 시킬 시에 발생하는 장점 2가지와 단점 2가지를 말하시오.</p> <p>Q2. 본인이 교사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p> <p>A. 장점: 1. 아이들이 자기 구역을 청소함으로써 자신이 맡은 부분을 깨끗하게 만들었다는 것에서 오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음. 이는 곧 자기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음 2. 무분별하게 교실을 어지럽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본인 또는 친구의 청소 구역을 함부로 어지럽히지 못하게 됨>깨끗한 교실 환경 유지 용이</p> <p>단점: 1. 아이들 학업에 지장이 있을 수 있음. 방과후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음 2. 안전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 천장에 있는 에어컨이나 선풍기등 아이들에게 닿지 않는 부분을 청소시킬 경우에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p> <p>내가 교사라면 청소가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직접 아이들 앞에서 청소를 함으로써 모범을 보이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아이들에게 직접 청소를 시키고 싶다. 청소라는 것이 단순히 힘든 노동이 아니라 할당된 구역을 맡아 청소함으로써 책임감 그리고 성취감 또한 기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고, 이를 밑바탕으로 자기 믿음을 길러 훗날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p>				

면접 내용

물론 청소구역을 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 친구들끼리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지만 이러한 부분은 게임 형식으로 구역을 배정하는 등 모두가 납득할 만한 방법으로 청소 구역을 배정한다면 아이들의 불만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인적성 면접]

▶ 들어가서 인사

A. 안녕하십니까?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는 초등교사가 되기 위해 춘천교대라는 배움터의 문을 활짝 열고 싶은 면접번호 8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면접시작

Q1. 1학년 때 모자 봉사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무엇을 했는지 설명해주세요.

A. 어머니와 함께 요양원에 가서 청소, 식사도우미를 했습니다.

Q2. 또 한 거 없어요?

(집요하게 계속 질문을 하셨음)

A. 종종 청소하면서 앉아 계시는 할머니들의 말동무가 되어드렸습니다.(이 때부터 청소한 걸로 밀고 나가기엔 너무 이야기 할게 없다고 짐작하고 말을 지어냄)

Q3. 무엇을 느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

A. 6.25전쟁을 겪으신 한 할머니에게 그 당시 상황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그 시대에 살기 힘들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의 힘으로만 이뤄낸 것이 아니라 우리 선조님들께서 힘들고 어렵게 지켜낸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교사가 된다면 아이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서 역사를 왜 배우는가? 등의 주제로 토론함으로써 아이들에게 교훈을 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Q5. 왜 초등교사라는 꿈을 꾸게 되었어요?

A. 제가 초등교사라는 진로를 갖게 된 이유는 두 가지 입니다. 먼저 첫째, 6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알제도’라는 선생님만의 방식으로 1년간 아이들을 잘 이끄시는 것을 보고 나도 나만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잘 이끌어보고 싶다! 라는 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또한 두 번째 음악, 미술, 체육 등 다양한 교과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모든 분야를 다 가르치고 싶은 욕심에 초등 교사를 진로로 선택했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조직을 이끄는 것에 흥미가 있기에 지금까지 꾸준히 학급대표, 전교학생 부회장을 맡으며 리더십을 키웠고 교육봉사, 동아리를 통해 꿈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춘천교대에서 더 열심히 배워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자신이 있습니다!

Q6.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단점은?

A. 저의 단점은 과목별 관심도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저는 수학을 기피하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수학과목의 성적만 눈에 띄게 낮았습니다. 이 점을 극복하기 위해 억지로라도 이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초등교사는 모든 과목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저는 모든 과목에 있어 다 잘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습니다. 이과에 진학하면서 저절로 수학, 과학의 공부비중이 높아졌고 공부를 하다 보니 흥미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경험을 토대로 아이들에게도 싫어하는 과목을 마주하고 도전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길러주고 싶습니다.

Q7.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선생님이 누군가요?

A. 저의 롤모델은 초등학교 6학년때 담임선생님입니다.
1년간 선생님 만의 알제로도 재밌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저도 알제로 같은 저만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재밌게 잘 가르치고 싶습니다.
cf) 알제로- 개인알: 50개(일기, 독후감)- 100개시 반알 1개 > 반에 기여 > 자존감+
반알: 15개(체육, 간식)- 단합력+
일종의 보상제

대 학 명	계 열	모 집 단 위 (학 과)	전 형 (세 부 전 형)	등 급
춘천교육대학교	사범	초등교육학과	학생부종합 (교직적 · 인성인재)	2.0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제시문기반 면접	○ 교직적성면접: 4분 동안 주어진 제시문을 읽고 2문제를 푼 후, 평가위원 앞에서 발표하는 방식			
	○ 교직인성면접: 5분 동안 평가위원 3명이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를 바탕으로 1명의 학생에게 질의 응답하는 방식			
면접 내용				
<p>Tip. 들어가자마자 소지품을 전부 반납한 후, 수험표와 신분증만 들고 강당으로 입실 (즉, 건물로 들어가면 생기부나 자소서를 다시 훑어볼 기회가 없음)</p> <p>Tip. 강당에 앉아 있다가 조마다 지정된 대기 교실로 이동</p> <p>Tip. 교실에서 대기 → 복도에서 4분 타이머를 맞춰놓고 적성 제시문 정리 → 적성 면접실에서 면접(4분) → 복도에서 약 5분 동안 대기→인성 면접실에서 면접 → 전체 대기실로 이동 → 조 전체가 면접이 끝날 때까지 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다 같이 퇴실 (앞 번호 학생이 적성면접 제시문을 4분 동안 다 읽고 적성 면접실로 이동하면 바로 다음 학생이 복도로 불려나가는 방식)</p> <p>Tip. 대기 교실은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로, 같은 조의 학생들끼리 대화할 수 있음</p> <p>Tip. 적성면접과 인성면접의 평가위원은 전부 다른 교수님들임</p> <p>Tip.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평가위원 분들이 지나가시는데 그때 눈에 조금이라도 띄기 위해 밝게 인사함</p> <p>Tip. 춘천교대는 분위기가 따뜻하기로 유명한데 생각보다는 그렇지 않았음. 평가위원 세 분 중 한 분 정도는 꼭 무표정으로 훑어보심. 위압감 때문에 긴장을 하게 되는데 평소 면접 준비를 할 때 이런 상황도 충분히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음</p> <p>다음은 면접 상황(편의상 세 분의 교수님들을 남1, 남2, 여1로 지칭)</p> <p>[적성]</p> <p>A교사는 방과후에 당번 학생들을 남겨서 교실 청소를 시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께서 “방과후에는 학원을 가야 하는데 왜 청소를 시키는 거냐”며 건의를 하셨습니다. 마침 교육청에서도 학교에 청소업체 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주겠다고 했습니다.</p>				

면접 내용

Q1. A교사처럼 방과후에 학생들을 남겨 청소를 시킬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각각 2가지씩 말해보시오.

Q2. 학생이 A교사라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말해보시오.

Tip.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제시문이 8줄 정도로 상당히 길었음. 제시문을 다 읽고 문제 1,2번을 다 풀게 되면 주어진 4분이 굉장히 짧게 느껴짐. 실제로 다 정리하지 못 하고 면접실로 이동함.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타이머를 맞춰놓고 제시문 면접을 미리 해보는 연습이 필요함

[적성 면접실]

문에서 가볍게 목례. 원래 의자 옆에서도 90도로 인사하려고 했지만 얼른 앉으라고 하심

남1. 네 ~. 거기 앉으면 됩니다. 가번호 OO학생 맞죠?

A. 네, 맞습니다.

여1. 책상에 제시문과 문제가 붙어있죠? 참고해서 1번 문제는 2분 동안, 2번 문제는 1분 동안 잘 말해주면 됩니다.(원래는 4분 면접인데 주어진 시간은 3분이었음)

A. 네, 1번 문제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A교사처럼 방과후에 학생들을 남겨 청소를 시킬 경우 순기능과 역기능이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순기능으로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청소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교실이 깨끗해지거나 더러워지는 등 겉으로 그 결과가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당번 학생들은 자신이 맡은 역할에 책임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둘째, 학생들이 스스로 청소하는 습관을 기르게 된다면 교실을 자신의 집처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학교를 단순히 교육기관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공동체의 공간으로 인식할 것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입니다.

다음으로 역기능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역기능은 주어진 4분 동안 생각해보지 못해서 즉석으로 답변하느라 조금 횡설수설했음)

첫째, 당번 학생들끼리 올바른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한 학생이 혼자서 많은 일을 맡게 되면 학생들 간의 교우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학부모님께서 건의하셨던 학원이 아니더라도 학생들은 방과후에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 등 자신만의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아서 청소를 하게 되면 그만큼 더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학생들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여1. 네 ~. 잘 들었어요. 2번 문제 답변해보세요.

A. 네. 제가 A교사라면 학생들이 교실과 친구들을 각각 집과 가족으로 인식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평가위원 세 분이 동시에 쳐다봄. 아마 집과 가족으로 비유해서 그 부분이 인상 깊었던 것 같음.) 당번 학생들이 청소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않은 채 의무감으로 청소를 하게 된다면 교육적으로는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수업시간에 서로 협동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를 제시하는 등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활동을 제시하고 싶습니다.(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예시를 들지 않고 끝냄. 아직까지도 가장 후회하는 부분. 시간이 초과되어 끊기더라도 예시를 들어 충분히 말하는 것이 중요)

여1. 끝?

A. 네!(여기서 망했다고 생각함)

남1. 수고했어요.

남2. 교수님은 단 한 마디도 안 하시고 무표정으로 쳐다보기만 하심

- 복도에서 5분 대기 후 [인성 면접실]로 입실 -
마지막 번호여서 평가위원분들이 지쳐 보이셨음

[인성 면접실]

목례 후 의자 옆에서 90도로 인사

남2. 가번호 OO 학생 맞나요?

A. 네, 맞습니다.

남2. 제가 늙어서 귀가 잘 안 들려요. 목소리 조금만 더 키워서 말해주세요.

(이제부터 대답 엄청 크게 해야겠다고 다짐)

A. 네!

여1. 본받고 싶은 교육자 있으면 말해볼래요?

A. 네. 제가 본받고 싶은 교육자는 마리아 몬테소리입니다.(인사했을 때와는 다르게 큰 목소리로 당당하게 말해서 평가위원 분들이 웃음) 그 당시에는 교사 중심의 강의식 수업을 중시했기 때문에 학생 위주의 수업을 연구했던 마리아 몬테소리를 비난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좌절하지 않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을 직접 시행해본 후 전세계에 이 위대한 수업을 전파했습니다. 저는 마리아 몬테소리처럼 일방적인 수업이 아닌 학생들 위주의 참여형 수업을 기획하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보통 본받고 싶은 교육자를 말하라 하면 학창시절 담임선생님을 말하는 경우가 대다수임. 기억에 남도록 일부러 흔하지 않은 교육자를 언급하였음. +내 교육철학도 더붙어서 언급)

면접 내용

남1. 생기부를 보니까 반장을 많이 했네요. 반장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나요?

A. 네. 1학년 때 반장을 맡으면서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각각 다른 중학교에서 모였기 때문에 아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고 그러다보니 중학교 친구들끼리 다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무리가 형성되었고 한 명이 소외되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져 자퇴까지 고민하던 친구였습니다. 반장을 맡으면서 학급을 올바르게 이끌기 위해서는 소외된 학생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저를 포함한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상처받지 않도록, 간접적으로 돕다보니 신경이 많이 쓰이고 힘들었습니다.

남1. 우와. 어떻게 도와줬나요?(안쓰러운 표정으로 질문하심)

A. 학교를 잘 오지 않았는데 그때마다 SNS로 연락하여 “기다리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내일은 꼭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출석하면 체육시간에 함께 피구를 하거나 제 친구들을 설득하여 같이 급식을 먹기도 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남1. 친구들을 설득했다고 했는데, 바로 알았다고 하던가요? 안 그랬을 것 같은데.

A. 네, 처음에는 함께 어울리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 개별적으로 찾아가 그 친구의 심정이 어떨지 입장을 바꿔 생각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외되는 기분이 얼마나 힘든지 제 경험에 빗대어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제 친구들도 차츰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남1. 이야. 대단하네요. [타이머 울림] 수고했어요.

A. 감사합니다!

적성면접 Tip. 주어진 4분 동안 답변을 완벽히 준비하기는 어려움. 거의 불가능. 즉석으로 생각하고 바로 말할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함. 그리고 문장 전체를 완벽하게 말하려고 하기보다 귀에 쏙 박힐 수 있는 단어들을 언급하는 것이 좋음. 학교와 친구를 집과 가족으로 비유하여 설명하였을 때 평가위원 세 분이 흥미로운 눈빛으로 쳐다보심

인성면접 Tip. 생기부 25장 중 1학년 반장과 관련된 이야기만 질문하셔서 아쉬웠던 면접이었음. 그래도 평가위원 분들이 감정이입하셔서 열심히 들으셨던 것은 그만큼 반장으로서 의미 있는 경험을 언급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함. 누구나 할 만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만의 경험을 언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음. 똑같은 주제로 이야기하더라도 내 경험이 예시로 들어간 답변과 그렇지 않은 답변은 차이가 큼

사실 내 경험도 엄청 특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그러나 슬픈 이야기를 할 때는 슬픈 표정을, 안타까운 이야기를 할 때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호소력 있게 이야기하면 ‘아, 저 학생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것임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국군간호사관학교	인문/자연	국군간호사관생도	학생부종합 (일반전형 우선선발)	2.49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인적성 및 군 기초소양면접	○면접평가 대상: 1단계 합격자 중 2차시험 응시 의사를 밝힌 지원자 ○제1분과, 제2분과: 인성 ○제3분과: 역사관 및 안보관			
면접 내용				
<p>Tip. 사관학교(육사, 해사, 공사, 국간사) 공통으로 치르는 1차 시험 합격자 중 2차 시험 응시 의사를 밝힌 학생들을 대상으로 2차 시험을 실시. 2차 시험은 대전에 위치한 국군간호사관학교에 입소하여 2박 3일간 이루어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일차: 생활 안내 및 안보관 약속 시험 (제한 시간 내에 국가 안보 관련 제시문을 읽고, 몇 자 이내로 요약하고 본인 생각 작성하기) (이 날 작성한 자신의 답안이나 제시문이 면접 때 쓰일 수 있음. 실제로 본인도 그러했으므로 익혀두면 좋을 듯함)◦ 2일차: 체력시험 / 3일차: 면접 및 피복체춘(합격하여 입교 시 착용할 복장의 사이즈를 측정) <p>Tip. 국간사의 면접은 제 1분과, 제 2분과, 제 3분과로 나뉘어짐. 면접자가 안내 담당 생도들의 안내에 따라 세 개의 면접고사실을 돌아다니며 각각 약 10분 정도, 총 30~40분 면접을 보는 형식. 각 분과에 따라 물어보는 내용이 다르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크게 그 차이를 느끼지는 못했음</p> <p>Tip. 사관학교란 장차 장교가 될 사람들을 키우는 학교임. 입소하는 순간 평가는 시작 된다고 생각하고, 2박 3일 동안의 태도와 행실을 모두 똑바로 해야 함. 무조건 시간 엄수. 면접 보는 3일차 때도 대기 할 때, 입실 할 때, 면접할 때 항상 태도와 말투를 바르게 해야 함. 면접 시 말투에서도 대답 할 때 ‘네.’ 보다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질문 내용 확인 할 때 ‘~말씀이십니까?’라고 말할 수 있도록</p> <p>Tip. 본인은 3년 동안 교대를 준비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번외로 국간사도 준비한 케이스(약 한 달 동안 1차 시험 대비, 약 한 달 반 동안 2차 시험 대비) 간호사관 학교이기 때문에 간호 쪽을 준비해왔던 친구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교대를 생각했던 학생이 가는 경우도 꽤 있고, 때문에 합격해서 교대를 가겠다고 자퇴하는 학생도 많은 편임. 이 점이 사관학교 입장에서는 골칫거리(?) 이기 때문에 유의하고 당연히 그에 따른 답변 준비해가야 함</p>				

면접 내용

[제 1분과] - 여1 여2 남1

[제 2분과] - 여1 여2 여3

Q1. 학생이 정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는 몇 명정도 되는가?

Q2. 학생에게 친구란 어떤 존재인가?

Q3. 간호사관학교에 지원하게 된 계기가 간호 쪽을 더 중시했는가, 군인이 된다는 점을 더 중시했는가?

A. 사관학교 면접을 준비하다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당연히 군인이 된다는 점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해야함. 어쨌든 사관학교이고 ‘장교’를 양성하는 학교이며, 간호장교도 국군장병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간호를 맡는 ‘군인’이기 때문임

Q4. 그렇다면, 다른 사관학교도 있는데 왜 간호사관학교에 지원했는가?

Q5. 본인의 장점과 단점?

Q6. 자기소개서에 취미가 명상이라고 되어있는데, 쉽게 가지기 힘든 취미인데 명상을 취미로 갖게 된 계기?

Q7. 자기소개서에 본인의 장점이 객관적이고 냉정하다고 되어있는데, 이러한 장점을 발휘한 적?

A. 반장으로로서나, 아니면 학급 내 의견 조율 때를 예를 들어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럼 다소 평범한 답변이 될 것 같아 ‘집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싸우실 때, 서로의 생각을 전하며 동시에 각자가 잘못했던 부분을 언급하며 어머니와 아버지가 조금이나마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중립 역할을 한다. 어머니는 제가 냉정하다며 서운해하시기도 한다.’는 식으로 약간의 재치를 섞어 답변함. 계속 무표정하시던 장교분도 웃으시고 분위기도 좋았음

Q8. 3년 내내 교대를 준비했는데, 국군간호사관학교에 지원하게 된 계기?

A. 세 개 분과에서 모두 언급할 정도로 국간사 생도 선발에서 신경 쓰는 부분임을 알 수 있었음. 심지어 제 1분과에서는 이 질문을 하신 장교분께서, 언짢은 표정으로 “입교해서 자퇴하겠다는 학생이 대부분 이유가 교대 가겠다예요.”라고 언급하시기도 했음. 그만큼 솔직하고, 진솔하게 답변할 필요가 있었음. 본인은 국간사에 대한 생각이 없다가 생도방문설명회를 우연히 듣게 되었고 그때부터 관심이 생겨 1차 시험을 치르고 2차 시험까지 지원하게 되었음. 생도방문프로그램을 주 이유로 들고, 간호장교로서 하는 역할과 일의 중요성, 이에 대해 내가 느끼는 보람 등을 연관시켜 답변함

면접 내용

[제 3분과]

Q1. 상사가 부당한 명령을 내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Q2. 도덕적 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A.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직이라고 했음. 그러자 질문하셨던 분이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선의의 거짓말도 필요할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 추가 질문이 나옴

이에 관한 질문이 면접 통틀어 가장 어려웠고, 주의해야하는 부분이었음

Q3. 그러한 가치를 직접 실천한 경험이 있는가?

Q4. 1일차 안보관 약술 시험 바탕으로 한 질문(한국 전쟁에 관한 제시문이 나왔는데, 한국 전쟁에 대해 설명하고 자신의 생각 2가지 정도 말해보아라)

Q5. 위 질문들과 같이 인성, 성격, 대인관계, 군인으로서 지녀야할 태도 등에 대해 질문함

- 일반 대학과 달리 생기부와 자소서에 대한 완벽한 내용 숙지보다는 지원자가 평소 가지고 있는 태도 및 성격이 국간사에 적합한가를 평가하는 느낌이었음

Tip. 본인의 경우 생기부 및 자소서 관련 질문은 정말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지만 혹시 모르니 준비는 당연히 필요함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광주과학기술원 (GIST)	자연	기초교육과학부	학생부종합 (학교장추천)	1.35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제시문기반 면접	○ 시간: 20분 내외 ○ 범위: 가. 제출서류 기반 나. 제시문 수학, 과학 ○ 과학의 경우 지원자가 물리, 화학, 생명과학 3개 영역 중 택1 ○ 면접관 3인, 수험생 1인			
면접 내용				
[제시문-화학]				
Q1. 알파입자산란실험을 통해 알게 된 원자모형				
A. 알파 입자는 헬륨 2가 이온을 말합니다. 알파입자를 금박에 쏘면 원래는 원자를 통과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통과하지만 극소수 튕겨져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 원자의 대부분은 질량이 작은 전자이고 중심에 질량이 매우 큰 원자핵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발력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Q2.				
1. 암모니아 합성식 $N_2+3H_2\rightarrow 2NH_3$				
2. 평형상수는 *라고 주어져 있는데 평형상수는 반응물의 농도 곱 분의 생성물의 농도이고 계수가 지수로 가는 형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각 몰농도를 통해 반응지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구해보면 &가 나옵니다. 이때 반응지수가 평형상수보다 작으므로 반응은 정반응으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암모니아를 많이 얻는 방법				
암모니아를 얻는 반응은 발열반응으로 델타H가 0보다 작습니다. 또한 반응물과 생성물 계수를 보면 압력이 감소합니다. 따라서 르 샤틀리에 원리를 적용해보면 온도를 낮추고 압력을 높이면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체 촉매를 이용하면 NH3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Q3. 잘 풀었어요. 이 합성이 뭔지 알죠?				
A. 하버-보슈법입니다.				
Q4. 이걸 실제로 적용하려면 환경이 다르겠죠?				
A. 네.				
Q5. 어떻게?				
A. 르 샤틀리에 원리로 저온 고압일 것 같습니다.				

Q6. 저온고압?

A.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Q7. 실제로는 고온 고압에서 하죠. 하지만 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생략)

A. (끄덕끄덕)

Q8. 고체촉매를 사용한다 했는데 원리가 뭔가요?

A. 제가 교과서에서 보기로 고체촉매에 반응물이 닿으면 쉽게 분리가 되고 그것들이 결합해 만들어졌습니다.

Q9. 네. 그것도 에너지가 낮아지는 과정으로...(생략)

A. (끄덕)

Q10. 만약 암모니아를 액체로 바꾼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A. (3초간 생각하다가)힌트를 주실 수 있으신가요?

Q11. ㅋㅋㅋ 힌트 없이 해보세요.

A. 기체에서 액체로 되면서 엔탈피가 감소할 것입니다.

Q12. 그래서?

A. 델타G=델타H-T델타S이기 때문에 음. (계산중) 반응은 자발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Q13. 그러면... 어떻게 조절할까요?

A. 온도로 조절할 것입니다.

Q14. 온도와 압력을 조절한다?

A. 네. ㅎㅎ

[제시문-수학]

1. 사건 A,B의 독립과 종속을 조건부확률로 설명하시오.

사건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를 조건부확률로 하면 B가 일어날 때 A가 일어날 확률은 식에서 보면 $P(A|B)=P(A)P(B)$ 이므로 결국 $P(A)$ 입니다. 즉 서로 영향을 받지 않는 관계입니다.

2. (종속 건너뛰)

Q1. 배반이면 항상 독립인가?

A. 거짓입니다.

(이때 사실 배반이 생각 안 나서 여사건으로 잘못 풀었음)

면접 내용

Q2. 배반의 정의가 뭐죠?(힌트)

A. (엇) $A \cap B$ 가 0입니다.

Q3. 그렇죠. 다시 풀어보세요.

A. 네. 그러면 $A \cap B$ 가 0인데 독립이라면 $P(A \cap B) = P(A)P(B)$ 인 상황에서 꼭 $A \cap B$ 가 0인 상황만 있지 않기 때문에 거짓입니다.

Q4. 독립이면 여들도 독립?(설명하다가) 보여야 하는 게 뭐죠?

A. $A \cap B$ 여가 $A \cap B$ 여 인 것입니다.

Q5. 본인이 알고는 있는데 말로 설명을 잘 못하는 거 같네요.

A. 아.(끄덕)

Q6. Q. $x > y$, $x > z$ 독립?, $x = y$, $x = z$ 독립?

A. (도움 받아 풀이함)

[인성]

Q1. Gist에 왜 지원했어요?

A. 1학년때 오픈 사이언스 랩을 참여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몰랐는데 학생에 대한 지원이 무척 좋고 프로그램도 많으며 무엇보다 화학과 실험실 환경이 매우 좋아서 이 곳에서 실험하면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2. Gist가 지원자를 왜 뽑아야하나요?

A. 저는 지스트 인재상에 맞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교내 창의력대회에서 1등을 할만큼 창의력이 높고 3년간 반장 및 다수의 대회로 의사소통과 문제해결력이 뛰어납니다. 이런 능력이 지스트에서 더 발전할 거라 기대되므로 꼭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Q3. 교사추천서 보면 하는 일이 많아 개인 공부가 적은 것을 우려하는데 무슨 일을 했나요?

A. 기본적으로 반장이다 보니 각종 학교일에 대한 회의나 지도사항 등으로 많이 부르고 2학년때는 학년장 등 맡은 직책에 대한 일이 많았습니다.

Q4.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A. 좋은 전형이라 생각합니다. 학생의 역량을 단순히 수능 점수로만 분류하지 않고 그 학생의 학교에서의 활동까지 보기 때문에 저같은 지방 일반고에 특히 유리한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꼬리. 왜 하필 지방 일반고?

A. 아니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학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서울이 사교육을 많이 받아 수능에 유리하다고 들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꼬리. 그럼 지방 일반고도 사교육 많이 받으면 되죠.

A. 그렇네요. ㅎㅎ 그것까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Q5. 노벨상을 한국에서 많이 못 받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A. 하지만 그래핀 분야에서 우리나라 교수님께서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 과학자분들께서 노력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꼬리. 그건 외국에서 하는 거고 우리나라

A.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생들이 더욱 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의 기술을 발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꼬리. 그것보다 더 깊이 생각은 안 해본거죠?

A. 네. 그렇습니다.

+꼬리. 본인은 노벨상 받고 싶어요?

A. 네! ㅎㅎ

Q6. 마지막 하고 싶은 말 해 보세요.

A. 제가 꿈이 조향사인데 학교 선생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꼭 조향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향에 민감한 사람들을 위한 물질을 개발한다든지 효율적인 향추출 공정을 개발하는 연구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를 꼭 지스트에서 하고 싶습니다.

+꼬리. 조향이 과학기술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나요?

A. 네, 조향을 위한 화학 이론 및 기술 개발 영역이 화학분야의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울산과학기술원 (UNIST)	자연	이공계열	학생부종합 (일반전형)	1.31 (불)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제시문기반 면접	○ 시간: 20분 내외 ○ 범위: 가. 제출서류 기반 나. 제시문 과학(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내 융합지문 형태) ○ 면접관 3인, 수험생 1인			
면접 내용				
[제시문-물리화학]				
Q1. 자외선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A.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해보았습니다. 우선 부정적인 측면은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피부암 등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소독, 살균 등에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Q2. 오존 농도가 특히 높은 대기가 22km인 이유 높이에 따른 기압 그래프와 함께 해석				
A. 오존층이 있는 대기는 성층권인데 기압은 위로 갈수록 낮아집니다. 지표와 가까울수록 중력에 의해 산소기체가 많이 모여 자외선과 반응해 오존 생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꼬리. 가장 산소가 많은 곳인가?				
A. 지표가 가장 많지만 오존층이 만들어지기 위해 정해진 어느 정도의 산소량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2km는 그 기준을 충족했을 것이고 그 밑에는 이제 위에 오존층이 생성되었으니 자외선이 통과하지 못해 생성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Q3. 높이에 따른 빛의 파장 그래프 해석				
Q4. 오존층을 포함한 층이 지표로 내려온다면 대기 두께?				
A. 우선 성층권은 아래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져 안정한 층입니다. 따라서 지표로 내려오면 대기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계산하지 못했지만 대기 두께가 얇아질 거라 예측했습니다.				
+꼬리. 근거는? 대기 두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A. 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표와 가까울수록 중력이 세지기 때문에 기체 분자들을 많이 끌어당겨 두께가 얇아질 것입니다.				

Q5. 생명체가 살 다른 행성을 찾아갔는데 오존층이 지표와 가까이 있어 살기 힘들었다. 오존층을 높일 방법은?

A. 우선 오존층을 분해시킨 후에 그 위층에 오존을 생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존이 생성되고 분해되는 화학식을 보면 이 반응은 동시에 일어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각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환경을 적절하게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더 구체적으로 답변)

[전공적합 및 인성]

Q1. 유니스트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인가?

A. 화학을 사랑하고 열정이 있는 사람으로서 과학기술원에 진학하여 인류의 삶에 공헌하는 연구를 하고 싶다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원들을 알아보다가 유니스트가 연구 뿐 아니라 경영 분야도 함께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저의 꿈과도 잘 맞을 거 같아 지원했습니다.

Q2. 자소서에서 언급한 향과 수학 보고서 간단하게 설명

A. 역치 상수라는 것이 있는데 향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의 기준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베버 페흐너 법칙을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꼬리. 결론은?

A. 결론을 냈다가 보다는 향과 관련된 법칙이나 내용들을 수학적으로 정리한 것을 보여주기 위한 보고서였습니다.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경찰대학	-	법학과	일반전형	1.54
면접유형	면접 방식			
1. 인적성 2. 토론 3. 창의성	감독관 3~4명이 평가	전공적합(경찰에 대한 의지, 충성도)	너는 의대, sky로 안 빠지고 경찰대 올거지?	
		논리성	토론을 잘 하는가?	
		창의성	이상한 질문을 해도 적당히 잘 둘러대는가?	
면접 내용				
<p>큰 방에서 지원자들이 모두 들어가 대기, 네 개의 군으로 나누어서 로테이션으로 면접 진행(1군이 토론하면 2군이 창의성 하는 식)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다가 중간에 밥도 먹으러 간다. 경찰대 밥은 정말 맛없다. 태어나서 그렇게 맛없는 갈비탕 처음 먹어봤다.</p> <p>인적성 면접은 생기부 기반 질문+지원자의 자질에 대한 질문으로 이루어짐. 근데 나한테는 생기부 질문 하나도 안 하더라. 다섯명씩 불러나가서 방 앞에서 대기. 차례로 5분간 개별면접 진행. 들어가면 교수님들 다섯분 정도 앉아계시고 난 앞에 앉는다. 교수님들 앞에 내 생기부하고 자소서 놓여있는 것 같다.</p> <p>한분씩 질문하심</p> <p>Q1. 요즘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좋지는 않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이를 개선할 수 있는가?</p> <p>A. 화성 8차나 약촌 오거리 사건 언급하면서 비과학적이고 미흡한 수사 언급. 앞으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사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함</p> <p>경찰의 치부를 드러내서 그런지 교수님들 표정 바로 썩음</p> <p>Q2.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이 있는가?</p> <p>A. 전 사람의 장점만을 보려고 노력~</p> <p>Q3.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가?</p> <p>A. 어렸을 때 전학을 자주 다녀서~ 하지만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어디를 가든 큰 어려움 없이 적응할 수 있게 되었고~</p>				

Q4. 정말 하고싶은 일이 뭐예요? 정말,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A. (당황) 전 정말 경찰이 되고 싶습니다.

난 당황해서 말을 제대로 못했는데, 저런 질문을 받으면 의사 또는 다른 직업으로 도배된 생기부는 언급하지 말고 니가 얼마나 경찰이 되고 싶은지 자소서에서 쓰여 있는대로 대답하는 것이 정석적이라고 생각함

다음은 토론 면접. 토론할 사람들이 여섯명씩 불러나가고 방 앞에서 먼저 주제 뽑고 10분 정도 준비한 후 들어감. 우리 조의 주제는 ‘인터넷 방송을 규제해야 하는가?’ 먼저 한 사람씩 주장 내세우고 이후에 서로의 의견에 질문하고 반박함. 주장 내세우는 시간에 내 주장이랑 근거 싹 다 말해야됨. 나중에 그럴 시간 없음. 마지막에 토론 마치면서 주장 종합하고 여러 근거들 정리해서 한사람씩 발표

마지막은 창의성 면접. 두명씩 들어가고, 면접관은 세네명. 각각 학생들에게 질문 두 개씩 함

Q1. 교통사고로 요절한 초등학생 소녀, ~해서 죽은 대학생, ~해서 죽은 노숙자가 있다. 이 세 사람 중에서 한명만 살려야 한다면 누구를 살릴 것인가?

Q2. 지금 어느 아이가 납치범에게 잡혀가있다. 납치범은 10억을 요구하는데, 피해자 부모는 도저히 그 큰 액수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 이때 지역 경찰서장인 당신은 다른 사건에 대해 제출된 증거물 중 현금 10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신은 증거품인 10억을 사용해서 아이를 구할 것인가?

딱 들으면 되게 당황스러운 질문들을 던짐

대 학 명	계 열	모 집 단 위 (학 과)	전 형 (세 부 전 형)	등 급
해군사관학교	문과/이과	해군사관생도	일반전형	1.94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제시문기반 면접	사관학교 자체 면접 질문	전공적합성	목표의식, 지적호기심, 지원분야에 대한 열정과 의지, 학업능력	
		발전가능성	학교활동에서의 자기주도성, 논리적 창의적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인성	공동체의식, 나눔 배려, 소통능력	
면접 내용				
<p>[1번방, 국가관 안보관 등 면접]</p> <p>들어가자마자 자세 체크_차렷, 좌향좌 우향우, 눈 감고 양팔 벌려 한발로 균형 잡기, 걷기</p> <p>해군사관학교 입학 시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 지원동기 등 질문</p> <p>ex) 상관이 부당한 명령을 내렸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겠는가</p> <p>압박면접X, 꼬리질문X, 2번방보다 편안한 분위기</p> <p>[2번방, 인성 등 면접]</p> <p>면접관 6, 7명 정도</p> <p>막 들어갔을 때는 농담조로 분위기를 풀어주는데 면접 시작하면 다시 딱딱해짐</p> <p>생활기록부 내용 조금, 전날 실시한 지필검사 내용 바탕으로 면접 진행</p> <p>ex)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진로가 사관학교와 맞지 않는데 왜 사관학교에 지원했나</p> <p>검사지에 ~라고 답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무엇인가</p> <p>(친구와 함께 지원) 친구와 본인 중 한명만 뽑힐 수 있다면 누가 뽑히는 게 좋겠는가</p> <p>압박면접, 꼬리질문 있음</p> <p>[마지막 날 최종면접]</p> <p>전날 면접관들보다 직급이 높고 나이가 많은 면접관들, 한 방당 2명</p> <p>종합적으로 아무거나 물어봄, 전날 면접과 비슷한 질문도 몇 개 있음</p> <p>ex) 체력 검정 결과가 좋지 않은데 훈련을 버틸 수 있겠나</p> <p>(친구와 함께 지원) 같이 지원한 친구가 떨어지고 지원자만 붙는다면 여기에 오겠는가</p> <p>압박면접X, 꼬리질문X, 편안한 분위기</p> <p>복귀지가 먼 순서대로 면접 보고 끝나면 바로 보내줌</p>				

[Part 3.] 서류 기반 면접 사례 [서울대학교(지역균형선발전형)]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서울대학교	자연	건설환경공학부	학생부종합 (지역균형전형)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면접시간: 10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면접 대기실 도착 - 면접실 이동 - 끝			
면접 내용				
<p>Q. 지원동기 말해볼까요?</p> <p>A. 저는 고1때 지역 시멘트 공장의 집진기가 고장 나면서 환경오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원순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중 바이오차에 관심을 가지던 중 서울 대학교에서 바이오차에 대해 연구하신다는 걸 알게 되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p> <p>Q. 바이오차가 뭐죠?</p> <p>A. 목탄을 영어로 한 charcoal의 차에서 비롯된 말인데 유기물을 산소 없이 태워 탄소를 고정화시켜 탄소저감 효과와 토양 개선의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p> <p>(질문이 엄청 많아서 순서 상관없이 적음)</p> <p>Q. 환경 그런 건 우리 학과(건설환경공학부)랑 관련이 없는 거 같은데?(환경공학 교수님이 아니셨는듯...)</p> <p>A. 아, 저는 환경공학에 관심이 있어서요.(이때 아~ 환경공학~ 하심) 그리고 저는 자원 순환에 사회기반시설을 통해 해결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p> <p>Q. 아, 그런 걸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우리학교에 계시나?</p> <p>A. 폐기물 관리연구실 교수님께서 연구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p> <p>Q. 엔트로피란 뭐라고 생각하나?</p> <p>A. 에너지의 방향성에 대한 것으로, 유용한 에너지, 즉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점점 일을 할 수 없는 무용한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함수입니다.</p> <p>Q. 그렇게 설명하면 일반인은 이해하기 힘들 거 같은데?</p> <p>A. 음... 점점 무질서한 방향으로 상태가 나아간다는 내용입니다.</p> <p>Q. 그럼 무용해진 에너지는 쓰지 못하나?</p> <p>A. 굳이 모아서 쓴다면 가능하긴 하지만.. 유용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 하게 됩니다.</p>				

Q. 열역학과 환경공학이 무슨 관련이 있나?

A. 이게 만약 나무 한 그루를 기르기 위해 화학비료를 쓰는데 화학비료가 나무 두 그루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면 결국 환경에는 좋지 않은 거잖아요. 이렇듯 계의 에너지 흐름만 볼 게 아니라 주위의 에너지 변화까지 생각하여 열역학적으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컴퓨터도 깨끗한 기술이라고 생각되지만 반도체를 만들면서 많은 환경오염이 일어난다는 점도 생각해야 할 점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사용해 환경을 더 좋게 할 수 있는지 전체적으로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Q. 현대 물리학의 3대 이론이라고 적혀있는데 그게 뭐예요?

A. 특수상대성이론, 일반 상대성이론, 양자역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Q. 양자역학은 그냥 학교에서 나오니까 약간 배운 거예요. 아님 이후라도 혼자 공부를 더했어요?

A. 아, 저는 물질의 이중성 개념이 되게 신기해서 이후로도 혼자 영상도 찾고 미립자? 원자의 에너지 준위에 대한 내용도 혼자 공부했습니다.

Q. 그래핀에 대해 왜 탐구했어요?

A. 저는 태양광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에너지 효율이 최대 30% 정도 밖에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효율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다가 수업에서 신소재로 계속 그래핀을 배우다 보니 그래핀 태양광전지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공부했습니다.

Q. 그런 태양광 발전은 문제가 없나?

A. 아, 근데 사후의 처리과정에서 환경오염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직 화석연료를 줄이면서 다른 에너지로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지만 문제점도 안고 있기 때문에 광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Q. 그래핀 태양광전지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나?

A. 그래핀을 만드는 데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래핀 태양광전지가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 줄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유의 사항

- 첫 번째로 했는데 면접장 분위기는 부드럽지도, 너무 딱딱하지도 않았습니니다. 꼬리질문은 아무리 예측해도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물어보십시오.
- 면접 대기실에서는 수험표, 신분증을 제외하고 모든 자료(자소서, 생기부 포함)를 가방에 넣어서 앞으로 제출했습니다. 뒷 번호라면 기다리다가 심심할 듯도 하네요.
- 책 준비 하느라 힘들었는데 독서상황에 적힌 책은 안 물어보셨습니다. 세특에 적힌 책 혹은 전공 관련 분야 위주로 준비하세요.
- 3학년 활동 위주로 준비하시되, 나머지 부분을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위 질문은 모두 3학년 창체활동, 세특, 동아리활동 내용이었음)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감과 태도입니다. 캠프에 오신 선생님들께서 최대한 많이 도와 주려고 하시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가세요.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서울대학교	자연	경영대학	학생부종합 (지역균형전형)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면접시간: 10분 ○면접위원 수: 2명 ○잘 웃으시는 분위기는 아님, 대기실에서 독서 금지			
면접 내용				
<p>지원동기부터 물어보실 줄 알았는데 아니어서 살짝 당황함.</p> <p>Q. 43번? 앉으세요.</p> <p>A. 네, 감사합니다.</p> <p>Q. 우리가 이제부터 학생이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할 거예요. 잘 하실 수 있죠?</p> <p>A. 네.</p> <p>Q. 생원 세특에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탐독하고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기록되어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무엇인가?</p> <p>A. 저는 지금까지 사회 과목 학습을 통해 경제 구조의 변화가 정치 사회 문화 같은 상위 요소의 변화를 이끌어낸다고 배웠습니다. 즉, 하부구조의 변화가 상부구조의 변화의 원인이라는 통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와는 반대로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의 요소가 이윤추구를 정당화함으로써 경제 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상황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 인간의 의지가 경제 구조를 바꾸었다고 생각했으며, 현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경제적 문제도 우리 인간의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p> <p>Q. 현대 사회의 소비는 비합리적인 경우가 많은데, 이를 베버의 입장에서 비판해보라.</p> <p>A. 네. 책에서 프로테스탄티즘 윤리는 비합리적인 소유는 큰 죄악이지만 비합리적인 소비는 더 큰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현대의 동조 소비, 과시 소비 등 합리적이지 않은 소비에 대해서 부정적인 비판의 입장을 보일 것입니다.</p> <p>Q. 현재 뉴욕의 월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과도한 이윤추구 경쟁에 대해서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 윤리가 이를 정당화하는 단초를 제공하지 않았나?(이 때 ‘월가’라고 해서 질문을 이해를 못함.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냐고 여쭙봤더니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자고 하심. 그리고 나중에 이 질문을 다시 물어보셨음)</p> <p>A. 네,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의 규율이 이윤 추구를 정당화한 것은 맞으나 이윤 추구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p>				

Q. 경제 동아리 활동을 3년이나 했는데,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활동하게 된 계기와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에 대해서 말해보라.

A. 저는 제 진로와 관련하여 경영, 경제 분야에 관심이 있어 활동했습니다. 저는 동아리 부장으로서, 구성원 모두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최대한의 운영 효율을 높여야 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었습니다. 동아리 부원들은 모두 목표가 뚜렷하고 자의식이 강한 친구들로 구성되었기에 우선적으로 부원들과의 의사소통과 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두를 리더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원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소분과로 분류하고, 그 분야에 대한 주제 선정과 과정에 일체의 권한을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부원들이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과 함께 동아리에 더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Q. 활동은 뭘 했나?

A. 자유로운 주제에 대해서 탐구하고, 또.(목포시 상권분석 한 것 얘기하려고 했는데 끊으셨음)

Q. 아,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탐구를 했구먼.

A. 네. 그렇습니다.

Q. 장애인 정책 관련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장애인 등록 비율이 점점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

A. 네, 저는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인구대비 장애인 등록 비율은 5%로, OECD 장애인 등록 비율인 15%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좋지 않은 사회적 인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점점 우리나라가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이러한 인식이 개선됨에 따라 장애인 등록 비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Q.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다는 말은 무엇인가?

A.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보는 시선이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이라는 용어조차도 현대에 이르러서야 나온 단어라는 것, 그리고 그 전에 장애인을 지칭하는 단어가 부정적이었다는 것을 장애 이해 교육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인식들이 점차 개선되고, 등록 비율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Q. 실제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증가하는 추세인가?

A. (거기까진 조사해보지 않아서 당황) 과거의 사례까지 탐구해보진 않았지만 현재 상황과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그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Q. 학생의 지원 동기와 결부시켜 자신의 5년, 10년 후 모습을 말해보게.

A. 네, 저는 국제 경영, 그 중에서도 국제 통상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교환함으로써 인류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국제 거래 관계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약소국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국제 통상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분야에 공헌하고 싶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UN의 산하기구인 UNCTAD에 들어가 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5년 혹은 10년 후에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진학하여 국제경영, 국제통상을 전공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쌓음과 동시에 UN의 인턴십 프로그램인 JPO에 참여하여 실무적인 능력 또한 키워나갈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제 환경에서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는 인재로서 자질과 역량을 기를 것입니다.

Q. 네. 이제 시간이 다 되었네요. 나가셔도 됩니다.

유의 사항

- 첫 번째로 했는데 면접장 분위기는 부드럽지도, 너무 딱딱하지도 않았습니다. 꼬리질문은 아무리 예측해도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물어보십니다.
- 면접 대기실에서는 수험표, 신분증을 제외하고 모든 자료(자소서, 생기부 포함)를 가방에 넣어서 앞으로 제출했습니다. 뒷 번호라면 기다리다가 심심할 듯도 하네요.
- 책 준비 하느라 힘들었는데 독서상황에 적힌 책은 안 물어보셨습니다. 세특에 적힌 책 혹은 전공 관련 분야 위주로 준비하세요.
- 3학년 활동 위주로 준비하시되, 나머지 부분을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위 질문은 모두 3학년 창체활동, 세특, 동아리활동 내용이었음)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감과 태도입니다. 캠프에 오신 선생님들께서 최대한 많이 도와 주려고 하시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가세요.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서울대학교	인문	경제학부	학생부종합 (지역균형전형)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실에서 오전 조 전부 대기(자기 이름이 적힌 스티커가 책상에 부착되어 있음)○ 내 전 차례 친구가 들어가기 직전에 내가 면접 보는 층 도착하는 식으로 로테이션○ 올라가서 문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앉아서 10분가량 대기(집 전부 가지고 가서 서류 마지막 정리 가능)○ 거리는 가까운 편. 책상이 있는 의자에 앉음○ 남자 교수님 두 분, 분위기는 편한 편임○ 면접 끝나면 제출한 소지품 밖에 조교분?이 미리 꺼내 놔주신 거 그대로 들고 그냥 나가면 됨			
면접 내용				
<p>Q. ~에 관심이 많은데, 저출산 고령화의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p> <p>A. 고령화의 주요 원인은 생명공학기술의 발달과 ~입니다.</p> <p>Q. 저출산의 원인은요?</p> <p>A. 저출산의 주요 원인은 경제불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청년층의 실업과 주거비용이 크게 증가하며~.</p> <p>Q. 지금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다는 말인데, 옛날에는 지금보다 훨씬 못 살았는데 그 때는 왜 아이를 훨씬 많이 낳았을까요?</p> <p>A. 아, 그것은 여성의 사회 진출이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근거 말함) 중간에 꼬리질문 하나 더 있던 걸로 기억</p> <p>Q. 그럼 앞으로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을 많이 할수록 계속 저출산이 심화되겠네요?(이건 질문이라기보단 약간 웃으면서 근데 그럼 그렇지 않나 하는 느낌이었음)</p> <p>A. 현재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단지 과도기적 부작용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대충 뭔가 말함)</p> <p>[다른 면접관이 질문]</p> <p>Q. 경제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p> <p>A. 저는 ~를 읽고, 어쩌구 저쩌구</p> <p>Q. (중간에 끊고) 그러면 여기 보면 경제학을 위해 많은 활동들을 한 거 같은데 여기 UP활동도 경제를 공부하기 위해 한 활동인거죠?(1학년 겨울방학 때 한 미적분학 고교대학연계과정 프로그램)</p> <p>A. 네, 그렇습니다.</p> <p>Q. 뭐 대학과 연계해서 하는 그런 건가?</p> <p>A. 네, 그렇습니다.</p>				

Q. 미적분이 경제에서 어디에 쓰인다고 생각하는가?

A. (뭔가 대강 말했는데 뭐라고 말했는지 잘 기억은 안남)

Q. 그럼 이걸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확률과 통계는 경제에 언제 쓰이는가? 확률과 통계도 공부한 거 같은데, 이것도 선택해서 공부한 거 맞죠?

A. 네, 맞습니다.

Q. 아, 통계는 나도 대충 알겠으니까 됐고, 확률은 경제에서 어디에 쓰이나?

A. (뭘 말하려다가 꼬여서 죄송합니다.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했는데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심)

[다시 처음 면접관이 질문]

Q. 사회문화 시간에 탐구활동을 했는데, 국민연금의 해결방안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A. 정부의 대책은 어떤, 어떤 방향이 있고, 현재 추진하는 것은 어떤 방향입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어떤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강화해야 할까요?

A. 현재 그 부분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어떤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다른 면접관이 질문]

Q. 그 사회문화 시간에 최저임금관련 활동도 했는데 최저임금제의 장단점에 대해 각각 하나씩만 해서 간단히 설명해보지?

A. 최저임금은 어떤 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고(근거 짧게) 어떤 면에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Q. 그럼 혹시 경제학부에 입학한 이후의 학업계획이 있나? 구체적이진 않아도 되니까 좀 큰 범위 내에서~(아마 구체적으로 뭐와 뭐를 하고 싶다 이런 대답이 안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배려해주신 말씀 같았습니다.)

A. 저는 경제학부에서 국제거시학과 기술경제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그래서 제가 엄청 구체적으로 들어가니까 약간? 흠? 하신 거 같기도 하고.)

[다시 처음 면접관이 질문]

Q. 국제거시학에서는 뭘 배우는지는 알고?

A. 국제거시학은 ~한 학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Q. 그럼 기술경제학은?

A. 기술경제학은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 ~한 학문입니다.

Q. 그럼 그것들을 배워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A. 저는 국제거시학과 기술경제학을 배워서 최종적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되고자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3년 내내 진로희망이었어서 말하면서도 좀 민망?해서 웃으면서 말했음)

Q. 너무 구체적이네.(약간 엄청 웃으시면서 말했는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ㅠ)

마지막 질문 답변(무슨 학문 하고 싶냐 꼬리질문) 중에 2분 전 노크를 밖에서 했고, 답변이 끝난 이후에 두 분이서 눈빛 교환 이후에 더 이상 물어 볼게 없으시다고 그냥 나가라고 하셔서 그냥 나왔습니다. 아마 9분? 정도 한 거 같음

유의 사항

제 기억 상으로 뭔가 질문이 하나정도 더 있었던 거 같습니다. 잘 기억이 나진 않네요. 전 순서가 빨라서 긴장을 좀 덜 했었는데 빨리 하고 빨리 나오니까 좋더라고요. 면접 준비할 때, 시사&독서 관련 질문을 많이 준비해갔는데 생각보다 그런 건 잘 안 물어보셨습니다. 이걸 교수님 바이 교수님인 거 같긴해요. 다른 친구들은 독서질문 많이 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냥 모든 분야에 대해 전반적으로 꼼꼼히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빠르게 해서 질문 안 나오면 허무하고 말지만 안 해도 되겠지 해서 질문 나오면 괜히 멘탈 나가서 이후 질문들까지 다 꼬일 수도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자신의 가치관을 잡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학년 1학기 초반에 진로를 확고히 잡았고, 1학년 중에 진로를 구체화하고 어떤 학문을 공부할 것인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 등에 대한 미래 계획을 세웠으며, 2-3학년 전반에 어떤 경제학을 공부하고 어떤 학자가 될 것인지, 나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 큰 틀을 잡고 활동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학생부, 자소서도 물론 그렇고 면접 대답도 그렇습니다. 추구하는 경제학이 어떤 학문인지에 대한 확실한 인지가 있다면 일관성있고 자신감 있는 대답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질문은 생각 보다 전공세부내용관련이나 완전히 이상한 분야에서 나오진 않았습니다. 충분히 준비해갔던 부분이고, 특히 활동 중 시사나 사회현상 관련 활동이 있으시다면 쟁점에 대한 본인의 입장과 그 이유를 정리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들 파이팅하세요!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서울대학교	자연	기계항공공학부	학생부종합 (지역균형전형)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 대기실에서 모두 대기 ○ 면접실 앞에서 약간 대기 ○ 면접시간 8분에 노크, 10분에 면접 끝			
면접 내용				
<p>*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말투와 순서에 약간의 왜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p> <p>Q. 우리 학과에 와서 뭘 할 것인가?</p> <p>A. 열효율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그중에서도 내연기관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하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p> <p>Q. 대학을 졸업 한 후 무슨 일을 할 것인가?</p> <p>A. 열효율에 관심이 많고 효율성에는 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열효율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원이 되거나 교수가 되어 그에 관한 연구를 할 것입니다.</p> <p>Q. 책 지엠오 아이에 대해서 읽었는데 이건 동화책이 아닌가?</p> <p>A. 이 책은 유전자조작에 대한 내용으로 미래에 관한 소설입니다. 유전자조작으로 인해 발달된 아이를 부모가 버리는데 다시 찾아도 아이의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지 않는 모습에서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p> <p>Q. 그럼 유전자 조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p> <p>A. 유전자 조작을 치료적인 방편으로 한다면 괜찮지만 그걸 넘어서서 그저 발달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p> <p>Q. 그건 너무 주관적인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자폐아를 치료하는 것이나 머리가 조금 안 좋아서 아이큐를 10정도 올리는 것이나.</p> <p>A. 제 생각에는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방해가 되는 부분에 유전자 조작을 하는 것에는 괜찮지만 그를 넘어서서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p> <p>Q. 그것도 너무 주관적인 거 같은데... ㅎ</p> <p>A. 아.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p>				

Q. 반도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읽었는데 어떤 점이 인상 깊었지?

A. 반도체가 전자를 넣고 빼는 작은 조작을 통해 무수한 쓰임새를 가진다는 점에서 저 또한 작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무수한 쓰임새를 가질 수 있는 인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들. 하하하.

Q. 생기부에 이상기체에 대해 발표를 했다고 하던데 이상기체가 무엇이고 이상기체에 대해 어떤 식으로 발표를 진행했는지?

A. 먼저 이상기체상태방정식인 $PV = nRT$

면접 종료되었습니다.

교수님들. 자 나가주세요.

A. 네 감사합니다.

유의 사항

꼬리질문에 대해 굉장히 잘 대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이미 준비했다고 자신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도 꼬리질문이 나올 수 있으므로 확실하게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교수님과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우니 유의하시고 생기부에 적혀있는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잘 챙겨보는게 좋습니다.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서울대학교	자연	농경제사회학부	학생부종합 (지역균형전형)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 대기실에 8시 20분까지 입실 ○ 9시부터 면접시작 ○ 10분 간격으로 1명씩 면접 실시 ○ 면접 끝나면 개별 퇴실 + 면접을 진행하면서 2분이 남으면 문을 쳐줍니다.			
면접 내용				
<p>Q. 무역에 대해 자세히 공부한 거 같은데,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에 관하여 토론을 진행했네요. 어떤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하였고, 어떤 입장에서 토론에 참여하였으며, 각각 어떤 논지를 사용했는지 말해주세요.</p> <p>A. 네,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에 관하여 토론을 한 것은 계절학기 경제 과목을 이수하면서 진행하였습니다.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중 어떤 것이 우리나라 산업구조에 적합할지에 관한 토론이었습니다.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골고루 인원을 맞춰야 했기 때문에 평소의 자신의 입장이 아니여도 다른 입장에서 토론을 해야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저는 보호무역이 적합하다는 입장에서 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저는 석유파동과 같은 큰 경제적인 위기가 생기면 자유무역 시 타격이 크다는 점과 자국의 산업 특히, 농업과 같은 1차 산업의 보호를 논지로 토론을 하였습니다. 반대로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친구들은 자유무역 체제 안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쉽고, 소비자가 다양한 재화를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논지로 전개했던 것 같습니다.</p> <p>Q. 그럼 지금은 어떤 입장이에요? 농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요?</p> <p>A. 저는 토론에서는 보호무역이 적합하다는 입장에서 참여했지만, 저의 평소의 생각은 자유무역이 적합하다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도 최근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되면서 자유무역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어쩔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농업이 자유무역화가 된다고 걱정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역이용하여 농산물을 수출하거나,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발전한 I(O)T나 BT 기술을 응용하면 농업이 충분히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p> <p>(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이 질문이 나왔음. 중간이 기억이 안 남)</p> <p>Q. 대한민국 농업이 왜 뒤쳐졌다고 생각해요?</p> <p>A. 농업이 대한민국 경제구조 속에서 뒤쳐진 이유는 1970-80년대에 한국이 고성장을 하고 있을 시기에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만 발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매면 뒷 단추들도 잘못 매어지듯이, 이런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만 하는 발전을 처음부터 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점점 더 커져만 갔고 농업은 점점 소외되는 산업으로 후퇴한 것 같습니다.</p>				

Q. 그럼 농업으로 발전한 국가 알아요?

A. 저는 네덜란드가 농업으로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네덜란드는 대한민국보다 국토도 작고 인구도 작습니다. 하지만, 농산물이 자유무역화가 될 때, 네덜란드는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 첨단산업을 이용하여 농업을 발전 시켰고, 미국에 이어 농산물 수출 부분 2위로 알고 있습니다.

Q. (인자하게 웃으시면서) 허허, 네덜란드도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에요.

A. (약간 당황) 하하. 아무래도 국토가 작고 인구도 적은데도, 미국에 이어서 농산물 수출 2위라는 점이 제가 그런 생각하게 된 이유 같습니다.

Q. 책을 읽은 것 중에서 종자에 관련된 것을 읽었는데, 토종종자를 개발해야 된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해요? 개발된 종자를 사서 농사하는 것도 좋을 텐데….

A. 저는 개발된 종자를 사서 농사하는 것도 좋겠지만, 종자를 개발한 다국적 기업에게 지적 재산권으로 인해 지불해야하는 로열티가 우리나라 농업 수입에서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토종종자를 개발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로열티를 일 년에 몇 조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종 종자를 개발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라도 토종종자를 개발하면 로열티를 내지 않고 그 돈으로 농업이나 농촌의 성장을 위해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토종종자는 우리나라의 환경에 가장 잘 맞춰져 있습니다. 종자가 농산물로 자라는 데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환경 속에서 자라는 데 가장 적합한 것은 바이오 기술로 개발된 종자보다는 토종종자라고 생각합니다.

Q. 역으로 우리가 종자를 개발해서 해외로 수출하면(뒤에 생각이 안 남)

A. 저는 토종종자를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 개발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수출을 하여 국익을 창출하는 것보다는 농민들에게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토종 종자를 공급하여 농업과 농촌을 진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분 남았다고 신호를 줌)

Q. 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한 번에 물어볼게요. 지원동기랑 이 학과에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던 점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해보세요.

A. 저는 2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경제에만 관심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미래산업, 이제 농업이다라는 책을 읽고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농업의 발전 가능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재 구조에서는 도농격차가 심하고, 농업의 발전이 미비하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연구하는 경제연구원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관련학과를 찾아보다가 경제학을 응용하여 농업, 농촌, 농민문제와 자원 환경문제를 비롯하여 지역개발을 위한 전반적인 사회과학적 방법을 연구하는 농경제사회학부에 알게 되었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꼭 농경제사회학부에 입학하여 대한민국의 농업과 농촌의 진흥을 이끄는 유일무이한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유의 사항

1. 끝나면, 기독교 단체(?)에서 수험생이냐고 찾아오는데 연락처는 주지 않는 것이 좋다.
2. 생각보다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다. 쫓지 말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3. 면접순서는 빠를수록 긴장이 안 되고 좋은 것 같다.
4. 면접 준비를 나는 오랫동안 한 편은 아니지만, 수능 끝나고 나서 차근차근 하나씩 자세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5. 관련학과의 시사는 필수인 듯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서울대학교	자연	디자인학부 디자인	학생부종합 (지역균형전형)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실기	○오후 1시 30분까지 입실 ○전자기기 제출 및 유의사항 안내 ○2시부터 면접이 시작되고 호명되면 본인이 실기 때 그렸던 그림과 면접 번호 스티커를 받고 입실 ○10분간 면접 후 개별 퇴실			
면접 내용				
<p>저는 1번으로 입실했습니다. 면접실에 이젤이 여기저기 놓여 있고 원탁 하나에 면접관 세 분과 제가 마주보고 앉았는데 거리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가깝지는 않았습니다. 세 분 다 굉장히 젊으셨고, 왼쪽에 여자 교수님 한 분(리빙디자인 전공 교수님), 가운데(공간디자인 전공 교수님)와 오른쪽(이 분은 잘 모르겠습니다.)은 남자 분이셨습니다. 분위기가 생각보다 편안해서 오히려 답할 때 저도 모르게 말투가 풀어지는 등 역효과도 있었습니다. ㅠㅠ</p> <p>(왼쪽에 계신 분부터 면 1, 면 2, 면 3이라고 칭하겠습니다.)</p>				
<p>면 3. 먼저 그림 설명 좀 1분 내로 해 볼래요?</p> <p>나. (보통 3분 정도 시킨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아쉬웠습니다. ㅠㅠ)</p> <p>네, 먼저 저는 정지용의 ‘비’(실기 시험 주제)라는 시를 읽고 비를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표현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집의) 메인 컬러를 푸른색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조형물이라는 단어 기억 안 나서 머뭇거림) 아, 조형물을 디자인할 때는 시인이 비의 반복적이고 순환적인 모습을 정말 아름답게 표현했다고 생각해서 저도 그런 순환적인 모습을 표현하고자 이렇게 하나로 연결된 형태로 만들었습니다.</p> <p>(정적) 혹시 아직 1분 안 지났나요? (어리바리)</p>				
<p>면 3. 아뇨, 됐어요.</p>				
<p>면 3. 그럼 자기소개도 짧게 해 보세요.</p> <p>나. 네, 저는 반려동물과 인간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반려동물 제품 디자이너가 되고자 하는... 참가번호 혁. 면접번호 ##입니다.(면접번호라고 해야 하는데 참가번호 라고 해버렸습니다. 면접관 분들 다 피식 웃으심. 이 정도 실수는 귀엽게 봐 주시나 봅니다.)</p>				
<p>면 2. 반려동물 제품 디자인이 뭐죠?</p> <p>나. 동물과 인간, 아,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간과 반려동물이 함께 사용하는 제품, 사료나 운송기기 등을 통틀어 부르는 것입니다.(‘디자인’이 뭐냐고 물었는데 약간 잘못 대답. 다행히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p>				

면 3. 진로가 굉장히 명확한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나요?

나. 네, 제가 외동이라 어렸을 때부터 반려동물들과 가족처럼 지내 와서 동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중학교 때 행동 유도 디자인이라는 것을 배웠는데, 디자인으로써 인간의 행동을 어떤 방향으로 유도하고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을 통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동물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행동을 유도함으로써 동물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횡설수설)

면 2. 학교 다니면서 1등 많이 해 봤나 봐요?

나. (대답하라는 건 줄 모르고) 헤헤.

면 2. (웃으면서) 대답하기 곤란해요?

나. 앓, 아뇨 아뇨, 열심히 했기 때문에...

면 2. (말 끊고) 공부랑 실기 병행하는 데 어렵지는 않았어요?

나. 네, 그래서...

면 2. (다시 말 끊고) 그럼 공부랑 실기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뒀어요?

나. 아무래도 학생이다 보니까 공부에 더 치중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미술도 병행하기 위해서 낙서법이라는 새로운 공부법을 만들었습니다.

면 2. 낙서법이 뭔지 설명해 보세요.

나. 공부할 때 교과서에 눈을 고정하고 한 손으로는 (손짓 발짓) 이렇게 보지 않고 내용을 낙서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면 2. 그림으로요?

나. 네.

면 2. 그럼 그림으로 그리기 어려운 내용은 어떻게 했어요? 이를테면 정우희 선언이라든지...

나. 그럴 때는 눈으로 보고 (헤헤 하고 또 웃음) 대사를 글로 쓰는 식으로... 만화 형식으로 정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면 2. 안 보고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울 텐데...

나. 저도 처음에는 엉망으로 그렸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형태력도 좋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면 2. 하하, 그래요?

면 2. 일반전형 쓴 친구들이랑 실기 같이 준비했겠죠? 본인이 실기 준비하면서 어떤 부분이 뛰어나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 형태력, 묘사력, 색채 감각 같은 거...

나. 음, 저는 색채 감각이 좋은 것 같습니다. 분위기에 맞춰서 다양한 색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제가 한난 대비를 좋아하는데,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을 때 주변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대체 무슨 말인지ㅋㅋㅋ)

면 3. 현재 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되고 있잖아요. 해수면 상승이 건축에 있어 어떤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나. 음. 일단 해수면이 상승하면 육지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고층 건물이... 건물들이 고층화될 것 같고, 또, 아무래도 바다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건축이 발달할 것입니다.

면 3. 구체적으로?

나. 음, 일단은 바다 위에서는 해상 도시와 같은 건축이 발달할 것이고, 해수면 아래에서도 파도를, 아니, 해류를 견딜 수 있는 건축물이 발달할 것 같습니다.(전문적인 방향의 답변을 원하신 것 같은데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ㅠ)

면 1. 3학년 때 기후가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공부했네요. 기후 환경이 인간의 문화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런 기후 환경으로 인한 문화적 차이를 디자인에서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뭐가 있을까요?

나. 잠시 생각 좀 해 봐도.

면 1. 네, 그러세요.

나. 이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건축 분야에서... 베트남의 경우에는 습도가 높고 덥기 때문에 개방적인 구조가 많고, 반면에 러시아에는 폐쇄적인 구조가 많은 것처럼 건축 분야에서 디자인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건축 말고 다른 분야를 대답했어야 뭔가 더 지식이 풍부한 학생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ㅠㅠ 하지만 당시에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면 3. 본인이 10년 뒤에 어떤 디자이너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나. 네, 저는 10년 뒤에 제 반려동물 제품 브랜드를 창립해서 사람들이 동물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고, 또 제품의 디자인을 통해 행동을 좀 더 이로운(?) 쪽으로 바꿔 나가는 반려동물 제품 디자이너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면 1. ‘좋아 보이는 것들의 배신’(자소서에 쓴 책)을 읽고 본인의 디자인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바뀐 건가요?

나. 네, 저는 이전에 좋은 디자인이란 무엇인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책을 읽기 전에는 완벽한 디자인을 추구했는데요, 책을 읽으면서 포용적 디자인, 그러니까 좋은 디자인이라고 소개된 디자인들에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점이 하나씩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완벽한 디자인란 없지만 당장 보이는 하나의 문제라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게 제가 추구해야 할 디자인의 방향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정적)

면 2. 마지막으로... 본인이 살면서 했던 가장 엉뚱한 생각이 뭐였나요?

나. 음, 잠시 생각을 줌.

면 2. 그럼요. 황당해도 상관 없어요.

나. 저는 (9분, 노크) 고양이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면접관 분들 피식) 고양이는 저한테 없는 많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면 2. 생물학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나. 네, 그렇기도 하고 제 생각에 고양이는 사람의 마음을 정말 잘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싶기 때문에 고양이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면 3. 네, 그럼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나. (머뭇머뭇) 저, 그럼 나가면...

면 3. 네, 나가시면 돼요.

나. 감사합니다! (또 머뭇) 저, 혹시 그림도 다시 가지고 나가야 하나요?

면 3. 아뇨, 그냥 두고 가시면 돼요.

나. 아, 네.

유의 사항

- 답변 후에 정적이 흐를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저처럼 가만히 있지 마시고 무슨 말이라도 부연 설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ㅠㅠ 저는 그때 가만히 있지 말걸 하고 엄청 후회했습니다. 차라리 답변하다가 중간에 끊기는 게 너무 짧게 답변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자신을 보여줄 시간을 그만큼 날려먹는 거니까요.
- 면접에 집중하다 보니 저는 자세나 제스처에 전혀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ㅠㅠ 그런 비언어적인 부분은 정말 면접 연습을 많이 해서 몸에 익히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나마 평소에 많이 웃는 편이라 표정은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 여러분은 분명히 저보다 면접 잘 보실 거예요. 화이팅!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서울대학교	자연	물리천문학부 물리학전공	학생부종합 (지역균형전형)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 대기 순서대로 면접을 실시함.			
면접 내용				
<p>Q. 빛의 이중성에 대해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본인은 어떤 입장이었는지 설명해 보세요.</p> <p>A. 네, 저는 빛이라는 물질은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띄는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전효과 실험에 의하면 금속에 문턱진동수 이하의 빛을 쏘아주었을 때 빛의 세기를 세게 하여도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빛이 파동이라면 빛의 세기에 따라 전자가 튀어나와야 합니다. 이중 슬릿 실험에 의하면 빛이 입자라면 이중슬릿을 통과한 빛이 두 점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이 반복되는 간섭무늬가 나타납니다.</p> <p>Q. 본인은 빛이 이중성을 띄는 물질이라고 주장하였는데 다른 친구들은 빛이 입자 혹은 파동이다 이렇게 한쪽으로 주장하였나요?</p> <p>A.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아닌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p> <p>Q. 그럼 입자와 파동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p> <p>A. 저는 에너지 전달 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자의 경우는 스스로 이동하여 에너지를 전달하고 파동의 경우는 매질을 통해 전달한다고 생각합니다.</p> <p>Q. 빛의 입자성 같은 경우는 현대 물리에 나오는 어려운 내용인데 혹시 빛의 입자성이나 파동성을 나타내는 실험을 직접 해본 적은 있나요?</p> <p>A. 빛의 입자성을 나타내는 실험은 직접 해본 적은 없고 빛의 파동성을 나타내는 이중 슬릿 실험은 동아리 활동 중에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p> <p>Q. 동아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물리 실험 동아리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재미있는 실험이 있었나요?</p> <p>A. 저는 삼각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인해 보았던 종이 트러스 아치 만들기 실험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널리 있는 트러스교나 아치교의 안정성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종이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 단어장 두 권 정도의 무게를 버티는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p> <p>Q. (대답을 듣고 웃으면서) 자기소개서를 보면 엔트로피라는 책을 읽었는데 내용이 어렵지 않았나요?</p> <p>A. 엔트로피라는 법칙을 과학이 아닌 우리 사회에 적용하여 설명하는 부분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p> <p>* 이후 추가 질문을 하려했지만 시간이 다 되어서 끝난 것 같다.</p>				
유의 사항				
자연과학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에게 전공 관련 질문은 무조건 깊게 파고들어 질문하는 것 같다. 면접에 들어가기 전에 전공 관련 지식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것 같다.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서울대학교	사범	사회교육과	학생부종합 (지역균형전형)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8시 15분까지 입실 ○전자기기 제출, 본인 확인 ○면접 순서가 되면 소지품 챙겨서 대기 ○면접 후 퇴실			
면접 내용				
<p>○ 면접관 두 분이 돌아가면서 질문하셨습니다. 생기부 계속 들춰보면서 활동 중심으로 질문하셨습니다.</p> <p>○ 딱딱한 분위기일 줄 알았는데 교수님 두 분 다 편한 옷 입고 계시고 엄청 편하지는 않지만 냉랭한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냥 당당하게 자기 생각 말하면 다 꼬덕꼬덕 해주시는 분위기였어요. 답변 내용도 중요하지만 당당하게 큰 목소리로 말하는 게 제일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p> <p>○ 질문 순서는 기억나지 않아서 생각나는대로 적었어요.</p>				
Q. 사회교육과 지원 동기				
<p>A. 네, 저는 우리 사회와 발맞추어 나가는 교육을 만드는 교육정책 연구원이 되고싶어 사회교육과에 지원하였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교육이라는 분야가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인구, 계층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큰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육이 교육 내에서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접목하여 교육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도 새로운 길을 나아가려면 그 길을 터주는 멘토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멘토의 역할을 하는 교육정책 연구원이 되고 싶어 사회교육과에 지원하였습니다.</p>				
Q. 자란다 TV 활동에 대해 소개하시오.(생기부, 자소서 2번 관련 질문)				
<p>A. 자란다 TV는 1인 미디어 교육 플랫폼 인데요, 기존의 인터넷 강의와 차이점을 두어 실시간 쌍방향 소통을 최우선 요소로 한 활동입니다. 학교 행사의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고, 또 선생님이 아니라 친구들이 직접 가르쳐주니 쑥스러워하는 친구들의 반응을 보고 뿌듯함을 느낀 활동이었습니다. 앞으로의 미디어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p>				
Q. 앞으로 미디어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p>A. 기존의 학교는 교육용 소프트웨어에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좀 더 이러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디지털 교과서나 자란다 TV와 같은 플랫폼을 확장해야 사회와 발맞추어 나가는 교육이 실현된다고 생각합니다.</p>				

Q. 정해진 미래라는 책을 읽었는데 어떤 생각을 했는지?

A. 네, 정해진 미래의 작가 조영태 교수님은 우리 사회가 점점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다운사이징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 사회는 무한 경쟁의 구조가 아닌 협력구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개개인이 필요한 공부를 함으로써 자신의 길을 나아가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Q. 반장 활동을 했는데 본인이 리더십있는 인재라고 생각하나요?

A. 네. 처음에는 자신감이 부족한 학생이었지만 다양한 학생회 활동, 임원활동을 하면서 점점 리더십있는 인재로 성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학급회의 활동에서 ‘청소시간 변경’을 주제로 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7교시가 끝나고 청소를 했는데, 이러다보니 몇몇 학생들이 도망가는 일이 생기고는 하였습니다. 저희 반은 청소시간을 유지할 것인지, 6교시로 바꿀 것인지를 주제로 토의를 했는데, 처음에는 의견이 쟁쟁하여 모든 학생들을 만족시키지 못할까봐 걱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차분히 학생들을 설득하면서 의견이 모아지게 되었습니다.

Q. 민주시민 학교 활동을 했는데 민주시민 학교가 뭔지

A. 민주시민 학교는 학생을 위한 학교를 만드는 활동입니다. 실제로 저는 학교에 학생을 위한 공간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빈 교실을 다목적실로 만들었습니다. 그 곳에서는 학생들이 편하게 이야기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토론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후 수업 시간에 더 좋은 집중력을 보이고, 교우관계도 두터워지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Q. 봉사활동 중 기억나는 내용

A. 저는 평소 학업 때문에 봉사활동을 자주 가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학생들이 저를 바로 기억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이 친구들과 특별한 경험을 쌓기 위해 숙제를 일찍 끝내고 지역센터 바깥에 있는 마을에 가서 우리들만의 추억을 쌓았습니다. 이후 친구들이 저를 바로 기억해주고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학생들이 저를 노는 언니로 생각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멍청이’라는 노래에, 다각형의 내각과 관련된 가사를 넣어 알려주었습니다. 어려워하던 수학문제를 술술 풀어내는 친구들을 보며 진정한 교사의 모습은 함께 성장해가는 교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Q. 정의론과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 내용?

A. 네. 저는 롤스 ,벤담, 노직의 정의관을 조사하고, 우리학교 학생들과 교사가 생각하는 정의란 무엇인지 조사하였습니다. 실제로 이를 바탕으로 기존에 있던 ‘심화반’을 ‘레벨업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상위 학생들뿐만 아니라 중하위 학생들도 원한다면 심화 수업을 들을 수 있게 우리학교 교칙을 바꾸는 활동도 하였습니다.

Q. (마지막 1분 남았다는 신호 와서 교수님도 생기부 넘기면서 급하게 질문 만들어내신 것 같아요.) 변화하는 역사교육에 대해 보고서를 썼는데 여기서 느낀 점?

A. 저는 역사교육에서 교사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는 계속 변화하는데 교사의 인식이 과거에 머물러있으면 안됩니다. 변화하는 사회를 빠르게 인식하고 공정하게 수용하여,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진정한 역사교육에서의 교사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유의 사항

이전에 면접을 여러 개 봐서 떨리지는 않았어요. 정말 차분하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압박면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전공지식이 있어야 다른 얘기를 하면서도 자신감이 붙는 것 같아요. 캠프 때 전공지식 공부 안했으면 면접 때 엄청 떨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기 전에 자기가 생각하는 교육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머리 속에 넣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여 돌발질문이 들어왔을 때도 자신의 교육관이 바로서있으면 그거와 관련하여 말하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서울대학교	인문	사회학과	학생부종합 (지역균형전형)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 1층 대기실 대기 ○ 5층으로 올라가서 대기 ○ 면접 때 되면 밖에 분이 문 두들김) ○ 마무리하는 질문에 답변드리고 종료			
면접 내용				
<p>Q. 지원 동기는?</p> <p>A. 경제가 중심이 되어가는 현대 사회에서 경제적 약자들도 소득과 별개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삶에 기여하고 싶은 꿈이 있다. 한국 사회는 경제 성장 과정에서 효율성에 치중하다보니 형평성이 다소 간과되어 오늘날 다양한 사회문제를 낳았다. 현재 한국 사회는 세계화와 제 4 차 산업혁명이라는 또 다른 급변기를 맞이하며 양극화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과도기에서 우리 사회가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돕고자 사회학과에 지원했다.</p> <p>Q. 마이클 왈처의 분배이론 탐구하면서 알게 된 것은?</p> <p>A. (이거 완전 두서없이 말했습니다. 말하면서도 옹 싶었는데 그냥 당당하게 쪽 나갔어요. 마무리 부분만 기억나서 그 부분만 적습니다.) 마이클 왈처의 분배 정의에 따르면 분배는 사회 각 분야의 고유한 가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자본주의라는 체제의 영향으로 경제라는 분야가 다른 분야들을 종속시키고 있습니다. 즉 경제적 약자가 다른 분야의 약자로 쉽게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적절한 대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p> <p>Q. 철거재개발 탐구하면서 알게 된 것은?</p> <p>A. 1학년 때 독서토론열차학교라는 프로그램에서 고려인들을 마주했었다. 이들은 사회적 약자라는 점에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떠났어야 했다. 철거재개발을 탐구하면서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주거권을 침해받는 아픔이 현대에도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또, 철거재개발을 탐구하면서 용산 철거재개발 사례를 알아봤다. 관련 논문으로부터 경제적 효율성에 치우친 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철거재개발의 경우에는 특히 폭력이 동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p> <p>Q. 동아리 활동 중에 기억에 남는 활동 및 자신의 역할</p> <p>A. 궁시령은 인문사회라는 성격의 동아리였다. 다양한 사회이슈를 탐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동아리 책을 만드는 활동을 했다. 성격이 포괄적이다 보니 사회 이슈를 탐구할 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지만, 하나의 응집된 탐구 주제를 선정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다. 나는 동아리 부장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서제도를 도입했다. 문화예술, 외교통상, 교육인권이라는 분임을 마련함으로써 관련된 이슈들을 엮어 체계적인 활동이 가능해졌다.</p>				

나는 문화예술 분임에서 미투운동이라는 이슈를 주로 탐구했기에 그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동시에 다른 분임들의 탐구활동에 문화예술이라는 관점에서 조언을 해주는 역할도 했다.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 폭넓은 관심을 기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Q. 나중에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A. 사회학자 겸 언론인으로 활동하고 싶다. 언론인을 꿈꾼 까닭은 의제설정 기능을 통해 우리 사회에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하지만 언론의 역할만으로 적절한 변화를 만들어내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회유기체적 관점에 따라 하나의 사회 현상은 한 분야가 독자적으로 움직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이었다. 2학년 때 경제부 기자라는 목표 아래 활동해보니 경제부 기자는 주식 시장의 흐름 등을 단순히 기술하는데 역할이 그쳤다. 사회학은 이와 달리 사회 전반을 다루기 때문에, 사회학자 겸 언론인으로 활동했을 때 사회현상을 적절히 규명하고 더 나은 미래를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Q. 청소년 멘토 수업이 어떤 점에서 의미가 있었는지?

A.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봉사다. 처음에는 우리 지역에 최초로 내가 만들었다는 것 외에는 다른 봉사와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3학년 때 이 활동을 지켜 내면서부터 각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3학년 때 어른들의 정치적인 견해 차이로 아이들과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많이 안타까웠다. 이에 나는 친구들과 협력해 도 교육청의 미래도전 프로젝트에 참가해, 자금을 지원받아 독자적으로 활동을 이어가며 이 활동을 지켜냈다. 약자의 처지인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는데 노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Q. 우리 (앞의 교수님 두 분) 같은 사회학자와 본인의 다른 점

A.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전과 달리 급격하게 사회가 변화한다. 그 과정에서 마테효과나 프레카리이트 등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다. 나는 이러한 문제를 다룰 것이다. 가장 존경하는 사회학자가 앨빈 토플러인데, 그의 저서인 부의 미래를 읽고 나서 미래학이라는 학문에 정통하다는 점에서 존경하게 되었다. 이 책이 2003년에 출판되었는데 현재 사회상을 거의 다 맞췄다. 이 학자처럼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면 이를 토대로 더 나은 미래를 제시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하는 사회학자가 되어, 제 4차 산업혁명에서 사회 발전의 희생양으로 전락하기 쉬운 경제적 약자들의 입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미래를 제시하고자 한다.

유의 사항

교수님들의 질문이 상당히 길게 가기 때문에 요점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제가 적어 놓은 것은 간추린 것입니다.

생각보다 꼬리질문이 없어서, 연습했던 부분이 안 나와서 당황할 수 있습니다.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서울대학교	자연	생명과학부	학생부종합 (지역균형전형)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면접 대기실에 있다가 전 순서 끝나기 2분 전쯤 면접실 근처로 이동, 의자에 앉아서 기다림 ○전 순서 끝나자마자 면접실로 들어감 ○바로 면접 시작			
면접 내용				
Q. 생명공학, 생명과학에 관심이 많네요. (생기부에 적힌 내용)에 대해 조사한 것 이외에 따로 연구 활동한 것이 있나요?				
A. 연구를 위한 장비나 여건이 부족해서 조사 수준에서 그쳤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통해 ~했다는 연구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Q. (자소서에 쓴 생명동아리 실험 질문) 실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했는지, 실패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다시 실험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계속 꼬리질문으로 5~6분 정도 소요했습니다.				
Q. (생기부에 써진 다른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과 극복한 경험에 대해 말해주세요.				
A. ~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을 해서 극복했습니다.				
Q. (자소서 4번에 쓴 도서) 내용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과 그로 인해 자신이 어떻게 변화 했는지 말해주세요.				
A. 저는 그중에서도 ~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면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여서 정말 재밌었기 때문입니다.(말 끝나고 시간이 다 돼서 나갔습니다.)				
유의 사항				
무슨 이야기를 하든 관심 있게 들어주셔서 편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제 생기부와 자소서를 미리 다 읽어보신 듯 했고, 질문도 미리 준비해 오신 것 같았습니다.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서울대학교	자연	식물생산과학부	학생부종합 (지역균형전형)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조용하게 앉아 있다가 소지품 수거하고 차례 되면 부름 ○나가서 3분정도 대기하는데 이때 보고 있던 자료도 다 가져감 ○압박면접 전혀 아니고 최대한 답변할 수 있게 도와주심 ○인원이 적어서 차례가 금방 돌아오니 화장실 미리 가야할 듯			
면접 내용				
<p>Q. 음. 생명과학1과 생명과학2 모두를 배웠는데 배우면서 가장 흥미있었던 부분이 어디인가요?</p> <p>A. 저는 유전자 재조합을 배울 때 가장 흥미를 느꼈는데요, 전에는 유전자 재조합이라고 하면 뿌리는 감자고 줄기는 토마토 같은 특이한 작물들을 떠올렸었는데, 유전자 재조합에 대한 원리를 배우고 나서는 어떤 종의 한 유전자만을 다른 종에 삽입해서 우월한 종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부분에서 흥미를 느끼고 더 알아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p> <p>Q. 그러면 그러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서 더 탐구해 보고 싶은 분야가 있나요?</p> <p>A. 네. 저는 이러한 기술을 이용해서 미생물의 풍부한 유전자원을 이용해 사막과 같은 척박한 지역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식물을 개발해 보고 싶습니다.</p> <p>Q. 혹시 그런 사례를 본적이 있나?,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p> <p>A. 네! 유전자 재조합 식물이 사막에서 길러지는 것을 본적은 없지만 현재 사막에서 통통 마디라는 식물이 길러지고 있다는 선례를 본적이 있습니다.(약간 질문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듯 TTT 유전자 조작사례를 물어 보신듯)</p> <p>Q. 흠. 그럼 인간의 유전자를 식물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p> <p>A. 네! 가능합니다. 저는 바실러스 균이라는 미생물의 유전자가 식물에 삽입되어 작물을 만든 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간의 유전자도 식물에 삽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p> <p>Q. 그래요. 종간의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물어보려고 한 거였어요. 그래도 자네는 우리 과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 보이는 구만! 식물을 키워본 경험이라든가 그런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나?</p> <p>A. 네. 저는 1학년 때 '한발 가꾸기'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꽃과 작물을 키워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 화단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땅이라서 식물을 기르기에는 힘들 것</p>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EM용액이라는 미생물이 들어있는 용액을 밭에 뿌려서 작물들이 잘 자라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고, 그 결과 다른 반에 비해 저희 반의 화단이 잘 가꾸어 진 것을 관찰 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미생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Q. 그렇구먼. 그러면 여기 생기부를 보면 갯벌에 대해서 탐사한 내용이 적어져 있는데... 갯벌 간척지 같은 염류 많은 땅에서 자라는 식물을 유전자 조작해서 잘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유전자 조작을 해야 하지?(말을 이상하게 하심)

A. 간척지라면 염류가 많은 지역을 이야기 하시는 건가요?

Q. 그래용.

A. 네. 저는 사실 갯벌 간척지에서 벼를 재배했더니 벼가 잘 자랐다! 라는 내용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의의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갯벌에서 잘 자라기 위해서는 염분을 잘 견뎌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통통 마디의 저수 조직이나 염류 정화기능 같은 것을 발현하는 유전자를 벼와 같은 작물에도 삽입한다면 간척지에서도 잘 자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Q. 20년 후엔 뭘 하고 있을 것 같나요?

A. 아마도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국립종자원에서 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국립종자원에서는 연구나 실험과 같은 목적으로만 종자를 배급하고 있는데 제가 입사한다면 일반 농민들에게도 좋은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종자를 판매하고 보급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 그렇군요. 시간이 다되었네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유의 사항

학생부나 자기소개서 질문보다 지원 동기나 장단점 같은 필수질문이 더 어렵고 실제 면접 상황에서 생각해내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비를 잘 해놓으세요! 그리고 인터넷 동영상 자료나 책 등으로 전공에 관한 지식을 많이 쌓아 놓으면 준비 안한 질문에도 대처하기 쉬울 거예요.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서울대학교	자연	식품영양학과	학생부종합 (지역균형전형)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오전 조라 8시 30분까지 입실 ○건물 입구에서 수험표 제시하고 들어감 ○면접 대기실에서 면접번호표 받고 지정석에 착석, 이후 간단한 면접 절차 설명 ○순서가 되면 복도에서 잠시 대기하다가 면접 고사실 입실 ○면접 종료 후 바로 귀가			
면접 내용				
<p>Q1. 플라보노이드를 추출하여 항생제를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실험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A. (실험과정 설명)</p> <p>Q1-1. 실험과정에서 동결건조가 문제였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했는데요.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었나요? A. 동결건조란 시료를 냉동시킨 뒤 압력을 충분히 낮춰 얼음을 승화시킴으로써 수분을 없애는 방법인데요, 압력을 충분히 낮추지 못 한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플라보노이드가 균 배양에 미미한 정도의 영향 밖에 미치지 못 한 것으로 추측했습니다.</p> <p>Q1-2. 그럼 동결건조를 할 때 어떻게 압력을 낮췄나요? A. 진공펌프를 이용해 압력을 낮추고자 했었습니다.</p> <p>Q2. 짚신벌레 배양 실험에서 크기 측정은 어떻게 하셨나요? A. 저희 학교의 위상차 현미경을 통해 짚신벌레를 관찰했는데 컴퓨터와 연결하여 크기 측정 프로그램을 이용했습니다.(면접관님이 예상했던 거보다 평범해서 실망했을 수도 있을 듯, 배울 통해 직접 계산한다거나 하는 방법을 예상하셨을 수도?)</p> <p>Q3. 자소서에 짚신벌레의 이동속도와 몸의 형태의 상관관계를 밝혔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A. 짚신벌레가 빠른 속도로 이동할 때 몸을 납작하게 만들어 주변으로부터 받는 저항을 줄이고 단면적 대비 섬모의 길이가 길어져 추진기관인 섬모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알아냈습니다.</p> <p>Q3-1. 빠른 속도로 이동시키기 위해 자극을 주거나 했나요? A. 아니요. 정지해 있는 것과 움직이는 것을 비교했습니다.</p>				

Q4. ‘환자가 치료를 거부해도 의료인은 치료를 계속해야 한다’를 주제로 한 찬반 토론에서 찬성측 입론자 역할을 맡으셨다고 했는데 찬성을 주장한 근거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토론 주제의 상황은 조금 특수한 상황이었는데요, 환자에게는 자신의 치료를 위한 맞춤아기가 있었습니다. 그 동생을 위해서 치료를 거부했던 것인데요, 저는 당시 환자의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 판단하여 치료를 계속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동생이 치료를 위한 수단이 되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치료에 임하게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다른 수단도 계속 찾을 것이라고도 하였습니다.

Q4-1. 그러면 치료를 위한 맞춤아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하나의 생명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부모가 아이의 의사를 묻지않고 강압적으로 치료에 임하게 한다면 그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Q5. ‘다윈의 식탁’이란 책을 읽으셨는데 ~ (아마 무슨 내용인지 물었던 거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A. ‘다윈의 식탁’은 리처드 도킨스나 스티븐 제이 굴드와 같은 진화론자들의 진화에 대한 의견을 토론 형식으로 소개해준 책인데요, 진화란 점진적으로 일어난다고 알고 있던 저에게 진화가 비점진적으로 일어난 것일 수도 있다는 다른 관점을 제시한 굴드의 이론이 제일 인상 깊었던 거 같습니다.

Q6. 독서사항에 ‘일반화학실험’이란 책이 있는데 어떻게 읽었나요?

A. (대학교재인데 읽었다고 하니 안 믿는 눈치였음, 종료 벨 울린 뒤에 한 질문이라 간단히 대답함)
화학2 수업 시간에 다양한 실험을 진행했었는데 사전 조사 과정에서 이 책을 이용했었습니다.

유의 사항

면접 대기하면서 가져온 자료 볼 수 없어서 자기소개나 지원동기 같은 거 다시 구상하면서 시나리오 쓰고 있었는데 들어가자마자 바로 자소서 내용 확인해서 살짝 당황스러웠습니다.

생기부는 거의 보지 않고 거의 자소서 내용 위주로 질문했던 거 같습니다.

사실 생기부가 식품영양학과와 관련이 없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셔서 다행이라 생각하며 면접에 임했습니다.

진짜로 생기부와 자소서 내용을 확인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압박면접을 한다는 느낌은 거의 받지 못했고 꼬리질문이 많아서 진짜로 면접관분들이 궁금한 것을 물어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과는 종료 벨이 울리면 칼같이 마무리한다고 해서 대답 중에 종료 벨 울려서 끊으려고 했는데 면접관분께서 계속 대답하라고 했었습니다. 이후에 짧은 질문을 하나 더 하시기도 했고요. 학과나 교수님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대가 마지막 면접이어서 늘 생각에 면접 끝나고 뇌를 포맷시켜서 잘 기억이 안 나 이상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서울대학교	인문	심리학과	학생부종합 (지역균형전형)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 13:00까지 입실 ○ 한시간정도 대기시간 ○ 한시간 뒤에 안내 및 주의사항 이야기 ○ 순차적으로 면접			
면접 내용				
Q. 전교회장을 했는데 몇 명이나 출마했나? A. 4명이 출마했었습니다.				
Q. 전교 회장에 출마한 이유는? A. 1학년 때 런닝메이트 제도였던 회장선거에서 부회장 후보로 출마해보자는 전대 회장님의 제안에서 부회장을 하게 되었고, 그 후 학교의 이런저런 문제를 보며, 이런저런 해결방법을 통해 해결해보고 싶었고, 이러한 마음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좀 더 자세한데 기억 안남)				
Q. 전교 회장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 A. 생활지도에 관한 선생님과 학생 사이의 갈등을 조정했던 경험입니다.(대충 교복위에 입는 외투에 대한 문제 조정)				
Q. 솔리언 또래 상담의 경험이 있는데, 실제로 있는 상담의 종류인 것인가? 혹시 솔리언이 무슨 뜻인가? A. (이 때 솔리언 뜻이 갑자기 기억안나서 순간) 솔루션과 가디언의 합성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solve와 사람을 뜻하는 접미사의 파생어임) 또한 솔리언 또래상담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또래 상담으로서 여러 기법을 통해 선생님과 전문적 상담이 아닌 뭐 공감을 통한 ~ 상담입니다.				
Q. 실제 상담을 했던 경험 중에 기억에 남는 경험은? A. 꿈이 없는 친구를 상담하며, 경청의 자세를 중심으로 상담했고, 뭐 어떠어떠한 방법을 통해 상담했으며, 내가 꿈을 이어가는데 도움이 되었던 진로 프로그램을 소개시켜주며 이를 통해 친구가 꿈에 한발짝 나아가게 되었고 지금도 본인이 원하는 학과에 지원하며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면접관님] Q. 아직도 프로파일러가 꿈이에요? A. 네.				

Q. 여기 보면 심리학개론 동아리를 3년간 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연구 같은 거 구체적으로 말해줄래요? 과정이나 자료 수집 같은 부분을 자세히!

A. ‘사이코패스는 일상의 그늘에 숨어지낸다’와 같은 서적에서 참고문헌에 속한 여러 논문들을 실제로 읽어보며,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고 비행은 저지르는 원인에 대한 여러 선행 연구자들의 2차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프로이트와 같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초자아의 형성 부족과 같은 원인 등에서 직접 규율과 제도를 체험하는 병영 프로그램, 경찰 체험 프로그램 등을 고안했고, 부모님의 조력을 대신하기 위해 입시위주의 상담 시스템을 정서적 공감 위주의 상담으로 바꾸는 제도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고안하여 이를 학교에 제출해본 경험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데 기억안남)

Q. 통계청 자료도 찾아보았다고 했는데, 그 자료는 혹시 어떻게 이용했나요?

A. 통계청 자료를 통해 검거된 청소년 범죄자들의 원인들을 이욕, 가난 등으로 찾아볼 수 있었지만, 청소년 범죄자들의 실제 검거율이 매우 낮다는 점, 검거된 청소년이 거짓말로 진술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점을 알게 되어 이를 연구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Q. 아~. 심리학에 대해 1학년 때 발표해봤다고 하는데 한 번 설명해줄래요?

A. 그때는 저도 심리학을 알지 못했기에 가장 주된 목표는 제가 심리학을 이해하는 것이었는데요, 저는 심리학 좀 알아보자와 같은 서적들을 읽으면서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인 심리학에 대해 알게 되었고, 심리학 강연들을 보면서 인간의 특성, 인간의 본질 등 심학과 관련한 여러 주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는 사회시간에 발표를 진행하여 심리학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고,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은 이유를 제가 하고자 하는 범죄 심학과, 심리학의 허브 사이언스 중심적 특징(서울대 심리학과에 나온 심리학의 특성)과 연관 지어 설명해본 경험이었습니다.

유의 사항

나 같은 경우 순간적으로 솔리언이 생각이 나지 않았지만 당황한 내색을 크게 하지 않고 기억이 나는 대로 당당하게 말했다. 독이 될지는 모르지만 내 입장에선 최선이었던 거 같다. 즉, 면접은 자신감인 거 같다. 면접 직전 대기에서는 전 사람의 면접 내용이 조금씩 들리는데 이런 거 막 엿들으면서 긴장하지 말고, 그때는 마음을 비우며 흥분, 당황, 긴장 안하는 것이 최고인거 같다.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서울대학교	사범	역사교육과	학생부종합 (지역균형전형)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8시 15분까지 입실 후 모든 짐 제출 ○수험표와 신분증만 가지고 대기 ○면접 3~5분 전 모든 짐을 가지고 퇴실 ○면접 후 개별 귀가			
면접 내용				
<p>Q. 아침은 먹고 왔어요?</p> <p>A. 네, 간단하게 샌드위치 하나 먹고 왔습니다.</p> <p>Q. 원래 초등교육을 3년 내내 희망하셨네요. 그런데 왜 역사교육과에 지원하게 되었나요?</p> <p>A. 제가 1학년 때부터 다양한 진로에 대하여 고민을 많이 해오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역사 교사 등 다양한 진로를 생각해보았습니다. 제가 원래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자아정체성이 형성 될 시기의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아정체성이 형성 된 이후의 아이들에게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대비하고 현재를 대처할 수 있는 역사를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을 하여 역사교육과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p> <p>Q. 교대는 안 가고 싶어요?</p> <p>A. 네. 현재에는 교대보다는 역사교육과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p> <p>Q. 여기에 진학하면 초등교사 못해요.</p> <p>A. 네. 알고 있습니다.</p> <p>Q. 동아시아사와 세계사는 수강을 하지 않았네요.</p> <p>A. 중학교 3학년 때까지만 하여도 교과 과정에 세계사와 동아시아사가 있었으나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저희학교에 세계사와 동아시아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수강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 학교에 입학하여서 이들에 대한 내용을 기초부터 탄탄히 잡아가며 공부하고 싶습니다.</p> <p>Q. 봉당 정치가 어떻게 생겨 났는지 알아요?</p> <p>A. 봉당 정치는 이조 전랑의 임명 문제와 척신 정치의 잔재 청산 문제로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지게 되고, 이후에 다양한 사건 때문에 봉당이 더욱 분화되고 후에는 심화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p> <p>Q. 네. 그거 말고 원래 당파싸움이나 봉당정치나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 왜 봉당정치라고 불리게 된지 알아요?</p>				

A.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부족한 부분을 역사교육과에 진학하여 더욱 심화하여 배우고 싶습니다.

Q. 한국사 수업시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이나 사건을 하나 고르고 그의 역사성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A. 네, 저는 안중근 의사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는 을사늑약이 체결되는 데에 큰 영향을 끼친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 역에서 사살하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용기와 민족을 대표하는 대표성은 저희가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Q. 그럼 일본에서는 이토 히로부미는 어떻게 평가 될까요?

A. 지배국과 피지배국 간의 역사교육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배국에서는 피지배국에 비해 역사라는 과목을 깊이 있게 배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이토 히로부미는 우리나라를 지배하게 되는 데에 큰 공을 세운 인물로 평가 될 것이라 생각하기에 영웅적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한국사 시간에 고려시대 교육기관과 조선시대 교육기관의 차이를 조사했네요. 그 차이는 뭔가요?

A. 네. 고려시대 교육기관에는 국자감, 최충의 9재학당 같은 사학12도 등이 있었으며, 조선시대 교육기관에는 성균관, 향교, 서당 등이 존재하였습니다.

Q. 향교가 뭔지 기억이 나나요?

A. 서당이 현재로 치자면 초등교육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향교는 조선시대 중등교육 기관입니다.

Q. 향교에서는 무엇을 배웠나요?

A. 향교에서는 유교 교리와 유교 경전을 배웠습니다. 향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육기관들도 유교 교리와 경전을 배웠다고 알고 있습니다.

Q. 왜 그들은 1500년 전이나 된 유교 경전을 배웠을까요?

A. 현재 저희가 역사를 공부하며 과거를 통해 현재와 미래를 대비하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와 같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지난 이들의 역사에서 유교 교리와 경전을 통해 배울 점을 찾았을 것이며, 우리처럼 과거 사상가들의 교리와 경전을 통해 그들의 현재와 미래를 대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혹시 지공거가 뭔지 들어봤어요?

A. 아니요,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진짜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ㅌㅌ)

Q. 죽은 시인의 사회를 감명 깊게 읽은 것 같네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네. 원래 그들의 학교는 부모님과 학교의 억압으로 학생들의 자유가 차단되어있던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에 존 키팅 선생님께서 부임하게 되면서 선생님께서는 그동안의 선생님과 다른 수업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그 선생님의 영향으로 아이들이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동아리 활동을 하며 자신들의 자유와 꿈을 찾고, 길러나가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아이들에게 억압이 아닌 자유를 주는 선생님이라는 모습을 강조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Q. 그렇다면 학생의 부모님은 억압이 심하신 편이셨나요? 개인적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질문이 안 들려서 다시 한 번 여쭙보았음)**

A. 저희 부모님께서서는 매우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다양한 진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부모님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떠한 진로를 고민을 하여도 부모님께서서는 저를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셨습니다.

Q. 그렇다면 책의 내용이 공감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A. 아닙니다. 지금 저의 주변 친구들만 보아도, 그리고 현재 우리의 사회를 보아도 옆에 있는 친구는 친구가 아닌 경쟁자로 보는 시선들이 늘어가고 있으며, 얼마 전에도 수능 이후에 자살 사건이 있었듯이 성적에 대한 압박과 자유에 대한 억압이 심한 사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매우 공감이 되었으며, 주인공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행복해 하며 책을 읽었습니다.

[9분이 되어서 밖에서 노크함]

Q. 그럼 우리가 지원자를 뽑아야 하는 이유를 한 번 말해주세요.

A. 네. 교육이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역사라는 과목은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를 대처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기에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강점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무언가를 배울 때면 깊게 파고드는 것을 매우 좋아하며 자신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강점을 바탕으로 한국사 뿐만 아니라 세계사와 동 아시아사를 열심히 학습하여 아이들에게 이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역사는 자신의 관점만을 보는 것이 아닌 다양한 관점을 볼 수 있는 과목으로 아이들에게 이러한 역사를 타인에 대한 공감과 이해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가르치고 싶습니다.

Q. 수고하셨습니다.

A. 네, 감사합니다!

유의 사항

생각보다 독서가 안 나와서 좀 놀랐습니다. ㅠㅠ 심지어 나온 독서도 제 자소서에서 적혀있는 책이었습니다. 자신의 역사 세특에 적혀있는 내용은 어떠한 것이든 빠지지 않고 관련된 배경지식 까지 모두 다 파악한다는 마음으로 대비하여야할 것 같습니다. ㅌㅌ 아직도 봉당정치랑 지공거 대답을 못한 게 마음에 걸려요. 꼬리질문이 계속 들어오긴 하지만 그래도 당황하지 마시고 계속 웃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ㅎㅎ 그리고 캠프에서 예상 질문으로 나왔던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확실히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캠프에서 나왔던 질문들 다시 한 번씩 보시고, 확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저의 전공과 관련된 질문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생기부를 살살이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서울대학교	사범	영어교육과	학생부종합 (지역균형전형)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8시 15분까지 입실 후 모든 짐 제출 ○수험표와 신분증만 가지고 대기 ○면접 3~5분 전 모든 짐을 가지고 퇴실 ○면접 후 개별 귀가			
면접 내용				
<p>Q.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등 페미니즘을 많이 읽으셨는데, 이러한 책을 모두 읽고 내린 최종적인 결론은 무엇인가요?</p> <p>A. 제 이 책들을 읽고 교사가 되었을 때 어떤 수업 방식을 추구해야할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교과서에서 성차별적인 내용이 있을 때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비판적인 시각을 기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p> <p>Q. 82년생 김지영 영화도 나왔고, 많은 남성들이 82년생 책에 담긴 내용을 부정하고 있어요. 왜 페미니즘에 대한 반발이 심할까요?</p> <p>A. 페미니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떨어지기 때문에 반발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82년생 책에 대한 내용도 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차별들을 책속에 담은 것인데 남성들은 그것을 단순히 소설이라고 치부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p> <p>Q. 저희 학교에 코딩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영어 세특 관련 내용)</p> <p>A. 네! 앞으로 기술 사회 속에서 코딩 교육은 교육에 있어서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p> <p>Q. 코딩교육과 인문학을 연결시키고 싶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실현할 수 있어요?</p> <p>A. 예를 들어 영미시를 가르친다고 하였을 때, 영미시 안에 녹아있는 영미권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양식이나 역사적 상황을 재현함으로써 사람들이 구성해온 삶의 양식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p> <p>Q. 교과서가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책을 읽었다는데 학생 엄청 성실한가봐요?</p> <p>A. 네! 저는 성실합니다.</p> <p>Q. 교과서를 다 암기식을 공부했다는 건가봐요?</p> <p>A. 암기식으로 공부를 했다는 뜻은 아니고~! 그만큼 교과서를 많이 봤다는 뜻입니다. ㅎ</p>				

Q. 자소서 1번 관련해서 전치사를 되게 연구했나 봐요? 기억에 남는 전치사 예시하나 들려주세요!

A. through라는 전치사입니다. we 're through라는 문장을 봤을 때 제가 알고 있는 through의 뜻은 '∼을 통해'라는 뜻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문장의 뜻이 '우리는 끝났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여기서 저는 전치사의 이미지를 분석하는 정지, 이동, 결과(전치사 이미지 분석 3가지 기준 자소서 1번 내용)의 기준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Q. 어떻게 전치사의 뜻을 찾아냈고, 어려운 점이 있었던 전치사는? 어떻게 해결했어?

A. 교과서의 문장만으로 전치사의 뜻이 한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구글 서치를 통해 다양한 문장을 접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by 나 for 같은 전치사는 정지, 이동, 결과의 기준만으로 전치사의 이미지를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지도교사 여성선생님을 찾아뵈어 조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유의 사항

이름이랑 학교 말하지 않게 주의하세요.

어떤 친구는 이름 말해서 바로 퇴실이었어요.

오전 8시 입실이었는데 7시에 들어갔어요!

일찍 가서 생기부나 자소서 읽으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분 확인 시작할 때부터 소지품 다 가방에 넣어야 돼서 공부를 못하는데.. 멀뚱멀뚱 아무것도 안하기 힘드니까 간식거리 좀 사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서울대학교	자연	응용생물화학부	학생부종합 (지역균형전형)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2:1 면접 ○자리에 앉는 시간까지 포함해 10분 ○면접관이 스톱워치로 시간 잴 ○9분쯤에 밖에서 문 두드림(똑) ○(기억 상으로) 좌: 안경 벗으신 김정한 교수, 우: 김광수 부교수			
면접 내용				
<p>면접 시간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자리에 앉는 지금 이 시간까지 포함해서 10분입니다. 스톱워치로 시간 재겠습니다. 9분쯤에 밖에서 문을 두드릴 겁니다.</p> <p>긴장 푸시고 심호흡하세요.</p> <p>Q1. 캡슐형 손세정제에 관련된 활동을 하셨네요. 직접 만드신 건가요?</p> <p>A. 캡슐형 손세정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보고서로 작성했습니다.</p> <p>Q1-1. 직접 만드신 건 아니군요. 손세정제가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있는지 아시나요?</p> <p>A. 손세정제는 에탄올 약 70퍼센트, 물 약 30퍼센트, 그리고 손 보습을 위한 글리세린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p> <p>Q1-2. 손세정제에 의해서 캡슐이 녹을지도 모르는데 그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p> <p>A. 그것에 대비해서 에센셜 오일로 막을 형성하도록 했습니다.</p> <p>Q1-3. 에센셜 오일은 기름이니까 물 위에 둥둥 떠다니지 않을까요?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p> <p>A. 그것은 직접 만들어보면서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p> <p>Q2. 지원자께서 열대우림에서의 2년이라는 책을 읽으셨네요. 간단히 설명해주시겠어요?</p> <p>A. 네. 그 책은 퀴즐랜드에서 열대우림 개발에 대한 찬반 논쟁이 격렬하게 일어났을 때 한 과학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열대우림 개발은 주민들의 생계를 침해한다는 문제가 있어 찬성 여론이 극심했습니다. 하지만 퀴즐랜드의 열대우림은 우리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열대우림 중 하나이며, 단공류, 유대류와 같은 희귀한 생물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는 열대우림 개발 반대 의견을 펼치기 위해 노력했고, 퀴즐랜드 열대우림은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현재 퀴즐랜드는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과학자는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가지고 사람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p>				

Q2-1. 그렇다면 지원자 분께서는 과학자가 갖춰야 할 자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학자는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가는 자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3. 탈리도마이드에 대해 조사하셨네요. 탈리도마이드에서 설명해보실래요?

A. 탈리도마이드는 임산부의 입덧 방지용으로 출시된 약입니다. 탈리도마이드는 두 가지 이성질체가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원래 목적과 다르게 작용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탈리도마이드는 S, R 이성질체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입덧 방지 효과를 냈지만, 다른 하나는 혈관 형성을 억제해 손과 발이 짧은 기형아를 출산하게 했습니다. 한 알만 먹더라도 기형아가 출산되는 무시무시한 효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사용이 중지되었는데요, 혈관 형성 억제 작용이 항암치료에는 도움이 되어서 현재는 항암치료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3-1. 탈리도마이드는 원래 진정 목적으로 개발되었다가 입덧 방지도 효과가 있다 이런 것이 밝혀져서 사용된 것입니다. 지원자님의 서류를 보면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의사가 되기를 원하셨네요. 모두 다 의학 관련 활동을 하셨어요. 읽은 책들도 그렇고요. 의사가 되려고 했는데 왜 응용생물화학부에 지원하셨죠?

A. 네. 에버그린에서 나무 이름표 달기 활동을 하면서 나무들이 각각 비슷한 형태를 가지면서 서로 다른 형태를 가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유가 유전자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유전자에 대해 관심을 가졌습니다. 생명과학을 공부하면서 PCR(!! 유전자 재조합기술을 말하려다 말이 안 나와서 떠오르는 기술 하나 언급함) 등 유전자 관련 기술에 흥미를 가졌습니다. 의사를 꿈꾸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의료는 환자와의 진료가 1대 1이지만, 학문은 1대 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점에 매력을 느껴 이 학부를 지원했습니다.

Q3-2. 에버그린 활동을 하셨네요. 에버그린 동아리를 간단히 소개해줄래요?

A. 네. 에버그린 자율동아리는 제가 창설한 동아리입니다. 저희 학교는 70년이라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나무도 많고 조경도 잘 되어있고 관리도 잘 되어있었지만 나무에 이름표가 달려있지 않아서 아무도 나무의 이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에버그린을 만들고 나무 이름표를 달면서 표본도 만들고 보고서도 만들었습니다. 나무 이름표를 달고 나니 선생님과 친구들이 나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나무에 대해 물어보기도 하셔서 좋았습니다.

Q3-3. 지원자께서 3년간 의사가 되고 싶어 하셨는데 응용생물화학부에 지원하신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A.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료는 1대 1이고 학문은 1대 다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더 낮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료와 학문의 본질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생명과학을 공부하면서 유전자에 대해 관심을 가져 탐구해보고 싶다고 생각했고, 이 학부에 지원했습니다.

Q3-4. 유전자는 의대에 가서 연구할 수도 있지 않나요? 의대 말고 응용생물화학부에 지원한 직접적인 동기가 뭐예요?

A. 물론 저도 처음에는 의대에 가서 연구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위해서는 생물과 화학의 통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응용생물화학부에 지원했습니다. 또한 본과에 가면 바쁘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교수님의 심경을 거슬리게 할 수 있는 말은 이런 상황에서 하면 안 된다. 말하기 전에 말한 후 일어날 결과를 미리 생각해보자.)

**Q3-5. 아니, 여기도 연구하느라 바빠요. 저도 어제도 새벽 4시에 잤다고요.
연구 활동이 바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Q3-6. 그렇다면 의사가 되겠다는 건 개인의 결정이에요 아니면 부모님의 권유에 의한 거예요?

A. 둘 다 해당하지만 저는 제가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마음 가졌었습니다.

(끝) 안녕히 계세요.

유의 사항

건물로 들어가면 좌측은 상록관, 우측은 생명관으로 분리됩니다. 용산에서 목포와 여수로 가는 KTX 산천 복합열차가 운행되듯이 처음 잘못 들어가면 다시 1층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입구에서 자신이 어느 건물로 가야 하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가세요.

진로희망이 의사나 약사지만 응용생물화학부에 지원한 학생들은 의사가 꿈이지만 응용생물화학부에 지원한 이유나 근거를 확실히 준비해 가져야 합니다. 졸업 후 의학전문대학원이나 약학전문대학원으로 빠지려는 학생들 때문에 수업이 진행되지 않아 교수님들이 싫어한다고 하네요.

면접 내내 면접관들께서 “너 의대 갈 것 같은데…”하고 의심하는 분위기였고, 특히 우측 면접관께서는 짜증도 내셨습니다. 우측 면접관께서는 집요하게 의대와 관련된 질문을 끝까지 하셨습니다. 이러한 꼬리질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면접관님의 질문에 휘말리지 말고 끝까지 예의바른 태도 보이고 성실히 답하세요.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서울대학교	자연	의예과	학생부종합 (지역균형전형)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 대기실에서 대기 ○ 불러나가면 조교 선생님 따라 졸졸 이동함 ○ 면접방 바로 앞에서 대기 ○ 면접을 본다.(10분. 별다른 절차 없음. 예비 중? 그런 것도 있었나? 긴장해서 하나도 못 들음)			
면접 내용				
<p>(※ 본인의 말투는 상당히 어눌함. 답변 글이 매끄럽다고 생각되어도 실제로는 한 문장 당 2~3번 더듬었으며, 3초 이상의 pause 구간이 여럿 존재함)</p> <p>면접관 1, 2 모두 30대 중반쯤 되어보였음. 그냥 여러분 학교에 있는 조금 젊은 남자 선생님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됨</p> <p>저의 양 눈이 면접관을 향해있기는 하였으나 상당히 긴장을 한지라 무슨 표정을 하고.... 이런 건 자세히 캐치 못했음. 양해를....</p> <p>※ 들어가 앉자마자 질문 시작. Ice Breaking 없었음</p>				
[기본질문]				
<p>Q1. 서울대학교 의예과에 지원하셨는데, 대단한 친구들이 왔지 않아요? 그래서 말인데 학생만의 ‘자신이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화되는 장점’이 있다면 하나 말해볼래요?</p> <p>A1. 네. 다른 친구들과 구별되는 저만의 장점은 ‘사물을 저만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수험생활을 하면서 수학이나 과학 과목 공부를 할 때, 일반적인 해설지나 친구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효율적인 풀이법을 많이 고안하였고, 이를 통해 많은 시험에서 이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의학 공부와 연구에도 이러한 점에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합니다.</p> <p>Q1-1. 그 지원자만의 생각으로 다른 것을 바라본다면, 이러한 것은 곧 독단? 으로 이루어지거나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요?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p> <p>A1-1. 네. 저도 물론 저만의 시각을 가지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제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또한 문제가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을 돌아봐서 그들이 어떠한 방식을 취하는지를 살피고, 아주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저만의 방식을 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p>				
[봉사(올해가 무슨 봉사 특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p>Q2. 네. 그렇군요. 그 학생 봉사활동을.... 중학교로 다녀왔네요? 거기 무슨 프로그램인가요?</p> <p>A2. 네. 매주 목요일마다 주변 중학교로 가서 그 아이들과 진로 상담을 해주거나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기초 과목들을 가르치는 활동을 했습니다.</p>				

Q2-1. 그런데 이런거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벅찰 것 같은데, 한번에 몇시간정도 하나요?

A2-1. 보통 1시간정도 합니다.(실제로 2시간 하는데 당황해서 아무 말이나 했음)

Q2-2. 1년에 총 18시간. 상당히 부족한 시간일 텐데, 보통 거기서 뭘 했나요?(아마도 시간이 적는데 서류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를 해명하라는 느낌이었다만 그 때 질문의 핵심을 잘 이해 못했음)

A2-2. 음~ 보통 국영수를 가르치기는 하지만,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 같이 놀아주고? 그러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Q3. 그렇군요. 봉사활동.. 봉사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고등학생이 봉사활동을 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A3. (속으로 조금 당황하고 봉사활동 고정멘트 말함) 네. 제가 생각하는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 다양한 것들을 배워나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지만, 저는 봉사활동을 통해 저와 다른 조건에 처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지역의 장애인복지원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그 분들을 알아가고,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이해하고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Q4. (본인 말 끝나자마자 가로채는 듯이) 그러면, 봉사활동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A4. 그... 우선 그 봉사활동을 하는 그 자리를 공급해줄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이겠지요...? 예를 들어 거리에 청소를 할 사람이 없으면 자원봉사자가 대신 하듯이...(이게 무슨 말이지. ㅋㅋㅋㅋㅋㅋ) 그리고 다른 이유라고 하면, 사람은... 나누고 사는 존재인데... 나누는 게 없다고 하면 그건 좀 바람직한 인간관계가 아닐 것 같습니다.(그분들 입장에서 상당히 멍청해보였을 것 같다.)

[자소서]

Q5. (웃음) 그 오믹스 기반으로 생체 컴퓨터 모델링 연구를 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군요. 조금 설명해줄래요?(본인 자소서 & 생기부에 시스템 생물학~ 생체 컴퓨터 모델링 내용 도배되어 있음)

A5. 네. 우선 오믹스는 생물 빅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유전자 단백질 이런거요. 의학이라는 것은 우선 매우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는 생체분자들의 움직임, 상호작용,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루는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완전한 시스템에 대한 이해 없이는,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해도 도중에 어떤 부분에서 부작용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따라서 의학에 있어 컴퓨터를 이용한 총체적인 인체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그냥 넘어감. 떠보기보다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신 듯)

[세특]

Q6. 그 1학년 때, 엑셀 프로그램으로 진화 과정을 설명했다고 나왔는데, 어떤 건지 조금 설명해 볼래요?

A6. 네. 과학시간에 진화에 대해 발표할 기회를 얻어 그런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정확히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대가 이어짐에 따라 유전자풀의 변화를 나타낸 실험이었습니다. 물론 당시 제가 유전분야에 대해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프로그램 사용이 미숙했기에 모자란 점도 있지만, 우선 간단하게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여러 개체들을 마련하고, 그 개체의 형질을 0~100의 숫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임의 개체들의 두 값의 평균값을 내어 자손세대를 만들고, 30~70 이외의 값은 버리는 환경조건을 마련하여, 가상 생태계에서 개체들이 안정화되는 과정을 묘사했습니다.(실제로 한계가 많은 실험이었다. 교수님들이 생기부에서 읽고는 우습게 생각할거라 생각해 나름대로 대비하였다.)

Q6-1. (웃음) 그러면 자신이 한 그 연구, 그 방법이 유효한, 그러니까 이치에 맞는 연구라고 생각하시는지?

A6-1. 네. 아닙니다. (웃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제가 유전..에 대해 자세히 알던 때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 실험에서는 간과한 점이 여럿 있습니다. 우선 저는 두 개체 형질 값의 평균을 내어 자손세대를 결정하였는데, 실제로는 두 부모 형질 평균값이 자손 형질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보다 복잡한 과정에 의해서, 자손 형질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돌연변이 등도 생태계 모델링에 있어 중요한 요소도 있는데 간과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조건에서 저는 30~70 값 이외는 무조건 죽은 것으로 했는데, 실제 생태계는 환경조건이 있더라도 이렇게 까다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허용공간이 마련 됩니다. 이러한 점들이 아마도 그 실험의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덤 (생기부 전반?)]

Q7. 국내외 논문을 많이 찾아 읽었다고 했네요. 맞나요? (A: ○○) 그 논문들을 주로 어디서 찾았나요?

A7. 네. 저희 학교가 그 논문 사이트 DBPIA와 계약을해서 마음대로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구글이나 이런 곳에 원하는 전문용어 검색하면 관련 논문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탐구활동에 필요한 연구 자료를 얻었습니다.

Q7-1. 그럼 최근에 읽었던 논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어떤 건가요?

A7-1. 네. 제가 최근에 읽었던 논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신경과학자가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논문이었습니다. 저는 ‘커넥툼, 뇌의 지도’라는 책을 읽으며, 서류를 작성하고 나서 최근... 까지도 컴퓨터 상에서 뇌 회로를 구축하면 뇌에 대해 모두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논문을 읽게 되고 나서, 현재 뇌를 연구할 때 이용하는 신경과학적 방법론들을 모두 동원해도 ‘뇌’보다 복잡성이 훨씬 덜한 트랜지스터 몇 백개로 이루어진 ‘컴퓨터 칩’조차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이 논문을 읽게 되고 나서, 과연 제가 생각했던 이러한 커넥툼? 이런 것이 실제로 가능이나

할까? 하는 회의가 들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인체도 이러한 방식으로 이해하려 했던 제 생각에 상당한 회의가 들었습니다.(이건 우연히 찾아 읽고 나서 실제로 며칠간 현자타임 가졌던 논문이라 술술 말했음)

[시간 남아서 나누는 대화]

Q8. 음. 그래요. 학생 지금은 물론 입시에 관심이 있겠지만, 이제 이런거 다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때 학업 이외에 뭐 다른 계획 세워둔 것 하나 있나요?

A8. 네. 제가 입시 이후에 계획한 것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Q8. (웃음) 아니, 여러 개 있어도 상관없어요.

A8. 네. 제가 계획해 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 살을 한 10kg정도 빼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매일 조깅하러 나갑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철판 아이스크림? 이런 걸 봤는데 상당히 재미있어보여서 한번 그 기술을 익혀보려 합니다. 나중에 축제나 이런 거 있으면 상당히 괜찮은 수입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말 왜 했나. ㅋㅋ)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어 공부도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러시아어?에 관심이 생겨서 기본적인 것들만 익혀두고 있는 상태인데(본인이 이 말 할 때 종이에 뭐 열심히 적고 있던 면접관분들이 일제히 나 뚫어져라 쳐다봄. 왜 그랬는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음), 이것 더 공부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Q9. 수고하셨습니다.

A9.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까 어떤 선배?가 설문지 나눠주면서 작성하라고 함. 처음에는 멀쩡한 설문이다가 후반부로 가면 ‘종교를 믿나요?’ ‘기독교와 성경에 대해 더 알아볼 의향이 있나요?’ 하는 질문들이 등장한다. 이후에 입시 사이트에서 알아보니 신천지라는 말도 있었다. 다행히 그 때 기지를 발휘해 본인 전화번호의 한 글자를 틀리게 적어놓았다. 여러분도 나름의 방법으로 잘 피해가기를...

유의 사항

써보니까 본인 기억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새로 알았다. 10분간의 내용이 극사실주의적으로 담겨있다. 아무튼 면접 내용은 됐고, 반드시 이것만 알아둘 것 - 서울대는 캠퍼스가 둘 있다. 관악캠퍼스, 연건캠퍼스.

“둘 중에 반드시 어떤 곳으로 가는지 확인하라.”

본인은 면접장에 8시 20분까지 도착해야 했는데, 본인은 7시에 택시를 타고(본인 탄으로 여유 있게)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그리고 내려는데, 주위에 아무도 없었다. 일찍 온 줄 알았다. 서울대에서 나눠준 약도에서 본대로 정문에서부터 길 따라 갔는데 의과대학 건물이 안 보인다. 뒤늦게 내린 곳이 관악캠퍼스라는 것을 알았다. 본인은 서울 지리를 모르고, 잠시 잠을 청하고 있던 상황이라 경황이 없었다.

뒤늦게 다른 택시를 잡았다.(이 또한 천운이었다. 토요일 아침 7시. 인적 없는 캠퍼스 내에 무슨 일로 바로 앞에 택시가 드나들겠는가? 하지만 이 날은 가히 다르다고 하겠다.) 당시 시각 7시 40분. 앞으로 데드라인 40분, 네비게이션에 뜨는 예상시간 47분. ‘때려칠까?’ ‘오토바이 퀵서비스? 그런거 불러야 하나?’ ‘아까 그 택시 아저씨는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지?’ 이런 생각으로 시간을 때웠다. 하도 본인이 초조해하니까 기사님이 과속을 많이 해주셨다. 그렇게 네비게이션 예상시간은 점점 줄어들었고, 8시 10분쯤 되니 시간도 많이 줄어들어서 예상시간 8분.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8시 18분, 연건캠 정문에서 내린다. 바로 뚝다. 설의 과잠 입은 사람들이 교문 앞에 모여있다. “어? 애 온다!” 그리고는 미리 봉지에 싸서 준비하신 듯한 과자를 나누어 준다. 멘토스, 킷캣, 빈츠, 캐러멜 이런 것들이었다. “아직 안 늦었어요! 면접 잘 봐서 후배로 만나요!” 예과 선배님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손으로 대문을 만들고 파이팅 해주는 ceremony를 한바탕 벌였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하고 과자를 받고 바로 뚝다. 홀에서 대기하고 있던 교수님이 수험표와 민증을 확인하고는 본인을 위로 올려보낸다. 올라가며 들은 말인데, 본인이 신원확인 받은 이후에 건물 문은 곧바로 닫혔다. 8시 19분에 정확히 도착했던 것이다.

지금 생각해도 상당히 소름끼친다. 3년간의, 아니 10여 년간 쌓아온 노력이 한 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혹여나 관악캠에서 본인 바로 앞으로 택시가 안와서, 정문까지 걸어 나가 택시를 잡았다면, 아마 그 2분의 지연으로 면접장에 결코 들어가지 못했으리라.

아무튼 본인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혹은 이보다 더 빠곳 미끄러져 암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전날에 면접을 응시할 캠퍼스를 방문하고, 그곳이 시험장이 맞는지를 확인하라. 또한 의예과 지원자들은 관악캠이 아닌 연건캠에서 시험을 응시한다.(올해 기준이고, 혹여 이후에 바뀔 수 있으니 그 점을 유의하라) 두 캠퍼스 간의 거리는 상당히 멀다! 차로 40분 이상 걸린다. 따라서 숙소를 얻을 때에도, 절대로 관악캠 근처에는 얻지 마라. 아침에 상당히 후회하는 수도 있다. 또한 택시기사님들이라고 해도 서울 지리는 완벽하게 모를 수 있다. 따라서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라. 여러분 미래가 달린 일이다. 가벼이 여기지 마라.

본인이 이 높은 벽을 뚫고 합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을 후배로 만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예과 처음 들어와서 뿔뿔하게 생긴 남자 있으면 본인으로 알고 이 책을 보여줄 것. 최혜우를 보장하겠다.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서울대학교	인문	인류학과	학생부종합 (지역균형전형)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자리가 배정되면 배정된 자리에 앉아있다. ○그 후 번호 부르면 2명씩 올라간다. ○그리고 내 앞 친구가 나오기를 기다린다. ○그리고 나서 나오면 내가 들어간다.			
면접 내용				
순서는 뒤죽박죽입니다.				
Q. 자율 활동을 보면 난민 관련 활동을 했다는데 그 난민과 연관되어 자신이 한 활동은 무엇이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나요?				
A. 동아리의 JIMUN 활동을 통해서 난민 인권과 관련한 많은 사항을 다룰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난민 수용과 관련해 편견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친구들과 난민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선행조사를 거치고 이후 카드뉴스를 제작해 친구들에게 알렸습니다. 다시 한 번 퀴즈를 한 결과 개선된 모습을 보고 난민 뿐만 아니라 다문화 인식 개선 프로젝트로도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Q. 3학년 통틀어 어떤 리더활동을 하고 어떤 식으로 변화할 수 있었는지?				
A. 3학년 반장 활동을 예시로 설명함. 이를 통해서 ‘가장 작은 것부터 행하라’라는 말처럼 저의 주변에 있는 것부터 탐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주변을 탐구하며 불편한 점을 수렴하고 함께 개선해나가는 협응심과 리더십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Q. 전교생 토론 프로그램 아고라를 통해 자신이 기른 자질?				
A.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자세가 중요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들으며 답이 없는 활동이다 보니 이들 간의 의견 일치도가 아닌 수용하고 함께 논의를 거치는 과정을 배울 수 있었다.				
Q. 그러면 아고라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다 참여하는 것인가?				
A. 전교생 참여는 아니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자신이 관심있는 분야에 참가하도록 합니다.				

Q. 다문화 가정 인터뷰를 실시했는데 이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했는가?

A. 다문화 가정 인터뷰를 통해 다문화 정책의 한계점을 파악하려고 논의했다. 다문화 법이 제정된 지 채 5년 밖에 되지 않았으며 다양한 나라에서 왔지만 이들에게 있어 확실적인 문화 적응만을 강요하는 정책을 파악했다. 향후 이를 통해서 의회에 건의 또한 이루어내었다.

Q. 의회에 건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나?

A. 일단 저희 지역에 건의문을 올렸다. 뿐만 아니라 sns를 이용해 시민 등의 의견 수렴 조사서를 첨부해서 메일로 보내드렸다.

Q. 어떤 책이 자신을 인류학자로 이끌었고 이 책을 읽고 자신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은지?

A. 저의 꿈을 인도한 책은 ‘오래된 미래’입니다. 이렇게 길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끝.

유의 사항

사실 제가 인류학에 인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교수님들이 이 책 정도만 물어보시고 꼬리질문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면접관에게 자신이 3년 동안 보고 배우고 느낀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서울대학교	인문	인문계열	학생부종합 (지역균형전형)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 Q1은 남자 교수님 Q2는 여자 교수님 ○ 인문광역이라 교수님들 전공은 가리지 않음 ○ 남자 교수님 자료만 보면서 하심			
면접 내용				
<p>Q1. 서울대학교 인문광역에 와서 하고 싶은 공부가 뭐예요?</p> <p>A. 저는 문학의 세계화를 목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학을 다른 나라에 전파하려면 그 나라의 언어, 역사, 철학 등을 총체적으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나라 문학을 공부하고 싶고, 인문광역 학부 중 아시아언어학부에 관심이 있습니다.</p> <p>Q1. 독어독문학과는 관심 없어요?</p> <p>A. 아, 물론 있습니다.</p> <p>Q2. 아시아언어학부에 관심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p> <p>A. 학부 설명에 언어 공부를 바탕으로 총체적인 인문학 공부를 한다. 라고 되어있기 때문입니다.</p> <p>Q2. 아~ 특정 아시아 지역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니구여?</p> <p>A. 네. 그렇습니다. 하핫!</p> <p>Q1. 독어독문학과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던가요?</p> <p>A. (어리바리하며) 하핫!</p> <p>Q2. 자소서를 보면 토론을 시나리오로 각색하는 등 극문학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극문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와 극문학만의 장점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자소서 기반 질문)</p> <p>A. 네, 말씀하신 것처럼 토론을 극문학을 바꾸면서, 그리고 윤동주 시인의 시와 소설을 읽고 뮤지컬을 보면서 관심이 생겼습니다. 뮤지컬만의 생동감과 배우들의 연기와 청각적 효과가 청중들에게 호소력 있는 것이 극문학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p> <p>Q1. 동아리 활동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뭐예요?(생기부 기반 질문)</p> <p>A. 네. 저는 문학읽기 동아리에서 소설 모나코를 실존주의 관점으로 비평해본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3학년이라 시간이 빠듯해서 실존주의 철학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틈틈이 시간내서 알려주는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p>				

Q1. 음? 생기부에는 안 적혀있는데 따로 활동을 한 건가요?

A. 네? 자소서에 적혀있습니다만.

Q1. 음? 뒤적뒤적 음 그래여 어쨌든(찾다가 시간 부족한 듯)

Q2. 실존주의 철학은 수업시간에 배운 건가요?

A. 네. 그렇습니다.

Q2. 모나코 작가가 누구이고 실존주의적 측면에서 비평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생기부 기반 질문)

A. 네?(당황하며) 작가요?

Q2. 아, 당황하지 말구요. 모나코는 어느 나라 문학인가요?

A. 우리나라 문학입니다.

Q2. 아? 그래요? 그럼 됐어요. 그럼 실존주의 철학으로 접근한 이유는요?

A. 네. 주인공이 노인인데, 보통 생각하는 노인의 이미지와 달리 매우 성욕적이고 활동적인 모습이 자신의 모습을 주체적으로 살고자 하는 내면의 욕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Q2. 문학의 무용함에 대해서 토론해 보았다고 생기부에 나와 있어요. 무용한 것의 유용함에 대해 설명해 줄래요?(생기부 기반 질문)

A. 문학은 부나 명예 등과 비교했을 때 무용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용함 때문에 유용한 것이 인간을 억압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런 점에서 문학은 유용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용한 것의 유용함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어려워 보이지만 생기부에 있는 거라 쉽게 대답할 수 있었음)

Q2. 슬구 작가의 우물 밖 여고생을 읽고 주체적인 삶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체적인 삶을 살게 되었나요?(자소서 4번 질문)

A. 완전히 주체적인 삶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수험생활을 하면서 제가 읽고 싶은 책을 읽거나 한 달에 한 번 영화를 보았습니다.

Q1. 예. 독일 문학. 데미안 읽었는데...(앞에 말 기억이 안 난다. 뭐라고 중얼거리심..)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고 대목 말고 기억에 남는 장면 있어요?(교수님이 물어보고 싶은 질문)

A. (당황) (하지만 내색하지 않으며) 네 싱클레어와 데미안이 만나서 데미안이 카인에 대해서 옹호적인 즉 기독교 교리에 대한 반향적인 논쟁을 벌인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어떤 기존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다르게 생각해보자는 의견이 인상 깊었습니다.

Q. 네. 수고하셨습니다.

A. 네? 벌써요?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의 사항

인문광역을 쓴다는 것이 가장 큰 변수라고 생각한다. 인문광역에 다양한 학과가 있기 때문에 어떤 교수님과 면접을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면접 건물에 들어가서 독어독문학과 교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면접 준비 시간 동안 예상 질문을 생각해 보았다. 데미안 질문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고, 새가 알에서 깨고 나온다 답하려고 했는데, 그거 제외하고 말해보라고 해서 당황했다. 하지만 미리 한번 책 내용을 생각해봤기 때문에 답할 수 있었다. 질문 옆에 달아 놓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대부분 생기부, 자소서에서 누구나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들 물어봤다. 면접으로 등락을 좌우하겠다는 질문 수준은 아니었다.

남자 교수님은 거의 서류만 쳐다보면서 하셨다. 대신 여자 교수님은 공감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셨다. 아마 대부분 면접은 여자 남자 교수 1명씩일 텐데, 여자교수님에게 의지하면서 하세요. 그게 정신적으로 편할 겁니다.

인문광역 쓰는 친구들은 면접가기 전에 면접 장소 어딘지 알 수 있다. 거기서 교수님 전공 알 수 있다면 알려고 노력해 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면접 건물 2번이었고, 그 건물 전공 분야가 영어영문학, 독어독문학, 언어학과였고 그중 독어독문학과이었던 것이다. 미리 예상 질문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면접 준비일 것이다.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부종합 (지역균형전형)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 오후 조-1시~1시20분까지 입장 ○ 1시 50분부터 두 조가 모인 대기실에서 각 조 한명씩 불림 ○ 3시부터 브레이크 타임(30분 정도) ○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서 면접			
면접 내용				
<p>들어가자마자 인사</p> <p>나.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면접번호 ~입니다.</p> <p>교수1, 교수2. 하하, 마지막인걸 알고 있네. 시작해볼까?</p> <p>나. 네.</p> <p>[질문들]</p> <p>Q. 꿈이 프로파일러네?</p> <p>Q. 사형제도에 대해 어찌 생각하는지?</p> <p>Q. 사형제도 폐지 근거를 말해볼래요?</p> <p>Q. 고유정, 이춘재도 인권이 있는가?</p> <p>Q. 사형폐지해서 살인자가 사회에 다시 나가서 범죄를 저지르면 어쩔거?</p> <p>Q. 범죄자의 뇌와 일반인의 뇌의 차이점은?</p> <p>Q. 선천적으로 뇌가 이상하다면 이에 대한 방안은?</p> <p>Q. 범죄자가 치료를 거부할 시에는 어떻게 할 건지?</p> <p>Q. 프로파일러가 왜 자유전공와서 이과공부를 해야 하는가?</p> <p>Q. 혐오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p> <p>Q.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표현 또한 허용되어야 하는가? 이를 해결할 방안은?</p> <p>Q. 혐오표현이 시작되는 사회구조적인 모순의 예시를 들어보게.</p> <p>Q. 남자들은 극단적인 여자들 일부에게 메갈, 워마드라고 하는데 여자들은 싸잡아서 한남충이라고 하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해 어찌 생각하는지?</p>				
유의 사항				
<p>마지막 번호여서 3시간 반 넘게 기다렸음. 오래 기다리는데 지칠 수도 있으니 유의. 답변에 있어서 꼬리질문만 나오다가 시간이 다갈 수도 있음. 꼬리질문을 유도하는 답변을 하면 유리할 듯. 시간 남은 거에 따라 밖에서 노크해주는데 잘 체크하고 대답하길. 수고.</p>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서울대학교	인문	정치외교학부	학생부종합 (지역균형전형)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 사회과학대학 정문으로 입실 후 대기실 이동 ○ 대기실에서 수험번호 부착된 자리 착석 ○ 면접번호 확인하여 자기 순서 올 때까지 대기 ○ 면접 순서가 되면, 면접 고사장 앞으로 이동 ○ 고사장마다 앞에 대기용 책상 3개에서 대기 ○ 면접은 총 10분, 종료 1분전에 노크			
면접 내용				
<p>들어가니까 작년 면접 후기에서 본 것과 달리 회의실 같은 방이었어요! 남자 교수님 2분 앉아계셨어요. 한 분은 외교학전공(왼쪽), 한 분은 정치학전공(오른쪽)</p> <p>답변 미화 상당합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떨고 훨씬 더 긴장했었어요.</p> <p>A. 안녕하십니까. B22번입니다!</p> <p>Q(정치). 마지막 순서네요? 너무 긴장하지 말고 먼저 지원동기부터 말해볼까요?</p> <p>A. 저는 외교관이 되어 대한민국을 더 나은 국가로, 우리 국민들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만들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화에 따라 국가 간 상호의존성이 심화되고 국제 관계는 다원화, 복잡화되고 있습니다. 덩달아 많은 국제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그 국제 분쟁이 국민의 삶에 갖는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국제 정치와 국제 분쟁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한일 무역 분쟁과 미중 무역 분쟁과 같은 현재 우리 국가가 맞이한 분쟁들 또 앞으로 맞이할 다양한 분쟁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국제정치학도가 되고 싶습니다.</p> <p>Q(정치). (생활과 윤리 세특 보시고 말씀하시는 듯 / 미리 질문 준비가 안 되어서 그런지 질문하시는 데 전반적으로 시간이 좀 걸렸어요.) 여기 보면 본인의 약소국 지원관에 대해 발표하면서 롤스, 노직 굉장히 다양한 학자들에 대해 같이 공부한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볼래요?(질문이 전체적으로 모호한 느낌이 강했습니다.)</p> <p>A. 일단 저는 저의 약소국 지원관에 대해 생각하면서 노직의 자선적 관점과 롤스의 의무적 관점에 대해 먼저 배우고, 둘 중에 의무적 관점이 제가 생각하는 원조의 개념에 보다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칸트의 의무론적 입장, 사람은 목적 그 자체로 대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접하고 나서는 약소국 지원이 의무로서의 성격이 강해야 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롤스의 약소국에 대한 원조는 해당 약소국을 질서 정연한 사회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단순한 재정적 지원은 약소국에 더 이상 힘을 보탬 수 없으므로 보다 실제적인 지원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p>				

Q(정치). 그러니까 약소국 지원관에 대해서 롤스의 의무적 관점, 칸트의 의무론적 입장, 노직의 자선적 관점을 이해하고 그중에서 의무적 관점을 채택했다는 뜻 같은데 의무적 관점과 자선적 관점이 가진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잘 조화시켜서 상호보완적 관점으로도 볼 수 있지 않나요? 의무적 관점 이렇게 한 가지 관점만 고집할게 아니라...(사실 이 질문 받고 좀 당황했어요.)

A. 물론 약소국 지원관에 대한 두 입장 모두 존중해야 하고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세계화로 인해 국가 간의 빈부격차는 점점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약소국들이 강대국의 발전 상황을 조금이라도 따라가려면, 4차 산업혁명까지는 아니어도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강대국들이 의무의 관점으로 약소국 지원을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Q(외교). 그렇다면 그러한 본인의 약소국 지원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A. 그와 관련해서 제가 정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가 개발경제학이라는 분야입니다. 그 중에서도 뒤플러라는 학자의 연구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요.(여기서부터 뭔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ㅋㅋ) 뒤플러라는 학자는 무작위 대조 실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떠한 제도를 실행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약소국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 낼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예를 들어 예방주사라는 지원에 대한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콩 두 파운드와 같이 개개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했을 때 가장 참여율이 높았습니다.(잠깐 멘탈 붕괴) 그러니까 저는 강대국들이 약소국을 지원할 때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단순한 재정적 지원이 아니라 이제 약소국 국민들의 빈곤 구제(?)를 위해 실질적 지원과 같은 방법을 참고하고 또 계속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정치). 그래요. 이제 저희가 준비한 질문이 또 따로 있어서 이상국가에 대해서도 많이 활동을 했네요. 고전소설에서 이상국가에 대한 고민을 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 한 번 해볼래요?(이것도 질문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고 생각했음)

A. 이상국가에 대한 활동을 진행하면서 주로 친구들은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를 활용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우리 조선사회 또 유교적 이념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괜찮은 이상국가의 개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능 지문으로 많이 공부했던 홍길동전과 허생전(허생전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굉장히 더듬거렸음)에 등장하는 국가를 비교하고 또 유교의 대동세계의 개념을 친구들에게 소개했더니 친구들이 굉장히 인상 깊어 했습니다.

Q(정치). 그래서 유교의 이상국가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A. (여기도 황설수설) 일단 유교의 이상국가는 대동세계라는 기념을 기반으로 합니다. 대동이라는 말은 크게 하나로 같다는 뜻으로, 조선 사회를 비롯한 당대 국가는 군주라는 절대적 지배자가

있어 군주를 비롯한 각각의 계층이 스스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사회의 통합과 화합을 지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생 안정에 힘쓰는 국가, 복지에 힘쓰는 국가 등 다양한 국가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Q(외교). 음. 그러면 방금 말한 그 내용을 아까 말한 본인의 약소국 지원관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이 이야기한 유교적 이상국가관이 국제 사회 속에서 어떤 식으로 발현되고 또 가치 있게 쓰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A. (답변 기억 안남)

Q(정치). 보니까 3학년 때 반장도 하고, 학생회장도 했는데 학생이 생각하는 학교의 가장 큰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A. 저는 학교나 교육의 가장 큰 목표는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전인적 국민,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학생들을 학교 내에서 지도함에 있어 무작정 잘못을 나무라기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선도하고 잘못된 행동이 있다면 최대한 교화하려고 노력하며 모든 학생이 학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외교). 그러한 생각을 학생이 주인되는 학교라는 슬로건으로 실천하고자 한 거구요. 맞죠?
(생활기록부에 적혀있던 내용인데 찾아서 언급해주셔서 감사 & 당황)

A. 네. 그렇습니다!

Q(외교). 그러면 그거 학교 생활 속에서 실천한 내용이나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볼래요?

A. 저는 학생회장으로서 진행했던 위안부 기림의 날 캠페인이 가장 인상깊었습니다. 학생들의 제안으로 시작된 아이디어에서 저 역시도 추가적인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캠페인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며 SNS 마케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그 활동이 활동으로 그냥 끝났던 것이 아니라 이후 위안부 할머니께 수익금을 전달해드리고 사회적으로도 기여할 수 있었기에 가장 인상깊었던 것 같습니다.

1분 남았다는 노크 / 외교학 교수님이 갑자기 옆에 있는 자료를 넘기시더니 제 점수를 A,B,C 중 하나로 기입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뭐였는지는 모르겠네요.

Q(정치). 네, 학생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해 보세요.

A. 저는 맹자가 이야기한 번덕스러운 세상이라는 개념을 참 좋아합니다. 맹자는 세상을 변화무쌍해서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또 그다지 일관되지도 않는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이 변화무쌍의 개념이 앞으로의 국제사회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 사회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게 빠르게 변화하여 혼란할 것이고, 그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혼란은 가중될 것입니다. 저는 이 변화무쌍한 국제 사회 속에서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합리적이고 융통성 있게 제시하는 외교관이 되겠습니다!

Q(정치). 네, 수고했어요. 나가보세요.

A. 감사합니다!

유의 사항

보통 면접 한 조당 12~13명 정도 배정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가장 마지막 순서에 걸려서 세네시간 대기했어요. 준비해간 자료 보다가 지쳐서 막판에는 소지품 미리 챙겨두고 멍 때렸습니다. 하하. 주로 세특에서 많이 물어보시고 열심히 준비해간 시사상식 관련 내용과 책은 물어보질 않으셨네요.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교수님께서 계속 제 답변을 유기적으로 연결 지으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면접실 들어가기 직전에는 속으로 계속 지원동기랑 마지막 한 마디 준비했어요. 질문 몇 개 기억 안 나는 것도 있네요.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명	계열	모집 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서울대학교	자연	조선해양공학과	학생부종합 (지역균형전형)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8시 15분까지 입실! 대기실에 같은 과 친구들과끼리 모여서 면접 시작 전 까지 가져온 자료나 전자기기 사용가능함 ○9시 되면 전자기기 수거 및 자료 가방에 넣어서 제출해야함 ○면접 순서는 접수 번호와는 무관하게 배부 받음			
면접 내용				
<p>Q. 카르만 와류에 대한 내용이 가득한데 카르만 와류가 뭐죠?</p> <p>A. 카르만 와류는 ~입니다.</p> <p>[생기부에 기록된 내용으로 개념에 대한 확인 질문]</p> <p>Q. 카르만 와류를 왜 깊이 알아 본거죠?</p> <p>A. 교과시간에 생긴 호기심을 바탕으로 연구하다가 ‘여러 조건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유체학적 현상’이라는 주제로 탐구하던 도중, 이에 관련하여 조사하면서 자연스럽게 카르만 와류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활용해 배의 저항을 줄이려고 연구했습니다.</p> <p>Q. 그러한 선박 구조가 효율성이 있다면 쓰이지 않았을까요?</p> <p>A. 아직 그러한 기술이 발전하지 못해 활용하지 못한 것 같기 때문에 과에 입학해 연구해보고 싶습니다.</p> <p>Q. 다른 사람은 이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p> <p>A. (당황하자 교수님이 웃으시면서 넘어감)</p> <p>Q. 뒨플 현상은 뭐죠 그럼?</p> <p>A. 뒨플 현상은 ~입니다. <생기부에 기록된 내용으로 개념에 대한 확인 질문></p> <p>Q. 뒨플 현상을 이용했더라도 배의 저항을 줄일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카르만 와류를 이용한 것이죠?</p> <p>A. 배의 스크루의 위치를 이유로 들어서 카르만 와류가 더 낫다고 대답함</p> <p>Q. 빗물 여과기는 실제로 만든 것인가요?</p> <p>A. 적정기술에 알게 되어 스펀지와 물통을 이용해 간단하게 제작해보았습니다.</p>				

Q. 빗물 여과기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요?

A. 진흙과 돌을 거르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끝남

유의 사항

면접을 본다는 생각보다는 교수님이 바로 앞에 있어 카페에서 얘기한다는 느낌이 들었음. 질문을 하다가 의구심이 들면 바로 공격하시기 때문에 아는 것을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것이 중요함. 의외의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자신의 생각을 얘기해주면 됨.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서울대학교	인문	지리교육과	학생부종합 (지역균형전형)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실에서 면접 번호를 따로 부여받습니다. 전자기기는 제출해야 하고, 자료는 볼 수 없었습니다.○ 호명되면 면접 도우미 분과 함께 면접 장소 앞으로 이동합니다. 의자가 놓여있어 앉아서 대기했습니다.○ 생각보다 교수님들과 면접 학생 간의 거리가 멀었습니다. 4~5m 되었습니다.○ 생기부 기반 질문에, 꼬리질문이 있습니다. 자신이 한 활동과 그로부터 얻은 점 등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면접 내용				
<p>Q. 문화지리학이라는 책을 읽었네요. 문화지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p> <p>A. 책 내용에서는, 한 지역이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 그리고 현재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지리란 인간이 자연환경에 적응하며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p> <p>Q. 그럼 한국문화지리 책에서 흥미롭게 읽은 부분이 있나요?</p> <p>A. 네. 제가 흥미롭게 읽은 부분은 전동성당의 위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복궁 앞 조선총독부 건물로 조선인의 민족의식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주교 순교자가 첫 순교를 한 장소에(여기서 말 절었음) 성당을 지어, 천주교 신자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이 부분은 강자들, 혹은 건물의 건립자들이 왜 이 건물을 이 위치에 지었는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p> <p>Q. 한국사 학습 동아리를 했네요. 무슨 활동을 했고,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나중에 지리교사가 되었을 때 어떻게 수업해야겠다고 생각했는지를 말해주세요.</p> <p>A. 아침 한국사 학습 동아리는, 중국에서 전학 온 조선족 친구가 한국사를 배울 때 특히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그 친구를 돕고자 만든 동아리입니다. 초반에는 선생님의 수업 복습과 예습 중심의 학습을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원하는 것은 단지 수업 내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중국과는 다른 우리나라의 역사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토의하는 것으로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차후 지리교사가 되었을 때, 학생 서로 간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한 주제에 대해 학생들이 서로 토의하며 수업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p>				

Q. 홍콩 사태 아시죠? (네.) 홍콩 사태를 학생들에게 어떻게 수업할 것인지 이야기해 주세요.

A. 일단 홍콩 사태는 정치적인 사안이라, 수업시간에 쉽게 다루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선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홍콩 사람들의 입장을 말해준 후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중국 사람들의 주장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 후 학생들이 자신의 견해를 정리하여 친구들과 서로 토의할 수 있는 학생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Q. 3학년 독서와 문법 시간에 대동여지도에 대해 발표했네요? 대동여지도를 평가해 보세요.

A. 대동여지도는 우선 우리나라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든 현실적 지도입니다. 또한 지도표를 이용하여 이 장소에 읍치가 있는지 혹은 봉화, 봉수가 있는지를 표현하였습니다. 하지만 토지 이용을 밝히고 있지는 않아 한 지역이 논으로 사용되었는지, 밭으로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대동여지도가 분첩절첩식(말 더듬음 冊)으로 사용되어 사람들의 교통과 이동이 편리해졌다는 점에서 대동여지도의 의의를 찾고 싶습니다.

Q. 비슷한 맥락에서, 세계지도를 평가해 보세요.

A. 세계지도에는 관념적 지도가 있지만, 대동여지도와 비슷한 현실적 지도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배운 지도는 프톨레마이오스 지도와 메르카토르 지도입니다. 두 지도는 지구를 평면 위에 표현하였습니다. 특히 메르카토르 지도의 경우, 유럽이라는 강대국들이 약소국을 침략할 정당성을 부여한 지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도는 항해도로 이용되었고, 극지방으로 갈수록 지도에 왜곡이 심화되었고 강대국의 생각이 투영된 지도입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서, 지도를 볼 때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후 지리교사로서도 학생들이 지도를 볼 때 비판적이고 분석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싶습니다.

Q. 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A. 물론 지리와 교육 둘 다 중요하지만, 저는 지리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리는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지리를 잘 알지 못하는 국가 지도자가 물의를 일으킨 사건을 많이 보았습니다. 반면, 국가의 위치를 잘 파악한 경우도 보았습니다. 스위스의 경우 네 개의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는 약소국이었지만 그들의 관계적 위치를 잘 파악하여,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지리가 교육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의 사항

아침에 차가 많이 막힐 수 있습니다. 사범대 면접을 가시는 분들은 정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기숙사 삼거리에서 3분만 걸으면 면접 건물에 도착할 수 있으니 그 길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학명	계열	모집 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서울대학교	예체능	체육교육과	학생부종합 (지역균형전형)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 8시 15분까지 입실 ○ 전자기기 반납 및 모든 자료 가방에 넣고 기다리기 ○ 대기 번호(가번호)에 따라 면접 기다리기 ○ 면접하고 귀가			
면접 내용				
<p>Q. 서류 기반 면접이니 이 안에서만 물어볼 테니 긴장하지 마세요. 자, 3학년 생활과 윤리 시간에 스포츠 행정가의 입장에서 인권을 공부했다고 이 경험이 학습으로서 지닌 의의를 본인이 했던 노력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p> <p>A. 윤리 시간에 인권의 개념을 교과서 위주로 배웠기에 저의 장래희망인 스포츠 행정가의 입장에서 스포츠 속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학습권 침해 문제 등을 조사했습니다. 관련 기사 등의 자료와 더불어 학생선수 시절에 제가 느꼈던 문제점을 토대로 문제점을 모색했고 이를 정리하며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관심 있던 분야를 통해서 교과 개념을 확장하여 공부함으로써 학습의 깊이를 더할 수 있었습니다.</p> <p>Q. 학생선수를 고등학교 1학년까지 했다고 하는데 왜 그만두고 전학을 오게 되었습니까?</p> <p>A. 엘리트 축구선수로 활동하면서 엘리트 스포츠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는 스포츠 정책가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선수로서의 큰 비전도 보이지 않았다는 점, 이외에도 가정 상황 등이 제가 학업에 전념하게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p> <p>Q. 적응하면서 어려움을 없었나요?</p> <p>A. 올바른 학습 방향에 관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전학을 오게 됨으로써 적응해야 하는 친구 관계 등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반 단합 활동을 많이 주신해 주셔서 친구들과 금방 친해질 수 있게 되었고 상담을 통해 여러 가지 학습 방법을 설명해 주시면서 제가 학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도움으로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p> <p>Q. 그럼 지원자가 느끼기에 현재 엘리트 스포츠가 어떤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까?</p> <p>A. 우선 학습권 침해로 인해 중도 탈락하는 이들이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과 더불어 학업에 충실하면서 받을 수 있는 인성 교육을 받지 못함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엘리트 스포츠 성폭력, 입시 비리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불어 입상 실적 위주로 진학해야 하는 구조가 승리 지상주의의 지도방식을 낳으며 여러 문제를 낳는다고 생각했습니다.</p>				

Q. 그렇다면 지원자가 생각하기에 스포츠 정책에 있어서 어떤 구조가 가장 이상적입니까?

A. 생활 스포츠 문화의 확산으로 탄탄한 기반을 이룬 상태에서 엘리트 스포츠에 필요한 인재들이 공급되는 구조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스포츠가 지닌 가치의 측면에서 승리 위주가 아닌 스포츠를 통해서 배워야만 하는 소통, 협력 등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지도방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불어 학업에 충실한 엘리트 선수들을 육성함으로써 이 선수들이 훗날 진로를 전환했을 때 현장 경험과 이론적 지식을 토대로 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Q. 지원자는 공부도 잘하면서 운동도 잘하는 선수가 아예 없다고 생각합니까?

A. 일반화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압니다. 실제로도 운동하면서 공부도 잘하는 선수들도 일부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학습권 침해를 언급한 이유는 학업을 통해서 교과 지식 등의 개념을 학습함으로써 세상에 대한 안목을 넓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사색하는 연습도 함으로써 교양을 갖춘 사회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는 만능인처럼 훌륭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Q. 가장 공부하면서 어려웠던 과목과 재미있었던 과목은 무엇입니까?

A. 국어 과목이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긴 글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긴 글을 도식화하는 방법과 더불어 관심 분야의 책을 읽으며 구문을 분석하는 연습을 통해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Q. 앞서 스포츠가 지닌 가치 중 승패보다도 소통, 협력이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왜 자신이 좋아하는 팀이 이기는 것을 좋아할까요?

A. 깊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승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가장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Q. 그럼 엘리트 선수들이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경기장 내에서는 승리를 위해서 선의의 경쟁을 펼쳐야 하지만 건강한 스포츠맨십을 바탕으로 이후에는 서로를 존중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의 사항

가장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 잘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왜 사람들은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을 좋아할까?’ 등의 질문들 말이다. 또 서류 기반 면접이기 때문에 예상 질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류에 있는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storytelling 기법 활용: 동기 → 과정 → 결과 → 변화 혹은 느낀 점) 내면화시키는 작업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즉, 서류에 대한 이해도를 충분히 높이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인 것 같다. 이번 면접을 통해서 서류에 대해 이해도만 높인다면 생각이 정리되어 있으므로 어떤 질문이든 잘 답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끝으로 실전 면접을 하면서 자신의 발화 태도, 눈빛 등을 개선하는 노력이 동반되면 금상첨화인 것 같다. 순서에 따라 면접을 기다리면서 다른 지원자들에 대해 신경 쓰이겠지만 ‘내가 최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면접에 임하면 될 것 같다.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서울대학교	자연	치의학과	학생부종합 (지역균형전형)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 8시 30분까지 입실 완료 ○ 4조로 나누어 조별로 한 명씩 면접실 입실 ○ 종료 1분 전 알림소리			
면접 내용				
Q. 자기 소개를 1~2분 동안 해주세요.(참고로 말투는 모두 순화되었습니다.) A. 준비해간 자기소개 + 지원 동기				
Q. ○○○라는 동아리의 회장이었는데, 이 동아리가 어떤 동아리인지 설명해 주시고, 회장을 맡는 동안 어려웠던 점과 극복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A. 동아리 활동 간단히 설명 + 프로젝트에서 어려웠던 점과 극복한 방법				
Q. 자소서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책을 읽었다고 쓰여 있는데, 4차 산업혁명에서 치과의사의 전망이 어떨 것 같나요? A. VR → 교정 치료, 3D 프린터 → 맞춤형 보형물·치아 제조, AI 딥러닝 → 연구 활성화 가능 등을 근거로 치과의사는 발전할 직업				
Q. 미생물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혹시 기억나는 잇몸주머니 속 미생물이 있나요? A. 방선균, 연쇄상구균, 진지발리스균 등				
Q. 가장 궁금한 건, 지원자가 왜 치의학과에 지원하였는지 인데요, 구강과 신체의 건강과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잇몸주머니와 건강이 구체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다는 건가요? A. 잇몸주머니 → 소화 기관계의 출발점, 혈관 등을 통해 미생물이나 독소가 퍼지며 다른 기관으로 침투 가능 ex) 간암, 당뇨병 등 구강미생물에 대해 공부하여 신체 질병을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싶다고 말함				
유의 사항				
서울대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과 독서활동을 잘 물어본다고 알고 있었는데, 저의 경우는 전혀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진로’에 대해 물어본다는 느낌이었고, 무엇보다 자소서만 보고 물어보신 것 같아요. 생기부가 모두 의예과 쪽으로 쓰여 있어서 그런지, 왜 치의학과에 지원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계속 베이스로 깔고 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 분이 열심히 질문하시는 동안 옆에 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호응해 주셔서 그나마 긴장이 덜했던 것 같습니다. 서울대 지역균형 면접을 갈 때 가장 주의할 점은 신분증과 수험표를 제외한 어느 것도 면접 대기 중에 지니고 있을 수 없다는 점이에요. 대신 영화와 다과를 준비해 놓으셔서 지루하지는 않습니다. ^^ 지역 균형은 학생부의 진위 판단을 하거나 인성을 체크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는 것이니, 크게 걱정하지는 말고 긴장만 하지 않으면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대학명	계열	모집 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서울대학교	자연	컴퓨터공학부	학생부종합 (지역균형전형)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8시까지 면접 대기실 입실 ○면접번호 부여받고 전자기기 제출(면접 순서는 1조 2조 3조 순이 아니라 각 조의 1번이 동시에 봄) ○대기실에서 본인 자료 볼 수 있음 ○면접실 들어가기 전에 노크하고, 들어가면서 가번호 말하라고 다 정해주셨음 ○시간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끝나기 좀 전에 노크, 끝나면 문이 열림			
면접 내용				
<p>Q. (자소서) 단순 베이즈 분류가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에 이용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용되나요?</p> <p>A. 주로 스팸 메일 분류기 등에 이용되는데, 특정 단어가 들어있을 때 이 문서가 스팸일 확률을 구해서 0.5보다 크면 스팸 메일로, 0.5보다 작으면 일반 메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p> <p>Q. 베이즈 정리가 여기에 어떻게 이용되나요?</p> <p>A. 베이즈 정리는 A일 확률*A일 때 B일 확률, 그리고 B일 확률*B일 때 A일 확률이 같다는 것인데….</p> <p>Q. 네, 공식이 그거죠.</p> <p>A. 네, 여기서 세 가지 확률을 알면 다른 한 가지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스팸메일 분류기를 예로 들면, 특정 단어가 들어있을 때 스팸일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p> <p>Q. 단순 베이즈 분류는 그냥 베이즈 분류랑 비교해서 왜 단순 베이즈 분류일까요?</p> <p>A. 단순 베이즈 분류는 각 특성들이 독립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단순 …이라고 부른다고 알고 있습니다.</p> <p>Q. 특성이라고 하면 한 번 예를 들어줄래요? 아까 스팸메일 분류기라고 하면 특성이 뭐가 될까요?</p> <p>A. (조금 당황) 특성은 메일에 특정 단어가 들어갈 확률인 것 같습니다.</p> <p>Q. 메일에 각 단어가 들어갈 확률이 서로 독립이라는 거죠? 실제로는 이 단어가 들어가면 저 단어가 들어갈 확률이 커지고 그러는 건데, 이걸 독립이라고 가정한다는 건가요?</p> <p>A. (확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p> <p>Q. 이걸 어떻게 공부하게 됐어요?</p> <p>A. 비문학 지문을 읽다가 베이즈 정리가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에 이용된다는 글을 읽었는데, 어떻게 활용되는지 궁금해져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 논문 등을 찾아 읽었고, 단순 베이즈 분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p>				

Q.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A. 단순 베이스 분류를 찾아보면서 논문도 공부를 하게 됐는데,

Q. 오 논문까지 찾아봤어요?

A. 아, ㅎㅎㅎ 그... 공부까진 아니고 논문을 읽어봤는데 조건부 독립 같은 말들이 저는 처음 들어보는 말인 것 같아서 처음에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Q. 음~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독립을 배웠을 텐데, 그 독립인 사건에 이제 조건이 주어졌을 때도 독립이 성립하나요?

A. (처음에 조건부 독립 설명해주시나? 했는데 갑자기 질문이어서 좀 당황 + 몰라서 고민) 아...

Q. (바로) 어이쿠,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다. ㅎㅎㅎ 넘어갈게요.

Q. 고등학교 생활 중에 뭐 기억에 남는 동아리나 봉사활동 있나요?

A. 나눔엔 우리가 제일 이라고 다문화 봉사 동아리를 했는데.

Q. 나눔엔 우리가 제일?

A. 아 학교 정규 아니, 자율 동아리입니다.

Q. 아~ 학교 동아리?

A. 네, 주로 어린 아이들을 놀아주거나 학습을 도와주는 봉사였습니다. 그 활동을 하면서 처음에는 제가 어린 아이들을 대하는 게 서툴러서 걱정을 했는데,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뭘지 고민하면서 매주 뭘 할지를 고민했습니다.(이 뒤에 더 말할 게 있었는데 ㅠㅠ)

Q. 오. 매주 봉사를 했으면 굉장히 많이 했겠네요. 이거를 1, 2, 3학년 내내 한 건가요?

A. 아 1, 2학년 때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기간이나 일이 있을 때는 못했고요.

Q. 3학년 때는 보통 봉사를 많이 안하나?

A. 3학년 때는 보통 동아리를 나가는?

Q. 아 나가요? 허허허허.

A. 하하하.

Q. 봉사하면서 특히 기억에 남는 아이가 있나요?

A. (문 똑똑 하는 소리 나서 되게 급하게 말함) 다른 아이들은 보통 말을 잘 했는데, 아직 말을 하지 못하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못하니까 소통이 잘 안 될 줄 알고 걱정했는데, 다른 아이들보다 표정도 풍부하고 저를 굉장히 잘 따랐어요. 그래서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깨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횡설수설)

Q. 아, 그럼 그런 봉사하면서 아이들을 대하는 기술이라던가 뭐가 늘었나요?(말하려는데 문 열려서 감사합니다 하고 나옴)

유의 사항

자소서 관련해서 물어보시는데, 이미 자소서에 적힌 내용을 물어보셨고 내가 자소서에 적은 활동을 정말 했는지 확인하려고 하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음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서울대학교	자연	화학생물공학부	학생부종합 (지역균형전형)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 큰 대기실에서 전체 대기하면서 면접 번호(가번호)랑 순서 부여 받음 ○ 복도에서 잠깐 대기 후 면접실 앞 복도에서 대기 ○ 면접실 들어가서 면접 후 개별 퇴실			
면접 내용				
<p>Q. 수학 세특을 보니까 황금비에 대해 탐구했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탐구했나요?</p> <p>A. 먼저 황금 분할의 정의, 그리고 거기서 나온 황금비의 정의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그 후 솔방울이나 해바라기에서 황금비를 찾아보고 친구들의 얼굴에서 여러 부분의 길이를 직접 재보고 비율을 계산하여 황금비에 가까운지 알아보기도 했습니다.</p> <p>Q. 피보나치 수열과 황금비는 어떤 관계가 있나?</p> <p>A. 피보나치 수열은 앞의 두 항을 더한 값을 뒤의 항으로 갖는 수열입니다. 이 규칙으로 수열을 진행시키고 앞의 항과 뒤의 항의 비율을 계산해보면 황금비에 점점 가까워집니다.</p> <p>Q. 사소한 것들의 과학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건 어떤 책인가요?</p> <p>A. 사소한 것들의 과학은 옥상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사진에서 금속, 거품 등과 같은 여러 재료를 찾아내고 그 재료의 쓰임 구조 등을 쉽게 설명한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 에어로겔과 같은 흔하지 않은 소재에 대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p> <p>Q. 이 책의 단점 같은 건 없었나?</p> <p>A. 아무래도 쉽게 설명하려다 보니 그림이 간결해졌고 오히려 그 간결한 그림이 설명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p> <p>Q. (아마 질문 타이밍을 놓치셨나봄) 그 황금비라는 게 아무래도 서양 중심적이지 않아?</p> <p>A. 서양 중심적이라는 게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p> <p>Q. 외계에서 ET가 내려왔다고 생각해봐. 그 ET랑 서양 사람들, 동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황금비가 과연 같을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p> <p>A. 탐구할 때는 그런 생각까지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잠깐 생각해보면 황금비가 수학적으로 말고도 사람들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비율인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ET는 물론이고 서양과 동양에서도 황금비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양과 서양은 사람들의 체형이 다르고 그에 따른 미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p>				

Q. 본인의 장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우선 장점으로는 집중력이 굉장히 좋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좋아하는 분야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단점은 쓸데없는 생각이 많다는 것입니다.

Q. 그럼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A.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잘 기억이 안 난다. 답변 중에 2분 정도 남았다고 노크함

Q. 마지막으로 인상 깊었던 봉사활동 있는지?

A. 저는... 하는 순간 면접 종료

유의 사항

우선 대기하는 중에 생각보다 긴장이 많이 된다. 큰 대기실에서는 학생부, 자소서 등 자료를 최대한 많이 보고 복도랑 면접실 앞에서 대기할 때는 심호흡 하면서 긴장을 푸는 게 중요한 것 같다.

면접실 들어가면 원탁하나에 교수님 2명이랑 둘러앉아서 면접을 보는데 거리가 가까워서 오히려 친근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긴장이 더 풀리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대체로 답변에 대해 교수님이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시기도 한다.

Part 4. 서류 기반 면접 사례 [서울대학교(기회균형선발특전형 I)]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서울대학교	자연	간호대학	학생부종합 (기회균형)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면접시간: 10분 / 면접위원 수: 2명 ○면접절차: 대기실 → 면접 바로 전 순서가 되면 복도에서 대기 → 면접			
면접 내용				
Q. 지원동기 말씀해볼까요?				
A. 저는 도서벽지에서 살면서 열악한 의료 환경 속 의사라는 꿈을 꾸었지만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도서벽지 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의 개선이었습니다. 올해 초 A형 B형 독감이 학교에서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도서벽지 지역의 열악함을 몸소 느껴 의료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정책을 만드는 의료정책전문가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 입학하여 의료관련 전문 지식을 배운 후 보건대학원에 진학하여 의료정책을 전공하여 실질적인 정책을 만드는 의료정책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Q. 그러면 생각해 본 정책 있어요?				
A. 저는 도서벽지 지역 의료서비스의 문제점이 지리적 고립뿐만 아니라 의료진 또한 고립되어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시와 도서벽지의 의료진의 로테이션과 같은 정책을 생각해보았습니다.				
Q. 간호사 돼서 사용할 수 있는 자신의 장점?				
A. 저는 배움을 좋아하고 공부를 좋아하기 때문에 간호대학에 입학해서도 공부하는 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의사소통 능력 또한 뛰어나기 때문에 환자와 그리고 간호사 동료, 동료 의료진들과도 원활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Q. 자신에게 영향을 준 책을 한 권 골라 그 책을 읽고 변화된 점과 간호사가 되어 어떻게 적용할 건지 한 번 말해보세요.				
A. 저는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가 라는 책이 가장 저에게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제가 읽어봤던 의료관련 도서와는 달리 뇌질환 환자가 치료받고 정신적인 문제 또한 극복하는 과정을 다룬 책이었습니다. 저는 치료뿐만 아니라 옆에서 정신적인 도움 또한 줄 수 있는 간호사라는 직업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간호사가 되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는 말을 못했어요.)				

면접 내용

Q.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한 번 말해볼까요?

A. 네.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책에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책의 저자 또한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은 후 저는 그 답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저 또한 정의란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내리지 못했지만 상황에 따라 정의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상황에서는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Q. 수능 잘 봤어요?

A. 네. 제가 노력한 만큼 잘 본 것 같습니다.

Q. 공부하기 어려웠을 텐데 잘했나 봐요?

A. 네. 공부를 좋아하기도 하고, 인터넷 강의를 통해 공부하면서 도시지역의 친구들 못지 않게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도서벽지 지역에서 산 것이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Q. 동아리 활동 한 거 뭐있어요?

A. 생명과학 동아리와 RCY의료봉사부와 CPR동아리를 했습니다.(더 말하고 싶었는데 기억이 안나서 여기까지만 말했어요.)

Q. 자신의 단점이 있다면 무엇이고 그와 관련된 경험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극복할 건지 한 번 말해보세요.

A. 하나의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성격이어서 목표 이외에 것에는 소홀히 하는 것이 저의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러한 점 때문에 친구와의 관계가 소홀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때 공부를 잠깐 쉬면서 제 주변을 돌아보게 되었고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다가가 손을 내밀었고 원만한 관계로 회복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간호대학에 입학해서도 동료 의료진과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목표 이외의 주변에도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Q. 학교에서 공부하기 어려웠던 것은 어떻게 공부했나요?

A. 저희 학교가 특히 과학 쪽 선생님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화학을 배우고 싶었지만 화학 선생님이 계시지 않아 온라인 교육과정을 통해 화학을 공부했습니다.

Q. 다 간호 썼어요? 여기 말고 또 어디 썼어요?

A. 저는 고루고루 의료관련 과로 썼습니다.

면접 내용

Q. 의료관련으로 꿈을 정했을 때 주변 지인이나 가족들의 반응 어땠어요?

A. 처음에 의료관련 꿈을 꾸었을 때는 부모님이 많은 공부량 때문에 걱정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공부를 좋아하고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할 거라는 저의 진심을 전했고 그 후로는 부모님이 격려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Q. 주변 지인이 아파서 병원에 간 적이나 그런 경험 있나요?

A. 네. 저희 할머니께서 올해 여름에 갑상선암으로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병문안을 가게 되었는데 의사는 진단과 치료만 하는 반면 환자와 가장 가까워서 자주 만날 수 있는 간호사라는 직업에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Q. 어제 서울 왔어요? 배타고 버스타고?

A. 네. 어제 서울 왔습니다.

Q. 서울 자주 와요?

A. 아니요. 자주 오지는 않습니다.

Q. 시간 남았는데 자신 어필해 볼까요?

A. 저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따라서 간호대학에 입학해서도 체력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간호부문이 의료정책분야의 중심에 서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 입학하여 저의 궁극적인 목표인 의료정책전문가를 이 자리에서 이루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어필을 좀 더 말할 걸 약간 아쉽네요.)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서울대학교	자연	건축학과	학생부종합 (기회균형)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면접시간: 10분 / 면접위원 수: 2명 ○면접절차: 대기실 → 면접 바로 전 순서가 되면 복도에서 대기 → 면접			
면접 내용				
<p>(인사) 안녕하십니까?</p> <p>Q. 지원 동기가 뭔가요?</p> <p>A. 저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저에게 가치 있는 삶이란 좁게는 자신에게 떳떳할 수 있고 넓게는 다른 사람도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삶인데, 건축이라는 학문이 예술과 기술이라는 제 관심사를 동시에 충족하고 건축물이라는 구체적인 실체로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p> <p>Q. 건축 중에서 예술과 기술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특히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요?(정확히는 기억 안남)</p> <p>A. 저는 분명 예술과 기술적인 부분에도 관심이 있지만, 특히 인문학적인 부분에 관심이 있습니다.</p> <p>Q. 구체적인 인문학 개념을 함께 설명해주겠어요?</p> <p>A. 현대 물질문명 사회 속에서 기술이 발달하며 인간이 인간을 대면하는 것이 줄어드는 인간 소외 현상을 건축으로 해결하고 싶습니다.</p> <p>Q. 그러한 사례 설명(정확히 기억 안남)</p> <p>A. 서울의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의 경우, 지면과 지하 옥상을 매끄럽게 연결하여 건물의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여 사람들의 왕래를 늘리고, 이를 바탕으로 소통을 활발히 하였습니다. 저도 이렇게 소통을 늘리는 건축을 하고 싶습니다.</p> <p>Q. 요즘 회사 공간도 개인적인 업무 환경보다는 탁 트인 개방적인 업무 환경으로 바뀌고 있는데, 본인이 할 건축은 어떻게 소통을 늘릴 것인지?</p> <p>A. (당황해서) 네. 저도 그러한 탁 트인 공간을 설계할 것입니다.</p>				

면접 내용

Q. (다시 한 번 질문하심) 본인만의 설계 방안을 말씀해주세요.

A. 현재 실현되고 있는 계획일 수 있는데, 저는 학교나 아파트와 같이 펜스로 막혀 있는 폐쇄적인 공간을 개방적으로 설계하여 지역주민과 그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소통을 늘릴 것입니다.

Q. 건축과 관련하여 의미 있게 학습한 교과목이 있나요?

A. 저는 수학과 물리를 학습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물리를 통해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에 대한 학습을 하였습니다.

Q.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A. 과학 창의성 대회에서 트러스 구조를 이용한 구조물을 설계 후 제작하였습니다. 종이 3장으로 한정된 재료로 치수를 재면서 작은 여러 삼각 구조물을 만들었고, 이 구조물들로 탑을 만들었습니다.

Q. 인문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학습하지 않았나요?

A. 아, 인문학적인 부분은 교과 학습보다는 토론과 같은 쌍방향 학습과 독서활동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Q. 슬로시티에 대한 본인의 관점이 무엇인가요?

A. 제 학교 소재지를 예로 말씀드리면, 현재 슬로시티가 상업화된 시설 때문에 그 특성을 잃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택과 돌담길과 같은 슬로시티만의 공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폐건물과 같은 사람들의 환심을 사지 못할 요소를 재생 레노베이션 하여 환심을 살 수 있도록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하시는데 10분이 다 돼서 퇴장해야 했음)

(인사) 감사합니다!

[유의사항]

생기부 기반 면접이라고 하더라도 생기부보다 내 경우처럼 그냥 일반적인 학과 관련 내용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자신이 미래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고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나는 다소 구체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중간에 질문에 당황하는 경우가 생겼다.) 또, 생각보다 면접관님들이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니까 마음 편하게 대기하고 자신감 있게 면접에 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서울대학교	자연	기계항공공학부	학생부종합 (기회균형)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면접시간: 10분 / 면접위원 수: 2명 ○면접절차: 대기실 → 면접 바로 전 순서가 되면 복도에서 대기 → 면접			
면접 내용				
<p>Q. 꿈이 무엇인지 물어보심</p> <p>A. 준비한 지원동기 약간 변형해서 말씀드림</p> <p>Q. 꿈이 상당히 구체적인데 어떻게 그런 분야를 알게 되었는지 물어보심</p> <p>A. 1학년 국어 세특 변형해서 말씀드림</p> <p>Q. 본인이 특별히 생각한 공학적 아이디어가 있는지 물어보심</p> <p>A. 생기부에 쓰여 진 내용 외에 고등학교 생활 동안 책에서 읽은 내용에서 파생해 말씀드림</p> <p>Q. 어떤 과목을 가장 좋아하는지 물어보심</p> <p>A. 물리, 왜냐하면 항상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근본적인 원인을 탐구했기 때문임. 예를 들어 무게추에 작용하는 중력과 장력을 예로 들어 말씀드림</p> <p>Q. 물리학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한 내용?</p> <p>A. 파동에 대해 관심 있다고 말씀드림</p> <p>Q. 파동이 적용되는 분야 말해보세요.</p> <p>A. 전자파의 송수신(스마트폰 통신)에서 사용된다고 말씀드림</p> <p>Q.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고 물어보심</p> <p>A. 자신감 넘치고 눈치 빠른 사람이 되고 싶다고 답함. 학창생활뿐 아니라 미래 공학도가 되어서도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림</p>				

면접 내용

Q. 그렇다면,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데 있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지 말해보라고 하심

A. 직접적으로 나타내기 전에 물리, 수학적으로 계산해보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에서 파생해 말씀드릴

Q. 면접이 끝나고 남은 애매한 기간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물어보심

A. 지금 읽고 있는 책에서 아이디어를 정리할 것이라고 답변하고, 농구하면서 다이어트 하고 싶다고 말씀드릴

[유의사항]

- 떨지만 얹으시면 진심으로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화이팅!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서울대학교	인문	농경제사회학부	학생부종합 (기회균형)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 면접시간: 10분 / 면접위원 수: 2명 ○ 면접절차: 대기실 → 면접 바로 전 순서가 되면 복도에서 대기 → 면접			
면접 내용				
<p>Q. 학생 인상이 굉장히 좋네.</p> <p>A. 감사합니다.(웃음)</p> <p>Q. 학생, 인상이 굉장히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서울대 2번째 지원인가?</p> <p>A. (당황) 아니요, 첫 번째입니다.</p> <p>Q. (옆에 계시던 면접관분께서) 학생 인상이 좋아서 그러셨나봐요. 긴장하지마요.</p> <p>A. 네!</p> <p>[면접 시작]</p> <p>Q. 학생이 3학년 때 동아리로 원서독해반을 했네요. 이곳에서 읽은 책이 있는데 이 책과 동아리 내에서 활동을 연관지어서 이야기해주세요.</p> <p>A. 영어 성적은 우수했지만 작문에 어려움을 겪었음. 세특에 적힌 책을 읽고 영어로 독후감을 작성하면서 작문 실력이 향상함</p> <p>Q. 책 줄거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점을 이야기 해줄래요?</p> <p>A. 책 줄거리는 친구간의 우정에 관한 이야기임. 평소 열등감이 단점이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다른 친구들을 진심으로 응원해줄 수 있는 태도를 기를 수 있었음</p> <p>Q. 그럼 동아리 활동이 영어 작문에 도움이 되었나요?</p> <p>A. 영어로 독후감을 작성하면서 도움이 되었음</p> <p>Q. 학생은 그럼 3년 내내 같이 동아리 활동을 한 친구가 있나?</p> <p>A. 문과 학생이지만 1,2학년 때는 수학동아리, 과학 동아리에 참여하여서 3년 내내 함께 동아리에 참여한 친구는 없음</p>				

면접 내용

Q. 자소서에 경제 관련 책 중에 ‘괴짜경제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과 그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A. 미국의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답안지를 고치는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음. 경제는 원인과 결과가 중요시 되는 학문이라고 생각함. 이 부분에서 내가 생각했던 원인과 실제 원인이 달라 기억에 남았음. 또, 경제는 인센티브가 중요시 되는 학문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선생님들의 인센티브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면서 읽었다고 말함(준비한 질문이었지만 말하면서 굉장히 황설수설함.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음. 그리고 교수님께서 ‘원인과 결과? 허허허’ 웃으셨는데 나도 이유를 잘 모르겠음)

Q. 학생이 농경제사회학부에 지원을 했는데, 지원동기가 어떻게 되죠?

A. 지역의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인해 지역 농가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음.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농촌의 고질병인 농가부채 해결 방안 모색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어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고 싶어 지원하게 됨

Q. 무슨 농작물의 가격이 폭락했는지는 모르겠지만(웃음), 농산물가격폭락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A. 농산물 가격 폭락의 원인으로는 한국농수산물공사에서 제공한 예상 가격과의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함(교수님: 가격 차이가 많이 났나 보네요? 나: 네! 차이가 많이 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차이 났는지 말해도 좋았을 걸)

Q. 세특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조사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주세요.(사실 어느 과목의 세특인지 면접관님의 목소리가 작아서 잘 들리지 않았음. πππ)

A.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모색했음.(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신 건 아닌 것 같음. 교수님께서도 ‘아니, 그 부분이 아니라 그래요.’ 하시면서 다음 질문하심)

Q. 자료를 참고했다고 나와 있는데 자료의 출처가 어디예요?

A. 한국농촌경제원의 ‘4차 산업혁명~’ 자료를 참고함

Q. 자, 그럼 학생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죠?

A. (진짜 당황해서 실제로 적은 것보다 훨씬 더듬거리고 자신감 없이 말함) 3차 산업혁명과 달리 지식이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면접 내용

Q. 4차 산업혁명과 3차 산업혁명의 차이점은 뭐죠?

A. (머뭇거리고 자신감 없이 그냥 자신감 있게 말할 걸) 지식 부분이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함

Q. 그럼 스마트팜이 도시와 농촌에 쓰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해주세요.

A. 도시에서는 에어로팜, 메트로팜과 같이 식물공장이 쓰일 수 있음. 실제로 이를 체험하고 카페와 연결하여 농업이 발전할 수 있음. 농촌에서 스마트팜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함(방안에 대해서 말하라고 했는데 대체 저 말은 왜 했는지)

[유의사항]

서울대 전에 다른 대학교에서도 면접을 봤지만, 내가 했던 답변이 가장 마음에 들지 않았던 면접은 바로 서울대 면접이었음

여러분은 열심히 준비해서 절대 저같이 후회하지 마세요.

기균전형 같은 경우에는 사람 수가 얼마 되지 않아서 대기실에서 조금 대기하다가 바로 면접에 들어감. 아무리 늦어도 1시간 안에는 면접이 끝난다고 생각하면 될 듯~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서울대 면접을 포함해서 어떤 면접을 가든지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고 생각하고 면접에 임하면 되니까 절대 긴장하지 말길!

나는 긴장을 하지 않았음에도 왜 저렇게 면접을 보고 왔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6시 10분에 면접장에 도착했는데, 부모님 차를 주차해야 한다면 입실 시간보다 좀 더 이르게 가서 주차하는 것이 좋을 듯. 좀 늦으면 주차할 곳 찾기가 굉장히 힘들 듯~

인터넷에서 면접 후기를 찾아보면 교수님과 거리가 굉장히 가까웠다는 이야기를 많이 봤는데, 내가 면접을 봤던 곳은 면접관님과 거리가 좀 있었음. 그러니까 면접 준비할 때 자세 바르게 유지하는 연습도 하면 좋을 듯~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은 자신감을 잃지 마라임. 나는 면접 때 기억이 벌써 흐릿해졌지만, 처음에는 자신감에 차서 이야기를 하다가 점점 자신감을 잃고 작게 말하고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던 것 같음. 아무리 자신이 준비하지 않고, 생각해보지 않은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임한다면 충분히 좋은 인상을 남겨줄 수 있다고 생각함

말이 많이 길어졌지만 내년에 서울대 선후배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서울대학교	자연	바이오시스템 · 소재학부	학생부종합 (기회균형)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면접시간: 10분 / 면접위원 수: 2명 ○면접절차: 대기실 → 면접 바로 전 순서가 되면 복도에서 대기 → 면접			
면접 내용				
<p>넓은 강의실 같은 곳에서 면접을 봤고, 작년과 달리 면접자 앞에 책상이 놓여 있었어요. 교수님과의 거리는 꽤 있었고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니다. 그리고 한 질문 속에 여러 질문을 하셔서 정확히 어떤 질문을 하셨는지 복기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지만 맥락은 비슷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p> <p>질문 순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ㅎㅎㅎ</p> <p>Q. 미적분 2 교과시간에 포스터 그리기 활동을 했네요. 공부도 하면서 그림도 그렸나봐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었고 활동을 통해 무엇을 알게 되었나요?</p> <p>A. 미적분 2 교과 시간에 배운 수학적 원리를 이용하여 포스터에 자유로운 주제로 표현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저는 평소 로봇과 기계에 관심이 많아서 드론이나, 3D프린터 등에 쓰이는 미분과 적분의 원리를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 활동을 하며, 이론이 실제로 제가 공부하고자하는 분야에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깨닫고 공부의 진정한 동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p> <p>Q. 네. 이와 관련하여 자이로센서에 대해 탐구했다고 나와있는데 자이로 센서를 설명해볼래요?</p> <p>A. 네. 자이로센서는 물체의 회전각이나 기울기를 알 수 있어 물체의 움직임을 측정할 때 이용됩니다. 드론 같은 경우 안정적인 비행을 위해서 자이로 센서와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각속도와 중력가속도를 측정해 움직임을 보정하는 데에 쓰입니다.</p> <p>Q. MST동아리가 어떤 동아리고 본인이 참고했던 도서나 자료 중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이었으며, 이를 학습과 어떻게 연계할 수 있었는지 설명해 줄래요?</p>				

면접 내용

A. 주요활동은 로봇을 좋아하는 혹은 공학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끼리 모여 매주 학회지나 기사를 읽고 주제를 토론을 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저는 여러 자료 중 평소 의료용 나노로봇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논문을 읽고, 나노로봇의 현주소와 동향에 대해 친구들과 토론을 했던 경험이 가장 인상 깊습니다. 이를 더 많은 친구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어 3학년 생명과학 주제발표시간에 발표하고 이에 더해 추가적으로 대학교가서 나노로봇의 동력원에 대해 더 공부해보고 싶다는 제 포부를 밝혔습니다.

Q. MST가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A. 그 MIT에서 따온....

Q. 아, MIT 허허허. 그래요. 아니 무슨 의미인가 했었네. 지원자가 학교생활을 하며 본인이 힘들었던 경험을 말하고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말해줄래요?

A. 어떤 분야든지 상관없나요?

Q. 네.

A. (되게 평범한 질문이었는데 많은 것들 중 무엇을 말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고, 빨리 대답해야 할 것 같아서 자소서 3번 갈등관리 내용을 말함. 너무 아쉬움. 다른 것들도 많았는데 이런 것들 꼭 준비해가세요. ㅏㅏ)

Q. 4차 산업혁명과 식량산업을 읽었다고 나와 있는데 최근에 책일 텐데 읽었네요. 어떤 내용의 책이었고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A. 바이오 시스템 소재학부를 준비하며 관련 전공지식을 쌓기 위해 이 책을 찾아 읽었습니다. 책을 통해 스마트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갖출 수 있었고 특히 그 중 농업용 드론과 농장 자동화 시스템을 설명한 파트가 기억이 남는데 이를 기반으로 직접 저만의 스마트팜을 구상하고 설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던 책입니다.

Q. 지원자 본인은 농업과 관련해서 꿈이 있는 건가요? 뭐 지원동기 같은 거

A. 네. 제 꿈이 로봇공학자로 나와 있지만 더 큰 꿈은 국내 농업을 활성화시켜 생산력을 증대시키고 더 나아가 인류 식량난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현재 식량 자급률이 24%에 머무르고 지금처럼 수입에만 의존한다면, 미래에 식량이 무기화되는 시기에 국가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질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그동안 수많은 고민을 했고, 본과에 입학해 농장 자동화시스템에 대해 연구하며 일손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면접 내용

Q. 3학년 때 공돌이와 공순이 소그룹을 했는데 어떤 활동을 했고, 그 활동을 지금까지도 이어나가고 있나요?

A. MST 동아리와 같은 활동을 이어나가고 싶어 공학에 관심 있는 친구들과 함께 진로를 계획하거나 진로관련 기사를 탐색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수능이 끝난 후는 면접 준비를 다 같이 했고, 이제 면접이 다 끝나면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프로그램 언어를 배워볼 것입니다.

(똑똑)

Q. 1분정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못 다한 말이나 뭐 있으면 말해보세요.

A. 저 정말 서울대 오고 싶었습니다.(뒤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학업 계획을 말하고 의지를 보여주는 말이었다는 것 같음. 되게 간절하게 말했음)

[유의사항]

별다른 유의사항은 없습니다.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이름, 학교, 지역, 등 개인정보는 말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단정하게 셔츠에 니트를 많이 입고 오는 편입니다. 면접은 자신감입니다! 꼭 자신감 있게 후회 없이 면접을 잘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서울대학교	자연	산림과학부	학생부종합 (기회균형)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면접시간: 10분 / 면접위원 수: 2명 ○면접절차: 대기실 → 면접 바로 전 순서가 되면 복도에서 대기 → 면접			
면접 내용				
<p>* 미화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질문 순서가 다소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p> <p>나. (들어가서 의자 옆에서 인사한 후) 안녕하십니까? 10번입니다.</p> <p>Q. ‘지구사랑탐사대’라는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네요. 이름이 거창하네. (웃음) EARTH HOUR이라는 활동을 했는데, 왜 하게 됐는지, 참고한 책은 무엇인지 느낀 점은 무엇인지 말해주세요.</p> <p>A. 학교 생태지도 제작 활동을 하며, 대나무야자와 같은 멕시코 지방에 서식하는 종이 서식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 지역, 학교에도 기후변화문제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을 느끼고,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계자연기금에 관심이 있어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 보는 편인데 들어가 ‘어스 아워’라는 캠페인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뜻깊은 활동을 우리 학교에서도 참여하고 싶어 동아리원들과 함께 학교 내에 포스터를 부착하고 인증사진을 보내면 선물을 주는 캠페인을 열었습니다.</p> <p>저 혼자만 활동을 했더라면 이렇게 큰 효과를 얻지 못 했을 것인데 다함께 함으로써 큰 효과도 얻고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보람 또한 얻어서 공적 가치에 헌신하는 연구원이 되고자하는 저의 가치관을 더 또렷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p> <p>Q. 몇 명 정도 참가했나요?</p> <p>A.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참가해주셔서 많이 참가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3학년만 관리했기 때문에 3-40명 정도 되었습니다.</p> <p>(사실 더 많은데 왜 이렇게 말했나 싶어요. 떨렸나 봅니다.)</p> <p>Q. 자소서에 자신을 변화시킨 책들을 썼잖아요. ‘그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라는 책을 읽었는데 내용은 무엇이고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p> <p>A. 항일 운동을 하던 독립 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저는 윤봉길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가 인상 깊습니다.</p>				

Q. 그 이야기는 뭔데요?

A. 윤봉길 의사께서는 도시락 폭탄을 던지는 거사가 있으신 날에도 의연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고난이 닥칠 때 의연하게 제가 먼저 나서서 해결해가는 태도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Q. 책을 많이 읽었네요. 책을 본 후에 호기심이 생겨서 더 탐구를 한 경험이 있나요?

A. '생명공학 소비시대 알 권리 소비할 권리'를 읽고 GMO 식물에 관심이 생겨서 탐구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GMO가 가공돼 제조되어 표기가 잘 되지 않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에 관한 법률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GMO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궁금해 실험도 하였습니다.

Q. 어떤 실험을 했나요?

A. 서울대 청소년 농업생명과학캠프에 참여하여 GMO 작물에 관한 실험을 하였습니다.

Q. 환경생태학이라는 단어가 생기부랑 자소서에서 많이 보이는데, 환경생태학자가 되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A. 저는! 아, 환경생태학자요?

Q. (웃으면서 꼬덕여주심)

A. 좋은 점은, 아, 저는 환경이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을 통해 경제적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 인제지방의 자작나무숲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원래 소나무 숲이었는데 병충해로 인해 다 시들어버려 새로이 자작나무 경제림을 조성하였습니다. 자작나무 목재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생태 산업을 통해 지역 경제 또한 활성화되었습니다.
(환경이 미래니까 미래가 밝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주셨을 것이라 생각함)
나쁜 점은 환경과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는데 그 점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모호한 경계를 바로잡아야한다는 점이 힘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Q. 산림과학부에 지원했네요. 지원하게 된 동기가 있나요?

A. 서울대 청소년 농업생명과학 캠프에 참여하여 농생대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인 구달 박사님의 자서전을 읽으며 환경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생태학자가 되는 것을 꿈꿔 왔습니다. 평소 생태소식지를 구독하며 핵심 서식지 훼손 문제를 비롯해 숲 훼손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고 해결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서울대 산림과학부에서는 환경을 단순 자연으로만 보지 않고 사회과학, 생물학, 공학 분야로 나누어 학습하기 때문에 숲 훼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연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이곳으로 진로를 결정 내리게 되었습니다.(지원동기를 중간에 물어본 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했음)

면접 내용

Q. 학교생활 하면서 힘든 점은 무엇이 있었고 어떻게 극복하려 했는지 말해줄래요?

A. 치열했던 내신 경쟁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겨울이었는데 피어있는 목련 꽃봉우리를 보면서 나도 굳세게 견뎌내야지 생각하며 울었던 게 기억납니다. 자연에서 힘을 얻어 학교생활을 하다보니 하고 싶은 활동도 하며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Q. (아마 노크 소리가 들렸을 것임)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하려고 했는데 못 한 말 있으면 해보세요.

A. 자연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해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과 성장이 균형을 이루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합니다. 고등학교에서의 제 노력이 말해주듯 성실하게 노력할 자신 있습니다.

최종 꿈이 국립생태원과 세계자연기금에 들어가 봉사하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산림과학부는 이를 위한 징검다리가 되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너무 입학하고 싶습니다.

나올 때 앓은 상태에서 감사합니다, 한 번, 선 상태에서 한 번 더 하고 나옴

[유의사항]

모의 면접 캠프에서 모의 면접을 여러 차례 해본 것이 도움이 너무 많이 되었어요. 모의 면접하며 따로 면접 노트도 생겼고 6번 넘게 모의 면접 해보며 다양한 답변을 준비할 수 있었어요. 실전 면접에서 답변에 이리저리 끼워 맞출 수 있는 실용적인 조각 지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모의 면접 볼 때 선생님 피드백 놓치지 말고 흡수해서 가세요. 모의 면접 끝나자마자 개인 노트에 피드백 해주신 부분들을 써놓으면 기억도 잘 나고 좋아요.

대 학 명	계 열	모 집 단 위(학 과)	전 형(세 부 전 형)	등 급
서울대학교	자연	생명과학부	학생부종합 (기회균형)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 면접시간: 10분 / 면접위원 수: 2명 ○ 면접절차: 대기실 → 면접 바로 전 순서가 되면 복도에서 대기 → 면접			
면접 내용				
<p>Q. 3학년 때, 위상 기하학에 대해서 탐구한 내용이 있네요. 위상기하학이 어떤 것인지, 어떤 개념이 활용되는지 설명해볼래요?(들어가자마자 자기소개 이런 거 안 시키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심)</p> <p>A. 위상 기하학이란 ‘고무판 기하학’이라 불립니다. 보통 기하학이라 하면 직선, 뾰족한 도형이 생각나는데, 이 위상 기하학은 마치 고무판을 늘이고 줄이듯이 기하의 모양을 늘이고 줄입니다. 예를 들면 도넛과 머그컵이 위상기하학적으로 같은 도형이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위상 기하학의 본질은 현실에 존재하는 복잡한 도형을 가장 간단한 점과 직선으로 변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p> <p>Q. 그러면, ‘콰니히스베르크의 다리’문제에 대해 탐구했다고 썼는데, 이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요?</p> <p>A. 콰니히스베르크의 다리 문제는 한 마을에 7개의 다리가 있는데, 각각의 다리를 중복해서 건너지 않고서 마을을 모두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오일러라는 수학자에 의해 해결되었는데, 오일러는 복잡한 길과 다리의 모양을 위상 기하학적 개념을 도입해 점과 직선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 때, 한 점에 모이는 변의 개수가 짝수 개여야만 한붓그리기처럼 문제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여 콰니히스베르크의 다리 문제의 조건을 충족하는 방법은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p> <p>Q. 네, 그러면 화학시간에, 화학평형과 힘의 평형을 비교했다고 써져있는데, 뭐,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어요?</p> <p>A. 제가 화학평형의 개념을 배우고 힘의 평형과의 차이점을 질문했는데, 찾아보니 제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리 평형에는 힘의 평형과 돌림힘의 평형이 있는데, 저는 이 중 힘의 평형만을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화학평형과 물리평형 중 힘의 평형만을 고려하여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그러라고 하심) 화학평형은 가역반응과 비가역반응의 정도가 같아져서 실제로는 반응이 진행되고 있으나 겉보기에는 화학적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동적평형을 말합니다. 그러나 힘의 평형은 정적평형을 뜻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p>				

면접 내용

Q. 으음,(굉장히 흥미롭다는 눈으로 쳐다보심) 그러면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현상이 평행 상태일까요?(당황해서 다시 한 번만 질문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달이 지구를 등글게 공전하고 있는데, 이는 물리적으로 평행한 걸까요?

A.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달은 지구의 중력에 영향을 받아 원형으로 회전하는데, 이는 물리 평형 중에서도 힘의 평형과 돌림힘의 평형이 동시에 일어난 물리적 동적 평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네, 잘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HN 인재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하는데,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그리고 결과는 어땠죠?

A. HN 인재 육성 프로그램에서는 우리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생활습관을 가져야 학습 능력에 도움이 될까?’라는 주제로 탐구를 진행했습니다. 일단 결과를 말씀드리면, 수면 시간의 경우 5~6시간, 이런 식으로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에 국한된 실험이고, 피실험자도 얼마 되지 않았기에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라고 말씀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실험에서 마주치는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실험자들의 생활습관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생명 윤리는 어떻게 생각해야하는지를 배웠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끝남)

Q. 네. 잘 들었습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A. 감사합니다.

[유의사항]

생명과학부라고 해서 꼭 생명과학 질문을 하는 건 아님. 수능 끝나고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했던 건 정말 하나도 나오지 않았음. 하지만, 이 전형이 자연과학계열 광역 선발이다 보니, 자신의 전공은 알아서들 잘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흠을 잡으려고 일부러 전공 외 영역을 구체적으로 질문하신 것 같음. 그러니 면접 준비할 땐 전공에 비중을 조금 크게 두되, 정말 생기부에 세특이나 자율활동 영역 중 전공 외 영역도 반드시 한 번씩은 답변 정리를 해놔야함. 예상 질문을 정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해보는 게 정말 도움이 됨. 그렇다고 예상 질문이 나온다는 확률은 극히 드물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준비한 예상 답변 속의 소스를 활용해서 답변을 하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음

대학명	계열	모집 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서울대학교	자연	생물교육과	학생부종합 (기회균형)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 면접시간: 10분 / 면접위원 수: 2명 ○ 면접절차: 대기실 → 면접 바로 전 순서가 되면 복도에서 대기 → 면접			
면접 내용				
<p>Q. 생명과학2 시간에 역분화 줄기세포에 대해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p> <p>Q. 그럼 그 역분화줄기세포 연구 사례를 조사해보았나요?</p> <p>A. 네. 저는 역분화줄기세포를 이용한 파킨슨병 치료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파킨슨병은 도파민 생성뉴런의 부족으로 온몸이 떨리고 움직일 수 없게 되는 병인데요. iPS 세포를 이용하여 도파민생성뉴런으로 재분화 하도록 하였고 이를 뇌에 이식함으로써 iPS세포기반치료를 하였다는 연구를 조사했습니다.</p> <p>Q. 그것에 대해 어떻게 접하게 되었고 논문을 어떻게 읽어보았나요?</p> <p>Q. 화학 좋아하나요?</p> <p>A. 네.</p> <p>Q. 화학시간에 스테로이드에 대해 발표했는데 그 부작용에 대해 설명해주세요.</p> <p>Q. 자신은 생물교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p> <p>A. 저는 생물에 대한 지식을 그저 전달해주는 것이 아닌 아이들이 그 지식에 스스로 다다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자’라고 생각합니다.</p> <p>Q. 안내자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죠?(앞 답변에 대한 꼬리질문)</p>				

면접 내용

Q. 그럼 안내자로서 자신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앞 답변에 대한 꼬리질문)

A. 저는 끈기가 안내자로서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아이가 문제를 어려워하더라도 스스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이끌어주고 유도해 주기 위해서는 끈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아이들이(친구들이) 과학 많이 어려워하죠?

A. 네. 그렇습니다.

Q. 그럼 아이들이 과학에 흥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저는 우선 아이들이 과학에 흥미를 갖지 못하는 이유가 적은 수업시수에 비해 방대한 교과 지식의 양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업시간에 아이들이 왜 이러한 내용을 배워야하고 실생활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등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그저 그 지식에 대해 피상적으로만 배우게 되면서 깊이 있는 학습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는 결국 아이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를 낮추게 한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남과 동시에 밖에서 똑똑똑 함)

(면접관분들께서 하하 시간을 딱 잘 맞췄네요! 고생했어요! 하시길래 인사드리고 나옴)

(답변을 작성하지 않은 질문은 그저 지식적인 질문이거나 충분히 예상 가능한 답변이기에 적지 않았습니다.)

[유의사항]

전공에 대한 지식보다는 교사로서 자질이나 생기부 확인질문들을 더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서울대학교	자연	수학교육과	학생부종합 (기회균형)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면접시간: 10분 / 면접위원 수: 2명 ○면접절차: 대기실 → 면접 바로 전 순서가 되면 복도에서 대기 → 면접			
면접 내용				
<p>1번이었는데 들어가니 면접관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이 계셨음 앉으라고 하고 바로 질문 들어감 여자 면접관 Q1, 남자 면접관 Q2, 나 A (최대한 기억나는 대로 순서랑 맞춰서 쓸게요.)</p> <p>Q1. 뉴턴과 라이프니츠의 미적분에 대해 발표했는데 내용 말해줄 수 있어요? A. (2학년 미적분2 세트에 있는 거라 발표 내용과 느낀 점 말함)</p> <p>Q1. 자료 조사는 어떻게 했어요? A. 네이버 두산백과나 다른 사람의 발표 자료와 지식인을 참고했습니다.</p> <p>Q1. 그게 신뢰도 있는 자료라고 생각하나요? A. 100% 신뢰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는다는 용도로 사용하고 공통된 의견을 뽑은 후 검토하여 사용했습니다.</p> <p>Q2. 학생회 부회장을 했는데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A. 회장인 친구의 권유를 받아 생각해보게 되었는데 1학년 때 반장을 했을 때의 아쉬운 점과 경험을 살려 더 넓게 전 학생을 대상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활동하고 싶어서 출마하고 당선 되었습니다.</p> <p>Q2. 그럼 회장의 권유를 받은 것 말고 다른 이유는 없나요? A. 음.... 네.(바로 전에 설명했는데 회장의 권유로만 생각하는 건가 싶어서 아쉬웠음)</p>				

면접 내용

Q2. 나누미 동아리 활동을 하고 회장으로도 활동했는데 설명해주세요.

A. (활동이랑 느낀 점 발표함)

(뭔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남)

[유의사항]

전날 서울에서 자고 아침에 이동했는데 서울대 진짜 큼니다. 걸어가면 힘들 거예요. 들었던 대로 사범대 앞 선배님들 응원 수능 응원만큼 엄청납니다! 덕분에 힘 받고 들어갔는데 기균은 여러 학과들 한꺼번에 모아놓고 같이 해서 놀랐어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나 편미분 방정식이나 나비에 스톡스 방정식 같은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 많이 준비해갔는데 수학이랑 깊게 관련 있어 보이지 않은 두 가지 내용으로만 질문해서 아쉬웠습니다.

끝나고 나오면 자칭 생명교육과 선배라고 하는 사람이 설문조사 해달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대학교 오면 뭘 하고 싶은가요? 같은 내용이다가 점점 성경 얘기로 빠집니다. 이름이랑 번호 적으라고 하길래 제 이름이랑 번호에서 한 글자씩만 바꿔서 아예 못 알아보게 글씨 이상하게 적고 도망쳤습니다.

면접관분들은 딱히 친절하지도, 불친절하지도 않아요. 자기소개랑 지원동기 안 물어보더라도 더 많은 궁금한 것 물어보려고 그런다고 생각해요! 힘내요!

대 학 명	계 열	모 집 단 위(학 과)	전 형(세 부 전 형)	등 급
서울대학교	자연	식물생 산과 학 부	학생부종합 (기회균형)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 면접시간: 10분 / 면접위원 수: 2명 ○ 면접절차: 대기실 → 면접 바로 전 순서가 되면 복도에서 대기 → 면접			
면접 내용				
<p>Q. 2학년 자율동아리로 무엇을 하셨는지?</p> <p>A. 크게 생명과학학습동아리를 창체동아리로 들어갔는데, 여기서 두 자율동아리 생명과학실험, 생명과학토론 동아리로 나뉘어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생명과학토론동아리에서 지역 과학관을 방문해 뇌과학과 관련된 사이언스포럼에 참가했습니다.</p> <p>Q. 생명과학학습동아리... BLG라고 되어있는데...</p> <p>A. 아, 네네. 맞아요.</p> <p>Q. 다른 자율동아리 한 거 더 말씀해보세요.(이때까지도 2학년 동아리를 물어보는지 몰랐음)</p> <p>A. 저는 1학년 때 했던 관현악부인 칸타빌레라는 동아리활동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피아노 반주자로 활동을 했는데요, 2, 3학년에 올라와서는 학업에 더욱 집중하느라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한 점이 아쉬워서 대학에 입학해 관현악부가 있다면 더 활동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p> <p>Q. 아니. 그런 거 말고 교육봉사라든지. 뭐 그런 거</p> <p>A. 아! 2, 3학년 때 불타는 수업이라는 교육봉사동아리를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조직해서 지역 아동센터에서 영어 과목을 가르쳐준 경험이 있습니다. 수업을 저희가 직접 계획하고 해보면서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개성, 특성, 수준을 고려해 모두에게 맞는 수업을 하기 위해 얼마나 고민하고 노력하시는지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p> <p>Q. 수업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고려해 맞는 수업을 했나요?</p> <p>A. 저는 저희가 첫 번째 수업이 끝나고, 첫 번째 수업을 할 때에 비해 두 번째 수업에서의 학생 수가 절반이상 감소함을 알고 저희는 수업이 끝난 뒤에 익명으로 피드백 쪽지를 받아서 익명으로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적어달라고 저희가 부탁해 학생들에게 맞는 수업을 최대한 진행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p>				

면접 내용

Q. 학생들에게 맞는 수업을 어떻게 진행했나요?(구체적인 사례를 원한 듯싶은데 모르고 그냥 일반적인 답변해버림)

A.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학생들에게 맞는, 학생들이 요구하는, 원하는 수업을 진행하려고 한다.’라고 두 번째 수업 때부터 공지를 했었습니다.

Q. 과학적 탐구 방법이 뭔지 아세요?

A. 네?(5초 정도 정적) 연역적 탐구 방법이요?

Q. 네, 여기 보면 폴리페놀의 함량이 어쨌다고 적혀있는데, 실험을 수행할 때 방금 학생 분이 연역적 탐구 방법이라고 대답하셨으니까 그 과정 한번 말씀해보세요.

A. 어. 일단 실험하고자 하는 주제를 선정해야 합니다.

Q. (끄덕끄덕)

A. 그리고 실험을 통해 증명해내고 싶은 가설을 설정해야 합니다.

Q. 그렇지.(끄덕끄덕)

A. 그 다음 세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을 설계해야 합니다.

Q.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뭘 해야 되죠?

A. 일단 실험하고자 하는 실험군을 설정해야 되고 그 실험군과 대조하기 위한 대조군을 설정해야 합니다.

Q. 그건 어떻게 설정하죠?

A. 어. 조작변인을 설정해 실험군에만 어떤 조건을 처리하고 다른 조건은 모두 같도록 통제 변인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Q. 그리고 다음은?

A. 앞에서 설계한 실험들을 수행하면 됩니다.

Q.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지?

A. 어.(5초 정적)

Q. 반복이지

A. 아! 네네!

Q. 그리고 가설과 맞으면 끝, 아니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A. 네네!

Q. 자기소개서에… 4번 문항에 어떤 책을 작성하셨는지는 알고 계시죠?

A. 네네.

Q. 자기소개서 4번에 쓴 3개의 책이 무엇인지 말씀해보시고 그 세 책 중에서 자기소개서 4번의 책 중에서 하나 골라서 말씀해보세요.

A. 네. 저는 ‘어디서 살 것인가’, ‘Junk DNA’, ‘사피엔스’ 이 세 권을 작성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저는 ‘사피엔스’라는 책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름 생각해볼만 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Q. (약간 미소 지으시면서 관심 가지심.) 왜 생각해볼만 하다고 생각하셨는지?

A.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도 제 2장의 농업혁명 부분을 가장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저자 분께서는 계속해서 ‘농업혁명은 비극의 시작이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읽어나가며 계속해서 ‘농업혁명이 비극의 시작이라면.. 이를 다시 희극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농업혁명으로 인해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은 사실이고, 이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에서 제가 품종 개량에 관심이 있다보니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이나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가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Q. 앞으로 농업은 도시에서 일어날 것 같나요, 농촌에서 일어날 것 같나요?

A. 도시에서도 일어나고, 농촌에서도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더 말하려했는데 밖에서 노크 소리 들려서 당황해서 끊김)

Q. (5초 정적) 여기까지 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A. 감사합니다!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서울대학교	인문	역사교육과	학생부종합 (기회균형)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 면접시간: 10분 / 면접위원 수: 2명 ○ 면접절차: 대기실 → 면접 바로 전 순서가 되면 복도에서 대기 → 면접			
면접 내용				
<p>Q. 이 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부터 말해볼까요?</p> <p>A. 역사에 흥미를 느껴 역사라는 학문을 공부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알리고자 지원했습니다. 2학년 때 동아시아사 과목을 배우면서 사건들끼리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는 것에 흥미를 느꼈습니다.</p> <p>Q.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나요?</p> <p>A. 하나의 사건에 대해 각 나라들이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임진왜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입장에서~ 와 같이 국가별로 사건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것에 재미를 느꼈습니다.</p> <p>Q. 경험과 교육이라는 책을 읽었네요. 책을 읽고 난 후의 변화가 있다면?</p> <p>A. 네. 저는 교육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던 중 읽게 된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저는 교육을 학생들이 성장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p> <p>Q.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책도 읽었는데, 지원자에게 역사란 무엇인가?</p> <p>A. 그 책의 저자는 역사를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로 정의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에 영감을 받고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야 할 미래의 초안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p> <p>Q.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p> <p>A. 역사는 과거의 일어났던 일이 현재의 관점에서 해석되므로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여기서 횡설수설해서 잘 기억이 안 나요. ㅠㅠ)</p> <p>Q. 세계사를 수강했네요? 세계사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p> <p>A. 저는 세계대전이라고 생각합니다.</p>				

면접 내용

Q. 제2차 세계대전과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을 말해보자면?

A. 일본이 추축국이 되어 우리나라에 황민화교육을 실시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 등 현재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은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Q. 2차 세계대전 이후 시대는 어땠는가?

A. 사회주의와 자유주의로 나뉘어 이념갈등이 깊어지는 냉전시대가 도래했습니다.

Q. 그럼 2차 세계대전과 냉전으로 인해서 분단이 되었다고 해도 되겠네?

A. 두 가지 요인으로 분단이 되었다기보다는 세계대전과 이념대립이 분단에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Q. 최근 한일 관계에서 양국이 지향해야 하는 자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시사랑 관련해서 부연설명을 덧붙였는데 조금 횡설수설한 경향이 있어서 생각이 안나요)

Q. 졸업 후의 진로계획을 말해보자면?

A. 역사교사가 되어 역사적 사건에 대해 논리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학생을 길러내거나 박물관과 같은 곳에 종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를 알리고 싶습니다.

Q. 자기 자신을 어필해 본다면?

A. 저는 가능성이 있는 학생입니다. 성적이 낮았지만 꾸준한 노력과 끈기로 점점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서울대학교에 진학한다면 제 꿈을 빛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서울대학교를 빛내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서울대학교	자연	우주항공공학부	학생부종합 (기회균형/농어촌전형)	
면접 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 면접시간: 10분 / 면접위원 수: 2명 ○ 면접절차: 대기실 → 면접 바로 전 순서가 되면 복도에서 대기 → 면접			
면접 내용				
<p>Q. 생기부에 재미있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왜 하필 비행기 ‘15초’ 날리기가 목표였습니까?</p> <p>A. 여러 번의 비행기를 날려 보았을 때 10초 이상 나는 비행기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15초 이상만 날려도 엄청 오래난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 15초 이상 나는 비행기로 목표를 삼았습니다.</p> <p>Q. 어떻게 성공했나요?</p> <p>A. 저는 양력이 최대가 되는 받음각을 알아내기 위해 실험을 설계하였습니다. 그러나 실험을 통해 양력이 최대가 되는 받음각을 알아낸다고 하더라도 왜 그 각에서 양력이 최대가 되는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수식적으로 증명하려고 하였습니다. ~해서 증명에 성공하였고 양력이 최대가 되는 받음각을 알아내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p> <p>Q. 양력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p> <p>A. 네. 베르누이 법칙에 의한 양력과 뉴턴의 법칙에 의한 양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p> <p>Q. 혹시 유압 브레이크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p> <p>A.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파스칼의 원리가 이용된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p> <p>Q. 생기부에 인공지능에 대해 토론한다고 적혀있는데 혹시 바둑판이 20*20이 되었을 때(원래 바둑판 19*19) 인공지능과 사람이 붙는다면 누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p>A. 처음에는 사람이 이기다가 대국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면 인공지능이 또 사람을 능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p>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서울대학교	자연	응용생물화학부	학생부종합 (기회균형)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 면접시간: 10분 / 면접위원 수: 2명 ○ 면접절차: 대기실 → 면접 바로 전 순서가 되면 복도에서 대기 → 면접			
면접 내용				
<p>Q1. 동아리 활동을 많이 했네요. 인상 깊은 활동이 있나요?</p> <p>A. 저는 Engineering21에서 활동했던 ‘야생, 인공효모 비교배양 실험’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효모가 최적으로 발효되는 조건을 찾고자 하는 실험이었는데 온도, 배양용액의 종류, 효모의 종류를 달리하여 세 가지 실험을 설계하였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오랜 기간 계획과정을 거쳐 기간 내에 실험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오차 분석 과정에서 초기가설과 실험결과가 일치하지 않았는데….</p> <p>Q2. 초기가설이 뭐였어요?(길어서 짧음)</p> <p>A. 온도를 변인으로 했던 실험에서는 30도 40도 50도로 실험을 달리하였는데 온도가 높아질수록 발효가 더 잘 될 것이라고 설정했습니다.</p> <p>Q2. 가설의 뜻이 뭔데?</p> <p>A. 이론을 바탕으로 예측하는 실험의 결과입니다.</p> <p>Q2. 그럼. 실험은 연역적이었어요, 귀납적이었어요?</p> <p>A. 연역인 것 같습니다.(고민함 이런 거 물어볼 줄 상상도 못해서 생기부에도 없는 거 나중에 보니까 1년 전에 배운 생1 내용인 듯)</p> <p>Q2. 연역의 뜻이 뭔데? 교과서에서 늘 드는 예시 있잖아.</p> <p>A.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는 예로 들 수 있습니다.</p> <p>Q2. 귀납은 뭔데?</p> <p>A. 발견된 까마귀는 모두 색이 까맣다, 따라서 다음에 발견되는 까마귀도 까만 색일 것이다 입니다.</p>				

면접 내용

Q1. 미술부를 오랫동안 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미술부 활동이 지원한 학과에서 어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A. 미술은 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었습니다. 2년 동안 미술부로 활동했는데 특히 식물 세밀화를 주로 그렸습니다. 지리산 주니어레인저로 활동하며 숲 해설가 선생님께서 세밀화를 그리면 식물을 기억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조언을 해주셔서 처음 되었는데 직접 세밀화를 그리며 식물의 특성을 온몸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식물을 좋아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대학에 들어와 식물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2. 외운 거 말고 본인의 생각을 말해봐. 아까부터 자꾸 외워서 말하네.(효모실험은 솔직히 면접에서 너무 많이 해서 외워진 걸 어떡함.. 안 외운 것처럼 말 못한 내 잘못)

A. 네? 미술부는 안 외웠는데...(이때부터 자신감 뚝 떨어. 말에 자신감밖에 없는 게 무기였는데, 웬만한 말끝마다 ~같습니다 반복함, 진짜 안 좋음)

Q2. 그럼 미술부는 연역이야 귀납이야.

A. 연역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앞서 조언을 해주셔서 이를 바탕으로 제가 세밀화를 그린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질문의 의도도 모르겠고, 무슨 말을 해야 될 지도 모르겠음. 미술부가 연역, 귀납이랑 무슨 관련이야?)

Q2. 아니 선생님이 한 말 말고—, 과학적 탐구방법을 묻는 거잖아.

A. 아.

Q2. 미술부 좋아하면 조경과 쓰지 왜 여기 썼어?

A. 물론 미술을 좋아하지만 미술부는 제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한 취미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림을 그렸는데 그동안 그리고 싶은 게 나와야 잘 그려졌습니다. 이걸 직업으로 삼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스트레스 해소가 아니라 억지로 그리는 것 같아 행복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Q2. 아니, 왜 취미를 그렇게 생각하지.(고개 저으면서 혼잣말.. 마음에 안 드시는 듯,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떡함)

면접 내용

Q1. 대학 오면 뭐 해보고 싶어요?

A. 저는 식물에 관심이 많고 그것을 보호하고자 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싶은데 이를 위해서 식물미생물전공을 택해 식물균학이나 식물병역학을 공부해 식물병을 예방하고 싶고, 화학물질이 토양과 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막고자 환경미생물학이나 농약학, 생화학 등을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Q2. 아니, 그런 거 말고 그건 대학 활동의 20%밖에 안 돼 우리는 나머지 80%를 묻고 싶은 거야. 니가 대학 오면 공부만 할 거 같아?(아. 무슨 공부하고 싶은지 묻는 줄 알 + 질문이 애매하면 구체적으로 다시 물어보는 거 추천)

(똑똑)

Q2. 니가 대학 오면 무슨 활동을 하고 싶은지 너의 가치관이나 성격, 취미생활을 말하라고.
(나 때문에 화나신 듯)

A. 아! 그럼 저는 북한산에 올라보고 싶습니다. 고교 때부터 지리산 애나 주니어레인저로 활동하면서 노고단을 자주 올라 산을 좋아하는데 서울대 농생대에는 '농대 산악부'라는 동아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수학하게 된다면 이런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북한산 국립공원에도 올라보고 싶습니다.

Q2. 네. 나가보세요.

A. 감사합니다.

[유의사항]

말 길게 하면 외웠다고 오해받을 수 있어요.(호모실험) 안 외운 것도 자연스럽게 길게 하면 오해받을 수 있어요.(미술부) 면접관이 애 외웠구나 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면접 그냥 망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가 아니라 그냥 교수랑 기 싸움 한다고 생각하고 바보 같은 자신감으로 하고 싶은 말이라도 하세요. 자신감마저 없으면 그냥 끝임 본인이 제일 후회되는 부분) 진짜로. 연습하실 때 생기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연스럽게 말하고, 한 두 문장으로 짧게 짧게 말하시는 연습이 진짜 중요한 거 같아요. 이 글을 보는 분들은 이런 실수 안하시길 빌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한 말은 글로 쓴 것보다 장황하고, 당연히 아무 정보 없는 군말들도 있을 수 있어요!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서울대학교	인문	인문계열	학생부종합 (기회균형)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면접시간: 10분 / 면접위원 수: 2명 ○면접절차: 대기실 → 면접 바로 전 순서가 되면 복도에서 대기 → 면접			
면접 내용				
<p>Q. 교육입국조서 조사 활동이 어떤 활동이야?</p> <p>A. 교과서에서는 교육입국조서 반포라고만 나와 있어서 그 목적을 탐구해 봤다. 고종이 국가의 부강을 위해서는 서방 나라들처럼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반포를 하여 근대교육의 시작이 되었다.</p> <p>Q. 국가의 부강과 교육이 무슨 관계야?</p> <p>A. 교육을 통해서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기에 관련이 있다.</p> <p>Q. 교육의 목적이 국가 부강이라고 생각해?</p> <p>A. 국가의 부강이 주목적이 아니고 교육을 통해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면 그 개인이 속한 나라의 힘은 부수적으로 함께 올라간다고 생각한다.</p> <p>Q. 학교는 시장이 아니다 읽고 한 활동 이야기 해봐.</p> <p>A. 세계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며 문학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파악했던 활동이다.</p> <p>Q. 교육의 목적이 세계시민 양성이란 거에 모든 사람이 동의할까?</p> <p>A.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겠지만, 개인주의로 나아가는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며 배려하는 사람인 세계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이 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p> <p>Q. 교육에 관심이 많은가 봄네. 우리나라 고등교육 문제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해?</p> <p>A.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서술상의 특징과 같은 문제풀이에 집중한다는 점과 주제에 대해 읽으면서 깊이 사색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다.</p> <p>Q. 시험을 위한 문학이 가르쳐 지는 건 평가를 위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p> <p>A. 생활기록부 보면 단순 이수만 쓰는 과목이 있는 것처럼 1주일에 1시간 정도는 문학작품을 읽으며 평가 없이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한다.</p>				

Q. 문학 인상 깊었던 거 있어?

A. 박완서 작가의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이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소설의 틀을 벗어나서 민주화 운동으로 자식을 잃은 어머니가 손윗 형님에게 전화를 통해 주인공의 전화 속 말로만 이야기를 풀어나간다는 것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아서 인상깊게 남아있다.

Q. 나누우리보니까 교육활동만 한 게 아닌데 무슨 동아리야?

A. 융합 교육동아리로 교육 활동만 하는 다른 교육동아리들과 달리 교과 전문성에 대한 향상을 위해 교육전공포럼 등을 진행하는 동아리이다.

Q. 뭐야, 1학년 때는 꿈이 국어교사였네. 지금은 꿈이 뭐야?

A. 국어교사의 꿈을 가지고 활동하다보니 국어자체를 더 깊이 배우고 싶어져서 지금은 국어교사의 꿈도 있지만 국어학자의 꿈도 가지고 있다.

Q. 국어 학자가 되면 어떤 분야를 다뤄보고 싶어?

A. 우리 고전 소설들은 대부분 권선징악의 결말을 가지고 있는데 달과 6펜스라는 작품을 읽고 우리 문학과는 다루는 주제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문학과 해외 문학을 비교하는 비교문학을 다루고 싶다.

Q. 왜 고전 소설들이 권선징악의 결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A. 유교사상으로 인해 양반층이 백성들에게 문학 작품을 통해 교화를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Q. 교화가 목적이라고 했는데 교화는 위에서 아래로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문학이 위에서 아래로만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

A. 임진왜란 이전 신분계층이 흔들리기 전에 문학을 지은 계층은 양반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문학이 권선징악의 교화적 성격을 띠었다고 생각한다.

Q. 부사형 전성어미 '-이'의 필요성에 대해 탐구했는데 부사형 전성어미나 접미사와 비슷한 게 있어?

A. 다른 전성어미와 접미사는 모두 양쪽 다 인정이 되는데 부사형 전성어미는 인정이 되지 않아서 이를 탐구했다. 비슷한 건 없는 것 같다.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서울대학교	인문 / 자연	자유전공학부	학생부종합 (기회균형)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 면접시간: 10분 / 면접위원 수: 2명 ○ 면접절차: 대기실 → 면접 바로 전 순서가 되면 복도에서 대기 → 면접			
면접 내용				
Q.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Q. 최근에 관심있는 내용은?				
Q. 난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Q. 난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Q. 왜 그렇게 생각하시게 되었죠?				
Q. 그렇게 된다면 자국민의 보호는 어떻게 되죠?				
Q.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Q. 파리기후협정에서 트럼프가 탈퇴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Q. 그렇다면 미국 국민들은 트럼프를 왜 선출했을까요?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서울대학교	자연	전기·정보공학부	학생부종합 (기회균형)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면접시간: 10분 / 면접위원 수: 2명 ○면접절차: 대기실 → 면접 바로 전 순서가 되면 복도에서 대기 → 면접			
면접 내용				
<p>면접 질문이 모두 세특, 자소서에서 나온 꼬리질문이라는 점 양해하고 읽어주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적혀있지 않은 것은, 잘 대답하지 못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 내용입니다.</p> <p>면접장에 딱 들어갔더니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듯 보이는 두 분에 계십니다. 왼쪽에 계시는 분이 Q1(교수 같았음),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Q2(입학사정관 같았음)라고 하겠습니다.</p> <p>A. 반갑습니다.</p> <p>Q1. 네. 앉으세요.</p> <p>Q1. 자기장에서의 운동과 전기장에서의 입자의 운동이 뭐가 다른지, 내가 이걸 처음 배우는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답변해 봐요.</p> <p>Q1. 그럼, 전하를 띠는 입자와 전하를 띠지 않는 입자는 운동이 어떻게 다른가요?</p> <p>Q2. 학교 다니면서 방전과 충전에 관한 과제 연구를 진행한 것 같은데,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떻게 결과를 도출했고, 느낀 점을 얘기해 봐요.</p> <p>A. 메모리 이펙트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메모리 이펙트란 완전히 방전되지 않은 전지를 충전하게 되면, 그 충전한 양만큼 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 과제 연구의 본질에도 충실했지만,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었습니다.</p> <p>Q2. 의사소통? 과제연구에서?</p> <p>A. 실험을 진행하면서 친구들과 다툼도 하면서….</p> <p>Q2. 아 그런 면에서.</p>				

면접 내용

Q2. 음... 자소서에서 보면 ‘전자 정복’이라는 책에서 반도체 레이저에 관심이 많았나본데, 이게 뭐예요? 설명해봐요.

A. 레이저는 유도 방출에 의한 빛의 증폭이라는 뜻의 영어 약자를 따서 만든 말인데,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고체, 액체, 기체, 반도체 레이저. 반도체 레이저는 효율이 좋아서 소형으로도 만들 수 있지만 단색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Q1. 그럼 LED랑 레이저랑 뭐가 다르죠?

Q1. 일반적인 형광등이나 백열등 이런 거랑 LED, 레이저 이런 빛이 뭐가 다르죠?

A. 형광등이나 백열등 같은 빛은 모든 스펙트럼의 빛을 방출하는데, LED나 레이저 같은 것은 단색의 빛을 방출한다고 생각합니다.

Q2. (갑자기) 그런데 왜 전기정보공학부에 지원했어요?

A. 어렸을 때부터 작은 자연재해로도 정전이 되는 마을을 보면서 이를 개선해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후로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동아리 회장을 맡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에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향후로는 서울대학교 전력연구소 전력전자연구부에서 연구원이 되고 싶습니다.

Q2. 연구원이 되고 싶다. 네, 나가봐요.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서울대학교	인문	정치외교학부	학생부종합 (기회균형)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면접시간: 10분 / 면접위원 수: 2명 ○면접절차: 대기실 → 면접 바로 전 순서가 되면 복도에서 대기 → 면접			
면접 내용				
<p>정치학, 외교학 교수님 각각 한분씩 계셨음.(사전 프로필 공부해서 읽)</p> <p>정치학 교수님-Q1, / 외교학 교수님-Q2 / 나의 대답-A</p> <p>질문 순서, 답변 내용은 무작위</p> <p>Q1. 지원동기와 입학하면 본인이 기대하는 것은?</p> <p>A. 저는 통일외교전문가가 되기 위해 지원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공부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 안타까웠습니다. 핵전쟁의 위협, 열강들의 패권다툼이 한반도 위에서 벌어지고 이것들이 우리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며, 진보와 보수간의 첨예한 대립 등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이것들의 원인은 분단에 있었고, 또 분단은 우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된 걸림돌이 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민족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게 부여받은 과제는 분단극복, 즉 통일이라 생각하여 여기에 기여하는 통일외교전문가가 되기 위해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에 지원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입학하여 통일외교전문가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여 서울대학교, 더 나아가 우리 인류의 가치 있는 인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여 ~한 활동들을 할 것들이 많이 기대됩니다.</p> <p>Q1. 축구선수활동은 언제까지 했나?</p> <p>A. 중학교 2학년 동계훈련 때까지 했습니다.</p> <p>Q1. 그러면 거기서 얻은 것을 본인의 학생회장 활동 리더십과 연관지으면?</p> <p>A. 저는 축구선수 활동을 통해 끈기와 협력을 배웠습니다. 특히 협력은 저의 학생회장 활동에 큰 발판이 되어줬습니다. 일례로, ~갈등으로 ~대토론회 열어서 ~사이의 의견 대립 입장을 이해하고 해결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어줬습니다.</p>				

Q2. 통일외교전문가가 뭐하는 사람인가?

A. 통일을 하는데 있어서 외교분야에 최고의 두각을 나타내는 전문가, 학자를 말합니다. 이는 사회에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 대안, 정책 등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Q2. 앞으로 뭐할 생각인가?(하나로 나온 질문이 아니라 다른 답변에 포함됐던 것 같음)

→ 앞으로 뭐할 것인지를 포함하는 다른 질문이 있었음. but 기억 잘 X

A. 독일베를린 대학에 가서 통일전후에 관해 깊이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이후 서울대 통일평화 연구원에 들어와서 일해보고 싶습니다. / 라는 식

Q1. 한중일 역사공동연구소, 역사공동교과서. 서로 다른 역사인식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한 문장으로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이게 많이 힘들지 않을까?(질문이 많이 애매했음)

A. (질문 의도 잘 못 알아췄지만 일단 답변) 어~. 독도,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 한국과 일본의 서로 다른 역사관으로 갈등이 생겼습니다.(딴 길로 빠지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너무 긴장했나 봅니다. 혹시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Q1. (교수님도 질문의 애매함 인지하셨음) 아 그치? 그니까~ (웃으며) 학생이 독도를 말해서 그런데, 독도 같은 경우 한국과 일본의 입장이 다르잖나? 이 사태를 어떻게 한 문장으로 녹여낼 수 있겠느냐고? 다른 방안이 있나?(오히려 역사 갈등이 있을 거 같은데 지금과 같이)

A. 아, 네. 당시 동아리 토론활동 시 절충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역사인식을 조화시키기는 무척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대화로 각자의 입장을 양보하며 한 문장으로 서술은 하되, 한국은 ~한 입장이고, 일본은 ~한 입장인 것을 교과서 꼬리지문에 따로 첨가시켜 보다 다양하고, 객관적 시각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토론을 통해 마련됐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 서로 다른 역사인식의 기초적인 입장부터를 양국이 모두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면, 앞으로의 외교적,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 해결에 촉매제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Q2. 논어와 본인의 커리어와 어떻게 연관?

A. 통일외교전문가는 지식인이라는 역할도 있지만, 사회적 리더로서의 자질도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갑자기 생각이 안남. 논어에서 뭘 봤는지) 제가 생각나는 구절을 말씀드리면, 논어에서 리더의 자질을 말하는 덕목 중,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해있는 사람들을 이해한다면, ~할 것이다 라는 덕목으로 저의 커리어와 연관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2. 통일 이후 어떤 문제점들이 있으며 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지?

A. 네. 저는 통일을 하면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는 등의 외교적, 국내적 노력 필요 for 각자의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교수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심. → 질문의 의도 잘못 파악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질문의 의도에 대해 잠시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체제통합 이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통일 과정이 다소 단계적, 점진적인 정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기반을 뒀음. 질문의도에 대한 오해. → 즉, '통일 이후'는 한 시점으로 특정짓기 곤란: 유의사항 참조)

Q2. 어어. 맞네.

A. 아~ 체제통합 이후에는 문화적 이질성이 여전히 공존할 것이기 때문에 한 뿌리 민족이라는 역사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방영, 혹은 통일... 통일... 통일콘서트 같은 것을 열어 체제통합 이후 우리 한반도가 국제사회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 즉 민족적 단합과 담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통일, 외교, 정치 등의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 교수님, 박사들이 참여하여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국민에게 알리는 등의 기여노력이 요구될 것입니다. 저도 여기에 뛰어들겠습니다.(식으로 말했음)

(1분 전 노트 뚝뚝)

Q1. (평가 끝났다는 듯이? - A4 정리) 어. ^^ 이제 가 봐도 괜찮겠네.

A. 저? (웃으며)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 좀 드려도 괜찮습니까?

Q1. 어어, 괜찮네. 해봐.

A. 저는 선행학습 없이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공부량 소화해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감을 얻었고, 공부의 참맛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에서 제대로 한번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평화통일 전후에 기여하는 통일외교전문가가 되어, 서울 대학교의, 더 나아가 우리 인류의 가치 있는 인재가 되도록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면접 중 → Q1 교수님은 시작부터 계속 싱글벙글 웃고 계셨음. Q2 교수님은 거의 나 안보고 무표정. 연필로 A4 평가지 같은 거에 쓱쓱 써 내려가시고.(그래도 Q1, Q2 교수님 모두 고르게 응시하며 올바르게 답변하는 태도 중요함)

면접 내용

[유의사항]

기균이라 그런지 압박면접 분위기보다는 생기부 기반 사실 확인 + 본인 진로에 대한 논리적 생각 자신감(중요) 있게 내보이면 되는 느낌이었음.(독서 질문은 4번 하나만 함)

B4 용지로 된 생기부, 자소서 가지고 계셨음

나는 오후 조였음. 캠프 조 단톡방 오전 조 친구들의 질문이(꼬리질문 포함) 어마무시해서 좀 긴장됐음. But 나뿐만 아니라 다른 오후 조 친구들의 질문들도 대부분 쉬운 편(꼬리질문 없고 단편적 질문) → 면접장 들어가는 건 본인이고, 들어가기 전까지 그 어떤 단정적 예측(이 질문은 안 나온다 or 기균이라, 지균이라, 혹은 작년 쉬웠으니까 올해도 쉬울 것 등)은 하지 말아야 함 (실제로 여기서 방심하고 준비 소홀히 하는 친구들 좀 보였음) 구술면접은 모든 가능성 열어두셈. 자만이나 잠정적 확신은 낭떠러지로 가는 지름길~ 걸어 다니면서, 밥 먹으면서 끊임없이 스스로 질문 만들면서 말하기나 논리적 답변 연습 하셈

마지막 말 준비 똑바로 해가고, 기회 생기면 요구! But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면 그냥 당당하게 나오기

명심할 것: 정답 맞추는 시험 아님. + 교수님들은 이놈이 우리 대학 와서 똑바로 공부를 해서 우리 인류사회발전에 이바지할 놈인가를 보려고 하심. 여기에 맞게 본인의 학구열, 인류사회 발전에 공헌할 투철한 의지를 어필해야 함

면접할 때, 교수님 질문이 어떤 의도인가 명확히 파악하려는 연습 매우 중요. 헛소리 하지 않기 위해. 이 훈련이 된다면 실전에서도 본인 답변이 댄 길로 갈 때 솔직히 인정하고 다시 털털하게 질문하는 모습 등을 통해 오히려 가산점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지도를 받음. 두괄식 강박관념은 가질 필요 없지만(오히려 답변 망침) 계속해서 본인의 생각에서 핵심을 말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그러면 저절로 두괄식 답변 가능해진 것을 나는 느꼈음

대기실에서 자료공부 가능

많은 사례를 봤을 때 교수님과 거리가 가까울 줄 알았지만, 나는 상당히 멀었음. 회의장 U자 테이블에서 서로 마주보고 했음(2.5m 정도)

캠프 면접이 훨씬 어려웠던 편. 따라서 나는 캠프에서 면접 준비과정이 매우 막막했음. 하지만 끝까지 놓지 않고 했음(질문은 알 수 없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것으로 마무리할게요. ^^)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서울대학교	자연	조선해양공학과	학생부종합 (기회균형)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면접시간: 10분 / 면접위원 수: 2명 ○면접절차: 대기실 → 면접 바로 전 순서가 되면 복도에서 대기 → 면접			
면접 내용				
<p>Q. 지원동기?</p> <p>A. 1학년 2학년 때는 물리적인 원리가 기계에 적용되는 거~ 그런데 3학년 때 우연히 관련 기사를 보았고, ebs 다큐 보았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p> <p>Q. 무슨 분야 하고 싶냐?</p> <p>A. 전산 유체 역학 CFD 분야를 하고 싶다. CFD는~</p> <p>Q. 우리나라가 배 잘 만드는데 관심분야가 배를 만드는 분야가 아닌데 관심 가지게 된 계기가 있냐?</p> <p>A. 1학년 때 우주항공에 관심이 있어 그쪽 관련 대학가서 전산유체역학을 공기에 적용해서 하는 거를 직접 보았을 때 멋있다고 생각했다.(ㅠㅠ 이때 항공에 관심 있었다고 한 것이 잘못)</p> <p>Q. 3학년 때 인공장기 어찌고 저찌고를 했는데 조선해양과 관련이 있나.</p> <p>A. 아, 관련 없다.(도대체 왜 이런 거 질문하는 지 잘 모르겠음)</p> <p>Q. 과제연구 유체의 회전을 이용한~ 했는데 거기서 뭘 배웠냐.</p> <p>A. 사실 실험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아서 하지만 친구들과 열심히 고민하면서 도전정신을 배웠다.. (과제연구와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어요. 책이나 이런 거 물어볼 줄 알았는데 그냥 질문지에 있는 거 질문하고 왜 잘 안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냐. 다이نام 이론이 뭐냐, 이것과 관련된 다른 연구는 본 적 있냐 와 같은 꼬리 질문 많이 하셨어요.)</p> <p>Q. 학생은 우주항공에 더 지원하는 게 나았을 거 같다.(아마도 한 활동들이 조선해양과 관련 없어서 그런 질문 한 거 같아요.)</p> <p>A. (당황) 아, 저는 바다를 좋아해서요. 바다는~.</p>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서울대학교	자연	통계학과	학생부종합 (기회균형)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면접시간: 10분 / 면접위원 수: 2명 ○면접절차: 대기실 → 면접 바로 전 순서가 되면 복도에서 대기 → 면접			
면접 내용				
<p>(들어오고 인사하면 앉으라고 한 다음 바로 질문함)</p> <p>Q. 서울대 통계학과에 지원한 이유는?</p> <p>A. 일단 제가 통계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부터 설명하자면 저는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을 분석하여 모집단의 평균, 표준편차 등 특징을 알 수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빅데이터 시대이지 않습니까? 모집단 그 자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일반인이 모든 정보를 분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적 추정이라는 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저는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론에 대해 연구해보고 싶어 통계학과에 지원하였습니다.</p> <p>Q. 1학년 때 비해 2학년 때 성적이 떨어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을 읽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죠?</p> <p>A. 제게 가장 인상 깊었고 도움이 되었던 부분은 이 책의 작가도 많이 힘들었다고 했는데 저도 1, 2학년 때 많이 힘들었는데 ‘세상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나 자신으로부터 조금 떨어져라’ 이런 내용이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계기였고 인문학에 대한 관심도 가지게 되었습니다.</p> <p>Q. 축구 관련해서 연구를 해 보았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연구였고 이걸 통해 더 알게 된 점이 있나요?</p> <p>A. 일단 축구 관련 연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패스를 할 때 공이 뜨는 이유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공의 이동은 일반적으로 발과 공이 마지막으로 만나는 지점에서 받는 힘을 기준으로 거리, 속도, 가속도 계산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패스를 하게 된다면 공은 발의 안쪽이 약간 하늘을 본 채로 발과 떨어지게 되어(발을 직접 가리키며 설명함) 공이 뜨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패스를 할 때 발을 살짝 눕혀서 한다는 게 제 연구의 결과였습니다. (3초 말 멈춤)</p>				

면접 내용

Q. 그래서 그걸 통해 더 알게 되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A. 기하와 벡터, 미적분, 물리 지식을 모두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실제로 축구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럴 때도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조금 얼버무림)

(똑똑 문 두드린지 1분 후)

Q. 면접 시간이 1분밖에 남지 않았는데...(질문 내용이 생각이 안 나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죠. 이런 질문은 아니었음)

A. (나름 최선을껏 답변함)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전공 관련 지식은 많이 안 물어봤고 꼬리 질문이 없었음)

[유의 사항]

면접 보기 전 자신의 스토리를 간략하게 만들어서 어느 질문이 들어오던 간에 그 스토리를 기반으로 당황하지 않고 미소 지으며 발표하는 게 중요. 교수님들의 표정 변화는 거의 없음

질문 절반만 듣고 '아 그 질문이지' 하다가 질문 끝까지 들으면 전혀 다른 것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음. 당황하지 말고. 그리고 설명은 간단명료하게 하되 꼬리질문 안 들어오게 꼭 필요한 정보는 설명하는 게 좋음. 두괄식으로 말하면 말이 되게 깔끔해짐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서울대학교	자연	화학생물공학부	학생부종합 (기회균형)	
면접유형	면접 방식			
서류기반 면접	○면접시간: 10분 / 면접위원 수: 2명 ○면접절차: 대기실 → 면접 바로 전 순서가 되면 복도에서 대기 → 면접			
면접 내용				
<p>Q. 지원동기</p> <p>A. 저의 진로는 의생명공학자입니다. 그렇기에 진로와 관련된 학과를 찾아보다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에 바이오엔지니어링이라는 연구과제를 발견하여 이에 매료되어 이학과에 지원하였습니다.</p> <p>Q. 우리학과에 지원하여 무슨 연구를 하고 싶냐?</p> <p>A. 저는 바이오 재료 중 인공 칩에 대해 연구하고 싶습니다.(인공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함)</p> <p>Q. 인공칩을 연구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를 어떻게 연구할지, 어떻게 상용화할지 구체적으로 말해보시오.</p> <p>A. 이 질문 당황해서 어떤 식으로 대답했는지 기억안남</p> <p>Q. 인공칩 말고 인공지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인공지능이 판단 오류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인공지능에 기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말해보시오.</p> <p>A. 이 질문은 애초부터 어렵다고 가정하고 질문한 것이어서 빙썸있었음</p> <p>Q. 이 외 활동으로 우리 학과와 관련된 활동을 말해보시오.</p> <p>A. 질문을 하려고 할 때 끝나서 질문 못하고 나감</p> <p>[유의사항]</p> <p>서류기반 면접이라 가벼운 질문을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전공 관련 지식을 상당히 많이 질문한 것 같았음.</p>				

[Part 5.] 제시문 기반 면접 사례

대 학 명	계 열	모 집 단 위(학 과)	전 형(세 부 전 형)	등 급
고려대학교	자연	건축사회환경공학부	학생부종합 (학교추천 II)	
면접유형	면접 방식			
제시문 기반 면접	면접시간	10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절차	○ 큰 강당에 모임 ○ 제시문 제시 장소로 이동 ○ 면접실로 이동		
면접 내용				
<p>제시문은 선택적 투과라는 개념을 통해 여러 제시문을 설명하도록 함 전년도와는 달리 개념을 정해주고 이에 맞추어 설명하라고 하여 훨씬 쉬웠음 제시문에 대한 대답 이후</p> <p>Q1. 진로 목표를 위해 열심히 참여한 과목과 이유를 말해보세요 A. 저는 환경오염에 관심을 가지고 교내 연못의 오염도를 측정하면서 용존산소량을 측정했는데 그 과정이 화학 2 내용이 필요해서 화학 2의 몰농도와 ppm과 같은 개념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p> <p>Q2. 건축사회환경공학과에 오기 위해 열심히 참여한 과목과 이유를 말해보세요. A.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앞의 질문에서처럼 화학 2의 내용을 공부하며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었고,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가지고 물리 2의 전기장과 자기장에 대한 내용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p> <p>Q3. 마지막 질문으로 앞으로 건축사회환경공학부의 전망이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A. 점점 늘어나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건축사회환경공학부에 향하고 있기 때문에(기억이 잘...) ~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기술과 가치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p> <p>Q4. 네. 수고하셨습니다.</p>				
특이사항				
<p>처음에 기다리는 강당 의자 간격이 엄청 좁아요. 화장실 갈 때 한 번에 끝내세요. 눈치 엄청 보여요. 그리고 면접관님들이 인사도 안 받아주고 계속 무뚝뚝하게 계시더라고요. 저는 말할 때 떠는 스타일이 아니라 괜찮았는데... 후배님들 미리 염두는 해두세요. 그리고 자기가 전공하고 싶은 과 교수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학부 전체적인 지식을 얻어놓으세요.</p>				

대 학 명	계 열	모 집 단 위 (학 과)	전 형 (세 부 전 형)	등 급
고려대학교	인문	경제학과	학생부종합 (학교추천 II)	
면접유형	면접 방식			
제시문 기반 면접	면접시간	7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절차	○ 대기실 (강당)에서 대기 ○ 중간 대기실로 이동해서 잠시 대기 ○ 강의실에서 각 조 한명씩(3-4명 정도?) 동시에 문제풀이 ○ 면접장으로 이동해서 면접		
면접 내용				
<p>1. (나)에서 나타나는 관점으로 (가)를 비판해보라.</p> <p>(가)에서는 기술 발전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나)에서 볼 수 있듯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그와 관련된 문제가 또 생겨나 혼란이 생길 것이고, 기술지상주의로 흐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과학 기술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p> <p>2. (다)에서 나타나는 것과 비슷하게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 상황을 들어보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라.</p> <p>(다)에서는 지나친 규제에 오히려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모습이다. 현대 사회에서 이와 비슷한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는 얼른 생각나지는 않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야 할 것 같다. 새로운 기술 안에서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교육을 제공하는 등의 해결방안이 있을 것 같다.</p> <p>3. (가), (나), (다), (라)를 참고하여 한국이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선구자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라.</p> <p>(라)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노동 유연성, 법과 제도 측면에서 현저히 낮은 등수를 기록하고 있다. 노동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변화하는 사회 경제 속에서 노동 시장도 발맞춰 변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료제 중심의 기업문화에서 탈관료제의 자유로운 기업문화를 육성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 경제가 변화해감에 따라 요구되는 노동력도 달라질 것이므로 다양한 직업 교육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나)에서 볼 수 있듯 새로운 기술에는 새로운 문제들이 따르기 마련이므로 이러한 문제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p>				

Q1. 경제학과에서 다른 학과에 비해 어떤 능력이 특별히 필요한 것 같나? 두 가지만 말해보라.

A. 논리력과 비판력이 필요한 것 같다.

Q2. 그 이유는?

A. 다양한 자료들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논리력과 비판력이 필요하다. 똑같은 자료를 대하더라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만의 논리를 가지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이 필요한 것 같다.

Q3. 본인에게는 어떤 능력이 더 있는 것 같나?

A. 논리력이다.

Q4. 그 능력을 위해 고교생활 중 어떤 활동에 참여했나?

A. 논술 프로그램이 개설되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나의 의견과 그에 따른 근거를 잘 제시하는 방법을 배운 것 같다. 그리고 그 의견들을 친구들과 나누어 보면서 논리력을 키울 수 있었다.

Q5. 논술 프로그램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주제가 있다면?

A. 기업에서 진행하던 사업에서 더 이상의 이윤을 기대하기 힘들 때 사업을 중단해야 할지, 계속해나가야 할지에 대한 의견을 작성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Q6. 어떤 의견과 근거를 가지고 참여했나?

A. 중단해야한다고 생각했다. 이제 그 사업에서는 더 이상의 이윤을 기대하기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사업에서 선구자가 되는 것이 기업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고려대학교	자연	바이오횡공학부	학생부종합 (학교추천 II)	
면접유형	면접 방식			
제시문 기반 면접	면접시간	10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절차	○면접 대기실에 있다가 순서가 되면 조교를 따라 면접 준비실로 이동합니다. ○면접 준비실에서 감독관 말씀에 따라 제시문을 연습지에 푹니다. ○제시문을 풀고 나면 연습지를 가지고 조교를 따라 면접장으로 이동한 후 앞 지원자가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면접장에 들어가면 문제지가 놓여있습니다.) ○면접이 끝나면 개별적으로 퇴실합니다.		
면접 내용				
<p>※ 문제에 대한 답을 중심으로 기술했으니 문제를 아직 보지 않았거나 캠프에서 아직 다루지 않았다면 유의사항만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p> <p>※ 문제는 기출문제가 되었으니 여러분들께서 이미 보셨을 거라 생각되어 답변을 중심으로 내용을 기술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며, 정답이 아니니 꼭 참고만 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옳다고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p> <p>※ 저는 면접장에서 정말 많이 벅벅거렸습니다. 무조건 청산유수처럼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p> <p>※ 유의사항 꼭 정독하세요!</p>				
[1번 답]				
<p>(가) 세포막의 인지질 2중층이 세포에 이로운 물질은 투과시키나, 세포에 해로운 물질은 투과시키지 않으니 선택적 투과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답했습니다.</p> <p>(나) 지구의 자기장이 지구에 해로운 고에너지 입자는 투과시키지 않고, 생명체에 이로운 빛과 열에너지는 투과시키므로 선택적 투과에 해당한다고 답했습니다.</p> <p>(다) 반도체의 정류 작용이 선택적 투과에 해당하며(한 방향으로만 흐르기 때문), 불순물을 섞고 안 섞고의 차이가 투과도의 높고 낮음을 결정하므로 선택적 투과에 해당한다고 답했습니다. (저의 의도는 투과도를 달리하여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쪽이었는데 간단히 말해 투과보다는 ‘선택’에 더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p> <p>(라) 전자기파의 투과도가 큰 X선과 투과도가 작은 마이크로파 중 인간이 효율적으로 선택 한다는 의미에서 선택적 투과에 해당한다고 답했습니다.(위의 제시문 (다)와 같은 맥락입니다.)</p>				

[2번 답]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했습니다.

위의 제시문들의 선택적 투과는 능동적, 주체적으로 발생하는 일이나 제시문 (마)의 식물은 수동적으로 탄소를 흡수. 즉 선택이 아닌 무조건적으로 흡수를 진행한다는 내용으로 답했습니다.

위의 제시문들의 선택적 투과는 투과의 여부가 서로 연관되어 있지 않으나, 제시문 (마)의 식물의 탄소 흡수, 파괴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다시 말해 탄소를 흡수하지 않음은 곧 파괴를 의미한다고 답했습니다.

※ 2번 답변을 중간쯤 진행하다가 왼쪽 교수님께서 시간이 없다고 하셔서 말이 이때부터 2배속 정도 빨라졌습니다.

[3번 답]

세 가지 측면에서 답변했습니다.

문화, 정책의 수용(우리나라가 자주 문화를 접하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문화, 정책 등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것)

토론 활동(상대편의 주장과 근거 중 자신의 주장에 도움이 되는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을 선택적으로 판단하는 것)

가짜 뉴스, 루머에 대한 대중의 반응(정보화 사회에서 대중 각각의 지혜, 지성은 거짓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진실된 내용만을 판별하여 받아들이게 하는 도구) - 제시문 (나)의 자기장을 언급하며 답변했습니다.

Q1: 아쉽게도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교과목 중에 바이오의공학부에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일까요?

나: 저는 바이오의공학부가 융합학과라고 생각하기에 물리, 화학, 생명과학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수학, 미적분과 기하와 벡터 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 뒤에 왜 수학이 과학을 설명하는 도구가 되는지 꼭 준비했는데 시간 다 되었다고 교수님이 칼 같이 끝내셨습니다.)

특이사항

[면접대기실 및 기본]

우선 기본이나 매우 중요한 것은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것입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바로 저만 하더라도 앞날 인문계 지원자 중에 전자기기 반입으로 불합격 처리된 학생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고려대를!) 조교 혹은 안내 분들께서 유의사항 말씀하실 때는 항상 주의 깊게 들으세요.

고려대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시계도 제출합니다. 면접을 대기하며(문제 풀러 가기 이전)

생기부, 자소서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 풀러 가는 순서는 랜덤이니 준비는 미리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신분증과 수험표는 면접장 앞에서까지 검사하니 꺼내기 편한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험생 간의 대화는 일절 금지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면접 준비실]

각 조당 1명씩 면접 준비실로 가서 문제를 푼다.(21분)

시간은 앞에 모니터에 나타나니 따로 스톱워치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생각해보니 스톱워치도 반납물품에 해당합니다.)

필기구 없어도 앞에 볼펜이 있으니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고 만약 펜이 나오지 않는다면 감독관께 미리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 문제에 관해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그동안의 기출과는 다르게 ‘우선 개념을 제시하고, 제시문을 설명’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간 기출에는 개념을 찾아야 했다면 이번에는 개념을 이미 제시했습니다. 그러니 캠프에서는 정해진 문제의 형식보다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답변을 구성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장]

예상과는 달리 서류 질문 거의 없이 제시문으로만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시간은 10분이었습니다. 사실 문제지에 4분 안에 답변을 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었는데, 모든 문제에 답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이것저것 준비했다가 제시문 답변에 면접 시간 다 날려먹었습니다. 시간이 아주 빨리 가버렸습니다.

연습지 만들고 시험장까지 가면서 다른 애들이 쓴 것도 눈에 보였는데, 다들 저보다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능력이 부족한 것인가 하고 불안했는데 저조차도 시간이 매우 촉박했으니, 답변할 양보다는 어떻게 말하고 답변을 유기적으로 구성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세요. 저 같은 경우 앞에 “~한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생각이 정리된 느낌을 주어 매우 좋다고 캠프에서 배웠습니다. 이 방식이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당부의 말]

팁을 드리자면, 역시 제시문 면접 경험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답변을 구성하는 노하우는 경험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캠프는 아주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무작정 키워드만 적고 면접장에 입장했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는가까지 고민할 수 있도록 침착함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면접 후반에 말을 빠르게 했는데도 시간이 아주 부족했습니다. 그만큼 면접에서 서류 질문 시간이 촉박했고, 제시문 답변만 잘하면 면접을 무사히 끝마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캠프에서만 열심히 하면 충분히 잘하실 수 있으니 따로 면접 학원을 다니거나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장 분위기에 대해 걱정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저의 경우 매우 편한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답변 중간 중간에 오른쪽 분께서는 고개를 정말 많이 끄덕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교수님들의 반응에 힘입어 더욱 자신감 있게 발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면접은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해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학교추천Ⅱ를 지원하셨다는 것은, 3년간의 고교생활과 수능 최저학력기준 또한 준비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가지 모두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해온 만큼 준비하여 원하는 성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고려대학교	자연	바이오횰공학부	학생부종합 (학교추천 II)	
면접유형	면접 방식			
제시문 기반 면접	면접시간	7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절차	○반입 금지 물품 수거 후 대기 시간 ○이동 후 제시문 풀이 21분 ○이동 후 잠시 대기하며 주의사항 들음 ○면접 7분 간 진행 ○퇴실 후 이동하여 물품 받고 귀가		
면접 내용				
<p>[제시문]</p> <p>가. 세포막의 구조</p> <p>나. 지구 자기장의 역할</p> <p>다. 반도체로 만들어진 다이오드</p> <p>라. 전자기파의 종류</p> <p>마. 식물 내의 방사성 동위원소 비를 통한 연도 파악의 가능성</p> <p>[질문]</p> <p>1. 선택적 투과의 개념으로 가~라 설명</p> <p>2. 1번 문항의 개념과 제시문 (마)의 비교</p> <p>3. 1번 문항의 개념과 관련된 사회 현상</p> <p>-----</p> <p>노크를 몇 번 할까 고민했는데 거기 계셨던 조교님이 노크를 해주고 문까지 열어주셨습니다. 문과 의자 사이의 거리가 멀면 인사를 어디서 해야 하는 건지 고민했는데 문과 의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서 의자 옆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두 개가 맞닿아 있었고, 면접관님들 두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p> <p>[답변]</p> <p>1. 제시문 (가)에서는 세포막의 구조가 나와 있는데, 이 때 세포막에서 물질의 수송에 관여하는 단백질의 경우 자신의 기질에 맞는 물질만 투과시킨다는 점에서 선택적 투과의 개념이 적용됩니다.</p>				

제시문 (나)에선 유해한 태양에너지로부터 지구를 보호해주는 지구 자기장의 역할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에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근원적인 에너지가 태양에너지임을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유용한 태양에너지도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해한 에너지는 거르되, 유용한 에너지는 투과시키는 지구 자기장의 역할 또한 선택적 투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시문 (다)에선 p형과 n형 반도체를 접합시켜 만든 다이오드가 나와 있습니다. 다이오드의 경우 순방향 전압이 걸렸을 때에만 각 전하 운반자가 접합면으로 이동하여 전류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전압의 방향에 따라 전류흐름의 여부가 결정되므로 선택적 투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시문 (라)에선 각기 다른 파장대의 전자기파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밀도에 따라 투과율이 달라지는 x선, 각기 물질마다 다르게 반사하는 빛만을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음식내부까지 투과하여 물 분자를 진동시켜 음식을 데우는 데 쓰는 마이크로파, 그리고 특정한 고유 진동수와 통신이 가능한 전파가 그 예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각 파장 별로 지니게 되는 특징들을 용도에 맞게 선택적으로 택하여 활용합니다. 각 전자기파의 특성과, 이를 활용하는 인간의 모습 전부 선택적 투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 제시문 (마)에선 식물의 광합성으로 식물 내에 유입된 질량이 14인 탄소가, 식물이 죽고 나면 붕괴가 진행되므로, 질량이 14인 탄소와 12인 탄소의 비율로 연도를 파악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붕괴의 경우 물질이 안정해지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방향성이 결정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외부 물질이나 에너지와 같은 것의 특성을 파악하여 선택적으로 반응이 이루어지는 선택적 투과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저는 선택적 투과가 적용되는 사례로 대학입학을 떠올렸습니다. 각 대학, 학과에는 서로 추구하는 각기 다른 인재상이 존재하며, 신입생들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치 또한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기준으로, 그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들만을 선택적으로 입학시킵니다. 저는 제가 가진 기질과 고려대학교가 가진 기질이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의 선택으로 고려대학교에 투과되어 그 기대치를 충족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Q1. 바이오 의공학부를 지원하였는데, 교과 과목에서 이와 관련해서 공부한 것 중 기억에 남거나 관심있던 과목 있었나요?

A. (지원 동기 이런 거 물어볼 줄 알았는데 조금 당황함) 잠시 생각할 시간 주실 수 있나요? (네 ~. 편하게 하세요.)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뇌 공학자라는 꿈을 가지고 있어,

바이오 의공학부에 지원하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물리 과목을 배우며, 뇌파도 파동인데 공명을 할까? 라는 궁금증이 들어, 이에 대해 별도로 찾아보며 공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때, 뇌파의 자기공명을 관측할 수 있는 기기로 SQUID MRI를 알게 되었습니다. 엄청 작은 자기장으로도 내부를 관측할 수 있는 의료 기기였는데, 엄청 신선했습니다.

Q2. 그걸 공부하며 어려웠던 점이 있었나요?

A. 아무래도 고등학교 교과 범위를 넘어가다 보니, 자기 공명 현상이라는 것 자체와, 그걸 관측하는 기기의 작동 원리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작동 원리를 너무 깨우치고 싶어, 선생님께 계속 물어가며 리만세차운동 같은 기본 원리부터 조금씩 공부하며 극복했습니다.

Q3. 바이오 의공학부를 지원하셨는데, 이 분야의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접관님들 웃음) 저는 4차 산업혁명이 지나가면 전 세계는 바이오 산업에 주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는 전체적으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이에 부응하여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의료분야가 더욱 발전해야 할 것이며, 거기에는 의공학이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개척하지 못한 영역인 뇌와 같이, 새롭게 개발할 부분 또한 여전히 존재하기에 그 발전 가능성은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Q4.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A. 저는 제 자기소개서 4번 문항에서 저를 치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를 치약이라 표현한 4가지 이유를 고려대학교 바이오 의공학부에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꼭 증명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이사항

면접관님들 엄청 친절하시고 대답하는데 고개도 끄덕이시며 반응도 잘 해주셨습니다. 조금 대놓고 자기피알해서 큰 인상을 남기고 가고 싶다는 생각으로 제시문 답변도 준비했고, 그래서 분위기가 엄숙하거나 압박 면접이면 어쩌지 고민했는데, 웃으면서 답변도 잘 들어주셨습니다. 뭐가 됐든 웃으면서 들어가고 밝은 얼굴로 자신감 있게 답변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 보는 곳이 생각보다 엄청 작습니다. 면접관님들 책상 긴 거 하나랑 제 책상 하나 들어가면 딱 차는 느낌. 그리고 고려대는 5배수를 선발하다 보니 정말 정말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면접에서 또 5:1 경쟁률이 생기다 보니, 사람들 많은 거 보면 정말 기가 죽습니다.

저는 마지막에서 4번째로 면접을 봤는데 대기시간이 정말 깁니다. 교과서 핵심정리집 이런 거 가져왔으면 좋았겠다고 생각도 했습니다.

대학명	계열	모집 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고려대학교	자연	생명공학부	학생부종합 (학교추천 II)	
면접유형		면접 방식		
제시문 기반 면접	면접시간	4분(제시문) + 3분(서류)		
	면접위원 수	2명		
	면접절차	○ 오후 1시 30분부터 대기실 입실 ○ 본인 3시 50분 면접시작 ○ 제시문 4분 + 서류 3분		
면접 내용				
<p>제시문 내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p> <p>제시문에 적히지 않은 질문</p> <p>Q1. 제시문의 개념과 반대되는 개념을 사회 현상에서 찾아보시오.</p> <p>[서류 기반 질문]</p> <p>Q2. 돌연변이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유와 내용은 무엇인가?:</p> <p>A. 수업시간에 돌연변이에 대한 흥미를 갖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조사결과 ~ (보고서 내용) 이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를 갖으려 노력하게 되었다.</p> <p>Q3. 생명공학분야가 사회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가?</p> <p>A. 생명공학분야는 질병치료, 유전병 예방, 식물생산성 향상 등으로 기여할 수 있다.</p> <p>Q4. 질병치료, 유전병예방이 이러이러한 측면(기억나지 않는데 어떠한 이유가 있었다.)이 존재하는데 사회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는가?</p> <p>A. 고통 받는 이들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여라고 볼 수 있는 것 같다.</p>				
특이사항				
<p>제시문 기반면접 내용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ㅠ ㅠ</p> <p>면접시간이 짧아서 당황했는데 올해 면접시간이 줄어든 것 같다.</p> <p>질문을 준비해 가는 것 보단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p>				

대 학 명	계 열	모 집 단 위(학 과)	전 형(세 부 전 형)	등 급
고려대학교	자연	생명과학부	학생부종합 (학교추천 II)	
면접유형	면접 방식			
제시문 기반 면접	면접시간	7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절차	○ 대기실에서 조별로 대기하다가 순서대로 면접 보는 건물로 이동 ○ 제시문 문제 풀이 장소에서 다같이 21분 동안 문제 풀 ○ 면접 장소 앞에서 유의사항 듣고 앞사람 퇴실하면 입실 ○ 책상 위에 문제 있고 적어 놓은 풀이 보면서 답변		
면접 내용				
Q1. 네. 답변해보세요.				
A. 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시문 (가)에서부터 (마)까지에서 공통적으로 연상되는 개념이 구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에서는 DNA가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RNA가 단백질을 합성하는 기능으로 구분된다고 생각하여 구분이라는 개념을 떠올렸습니다. (나)에서는 계급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본 소유에 따라 계급이 나뉜다는 점에서 구분이라는 개념을 떠올렸습니다. (다)에서는 원자가 가지는 에너지 준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전자가 가진 에너지 크기에 따라 에너지 준위가 구분되기 때문에 구분이라는 개념을 떠올렸습니다. (라)에서는 아날로그 정보와 디지털 정보를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아날로그 정보는 자연에서 많이 쓰이고 연속적이라는 점. 디지털 정보는 전자기계에서 많이 쓰이고 불연속적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에서는 소리에 파장에 대해 설명하며 종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밀한 부분에서 밀한 부분, 소한 부분에서 소한 부분까지를 구분하여 파장이라는 개념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구분이라는 개념을 떠올렸습니다.				
A. 2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문제 1번에서 말한 구분이라는 개념을 암석의 종류와 생물의 구성 체계를 통해 설명해보겠습니다. 암석의 종류에는 퇴적암, 변성암, 화성암이 있습니다. 이는 암석이 퇴적되어 형성되었는지, 변성되어 형성되었는지,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되는지에 따라 구분된다는 점에서 구분이라는 개념을 적용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생물의 구성체계 중에서 세포가 조직의 단계로 분화될 때 비슷한 기능을 가진 세포가 모여 조직을 이룬다는 점에서 구분이라는 개념을 떠올렸습니다.				
A. 3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에서부터 (마)까지의 차이점이 연속성과 연관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에서부터 (마)까지는 에너지 준위, 정보의 형태와 같은 특징에 따라 각각의 요소가 구분되며 그것들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가)에서는 유전자 발현 과정에서 DNA와 RNA의 역할이 연속적으로 수행되며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Q2. 시간이 남아서..., 앞에서 답한 개념과 반대되는 개념과 사례를 말해볼 수 있나요?

A. 네, 저는 구분과 반대되는 개념이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해당하는 사례는 앞에서 말했던 생물의 구성체계를 통해 설명해보겠습니다. 세포가 모여 조직을 이루고 조직이 모여 기관을 이루고 기관이 모여 개체가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기관이 모여 하나의 개체를 이룬다는 점에서 통합이라는 개념을 적용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3. 서류기반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학교에서 생명과학을 공부하면서 심화적으로 탐구한 경험이 있나요?

A. 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생명과학2에서 바이오 의약품에 대해 배우고 아직 생소하다고 생각한 바이오 의약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바이오 사이언스의 이해'라는 책을 찾아 읽었습니다. 또한 이 책을 읽은 뒤 분자 생물학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이중나선'이라는 책을 읽으며 제 지식을 확장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Q4. 생명과학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A. 네, 저는 생명과학이 생명체의 본질을 파악하고 생명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생명의 본질을 파악하게 된다면 인간이 가진 질병이나 특히 난치병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5. 장래희망이 뭐예요?

A. 저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백신 연구원이 되고 싶습니다.

Q6. 그러한 진로를 접하거나 정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A. 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생명과학 교과서에서 본 국제백신연구소가 빈민국의 전염병 문제해결을 위해 힘쓰는 것을 알고 이러한 점이 제 직업 가치관과 맞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신 연구원이라는 직업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Q7. 네, 끝났습니다.

A.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해도 될까요?

Q8. 네, 말해보세요.

A. 네,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질병 예방을 통해 인류가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돕는 백신 연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 강의를 통해 지식의 기반을 쌓고 연구 참여와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유능한 인재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이사항

이번 고려대 학추2 면접은 제시문이 쉬운 편이고 서류 기반 면접 질문도 거의 공통 질문인 것 같습니다.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고려대학교	인문	자유전공학부	학생부종합 (학교추천 II)	
면접유형	면접 방식			
제시문 기반 면접	면접시간	10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절차	○ 대기하는 건물에 들어와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 큰 대기실에서 본인 순서까지 대기합니다. ○ 본인 순서가 오면 면접을 보는 건물로 이동합니다. ○ 큰 교실에 45명이 들어가서 제시문을 보고 푹니다. 약 21분 정도 주셨던 것 같습니다. ○ 그 후에 본인 면접실에 혼자 들어가고 제시문 면접 답변을 하고 그 후에 학생부 기반 면접을 합니다.(10분)		
면접 내용				
<p>제시문 기반 면접은 다른 교실에서 먼저 제시문을 읽고 문제를 풀고 가기 때문에 면접실에 들어갔을 때 교수님께서 바로 답변하라고 하셨습니다. 잘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p> <p>1번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번 답변)</p> <p>2번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번 답변)</p> <p>3번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3번 답변)</p> <p>형식으로 답을 했습니다. 중간에 질문은 하지 않으셨습니다.</p> <p>제시문 답변이 끝나면 답변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 같았는데 바로 학생부 기반 면접으로 넘어갔습니다.</p>				
<p>Q1. 자유 전공학부에 지원한 이유를 너의 진로와 연관 지어 이야기 해볼래?</p> <p>A. 네. 저의 꿈은 변호사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 과학적 지식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려대학교 자유 전공학부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 공부해야 하는 법적 지식과 경제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과학적 지식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p>				

Q2. 우리 학과에 들어와서는 구체적으로 뭘 배우고 싶어?

A. 헌법, 형법, 민법 등 법의 기본 테두리에 대해 정확히 배우고 구체적으로는 경제법과 노동법에 대해 배우고 싶습니다.

Q3. 후배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 있어?

A. 고등학교 후배 말씀이신가요?(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지만 그 때는 갑자기 헛갈렸습니다.)

Q4. 그래.

A. 네, 저는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책을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분명 힘들 때도 있습니다. 물론 즐거운 일도 많지만요. 그럴 때 이 책을 통해서 새는 나뭇가지에 올라갔을 때 나뭇가지가 아니라 그들의 날개를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긍정의 힘으로 힘든 순간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Q5. 이제 나가봐.

A.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특이사항

면접관님들(교수님들)께서 잘 웃어주십니다. 뭔가 긴장되면 말이 더듬거려지는데 그런 순간마다 눈 마주쳐주시고 활짝 웃어주셔서 덩달아 웃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는 중간 순서 즈음었는데 후반부 순서가 되면 생각보다 대기 시간이 길어지니 무조건 읽을 자료(생기부, 자소서, 본인 생기부, 자소서 기반으로 뽑아낸 질문들과 그에 대한 답변)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화장실도 면접위원님들과 동행하면 가실 수 있습니다. 휴대용 휴지나 생수 챙겨 가시면 좋을 듯합니다. 전자기기 소지 불가한데 거기 가면 다 걷긴 합니다. 걱정 안하셔도 될 듯합니다. 아날로그 손목 시계까지 걷으니까 당황하지 마시고요. 파이팅하세요. 언제 끝나지 언제 끝나지 하고 있었는데 벌써 끝났습니다. ㅎ 힘내세요.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고려대학교	인문	통계학과	학생부종합 (학교추천 II)	
면접유형	면접 방식			
제시문 기반 면접	면접시간	7분(제시문 답변 4분 + 학생부 관련 답변 3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절차	○ 오후 1시 반까지 고려대학교 우당교양관 입실 ○ 대기실에 들어가면 폰, 노트북 등 전자기기 모두 내야 합니다. ○ 1시 반부터는 화장실도 조교분과 동행해야 합니다. (화장실 갈 사람 계속해서 물어봐 주십니다.) ○ 자기 순서 기다리면서 미리 가져온 생기부나 자소서와 같은 면접 준비 자료들은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기시간 중 옆에 앉은 친구랑 대화하고 싶었는데 하면 부정행위라 해서 못 했습니다.		
면접 내용				
<p>[제시문 내용]</p> <p>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기 때문에 정확한 제시문 내용을 원하신다면 기출문제를 확인해주세요! 통계학과는 오후 면접이었고 내용은 과학 기술 지상주의를 비판하는 내용과 초연결사회, 표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 다. 여러 명이 같은 고사장에 들어가서 21분 동안 제시문 읽고 자기 답변을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시문 문제지 종이는 코팅되어 있었고 제시문 종이에 팔을 못올리게 했었습니다.(잠깐 손으로 눌렀다가 만지지 말라고 지적받았습니다. ㅠ) 답변 작성하는 종이랑 볼펜은 줍니다. 면접장 들어가면 제시문 내용 종이는 올려져 있으니 이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될 듯해요.</p> <p>조교 분. (노크) 면접 번호 ○○○ 학생 들어갑니다.</p> <p>들어갔는데 나이 젊으신 여자 1분, 나이 좀 있으신 남자 교수 1분 있습니다. 들어갔는데 여자분이 웃어주셔서 긴장이 좀 풀어졌어요. 저는 면접 순서 2번이었습니다.</p> <p>나. 안녕하세요.(인사)</p> <p>Q1.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4분 동안 문제 답변해주세요.</p> <p>나. 네! 지금부터 제시문에 대한 저의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1번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1번 내용 답변) ~ 네. 다음은 2번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4번 문제까지 답변했습니다. 다른 분들 후기 보면 다들 1번 답변하고 쉬고</p>				

이렇게 하셨는데... ㅠㅠ 저는 그냥 저 혼자 쪽 답변해버렸네요ㅠ 듣는 내내 고개 끄덕끄덕해주셨고 제가 말하면서 무릎에 올린 손을 좀 움직였는데 남자 교수분이 제 손을 쳐다보시는 느낌이 들어서 손을 다시 반드시 모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중간에 말하다가 시간 같은 거 말씀 안 해주셨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답변 다 했더니 바로 생기부 질문으로 넘어가셨습니다.

Q2. 네. 이제 생기부 관련 질문할게요. 학생이 생각하는 통계학과에 필요한 자질 2가지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나. 네. 저는 첫 번째로 필요한 자질은 끈기와 인내심이라고 생각합니다.(이유는 어떻게 말했는지 잘 생각이 안 나요. ㅠ 통계학은 쉬운 과목이 아니고 많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며 끊임없이 탐구하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것 같네요.) 두 번째로 필요한 자질은 (쉬고) 개방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통계자료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편협한 사고는 자료의 정확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것 같습니다.)

Q3. 네. 그럼 학생은 두 가지 자질 중에서 어느 자질을 더 갖추었다고 생각하나요?

나. (당황) 두 가지 자질 중에 고르자면 저는 끈기와 인내심을 더 갖춘 것 같습니다.

Q4. 그럼 학생이 교내 생활 중 끈기와 인내심을 발휘한 구체적인 사례 한 가지만 말해볼까요?

나. (당황) 네.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한 동아시아사 중간고사 성적이 안 좋아서 속상했지만 반 친구들과 같이 스터디 그룹을 만들고 인강을 들으면서 끈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부했더니 마지막에는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네요. ㅠ 사실 이 답변이 매우 아쉽네요. ㅎㅎㅎㅎ)

Q5. 네. 시간이 30초 정도 남았는데 자기소개나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나. (문과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과 학생들과 같이 수학 동아리를 이끌어가면서 수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깊이 있게 수학에 대해 공부할 수 있었다. 학교에서 열리는 다양한 수학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통계 자료는 장황하게 나열한 글보다 시각적으로 강한 인상을 주어서 통계 자료와 관련된 분야에 무관심한 사람들에게도 짧은 시간 안에 지식을 전달할 수 있다. 통계 자료가 다양한 사회 현상을 일깨워주고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저도 향후 통계학과에 입학해 이러한 통계자료를 제작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말했네요ㅠ 사실 통계학과 자기소개는 준비를 안 해가서 어떻게 말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너무 즉흥적으로 말해서...)

Q6. 네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어요.

나. 네 감사합니다.

(여자분이랑 눈 마주쳤는데 웃어주심! 감사합니다)

특이사항

사실 저는 3년 동안 희망 진로가 통계학과와 전혀 관련 없었기 때문에 (초등교사) 이걸 백퍼 물어보겠구나 싶어서 열심히 준비해 갔는데 안 물으신 거 보니 제 생기부 자소서를 아예 안 본 느낌이었어요. 저는 제시문도 꼬리 질문을 안 하셔서 혹시나 내가 말 못 해서 그런가 싶었는데 같이 면접 본 다른 친구한테도 물어보니까 꼬리 질문을 이번에는 거의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생기부 관련 질문도 다 비슷하고요. 긴장하지 마시고 잘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면접에서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면접 후기가 많이 없어서 준비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 부족한 후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연세대 학교	자연	생명공학과	학생부종합 (활동우수형)	
면접 유형	면접 방식			
제시문 기반 면접	면접시간	8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절차	○ 면접 대기실에 있다가 순서가 되면 조교를 따라 면접 준비실로 이동합니다. ○ 면접 준비실에서 감독관 말씀에 따라 제시문을 연습지에 폽니다. ○ 제시문을 풀고 나면 연습지를 가지고 조교를 따라 면접장으로 이동한 후 앞 지원자가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면접장에 들어가면 문제지가 놓여있습니다.) ○ 면접이 끝나면 개별적으로 퇴실합니다.(단, 오전의 경우 문제 유출 방지를 위해 1시에 일괄 퇴실 했습니다.)		
면접 내용				
※ 문제에 대한 답을 중심으로 기술했으니 문제를 아직 보지 않았거나 캠프에서 아직 다루지 않았다면 유의사항만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문제는 기출문제가 되었으니 여러분들께서 이미 보셨을 거라 생각되어 답변을 중심으로 내용을 기술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며, 정답이 아니니 꼭 참고만 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옳다고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저는 면접장에서 정말 많이 벅벅거렸습니다. 무조건 청산유수처럼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의사항 꼭 정독하세요!				
오른쪽 교수님. 오느라 많이 힘들었죠?(긴장 풀기용 질문)				
나. 네!(힘차게 웃으면서 대답)				
[1번 답]				
(가)의 내용은 동물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쪽의 반대 입장, (나)의 내용은 잉여란 폐기물, 쓰레기에 해당하므로 잉여란 불필요한 것임을 나타내는 내용임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의 A가 불필요한 강아지를 계속 키우려 하고 있으며 정을 주는 것을 비판할 점으로 답변했습니다.				
[2-1번 답]				
분석은 우선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했습니다.				
소형견, 중형견에 비해 대형견의 가격이 높음				
잡종에 비해 순종의 가격이 높음				
이때 가격이 높다는 것은 가치가 높다, 즉 수요가 많음을 의미한다고 답변했습니다.				

[2-2번 답]

사회 현상 문제점을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했습니다.

가격이 낮은 잡종, 소형견, 중형견은 상대적으로 권리가 낮아 무시를 당할 것이며 이들의 생명윤리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내용을 답했습니다.

특정 동물들의 권리가 폄하되는 현상은 즉 인간 여성들의 권리를 폄하하는 현상으로 이어져 성평등에 어긋나는 사회를 조장할 문제가 있다고 답했습니다.(제시문 (가)내용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나. 이상입니다.

[꼬리질문 시간]

Q1.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볼래요?

나. 예. 우선 제시문 (가)는 동물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터무니없으며, 이를 근거로 인간 여성의 권리까지 무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제시문 (나)는 잉여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즉 불필요한 것에 해당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Q2. 아까 답변에서 B를 비판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가)와 (나)를 바탕으로 B도 비판해 보실래요?

나. 우선 제시문 (가)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B는 동물들의 권리를 아동의 권리보다 낮게 보고 있습니다. 이는 비판할 만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제시문 (나)의 경우 B는 잉여에 해당하는 강아지를 A에게 버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굳이 버리지 않아도 되는 잉여의 개념으로 보았을 때 무조건적으로 버리라고 강요하는 모습이 비판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Q3. 음, 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보세요.

나. 네, 연세대 생명공학과에는 3D 미니뇌 제작이나 의약품 생체 반응기기 제작 등을 연구하는 교수님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합격한다면 꼭 그 교수님께로부터 연구에 관한 이야기를 꼭 듣고 싶습니다.

특이사항

[면접대기실 및 기본]

우선 기본이나 매우 중요한 것은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것입니다. 조교 혹은 안내 분들에게서 유의사항 말씀하실 때는 항상 주의 깊게 들으세요.

면접을 대기하며(문제 풀러 가기 이전) 생기부, 자소서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 풀러 가는 순서는 랜덤이니 준비는 미리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신분증과 수험표는 면접장 앞에서까지 검사하니 꺼내기 편한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 준비실]

각 조당 1명씩 면접준비실로 가서 문제를 푼다.(8분)

문제 풀 때 3분 전, 1분 전 이렇게 시간 알려주는데 확실히 8분은 짧습니다. 물론 그만큼 어려운 내용을 주진 않으니 겁먹지 마세요.

필기구 없어도 앞에 볼펜이 있으니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면접 문제에 관해 말씀을 드리자면, 그간 기출보다 살짝 어려워진 감이 있었습니다. 자료 해석뿐만 아니라 제시문도 추가되어 당황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제시문이 있는 면접에 익숙해질 수 있게끔 연습을 착실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면접장]

역시 서류 질문 거의 없이 제시문으로만 면접을 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서류 질문은 2~3가지 정도만 준비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지원동기, 진학 후 학업계획, 자랑하고 싶은 점 등)

위에 보시다시피 저 같은 경우 완벽하게 답변을 구성하진 못했지만 부족할 부분을 교수님께서 꼬리질문을 통해 채워주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꼬리질문=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기준에 작년에는 준비시간이 10분이었다고 들었는데 면접시간이 8분인 것을 확인하고 놀랐었습니다. 캠프에서 연습을 착실히 한다면 모든 문제에 답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답변할 양보다는 어떻게 말하고 답변을 유기적으로 구성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세요. 저 같은 경우 앞에 “~한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생각이 정리된 느낌을 주어 매우 좋다고 캠프에서 배웠습니다. 이 방식이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면접 후 대기실]

오전 면접의 경우 면접이 끝나도 일괄퇴실 때문에 면접 후 대기실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책을 볼 수도 있고, 큰 소리만 내지 않는다면 수험생 간의 대화도 가능합니다. 사탕 등을 준비 하신다면 말동무를 만들기 쉬우실 겁니다.

[당부의 말]

팁을 드리자면, 역시 제시문 면접 경험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답변을 구성하는 노하우는 경험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캠프는 아주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무작정 키워드만 적고 면접장에 입장했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는가 까지 고민할 수 있도록 침착함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면접 시간이 상당히 짧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면접에서 서류 질문 시간이 촉박했고, 제시문 답변만 잘하면 면접을 무사히 끝마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캠프에서만 열심히 하면 충분히 잘하실 수 있으니 따로 면접 학원을 다니거나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장 분위기에 대해 걱정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저의 경우 교수님들이 2분 모두 여성 분이셨는데, 말투나 행동면에서 편하게 대해 주시려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면접장에서 자신감을 갖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면접은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해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활동우수형 1차에 붙으셨다는 것은 그만큼 3년간의 고교생활을 열심히 보낸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잘 해온 만큼 준비하여 원하는 성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연세대학교	인문	심리학과	학생부종합 (활동우수형)	
면접유형	면접 방식			
제시문 기반 면접	면접시간	8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절차	○ 대기실에서 대기하다가, 불려감 ○ 8분간 제시문을 분석함 ○ 8분간 교수님에게 설명, 질의응답을 함 ○ 오전 면접은 일괄 퇴실, 오후는 끝나는 순서대로 퇴실		
면접 내용				
<p>제시문 3개와 질문 2개로 구성되어 있었다.</p> <p>질문 1은 제시문 1, 2의 주장과 결과를 각각 비교하여 설명하는 것</p> <p>질문 2는 제시문 3의 입장에서 제시문 1, 2를 평가하는 것</p> <p>[질문 1 답변]</p> <p>제시문 1의 주장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성선설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p> <p>제시문 2는 사람은 이타성과 이기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지만, 이기성이 더 크다는 것.</p> <p>[질문 2 답변]</p> <p>제시문 3에서 빠른 집단은 ‘직관’으로 느린 집단은 ‘사고, 이성’으로 정의내렸다.</p> <p>그래서 제시문 1에 따라 사람은 이타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직관을 이용하면 기부를 더 많이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약간의 사고를 거치면 자신의 이익을 생각해 기부를 적게 한다고 대답했다.</p> <p>추가로 모두 다 합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면, 모두 다 최대의 기부금을 낼 거라 추론했다.</p> <p>위 답변을 끝내자 교수님이 질문을 하셨다.</p> <p>Q1. 제시문 1을 성선설 입장이라고 말씀했는데, 제시문 속 ‘악당, 이기성’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p> <p>A. 환경의 영향으로 이타성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면 이기성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다.</p> <p>Q2. 제시문 2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무엇이나?, 너는 어떤 선택을 하겠냐?</p> <p>A. 가장 많이 내는 게 합리적이다. 나는 평균보다 좀 더 내겠다.</p>				
특이사항				
<p>문제지는 파일철에 끼워져서 책상에 고정됨</p> <p>면접실에 교수 2분, 문제지는 책상 위에 있었음</p> <p>오전 면접은 일괄 퇴실이라서, 끝나면 같은 조끼리 이야기 할 수 있었다.</p> <p>휴대폰은 마지막에 나누어줌</p>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연세대학교	국제	융합과학공학부(ISE)	학생부종합 (활동우수형)	
면접유형	면접 방식			
제시문 기반 면접	면접시간	16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절차	○ 대기(조별로 면접하지만 다 같이 기다림) ○ 제시문 숙지 (8분, 연습장 1장 지급. 문제지는 책상에 붙어 있음) ○ 면접(8분)		
면접 내용				
<p>[제시문]</p> <p>(가) 동물 자유 관련(영어)</p> <p>(나) 잉여에 대한 부정적 내용</p> <p>(다) A, B 대화(A의 늙은 야옹이에 대한 내용)</p> <p>(라) 어떤 국가에서 사냥개 믹스여부와 크기에 따른 가격(표, 영어)</p> <p>[문제]</p> <p>(가),(나)를 바탕으로 (다)를 비판</p> <p>(가),(나)를 바탕으로 (라)의 표 해석</p> <p>이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추론</p> <p>[면접]</p> <p>Q1. 문제 1번부터 대답해보세요.</p> <p>Q2. 본인이 제시문 (가)와 (나)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말해보세요.</p> <p>Q3. 1번 문제에서 B의 말에 관련해서는 대답했는데, A에 관해서는 말 안했네요. A의 말을 평가해 보세요.</p> <p>Q4. 그러면 아까 학생이 B는 야옹이를 생명체 그 자체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는데, A는 어때요?</p> <p>Q5. 개 크기가 클수록 가격이 높아진다고 했는데, 표 다시 보고 말해보세요.</p> <p>Q6. 그럼 이 표를 보고 (가),(나)랑 다시 연관시켜 볼래요?</p> <p>Q7. 제시문 (가)에 타일러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p>				
특이사항				
교수님이 말을 제대로 못하면 힌트를 주신다. 생기부나 자소서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물어보지 않았다.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연세대학교	사회	행정학과	학생부종합 (활동우수형)	
면접유형	면접 방식			
제시문 기반 면접	면접시간	10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절차	○ 큰 면접 대기실에서 기다림 ○ 제시문 보는 대기실로 이동 ○ 면접 대기실 입성		
면접 내용				
<p>제시문의 내용은 총 3지문으로 구성되었고 첫 번째 문제는 1번과 2번을 연결지은 문제, 두 번째 문제는 1번, 2번, 3번을 함께 연결지은 문제로 나왔습니다.</p> <p>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인간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잘 공감하고 다만 공감의 정도는 감정이 풍부한 사람에게 더 높게 나타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 문제와 반대되는 내용이 나왔고 그래프를 해석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 번째 문제를 응용한 문제가 나왔습니다.</p>				
특이사항				
<p>제시문을 읽은 공간에서는 정말 조용하지 않고 다소 많이 산만하고 사람들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산만한 곳에서 하니 집중이 잘 되지 않고 글이 잘 안 읽힙니다.</p>				

대 학 명	계 열	모 집 단 위(학 과)	전 형(세 부 전 형)	등 급
한국과학기술원 (KAIST)		-	고른기회전형 (농어촌학생)	
면접유형	면접 방식			
제시문 기반 면접	면접시간	20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절차	○ 40분 제시문 준비(과학, 수학) ○ 20분 면접 ○ 15분 제시문 준비(인성) ○ 15분 면접		
면접 내용				
<p>1. 40분 동안 물리 3문제, 수학 4문제 풀 시간 제공합니다. 시작 후 처음 15분 동안 과학문제만 풀 수 있고 그 후 25분 동안은 물리와 수학 둘 다 풀 수 있습니다.(문제는 KAIST 입학처에서 보기 바랍니다.)</p> <p>2. 면접 준비시간이 부족해서 풀이 방법만 생각하고 면접하면서 칠판에 써 내려가며 답을 유추하려고 계획하고, 면접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POSTECH, GIST) 면접실에서 칠판을 이용할 수 있고, 어떻게 문제에 접근했는지 그 풀이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 면접인 반면, KAIST는 칠판도 사용하지 못하고 풀이과정을 말하려고 하면 교수님께서 필요 없으니 답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답을 맞추면 점수를 주는 식의 평가였던 것 같습니다.</p> <p>3. 그 자리에서 머리로 암산해서 대충 7문제의 답을 교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답이 조금 엇나가면 풀이과정을 묻고는 하는데 KAIST는 그런 것 없이 답이 틀린 것 같으니 혼자 알아서 다시 풀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돼서야 연필과 연습장을 이용해서 풀어보라고 하였고 대신 연습장의 내용은 교수님께 보여주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p> <p>4. 혼자 푸는 동안 교수님들은 아무 말도 안하시고 조용히 계시고, 풀어서 답을 말해서 맞추면 다음 문제를 다시 풀어보라고 하시고 못 맞추면 못 맞췄다고 말 해 주시며 다시 혼자 풀어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20분이 지나고 서류기반 면접 준비를 하러 들어갔습니다.</p> <p>5. 서류 기반 면접도 다른 대학과 달리 제시문이 주어집니다. 대신 제시문이 수학, 과학 관련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 일어날 수 있는 갈등상황을 던져주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생각해내라는 등의 제시문입니다.</p>				

6. 15분 동안 준비를 하고 면접실에 들어가면 다른 2명의 교수님이 앉아계십니다. 먼저 제시문을 어떻게 해결해나갔는지 물어보셨고(한 7~8분 정도 답변한 것 같습니다.) 그 후 생기부, 자소서에 있는 내용을 물어보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KAIST에 와서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 ‘생기부에는 1, 2학년 때 공학관련 기업 경영인이 꿈이었다가 3학년이 되어서 항공엔지니어로 바뀌었는데 그 계기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할 말은 무엇인가?’ 총 3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특이사항

제시문 기반 면접에서는 풀이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답을 면접 준비시간에 알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저도 정답만을 말해서 맞추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가에 대한 질문은 전혀 하지 않으셨고, 제가 풀이과정을 말하려고 하면 시간이 아까우니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교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서류기반 면접은 제시문이 있다는 점 말고는 다른 대학교 면접과 유사합니다. 제시문의 문제는 인성, 갈등 해결 등을 주제로 하기 때문에 정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자신의 생각을 떠올리고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할 알맞은 근거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 학 명	계 열	모 집 단 위(학 과)	전 형(세 부 전 형)	등 급
한국교원대학교		체 육 교 육 과	학생부종합 (학생부종합우수자 일반전형)	
면접유형	면접 방식			
제시문 기반 면접	면접시간	10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절차	○ 대기실 입실 ○ 면접 응시표를 꼭 지참 (1단계 합격자 조회 홈페이지를 통해 뽑을 수 있음) ○ 대기하다가 감독관님이 부르면 답변 준비실로 들어감 (10분 동안 메모지에 생각 정리, 시험지에는 손도 대면 안 됨) ○ 준비한 메모지를 바탕으로 면접실로 들어가서 3인의 면접관님(교수님)과 면접 후 귀가		
면접 내용				
[제시문 내용: 시대에 따른 교육의 내용 변화]				
Q1. 지원자는 교육의 내용이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교육의 본질 측면에서 바뀌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입장을 한 가지만 골라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하시오.				
A. 저는 시대에 맞추어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의 기능을 통해 찾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교육의 기능이란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시대가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고 개인적 측면에서 보면 자아실현의 수단입니다.				
먼저 사회적 측면을 들여다보면, 산업화 시대에는 공장직에서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하는 인재를 기르기 위해 주입식 교육이 중요했다면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를 잘 이해하고 다루며 개성을 바탕으로 생각하는 방식을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처럼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재상은 바뀌기 때문에 그러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의 내용도 당연히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개인적 측면을 들여다보면, 교육이란 개인이 사회인으로서 잘 적응하고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수단입니다. 사회는 변화하고 있고 그에 따라 요구되는 인재상도 달라집니다. 사회는 그 시대에 맞는 인재를 공급받아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되며 개인은 교육을 통해 그러한 인재가 되어 물질적, 정신적 목표를 달성하기 쉬워지기 때문에 교육의 개인적 측면에서의 기능에서 바라보면 이 또한 교육이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Q2. 앞서 답변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어떤 교육이 되어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A.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을 보면 산업화 시대에는 공장장이 지시하는 단순 반복 노동의 목표를 잘 수행하는 인재가 최고로 여겨졌기에 교육 또한 교사가 일방적으로 지도하는 교과 내용 등을 잘 흡수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평균적으로 갖춘, 비슷한 인재들을 길러내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 혁명 등 변화의 시대 속에서는 작은 개성이 혁신의 시발점이 되고 개개인의 개성 등을 기록하고 그에 맞춘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빅데이터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개개인의 자율성, 개성을 중시하는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며 개성이 발휘될 수 있는 교육환경이란 생각하는 방식을 배우고 이를 토론, 토의, 각종 인출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4차 산업 혁명의 흐름에 맞추어 현재 중시해야 하는 교육은 스스로 생각하는 습관, 방식을 기르는 교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변화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성 교육의 내용은 일관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인성교육이 교육 내용과 잘 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4. 그렇다면 ‘생각하는 체육 교육’은 무엇입니까?

A. 우선 저는 고1 초반까지 학생 축구선수로 활동하면서 스포츠 경기가 지닌 교육적 의의가 무엇일지에 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급박한 상황 속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내리며 경기 속에서 닥친 위기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주관을 가지고 생각하는 능력, 자립심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러한 장점이 극대화된 ‘생각하는 체육 교육’은 학생 스스로 활동에 참여하고 그 속에서 스스로 피드백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교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Q5. 그렇다면 체육 교사로서 어떻게 이를 실현할 것인가요?

A. 저는 위와 같은 교육을 실현할 방안을 수업 진행 측면, 교사의 태도로 나누어 생각했습니다. 수업 진행 측면에서는 경쟁자, 동료들과 함께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을 대비하는 경기형 수업을 좀 더 진행해 볼 것을 생각했습니다. 더불어 교사는 인내심을 가지고 학생이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충분히 주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수업 방식, 교사 태도를 갖추어 향후 수업을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Q6. 축구를 했다고 했죠. 그럼 본인이 학생 축구선수를 지도하는 선생님인데 경기 중에 크게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도 개입하지 않을 것인가요?

A. 지도자의 개입이 언제 이루어져야 할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경기 중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선수가 책임을 져야 하고 지도자는 최대한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수들의 움직임을 녹화한 영상, 지도자의 기록들로 경기가 끝난 후에 객관적인

지침을 내려주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자가 계속해서 선수의 결정에 개입한다면 선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으며 이것이 누적된다면 선수의 타율적인 참여가 초래될 수 있고 이는 지도자가 원하는 교육적 목표를 선수가 납득한 상태에서 받아들이는 문화가 아니라 그저 지시에 응하는 ‘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Q7. 마지막 할 말을 하면 끝날 것 같은데, 해보세요.

A.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부모님, 친구, 선후배, 선생님들과 더불어 제가 목표의식을 갖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교원대학교 체육교육과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이사항

제시문이 어렵지는 않았다. 교직 인성, 적성을 다룬 문항이라서 평소 교육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다면 생각이 마구 샘솟았을 것 같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메모한 종이를 들고 발표하는 것이기에 메모하면서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더불어 자신이 지원한 과와 연계해서 답변하도록 하는 질문도 오니 그것도 대비하면 좋겠다.(이 부분 놓쳐 처음에는 당황했음) 그리고 자신 있게 마지막 말까지 하는 모습에 교수님들께서도 웃으셨다.(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다.) 결과는 모르지만 이왕 하는 거 자신 있게 마치고 나오면 좋을 것 같다.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형(세부전형)	등급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학생부종합 (교직인성우수자 전형)	
면접유형	면접 방식			
제시문 기반 면접	면접시간	10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절차	○ 8시 40분부터 9시 10까지 입실 (전달 사항 및 신분증 확인 약 10분, 학습 가능한 분위기) ○ 복도에서 7분 숙고 ○ 본인 차례에 면접실로 이동 ○ 10분 면접		
면접 내용				
<p>* 제시문은 2장으로 구성됨. 왼쪽에 교직교양, 오른쪽에 교직적인성 문제를 놓고 복도에서 7분 동안 구상을 할 수 있음. 교직교양과 교직적인성 각각에 문제가 2개씩, 그래서 총 4문제를 7분 내에 숙고해야 하는 거라 시간이 매우 부족함!</p> <p>* 숙고할 때 필기구 사용 가능하고 자신이 메모한 종이만 들고 면접장으로 들어갈 수 있음. 하지만 면접장 들어가면 책상에 제시문이 놓여져 있으니 걱정 안 해도 됨!</p>				
<p>Q1. 읽으시면 됩니다. 교직교양부터 설명해보세요.</p> <p>A. (그림이 제시되어 있었음. “For a fair selection everybody has to take the same exam : please climb that tree.”라며 한 아저씨가 말하고 계셨음. 그 앞에 새, 원숭이, 펭귄, 코끼리, 물고기, 물개, 강아지가 일렬로 서 있는 그림이었음)</p> <p>(1번 - 위 그림의 상황을 설명하고 어떤 점이 문제인지 설명)</p> <p>(2번 - 문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남)</p>				
<p>교직교양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는 각자 다른 동물들이 큰 나무를 오르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원숭이도 있고, 코끼리, 물고기 등 여러 동물이 동일하게 나무 오르기를 요청 받았습니다. 저는 이 그림이 ‘공정’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리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을 ‘기회의 평등’, 즉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 위 상황은 모두에게 공정한 상황일 것입니다. 하지만 공정을 ‘결과의 평등’으로 고려한다면, 위 상황은 불공정한 상황이 됩니다. 물 밖을 나가서는 목숨을 잃는 물고기의 입장과 나무 타는 것을 잘 하는 원숭이의 입장만 대조해 보더라도 결과가 불공정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만약 그림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 못한 사회라는 인식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를 중시하며 실질적 평등 의식을 강조하는 요즘 사회에서는 특히 불공정 사회가 가져올 파동이 큼니다. 저는 같은 복지를 받더라도 생계의 격차가 여전히 크다면 이는 롤스가 말하는 재산소유 민주주의에도 어긋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p>				

Q2. 좀 더 설명해줄래요?

A. 네. 롤스의 재산소유민주주의는 경제적으로 같은 출발선에서 복지를 제공하자는 공리주의식의 개념이 아닙니다. 다른 출발선에 존재하는 사람들에게는 보다 다른 복지를 제공해 출발선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롤스의 재산소유민주주의와 이 그림이 부합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Q3. 그럼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 같나요?

A. 이 그림에서 출발선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는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의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이 공정을 위한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원숭이는 나무 오르기, 물고기는 몇 미터 헤엄치기, 코끼리는 나무 몇 데시벨로 흔들기 등을 적용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의 시험을 제공해주는 것이 공정할 것입니다.

Q4. 교직적인성도 설명해보세요.

A. (가): 뒤르겐의 책에서 발췌한 지문 같았음. 교사의 역할이 사회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내용의 지문이었음

(나): 교사의 정치적 편향과 관련된 지문이었음

1번- (가)를 읽고 교사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

2번- (나)에 나타난 상황 극복하려면?

저는 (가)를 읽고 교사의 도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뒤르겐의 말대로라면 교사는 그 위치에서의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고 그만큼 영향력이 큼니다. 실제로 초등학교에서 교사의 행동을 쉽게 배우고 따라한다는 점에서 초등학교 교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그만큼 교사의 도덕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스스로가 올바른 행동을 하고, 윤리의식에 맞게끔 행동하도록 성찰하여야 합니다. 인성 교육에 초점을 두는 요즘, 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초등교사의 도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5. 2번도 답변해보세요.

A. (나)에서는 정치적 편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현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정치적 편향을 학생들에게 주입했다는 이유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가)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사는 학생들에게 큰 파급력을 주는 사람입니다. 만약 학생들에게 정치적 편향된 지식을 주입한다면, 이는 학생들의 사고의 자유를 제한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는 정치적 편향을 주입하지는 않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Q6. 그런데, 보통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고를 갖고 있다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편향되었다고 인식하지 않을텐데?

A. 물론 개인의 사상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상을 계속 고집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상이 편향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누구에게나 힘든 과정입니다. 하지만 저는 교사의 막중한 책임감을 고려해 본다면, 교사 스스로 편향된 정치 의식을 갖고 있지 않는지 성찰해 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가 성찰할 때 문제점이 보이지 않는다면 다른 교사들과 협력하여 의견과 입장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로 대화와 토론의 장을 형성해 다양한 의견을 인정하는 것을 교사가 먼저 배운다면, 이는 교사의 편향된 정치관 주입을 막고, 교사들의 민주주의를 학생들이 직접 수월하게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Q7. 제시문에 관련해서만 더 할 말 있어요?

A. 네. 교직교양 1번 문제점에 대해서 밀의 의견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손실이….

(시간 다 되었다는 종 울림. 도우미 언니가 문 열고 나오라고 했음. 인사하고 나옴)

특이사항

작년 기출들을 보았을 때, 그래프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분석을 하는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올해 역시 그래프 분석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분석 능력보다는 창의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당부하자면, 시간 분배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타이머를 볼 시간도 없을 뿐더러 볼 수 없었습니다. 저의 경우 7분이 끝났을 때의 통보만 받았는데, 교직교양 생각하니 주어진 시간이 훌쩍 지나가서 교직적인성 지문을 빠르게 훑고 가야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서울교대 면접의 경우 제시문에서 묻는 유형이 획일화되지 않고 매년 색다르니까 평가요소 항목마다 주안점을 두고 그에 맞는 다양한 제시문들을 연습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찾아보기

<ㄱ>

간호대학(서울대학교)	221
간호학과(공주대학교)	101
간호학과(목포대학교)	81
간호학과(순천대학교)	89
간호학과(원광대학교)	94
간호학과(전남대학교)	69, 71
간호학과(조선대학교)	80
건설환경공학부(서울대학교)	157
건축공학과(목포대학교)	85
건축사회환경공학과(고려대학교)	41, 265
건축학과(고려대학교)	45
건축학과(서울대학교)	224
경영대학(서울대학교)	159
경영학과(성신여자대학교)	53
경제학과(고려대학교)	39
경제학부(서울대학교)	162
경제학부(서울시립대학교)	50
경찰행정학과(경기대학교)	28
경찰행정학부(동국대학교)	49
관광이벤트학과(경기대학교)	27
국어교육과(공주대학교)	98
기계공학과(고려대학교)	42
기계공학과(인하대학교)	64
기계항공공학부(건국대학교)	24
기계항공공학부(서울대학교)	165
기초교육과학부(광주과학기술원)	148

<ㄴ>

농경제사회학부(서울대학교)	167, 228
----------------------	----------

<ㄷ>

디자인학부(서울대학교)	170
--------------------	-----

<ㄹ>

물리천문학부 물리학전공(서울대학교)	174
물리학과(경희대학교)	30
미래사회공학부(목포대학교)	87

<ㅁ>

바이오공학과(차의과학대학교)	104
바이오시스템 · 소재학부(서울대학교)	231
바이오식품공학과(성신여자대학교)	52
바이오의공학부(고려대학교)	35, 268, 272

<ㅂ>

사학과(고려대학교)	46
사회교육과(서울대학교)	175
사회학과(서울대학교)	178
산림과학부(서울대학교)	234
생명공학과(연세대학교)	59, 283
생명공학부(고려대학교)	275
생명과학기술학부(연세대학교)	62
생명과학부(고려대학교)	276
생명과학부(서울대학교)	180, 237
생물교육과(서울대학교)	239
소프트웨어융합공학과(군산대학교)	92
수학교육과(서울대학교)	241
식물생산과학부(서울대학교)	181, 243
식품영양과학부(전남대학교)	72
식품영양학과(서울대학교)	183
심리학과(서울대학교)	185
심리학과(연세대학교)	286

<ㅇ>

역사교육과(서울대학교)	187, 246
역사교육과(이화여자대학교)	63
역사교육과(전남대학교)	76
영어교육과(공주대학교)	99
영어교육과(서울대학교)	190
예술심리치료학과(전주대학교)	96
우주항공공학부(서울대학교)	248
원예생명공학과(전남대학교)	73
융합과학공학부ISE(연세대학교)	287
융합소프트웨어학과(목포대학교)	84
응용생물화학부(서울대학교)	192, 249
의예과(서울대학교)	195
의예과(원광대학교)	112
의예과(전남대학교)	105
의예과(제주대학교)	108
의예과(조선대학교)	110
의용생체공학과(가천대학교)	17, 20
이공계열(울산과학기술원)	152
인도어과(한국외국어대학교)	65
인류학과(서울대학교)	200
인문계열(서울대학교)	202, 252
일반사회교육과(공주대학교)	97
일반사회교육과(순천대학교)	88

<ㅈ>

자유전공학부(고려대학교)	278
자유전공학부(서울대학교)	205, 254
전기·정보공학부(서울대학교)	255
전기공학과(가천대학교)	22
전기공학과(인천대학교)	103
전기공학과(전남대학교)	74
전기공학부(송실대학교)	55
전기전자공학과(건국대학교)	25
전기전자공학부(고려대학교)	43
전자전기공학부(동국대학교)	48

정치외교학부(서울대학교)	206, 257
조선해양공학과(서울대학교)	210, 261
지구과학교육과(전남대학교)	78
지리교육과(서울대학교)	212

<ㅊ>

체육교육과(서울대학교)	214
체육교육과(한국교원대학교)	291
초등교육과(경인교육대학교)	116, 119, 120
초등교육과(공주교육대학교)	122
초등교육과(광주교육대학교) ..	124, 127, 130, 132
초등교육과(서울교육대학교)	294
초등교육과(전주교육대학교)	134, 136
초등교육과(춘천교육대학교)	138, 141
축산식품공학과(건국대학교)	23
치의학과(서울대학교)	216

<ㅋ>

컴퓨터공학부(서울대학교)	217
---------------------	-----

<ㅌ>

통계학과(고려대학교)	280
통계학과(서울대학교)	262

<ㅎ>

한의예과(원광대학교)	115
행정학과(고려대학교)	34
행정학과(연세대학교)	288
행정학과(전주대학교)	95
화학공학과(광운대학교)	31
화학공학과(송실대학교)	56
화학공학부(전남대학교)	75
화학과(목포대학교)	86
화학교육과(전남대학교)	79
화학생물공학부(서울대학교)	219, 264
환경공학과(군산대학교)	93
환경공학과(전북대학교)	90

2021. 대입 가이드북

면 접

- 인 쇄 : 2020. 6.
- 발 행 : 2020. 6.
- 발행처 : 전라남도교육청